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862-01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12.

책 임 연 구 원 :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원 :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영 애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놀이치료학과 부교수)
정 선 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 은 선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아동심리치료전공 박사)
연 구 보 조 원 이 서 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놀이치료전공 석사)
조 영 실 (경기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1. 연구배경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20년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는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아동을 위협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각종의 조치는 아동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정부와 교육당국, 관련단체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았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과 건강한 발달이 미치는 영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음.
- 외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휴교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은 아동인권 보호(예: 최선의 발달, 성장 조건의 제공)였음.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예측되기 때문에 세계 기구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삶에 대한 실태보고들이 있지만, 아동 삶의 직면한 실제적인 어려움과 한계에 대한 실태는 확인된 바가 거의 없음. 위기상황의 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삶은 무엇이며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양상을 실제적·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과정 및 조치의 결과가 아동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삶의 실태를 질적 분석을 통해 심층 파악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의 대응체계와 정책의 아동인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 각 분야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 분석
-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코로나19의 대응체계와 정책 사례 분석

-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침해되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 질적 분석
- 코로나19 및 유사 재난 상황 발생 시 종합적 아동인권에 기반 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안

□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관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관련 정책자료 및 통계 수집, 그리고 실태 확인을 위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음.

2. 국내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체계의 아동인권에 대한 영향

□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배경 특성: 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 코로나19 발생과 생활 실태

-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감염병 중에서도 매우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음.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전 세계 220여 개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2021년 11월초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4천8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코로나19 아동 감염자수는 현재 총 57,709명이며 아직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음(2021.11.05. 기준).
-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결식 비율은 과거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시간이 증가하였음. 학교와 돌봄기관의 휴업으로 아동 돌봄의 공백이 커졌으며, 코로나19 이후 성인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났음.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에 우울, 불안, 공격성,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더 늘었음. 아동학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훨씬 더 늘고 있음. 학생들의 수업권은 온라인 개학을 통해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나 가정의 경제 상황, 학습 상황 차이로 인한 학습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아동생활시설은 휴교·휴원 기간 동안 식자재와 생필품 구매 부담이 증가하였고, 방역물품 공급이 어려워졌음. 공간이 협소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어려워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소년보호기관에서는 방역을 위한 공간적인 제약, 직원의 업무 과중, 상황별 매뉴얼의 미비, 부처 간의 협력 부재 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관련 아동·가족의 삶의 변화 시사점

- ① 아동돌봄체계의 재구조화의 필요성 증대, ② 아동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 ③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④ 학대와 방임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⑤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

□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 정책 분석

- 정부는 2020년 8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확정·발표하였음(관계부처 합동, 2020). 가정 양육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모성보호 사각지대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보호와 돌봄시설 내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과 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시설면적기준과 종사자 및 아동 비율을 개선하는 안을 계획하였음.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 아동영향평가에서는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대응 지침을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분석틀(① 아동 제반 권리와 관계-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② 무차별, ③ 아동최선의 이익, ④ 당사자 의견수렴, ⑤ 홍보, ⑥ 타 법규 및 조례와의 관계, ⑦ 사후평가 필요성, ⑧ 개선방안)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 체계 분석

- **아동권리보장원** : 더 적극적이고 현장중심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 구성하였음. ① 위기상황 시 구체적인 현장 수요 파악으로 현실성 있는 대응 추진, ②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침에 따라 경보단계별 대응 가이드 마련 지원, ③ 아동복지현장 비상 상황과 아동 대상군에 따른 대응 가이드 마련 지원, ④ 유엔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별, 아동 욕구 지원 대응방안 추진함.
- **교육 분야** : 교육부에서는 2020년에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설치함.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기 4차례 개학 연기 및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으며, 2020년 5월 이후에는 등교를 병행하도록 추진하였음. 그밖에 ‘심리지원단’

등 심리방역 강화, 모바일데이터 무상지원 등을 통한 디지털 격차 최소화,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망 구축, 학교 내 방역물품 지원을 제공하였음.

- **여성가족부** : 코로나19 위기와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과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음. 개별 가족의 여건에 따라 자녀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안심 보증제를 도입과 코로나로 인한 가족문제에 대한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였음.
- **고용노동부** : 2020년 9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연장하는 등 가족돌봄휴가제를 개선함(한부모가족의 경우 15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1년도 추경에 420억 원을 반영함.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19 감염아동 자가치료 안내서」를 발간하여 만 12세 이하 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보호자와 집에서 격리 상태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지침이 마련함.

□ 시사점

-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의 시사점

- 아동권리보장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행,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환류할 수 있게 돕고, 이 과정에서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고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함(아동권리보장원, 2020b).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결과의 시사점

- 보건복지부의 202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7-3판)」과 교육부의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제3판)」 지침서의 내용을 분석함.
- 분석 결과,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지침에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며,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또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대응/운영 지침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서비스와 정신건강 서비스의 내용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남.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 아동의 재난 및 트라우마 관련 심리·정서지원 및 정신건강지원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발달권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학습 실시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예: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있었음. 그러나 향후 온라인 수업 시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확대 등의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 무차별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아동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특정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외출·외박·면회 금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었음.
- 대응 지침들은 직접적으로 아동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감염예방 등의 안전과 신체건강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그 이외의 다른 측면들 특히 아동의 놀이가 제한받는 등 아동최선의 이익의 반영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아동인권기반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시사점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농산물급식꾸러미 등 아동의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식생활은 이전에 비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구축 및 배포 필요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동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아동의 발달권과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은 아동의 학습권과 발달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온라인 수업 실시 이후에 심해지고 있는 학력격차를 더욱 줄여나갈 대책이 필요함(강대중, 2020).
-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아동의 참여와 아동의 욕구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도 모든 아동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동일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하며, 감염병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도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3.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코로나19 아동인권 기반 대응

□ 국제기구의 코로나19 확산과 아동인권에 대한 우려

- UNICEF

- UNICEF가 우려하는 아동인권 침해 상황 : ① 더 많은 가구가 빈곤가구로 추락, ② 학습위기가 악화됨, ③ 아동의 생존과 건강 위협, ④ 취약한 아동의 영양 실조 위험 증가, 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음, ⑥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에이즈와의 전쟁 후퇴, ⑦ 폭력, 착취, 학대의 위험 증가
- UNICEF는 ‘부모를 위한 코로나19 지침(Coronavirus Guide for Parents)’이라는 별도의 섹션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 외에 아이들에게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104개국 1,700 명의 어린이, 부모, 돌봄제공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아 “당신은 나의 영웅(my hero is you)”라는 책을 제작하기도 하였음.

- UN 아동권리위원회

- 2020년 4월 8일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공공보건 정책을 실현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 발표함.

- ①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력을 신체건강,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놀이의 차원에서 살펴봐야 함.
- ② 아동이 휴식하고 놀 수 있는 권리와 문화적/예술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안을 고안해야 함.
- ③ 온라인학습이 현존하는 교육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교사-학생 상호작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④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⑤ 의료서비스, 식수, 위생 그리고 출생신고와 같이 아동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⑥ 가정방문과 같은 핵심적인 아동보호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도록 하고 락다운되어 있는 아동에게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⑦ 팬데믹으로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아동을 보호해야 함.
- ⑧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시설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⑨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지침을 어긴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해서는 안 됨. 이러한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어 있는 아동은 즉각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함.
- ⑩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는 장애아동, 이민자 아동, 인터넷 접근이 제한적인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아동친화적인 포맷으로 구성되어야 함.
- ⑪ 팬데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고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World Bank

- 대면학습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 빈곤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0%증가함. World Bank는 UNICEF, UNESCO, the World FOOD Program과 함께 학교 재개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음(2021년 5월 27일 World Bank Blog). ① 보건과 안전(학교 재개 시점, 교내 질병전염 최소화 가능여부), ② 학교교육(교육 일정 재조정 방안, 학생·교사 욕구 반영한 교과과정 수정방안, 취약한 학생의 학교 재등록을 높일 수 있는 책략, 각 국가의 교사 준비 및 지원 방법, 가정학습 지원 방안, 학습평가와 시험에 대한 각국의 대처). ③ 학교운영(국가차원에서 학교운영자 준비 및 지원, 학교관련자와 의사소통 시 도움이 되는 책략).

□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대응 체계 현황 및 분석

- 미국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아동의 연령, 가정 밖에서 돌봐줄 수 있는 돌봄제공자 여부에 따라 아동돌봄을 나누어 설명함. 질병예방 외에 신체활동 수준 유지, 사회적 연결을 위한 방법, 자녀의 스트레스 해결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팬더믹에서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7가지를 제안함. 또한, ‘학교는 가장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하는 기관’임을 명시하며 아동기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
- **교육부** : 지난 3월 주 교육부 및 교육구에 할당된 1,220억 US달러(한화 약 138조 1,650억 원) 규모의 구호기금 중 810억 US달러(한화 약 91조 7,325억 원)를 배부하였음.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지원받는 주는 기금의 일정 부분을 학생의 학습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해야 함.
- **보건복지부** : 홈페이지의 메인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정보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치료를 소개하고 있음.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를 통해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율과 속도를 높이는 Rapid Acceleration of Diagnostics - Underserved Populations (RADx-UP)를 진행하고 있음.

- 영국

- **정부 통합 사이트 ‘Coronavirus (COVID-19)’** : 코로나19 관련 모든 지침을 ①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② 해외여행, ③ 백신, ④ 자영업과 사업, ⑤ 직장지원, ⑥ 학교·대학·교육·아동돌봄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여기에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을 위한 4단계 로드맵에 대한 안내와 아동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교육부** :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 4단계에 진입하면서 교육·보육기관의 재개와 코로나19 아동감염자의 증상(증상이 없거나 아주 약한 증상) 등 부모, 돌봄제공자가 보육시설, 학교, 대학교육에 대해 숙지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함.
- 영국의 Children's Commissioners는 2020년 12월 UN아동권리위원회에 쟁점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함. 보고서에 포함된 항목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에는 ① 부족한 아동보호로 인해 아동은 차별을 경험, ② 장애아동을 지원할 자원이 부족, ③ 아동빈곤과 복지개혁이 있음.

- 뉴질랜드

- 2020년 초반 몇 달간의 락다운을 경험하였으며, 현재까지 2764명이 확진되어 전체 인구(491.7만) 중 0.06%의 확진율을 보임. 2020년 1월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건조정센터(NHCC)를 설립하였음.
- **Unite against COVID-19** :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관련 기사와 정보를 담고 있는 종합정보 홈페이지로 30개 이상 언어로 정보가 번역되어 있으며 큰 글씨, 쉬운 버전(easy read), 수어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교육부** :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 가족, 교육영역에 대한 정보와 안내와 각 재난경보 단계에 따라 교육 관련 상황에서의 지침을 제시함. 각 경보단계에 따라 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질병이 통제되지 않는 4단계에서도 모든 학교시설은 폐쇄되지만 원거리 학습은 제공됨을 명시함.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최근 정보와 장애인, 고위험군, 임산부, 여행자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음.
- **민간조직인 KidsHealth** : 뉴질랜드 소아청소년과학회(The Paediatric Society of New Zealand)와 Starship Foundation이 설립한 조직으로 보건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아동에게 코로나19에 대해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비디오와 이야기 책 등이 소개되어 있음.
- **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는 2020년 3월 1일 UN아동권리위원회에 쟁점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2020년 6월 15일 코로나19 대응정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국가적 락다운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를 반영한 코로나19 대응,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과 현재의 우려점, 아동 시선으로 긍정적 재구축 기회 등 포함).

- 일본

-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PCR검사(감염여부파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또한 격리 등에 강제성이 없었고, 특정조건(3밀: 밀접, 밀집, 밀폐)을 유의하는 클러스터대책을 취하며 방역과 경제를 양립해 나갔다는 특징이 있음.
- **교육 및 보육** : 2020년 2월 말 전국 학교가 일제히 휴교하였으며 6월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하였음. 원격으로 학생의 건강을 관찰하고 학습 성과를 확인하며 그룹웨어를 이용하여 가정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으나, 교사의 ICT 기반 교수 준비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의료직 등 사회적 요청이 강한 직업 등에 종사하는 부모의 영유아에게 방문형 일시 보육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아동보호정책** : 아동 보호 및 학대를 일차적으로 다루는 기관인 '아동 상담소'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대응 건수는 2002년 이후 18년 연속 증가하였음.

□ 아동인권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스코틀랜드

- UN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에 대한 보고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였고, 아동권리단체, 아동 및 젊은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권리와웰빙영향평가(CRWIA)를 발표함. 스코틀랜드의 아동권리동맹은 UN아동권리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성명서의 11항목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및 보고서를 총망라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아동 및 청소년 의회와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을 반영함. 어린 양육자(young carer)를 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다양한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 스웨덴

- 2020년 1월 1일 이후 UNCRC를 국내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UNCRC에서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보육시설부터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함.
- 고등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권이 침해된 경향이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및 보건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있었음.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일부 영역에서는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모든 영역, 모든 수준에서(예: 국가, 권역, 지역)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음.

- 미국

-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 아동의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류해서 제시할 정도로 대응방안이 구체적임. 학교는 아동의 학습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각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확진률 및 사망률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

- 영국

-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을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설계한 후 2021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사회적 제약을 해제함. 7월 19일 이후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쟁점질의목록 채택을 위해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연령에 대한 불일치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응 시 일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 정책의 점점이 연기되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을 치르는 대신 내신 성적에 기초한 교사평가로 대체하였음.

- 뉴질랜드

- 코로나19 관련 기사와 정보를 담은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30개 이상 언어로 장애, 연령, 비영어권 시민을 위한 다양한 버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아동돌봄 이슈를 개별 가정이 해결하기 보다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예: 학교는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열어야 함).
-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해서 반영하는 노력은 부족했으며 이후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할 때에도 아동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일본

- 재난상황을 대비해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상담하는 '가정방문'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필수업종에 재직하는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보육원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로 인해 사각지대의 아동학대가 아동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음. 학교의 ICT 기술 도입 수준과 학교장 및 교사의 ICT 기술 수용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음.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은 공립학교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시사점

- UN아동권리위원회의 2020년 4월 성명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 필요성
 -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2020년 4월 성명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아동인권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성명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제안함.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과 관련된 성명서, 보고서, 연구 및 통계자료의 관문(gateway) 마련
 - 우리나라는 현재 진행된 보고서, 연구 및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 UN 아동권리위원회 성명서의 11개 조항에 나누어 결과물을 정리하고 함의를 분석하여 추후 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동 발달권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 재정립
 - 우리나라의 아동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의 대응은 적극성이 부족하거나 학교 외부기관 활용에 주력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임(예: 사기업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활용).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재난 상황에서 학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4.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 실태에 대한 질적 분석

□ 연구 목적 및 방법

-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그 의미를 파악 하고자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러한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사하기에 적절한 질적 연구방법(Creswell, 2009)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음.

□ 연구 절차

- 연구참여자

- 연구 참여자 그룹은 코로나19와 아동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아동 당사자들, 부모, 아동 돌봄 기관 종사자, 교사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총 14집단으로 구성하였고 각 집단 별 참여인원은 4~7명이었음. 최종 참여자는 연구자들의 논의 및 합의를 거쳐 총 61명을 선정하였음.

- FGI 질문지 구성 및 진행

-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과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예비 항목을 추출한 결과 ①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변화, ② 코로나19로 아동이 경험한 어려움, ③ 이에 대한 대책, ④ 코로나19 관련 정책, ⑤ 확진자에 대한 태도 등이 추출되었음. 총 3회에 걸친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한 후 최종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총 6인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음.
- 각 그룹 별 인터뷰는 2021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본 연구 참여진 5명과 그 외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생 2명이 각 집단의 진행을 맡아 비대면 화상회의로 1시간 30분 - 2시간가량 진행하였음.

□ 자료분석

- ① 전사 자료(FGI)를 기반으로 키워드(주요 주제어) 분석을 진행함. ②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함. ③ 본 연구에서는 61명의 연구 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을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 FGI 자료의 키워드(주요 주제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 그룹별 주요 주제어 빈도기반 분석 순위표를 살펴보면, 그룹별 동일한 순위에 같은 주제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주제어 ‘부모’, ‘학교’, ‘가정’, ‘선생님’은 그룹에 따라 순위 차이는 있으나 모든 참여 그룹에 포함되어 있음. 해당 주제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으므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어임을 알 수 있음.
- 그룹별 빈도기반 분석과 아이젠벡터 중심성 분석 결과의 주제어 순위에는 차이가 있음. 주요 주제어 빈도 기반 분석은 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많이 이야기 했느냐를 살펴볼 수 있고 아이젠벡터 중심성 순위는 그 경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임. 그러므로 그룹 참여자에 따라 어떤 주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는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룹별 주요 주제어 빈도기반 분석 순위표 〉

대상 순위	아동	부모	교사	관계자	행정가
1	친구	아이	아이	아동	아동
2	학교	부모	학교	복지시설	학교
3	시간	가정	선생님	가정	정책
4	부모	학교	부모	부모	가정
5	온라인클래스	시간	수업	선생님	인권
6	수업	친구	친구	기관	학생
7	가정	학년	가정	학교	부모
8	마스크	선생님	시간	교육	교육
9	학년	수업	학년	지원	선생님
10	선생님	학원	마스크	센터	복지시설

〈 그룹별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표 〉

대상 순위	아동	부모	교사	관계자	행정가
1	학교	학교	수업	아동	아동
2	친구	학년	원격	복지시설	인권
3	학년	아이	온라인클래스	지역	보호
4	수업	수업	아이	센터	학생
5	온라인클래스	친구	학교	양육	가정
6	시간	선생님	부모	부모	교육
7	선생님	확진	시간	보호	지역
8	마스크	가정	선생님	장애	권리
9	중학교	부모	등교	가정	복지시설
10	부모	급식	줄	치료	소외

- FGI 자료의 내용 분석

- 아동의 목소리 듣기 : 연구 참여 아동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한 영역이 바로 교육영역이었음. 전체적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해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적응도가 낮았고, 고등학생들은 높게 나타났음. 반면, 등교에 대해서는 초, 중, 고등학생 모두 등교하지 않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보고하였음. 그 밖에 아동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아동의 목소리

- 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 ② 학교에 가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 ③ 친한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기는 힘들었어요
- ④ 선생님과 엄마에게 혼이 났어요
- ⑤ 가족들과는 친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 ⑥ 집에 있으니 살짝 귀찮고 너무 대충하게 돼요
- ⑦ 건강(신체·정신)도 나빠지고 마음도 피폐해졌어요
- ⑧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뉴스에서 나오는 말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돼요
- ⑨ 마스크 지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었던 급식 바우처가 좋았어요
- ⑩ (초등) 관리강화 vs (중등) 교육강화 vs (고등)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정책

- 양육모의 자신에 대한 목소리 듣기 :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등의 요보호 가정의 모 5명과 일반 외벌이 및 맞벌이 가정의 모 각 5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실시함. 요보호가정과 일반 가정에서 받은 지원에는 종류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평가에는 대부분 공통점이 많았음. 마스크, 현금이 가장 도움이 되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도시락 지급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음.
- 교사 자신에 대한 목소리 듣기 :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집단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의 변화 및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음. 교사들의 인식에 따르면 학습권 침해가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의 연령과 관계가 많았음. 더불어, 학습지도 뿐 아니라 방역까지 감당하느라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점에서 교사들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으며, 전체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반면, 교사들은 위기관련 대응 정책에 도움을 받았고, 학생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 **이용시설 종사자의 목소리 듣기** : 가정과 학교에서 협조와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평가 등으로 혼동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무엇보다 재난발생 시에 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생활시설 종사자의 목소리 듣기** : 이미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식사를 할 때에도 가림막을 설치하라는 등의 일괄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과 종사자들이 백신접종의 우선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 등은 생활 시설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이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음. 반면, 지자체 차원에서 소독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준 것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음.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인력 및 시설지원의 필요성과 정책·지침을 따르는 구체안 제시 등을 제안하였음.
- **행정부의 목소리 듣기** : 행정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 ① 생존권 보장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② 방역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계속 침해당함, ③ 현실 반영 정책 실시가 어려웠음, ④ 보육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⑤ 청소년 돌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함.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환경조정과 상시 실태조사의 필요성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음.

- 목소리 모아서 비교고찰하기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아동 자신, 아동을 둘러싼 1차 보호체계인 양육모, 2차 보호체계인 교사, 3차 보호체계인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그리고 4차 보호체계인 행정가들의 목소리를 각각 살펴보았음. 특히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은 생존권 중심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 아동의 인권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음. 또한, Top-Down식의 정책으로 인해 개별적인 상황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였음.
-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얼마나 아동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었고, 이를 아동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각 체계의 목소리들을 비교 고찰해보았음.
- 본 연구 결과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중 하나인 기본심리 욕구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을 기반으로 한 정책모델을 제안하였음.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율성(autonomy), 관계성(relatedness), 유능성(competence)의 세 가지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아

동의 삶에는 바로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좌절되었고, 이것은 아동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에, 앞으로 아동인권 관련 정책은 아동의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욕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5.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 기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 UN아동권리위원회의 코로나19 성명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평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코로나19 성명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아동인권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성명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제안함.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사항 - 정책과 시행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평가 요약

- ① 팬데믹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중심 대응을 실시함.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② 보편적인 대응조치가 많았음. 아동 및 가족의 개인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음.
- ③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전반의 생활변화와 영향에 대한 통계산출이 미진함.
- ④ 인력보강이 충분하지 않아 관련 기관 인력의 업무가 가중됨.
- ⑤ 개별 가족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지원이 부족하였음.
- ⑥ 코로나19에 대한 아동참여 기제가 취약했음(예: 코로나19 관련 아동용 정보).

□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의미와 원칙

-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원칙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사항 - 정책과 시행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평가 요약

- ① 재난 시 아동은 자기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어른들은 아동을 진지하게 대해 주고 민주적 대화와 의사결정에 아동을 참여시키고,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함.
- ② 재난 대응체계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함
- ③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아야 함.
- ④ 재난 대응은 아동이 사회적 자원 제공과 생산에 공헌하며, 비용과 부담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확고한 인식에 바탕 함.
- ⑤ 아동은 부모와 다른 어른들과 부합되지 않는 그들 나름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인식에 바탕 함.

- 재난 대응 조치 시 필수 검토사항

- 학교 교육 제한의 영향
- 학업평가의 위축에 따른 영향과 대체방안의 적절성
- 사회적 관계와 활동 범위 제한의 영향
- 영양과 건강공급 제한의 영향
-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관계 변화 추이 예측
-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위축정도와 이로 인한 영향
- 아동복지기관 내 아동이 삶의 변화와 영향
-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잠재적 영향과 우선적 고려, 그리고 보육 및 교육 조치
- 보호조치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지연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 빈곤이 야기하는 전반적인 아동인권 침해 가능성
-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망 확보와 기능 강화
- 가출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아동의 위험

□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 아동인권 기반 재난 대응 기본 환경 여건

- 재난 시에도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기능을 수행하는 주 책임기관이 있어야 하며, 재난 상황으로 인해 아동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계적으로 확인해야 함.
- 재난 상황에서 아동이 처한 상황을 아동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경로와 아동의 안정적인 영양(급식) 제공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
-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함. ① 위험해소(예: 교육유지를 위한 온라인 등 대체 보급), ② 일상유지(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이 마련), ③ 재난회복 대응(예: 등교 재개 전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 재난 시 대응 매뉴얼은 기관별로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기관의 협조와 연계도 명시되어야 함. 또한, 각 사회 부문이 원활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안도 마련되어 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배정 등도 고려되어야 함.

-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재난대응 방향

-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대응 : ① 가족역량 지원(예: 개별 가정방문 서비스), ② 지

역사회 재생 및 창조(예: 지역별 필요한 자원 지원), ③ 학교의 역량(예: 공교육 강화), ④ 집단생활 공간(예: 소년사범시설 고립지속화 개선)

- 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디지털 시민권 교육 및 역량 개발** : 코로나19를 통해 학교 기능과 운영이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디지털 역량을 획득하고 디지털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규범과 규율을 지킬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재난 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 ① 긴급돌봄의 원칙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음. ② 재난 시 자가 격리 등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아동의 학습과 발달의 실효적인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함.
- **재난 시 아동 관련 규정의 신속한 보완·개정 조치 근거 마련**
- **재난 연관 위기 아동의 발견과 ‘독성’ 양육위험 아동보호체계 구축** : 재난 시 개입 과정에서 아동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관련된 다양한 정보 수집 내용과 방식에 대한 훈련도 제공되어야 함.
- **아동복지와 교육 등 서비스 이용 아동 통계 플랫폼 구축** :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보호서비스 대상 아동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
- **아동과 가족의 건강 지원 체계 구축** : ① 의료서비스 추가 지원, ② 정신건강 지원
- **재난 물품 지원 뱅크 설치** : 선택 가능성이 있는 지원 서비스 제공
- **재난 복구 서비스 패키지 만들기** : 재난 이후 아동의 발달 회복을 위해서 재난 복구 패키지를 재난 상황에 따라 만들어 작동할 수 있어야 함.
- **진로 체험 및 진로 기회 차단 예방 조치, 그리고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대 유지** : 재난 시에도 안정적인 진로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공공부문과 관계 유지 방안이 계획되어야 함. ① ‘키스타트’ (가칭)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진로체험과 연계 ② ‘경력전달 프로그램의 확대: ’요람에서부터 직업체험 접근하기 (cradle-to-career approach) ③ 인터쉽 기회 확대

목 차

I. 연구 배경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1) 연구내용 및 범위	5
2) 연구방법	5
II. 국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체계의 아동인권에 대한 영향	7
1.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배경 특성: 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9
1) 코로나19 발생 현황	9
2) 코로나19로 인한 아동과 가족의 삶의 변화	10
3) 코로나19 관련 아동·가족의 삶의 변화 시사점	24
2.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 정책 분석	26
1)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I : 사회적 돌봄 제약 상황에서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 강화	28
2)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II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돌봄 체계 마련	31
3)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35
3.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체계 분석	50
1) 아동권리보장원의 대응	50
2)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57
3) 여성가족부의 코로나19 대응	61
4)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64
5)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65
4. 시사점	66
1)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의 시사점	66

2)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시사점	67
3)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시사점	70

III.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코로나19 아동인권 기반 대응 75

1. 국제기구의 코로나19 확산과 아동인권에 대한 우려	77
1) UNICEF	77
2) UN 아동권리위원회	80
3) World Bank의 휴교 및 학교 재개에 대한 지침	91
2.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대응체계 현황 및 분석	96
1) 미국	96
2) 영국	102
3) 뉴질랜드	107
4) 일본	114
3. 아동인권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분석	120
1) 스코틀랜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120
2)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121
3)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122
4) 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122
5)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123
6)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123
4. 시사점	124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2020년 4월 성명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 필요성	124
2)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과 관련된 성명서, 보고서, 연구 및 통계자료의 관문(gateway) 마련	125
3) 아동 발달권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 재정립	125

IV.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 실태에 대한 질적 분석 127

1. 연구 목적 및 방법	129
1) 연구 목적	129
2) 연구 방법	130
2. 연구 절차	131
1) 연구참여자 선정	131
2) FGI 질문지 구성	134
3) FGI 진행	140
3. 자료 분석	140
4. 분석 결과	141
1) FGI 자료의 키워드(주요 주제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141
2) 그룹별 키워드(주요 주제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순위표	154
3) 그룹별 네트워크 분석 주요 노드(단어) 비교 분석	155
4) FGI 자료의 내용분석	160
5. 시사점	236

V.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아동인권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39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코로나19 성명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241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11개 항목 성명서 내용에 따른 대응	242
2) 전반적 평가	249
2.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의미와 원칙	250
1)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원칙	251
2) 재난 대응 조치 시 필수 검토 사항	253
3.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254
1) 아동 재난 대응체계의 3개 차원	254
2) 아동인권 기반 재난 대응 기본 환경 여건	256

3) 아동을 둘러싼 환경 영역별 재난 대응 방향	267
4) 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79
VI. 결 론	291
참고문헌	297
부 록	305

표 목차

〈표 2-1〉 아동정책 수립 시 고려 필요사항	27
〈표 2-2〉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28
〈표 2-3〉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	32
〈표 2-4〉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37
〈표 2-5〉 생존권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업 지침내용	38
〈표 2-6〉 보호권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업 지침내용	40
〈표 2-7〉 발달권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업 지침내용	41
〈표 2-8〉 무차별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업 지침내용	44
〈표 2-9〉 무차별에 대한 평가기준과 2021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내용 ..	44
〈표 2-10〉 무차별에 대한 평가기준과 2021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 내용	45
〈표 2-11〉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업 지침내용	47
〈표 2-12〉 홍보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업 지침내용	49
〈표 2-13〉 아동권리보장원의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50
〈표 2-1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요구사항	51
〈표 2-15〉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	52
〈표 2-16〉 아동 보호권 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	53
〈표 2-17〉 아동 발달권 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	54
〈표 2-18〉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	55
〈표 2-19〉 코로나19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학교방역 모델	59
〈표 2-2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계적 돌봄 대응	60
〈표 2-21〉 여성가족부의 온라인 학습지원	62
〈표 2-22〉 아동 정신건강 관련 법률 내용	68
〈표 3-1〉 미국 교육부에서 제시한 단계적 예방의 핵심 개념	100
〈표 3-2〉 뉴질랜드의 경보단계	110
〈표 3-3〉 호주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시: 구체적인 시나리오 이용	111

〈표 4-1〉 연구참여자 정보	131
〈표 4-2〉 초등학생 질문지	134
〈표 4-3〉 청소년 질문지	135
〈표 4-4〉 부모 질문지	137
〈표 4-5〉 관계자 질문지	138
〈표 4-6〉 행정가 질문지	139
〈표 4-7〉 전처리 내용	142
〈표 4-8〉 아동 그룹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143
〈표 4-9〉 아동 그룹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144
〈표 4-10〉 부모 그룹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145
〈표 4-11〉 부모 그룹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146
〈표 4-12〉 교사 그룹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148
〈표 4-13〉 교사 그룹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149
〈표 4-14〉 관계자 그룹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150
〈표 4-15〉 관계자 그룹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151
〈표 4-16〉 행정가 그룹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152
〈표 4-17〉 행정가 그룹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153
〈표 4-18〉 그룹별 주요 주제어 빈도기반 분석 순위표	154
〈표 4-19〉 그룹별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표	155
〈표 4-20〉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162
〈표 4-21〉 학교를 가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166
〈표 4-22〉 친한 친구들과는 더 친해지고 새로운 친구들과는 사귀기 힘들었어요	168
〈표 4-23〉 선생님과 엄마에게 혼이 났어요	172
〈표 4-24〉 가족과는 친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173
〈표 4-25〉 집에 있으니 살짝 귀찮고 너무 대충하게 돼요	175
〈표 4-26〉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피폐해졌어요	178
〈표 4-27〉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뉴스에서 나오는 말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돼요	179

〈표 4-28〉 마스크 지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었던 급식 바우처가 좋았어요	182
〈표 4-29〉 아동들이 지각한 정책 평가 및 제안	183
〈표 4-30〉 요보호 가정 및 일반 가정 모의 목소리	185
〈표 4-31〉 요보호 가정과 일반 가정의 지원내용 비교	188
〈표 4-32〉 교사 자신에 대한 목소리	193
〈표 4-33〉 아동 발달 및 학업 지연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198
〈표 4-34〉 교육 현장에서 아동인권 관련 정책 평가 및 제안	199
〈표 4-35〉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 및 대처내용	201
〈표 4-36〉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정책 제안	203
〈표 4-37〉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면한 어려움	205
〈표 4-38〉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처	206
〈표 4-39〉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책 평가 및 제안	207
〈표 4-40〉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이 직면한 어려움	208
〈표 4-41〉 행정가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처	210
〈표 4-42〉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가들의 정책 제안	211

그림 목차

[그림 2-1] 결식이유 (2018 vs. 2021)	12
[그림 2-2]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놀이 실태조사	13
[그림 2-3]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아동이 보호자 등과 함께 보내는 시간	14
[그림 2-4]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힘들었던 것	16
[그림 2-5]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0점 - 10점 평가)	17
[그림 2-6] 코로나19 전후 아동의 심리정서, 주관적 건강 및 자살생각 비교	18
[그림 2-7] 2~4월 아동학대 신고건수 추이	19
[그림 2-8]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22
[그림 3-1] UNICEF에서 발간한 ‘당신은 나의 영웅’의 한국어판 중 일부	79
[그림 3-2]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2020년 3월 - 2021년 7월)	96
[그림 3-3]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2020년 3월 - 2021년 7월)	102
[그림 3-4] 영국의 로드맵	104
[그림 3-5] 뉴질랜드의 코로나19 확진자 (2020년 3월 - 2021년 7월)	107
[그림 3-6] 쉬운 버전의 예	108
[그림 3-7]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2020년 3월 - 2021년 8월)	114
[그림 3-8] 우리나라와 일본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추이	119
[그림 4-1] 아동 그룹 워드 클라우드	143
[그림 4-2] 아동 그룹 아이젠벡터 중심성 네트워크 이미지	144
[그림 4-3] 부모 그룹 워드 클라우드	146
[그림 4-4] 부모 그룹 아이젠벡터 중심성 네트워크 이미지	147
[그림 4-5] 교사 그룹 워드 클라우드	148
[그림 4-6] 교사 그룹 아이젠벡터 중심성 네트워크 이미지	149
[그림 4-7] 관계자 그룹 워드 클라우드	150
[그림 4-8] 관계자 그룹 아이젠벡터 중심성 네트워크 이미지	151
[그림 4-9] 행정가 워드 클라우드	152
[그림 4-10] 행정가 그룹 아이젠벡터 중심성 네트워크 이미지	153

[그림 4-11]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생태체계적 모델	234
[그림 4-12] 기본심리욕구를 고려한 정책 모델	235
[그림 5-1] 재난 대응체계	254
[그림 5-2] 아동인권 기반 재난 대응	257
[그림 5-3] 영국의 Children's commissioner 홈페이지	261
[그림 5-4] 재난 대응 방향	269
[그림 5-5] 디지털 시민권의 개념적 모델	280

I

연구 배경

I. 연구배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20년부터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는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아동을 위협에 처하게 할 것이다. 다른 연령대 인구에 비해 아동에게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achel Cresswell, Shreya Sonthalia , Caitlin Webb , Martina Kane, 2021¹⁾; Human Rights Watch, 2020.⁵²⁾). 브루킹스 보고서(2021)는 빈곤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의 16%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자체만으로도 아동은 더 불안해 졌고, 아동에 대한 발달상의 위험이 커졌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동에게 학교교육과 다양한 배움의 기회마저 차단하였다.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교 등교 제한은 학습시간을 감소시켰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온라인 학습과 과제는 아동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아동의 피로감을 증폭시켰으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행동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동에게 고립감을 주었다. 보육과 유아교육기관 폐쇄로 인한 영유아기 보육·교육 경험 제한이 역경에 처한 환경에서 자라는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속적인 불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³⁾. 또래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 제한은 의사소통과 안정적 정서발달 및 사회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모든 사람이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가족과 더 많은 취미와 여가를 함께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황옥경 외, 2020: Goldschmidt, 2020), 가족과의 관계가 더 긴장(58%)되었고 가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였으며, 온라인 사용시간의 현저한 증가(황옥경 외, 2020)가 발달 손상과 각종의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아동의 77%는 외롭고,

1) <https://www.hrw.org/news/2020/04/09/covid-19-and-childrens-rights>

2) <https://www.health.org.uk/news-and-comment/blogs/how-are-generation-covid-19-experiencing-the-pandemic>

3) <https://www.onlondon.co.uk/londons-disadvantaged-early-years-children-will-fall-further-behind-without-extra-post-covid-support-says-new-report/>

고립되었다고 느꼈으며, 92%의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대면이 그리웠다고 말했다⁴⁾. 온라인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코호트 격리가 차별적 처우이며 아동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저소득 계층 가정에서는 심각한 양육공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서적 불안정성, 폭력 요인이 증가하였다(월드비전, 2020). 광범위한 직업 불안정성과 소득 손실 등의 경제적 불안이 아동을 경제 수단으로 내몰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성장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일상 변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일 낮 시간대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른 초등학생은 46.8%에 달하였다(정익중, 2020).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36.2%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휴원으로 돌봄 공백을 경험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학교와 복지시설 등의 폐쇄로 아동의 불규칙적인 생활, 결식, 인스턴트식품 섭취가 증가하였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인터넷과 게임에 과다 노출되고, 또래집단 및 대인관계 제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 증가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인터넷 연결 상태와 속도는 가정의 경제 사정과 맞물려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은 보안에 취약하고 느린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학교의 온라인 수업은 아동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 조손 가정, 다자녀 가정에서 학습 격차 등 교육의 불평등이 컸다. 2020년 초등학생의 등교일이 50여 일에 불과함에도 아동의 학교생활 경험과 교육기회의 상실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정부와 교육당국, 관련단체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대응책이 아동의 인권과 건강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폐쇄 및 실외 놀이 공간 폐쇄 등의 코로나19 주요 조치를 취할 때 이 조치들이 아동발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아동의 삶의 실태에 대한 보고들이 있지만, 이 자료들은 대부분 양적 조사 결과이다. 아동 삶의 어려움과 한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

4) <https://www.health.org.uk/news-and-comment/blogs/how-are-generation-covid-19-experiencing-the-pandemic>, 우리나라 데이터 추가

적인 실태에 대하여는 거의 확인된 바가 없다. 위기상황의 아동 외 일반 아동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삶의 어려움과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서 대응조치 과정과 조치의 결과가 아동의 인권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와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동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발달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아동인권 기반 아동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개발·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삶의 실태를 질적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의 대응체계와 정책이 아동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내용을 확인 탐색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침해되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를 질적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코로나19의 대응체계와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코로나19 및 유사 재난 상황 발생 시 종합적 아동인권에 기반 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관련 국내외 문헌자료 수집, 관련 정책자료 및 통계 수집, 그리고 실태 확인을 위한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아동인권 관련 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지원 정책 및 통계자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운영

기관의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각 종의 아동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연구목적에 맞게 확인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재난 대응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 부모, 아동 돌봄 기관 종사자, 교사, 전문가, 행정가 등 총 6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의 다양한 양상과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Krathwohl(2009)는 질적 연구방법이 새로운 개념을 탐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데 적용가능하다고 보며, Creswell(2009)는 연구 참가자의 경험의 복잡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경험의 의미가 그들의 신념과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 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 중 합의적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기술의 모호성과 이해의 어려움 및 객관성 결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질적 연구로서 표본의 크기는 정량적 작업의 초점인 광범위한 일반화가 아니라 대표성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에 따라 표본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심리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표본선정은 서울, 중부권, 남부권으로 분류하여 각 조사 대상별 분류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질적 면접 조사 대상자의 표집 구성에 있어서 지역 분배와, 가족의 구조, 특히 부모의 맞벌이 여부, 및 한부모와 조부모 등과 같은 가족의 특성이 코로나19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월드비전, 2020)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표집에서 가족 구조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였다. Colazzi(1978)는 조사 주제와 관련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질적 연구의 조사 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하였는데,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아동, 부모, 아동 돌봄 기관 종사자, 교사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질적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적조사의 표집과정과 질의, 그리고 진행과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4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될 것이다.

II

국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체계의 아동인권에 대한 영향

II. 국내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체계의 아동인권에 대한 영향

1.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배경 특성: 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1) 코로나19 발생 현황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는 그동안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감염병 중에서도 매우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전 세계 220여 개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2021년 11월초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4천8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는 미국으로 4천6백만 명이 감염되었고, 74만 명이 사망하였다. 미국에 이어 인도(34,308,140명 감염, 459,191명 사망)와 브라질(21,835,785명 감염, 608,235명 사망)에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목숨을 잃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2021년 11월초 기준 확진자 수는 37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373,120명), 사망자도 2,916명에 이르고 있다(질병관리청, 2021.11.04. 자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국가에서는 국가 혹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봉쇄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사람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는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백신의 개발과 생산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해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더불어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 및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속도와 광범위한 전파 범위, 감염자 및 사망자의 규모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간 동안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전반적인 변화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경제 활동의 위축과 실업 및 주거불안정 인구의 증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혐오와 배제, 차별의 심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 돌봄 공백의 문제, 교육격차의 문제, 시설보호체계에서의 집단 감염 문제, 의료체계의 문제, 그리고 일상의 삶의 변화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0c; 송아영, 2021).

2) 코로나19로 인한 아동과 가족의 삶의 변화

코로나19가 아동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아동의 돌봄과 관련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감염 위험이 큰 다중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각급 학교 휴교와 보육 시설 휴원으로 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자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와 함께 결식, 안전사고, 학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긴급돌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아동을 비롯한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 전체가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영란, 2020). 기존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분담했던 아동 돌봄을 가정에서 전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가정의 돌봄 기능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이처럼 코로나19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아동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 아동의 코로나19 감염

코로나19에 확진된 아동의 수는 성인에 비해 적지만, 아동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 아동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성인들에 비해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사망자도 극히 드물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미선과 연구진(Han et al., 2021)이 2020년 코로나19에 감염된 19세 미만 아동 91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91명 중 65명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고열은 30%, 발열 증상은 39%였으며 호흡기 증상을 보인 비율은 60%였다. 연구진은 국내 아동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증상도 뒤늦게 나타났으며, 증상은 경미한 데 비해 체내 바이러스 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는데,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이 감염됐는지 모른 채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김민수, 2021).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통계에 의하면, 2021년 11월 05일 기준 0~19세 아동의 확진자는 총 57,709명이고, 사망자는 없다. 현재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2학기 중반인 2021년 11월부터는 전면등교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10.29. 기

사). 학교의 전면등교가 시작되면 아동의 감염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동이 실천할 수 있는 위생수칙과 코로나19 대처방안을 이해할 수 있게 아동의 눈높이로 알려주고, 코로나19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란 점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된 친구들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비난을 하지 않도록 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 확진자를 돌보는 경우 어려움

아동 환자 치료에는 많은 감정적·의학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인력 소모를 완화하고 병동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발병을 자체는 전체 확진자의 5% 남짓이지만, 우려되는 것이 무증상인 아동들이다.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당시 증상을 보인 아동 확진자는 10%도 안 된다.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정책을 펼칠 때 증상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많은 환자를 놓칠 수 있다.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가 쉬운 것도 아니다. 아동 환자는 질병의 중증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성인들처럼 인공호흡기를 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격리병동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병동 침대에서 뛰다가 낙상한 아이와 격리 병동에서 낙상한 아이를 진단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CT 같은 검사 장비를 사용한 뒤에는 하루 종일 소독을 해야 하고, 이동할 때도 음압 카트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밥을 제대로 먹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 너무 어려서 병동에 장기간 격리돼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 본인에게도 힘든 일이다.

보호자 문제도 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확진된 아이를 치료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 보호자 분들이 '저 한 명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 주셔도 되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신경 쓰고 있다. 그 덕택인지 지금까지 아동 확진자를 통해 추가로 감염된 보호자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다 보니 의사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과 전공의도 힘들 수밖에 없는데 잘 알려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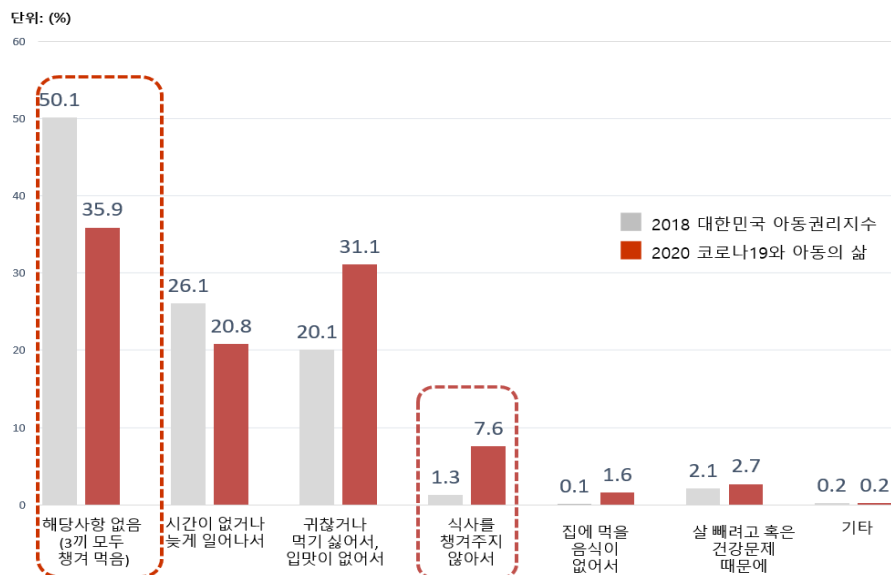
* 출처: 데일리메디(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동현 교수 인터뷰. 2020.12.07)⁵⁾

5) 데일리메디 기사(2020). 소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하는 의사 고충. 2020년 12월 7일 기사.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3688&thread>.

(2) 아동의 식생활과 수면, 놀이 및 휴식시간의 변화

코로나19 이후에 아동의 식생활은 과거보다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거나 신선한 채소와 육류, 고기, 우유 등을 섭취하는 비율은 2018년에 실시했던 조사 결과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을 1주일에 5일 이상 섭취한 비율은 2018년에 4.7%이었던 것이, 2020년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서는 6.1%로 2년 전보다 약 1.4%p 증가했다(굿네이버스, 20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 활동 제한과 온라인 수업 실시로 가정 내 식사 횟수가 증가하면서 외부 음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편의점 및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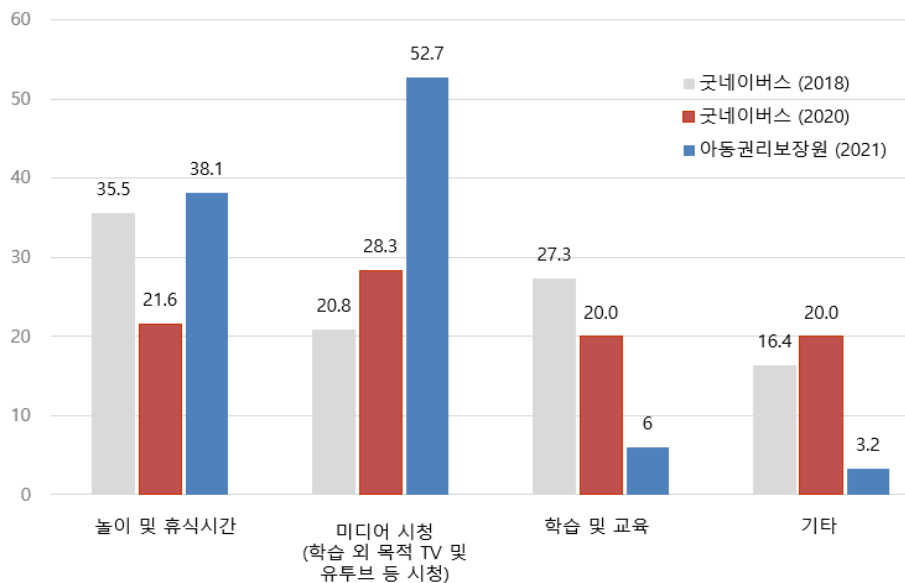
또한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결식 비율은 과거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등을 포함하여 3끼 모두를 잘 챙겨 먹는 비율은 35.9%로 확인돼, 2018년의 50.1%에 비해 약 14.2%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결식의 이유가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로 대답한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에 1.3%에서 코로나19 이후에 7.6%로 증가하였다(굿네이버스, 2020).



[그림 2-1] 결식이유 (2018 vs. 2021)⁶⁾

6) 출처: 굿네이버스(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재난대응 실태조사. p.31. (코로나 이전: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코로나 이후: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한편 아동의 수면 시간과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 시간, 놀이 및 휴식시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발달권 신장이 추측되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들이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지만,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시간이 증가하고, 이러한 이유로 가족 간의 갈등을 보고한 아동의 비율이 47.6%로 나타났다(굿네이버스, 2020). 이 결과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아동이 가정 내 오랜 기간 머무는 동안, 놀이와 여가 활동이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에 다소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발생했음을 추측하게 하며, 놀이 및 여가 활동이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2]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놀이 실태조사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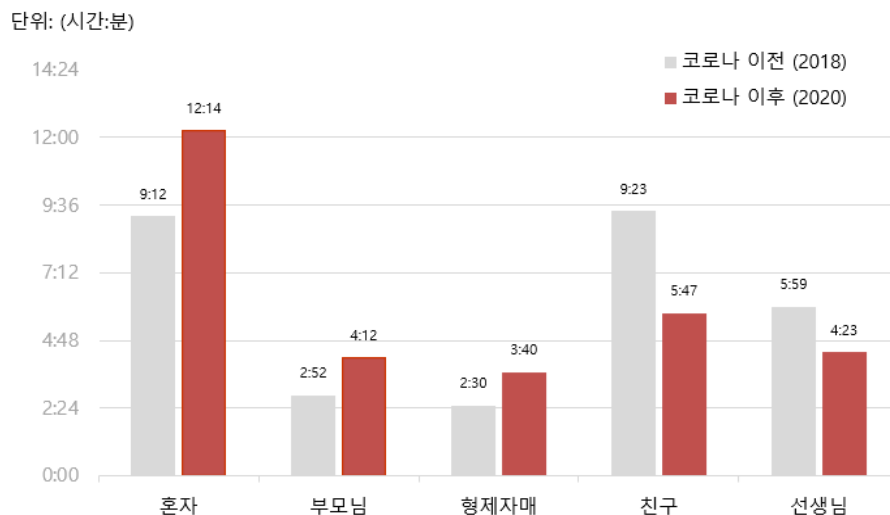
(3) 아동의 돌봄 공백 발생

코로나19로 아동과 가족에게 일어난 제일 큰 변화는 바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학교와 돌봄기관의 휴업으로 아동돌봄의 공백이 커졌으며,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7) 출처: 굿네이버스(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재난대응 실태조사; 아동권리보장원(2021).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설문조사 보고서.

상황에서 긴급돌봄 및 외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정의 경우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내·외부 자원체계가 넉넉지 않은 가정의 경우 돌봄의 공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굿네이버스, 2020). 아동의 돌봄 공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36.2%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휴원으로 돌봄 공백을 경험하였고, 외벌이 가구(21.2%)에 비해 맞벌이 가구(49.4%)에서 돌봄 공백이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가정에서 보호자 없이 시간을 보낸 나홀로 아동의 경우도 발생하였는데, 나홀로 아동의 비율은 미취학 아동(0.5%), 초등 저학년생(4.5%), 초등 고학년생(15.5%), 중학생(22.7%), 고등학생(29.1%)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나홀로 아동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굿네이버스, 2020). 나홀로 아동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굿네이버스, 2020).

코로나19 이후 성인 보호자 없이 자녀 혼자 또는 자녀끼리만 집에 있었던 날이 코로나19 이전 보다 더 증가했다고 응답한 보호자의 비율은 30.3%이었고(굿네이버스, 2020),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났음이 확인되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0). 이상의 조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에 아동돌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아동이 보호자 등과 함께 보내는 시간⁸⁾

8) 출처: 초록우산어린이재단(2020).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일상 변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혼자 방치된 아동 늘었다

코로나19가 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학교나 돌봄센터가 제한적으로 문을 열면서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홀로 방치되고, 끼니마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돌봄 공백의 그늘은 상대적으로 더 짙다.

2020년 9월 14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초등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사고 발생 37일 만에 사망했다. 보호자인 엄마는 외출 중이었다. 사건 발생일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었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2020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코로나로 인해 아동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례관리 중인 가정에 대한 전수점검을 강화했다. 코로나를 이유로 방문을 꺼리는 보호자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다. 현장 관계자들은 “일부 보호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상담을 피하는데 올해는 방역 문제가 더해져 애를 먹었다”고 했다. 강제 집행 권한이 없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가정 방문을 꺼리는 보호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이를 위해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코로나 키트’를 전달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아이디어를 현장에 도입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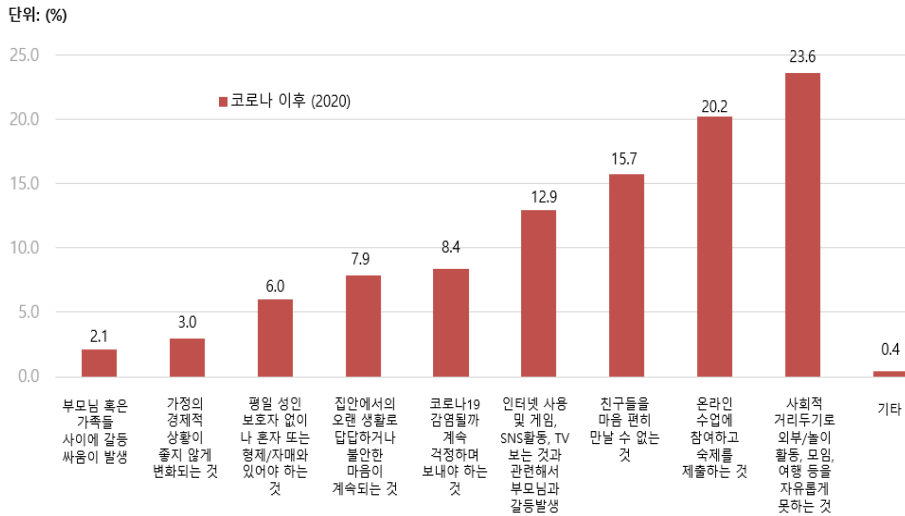
* 출처: 더나은미래.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혼자 방치된 아동 늘었다. (2020.11.17)⁹⁾

(4) 아동과 가족의 스트레스 증가

코로나19의 감염은 신체의 질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불안, 공포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키며, 감염 가능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회피와 불신, 지인의 사망이나 질환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0c). 또한 가정에서 아동과 부모가 모두 기존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직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굿네이버스의 조사에 의하면(굿네이버스, 2020), 코로나19 이후 아동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놀이 활동, 모임, 여행 등을 자유롭게 못 하는 것(23.6%),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것(20.2%), 친구들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는 것(15.7%), 인터넷 사용 및 게임, SNS활동, TV 보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과 갈등

9) 더나은미래 기사(2020).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혼자 방치된 아동 늘었다. 2020년 11월 17일. <https://futurechosun.com/archives/52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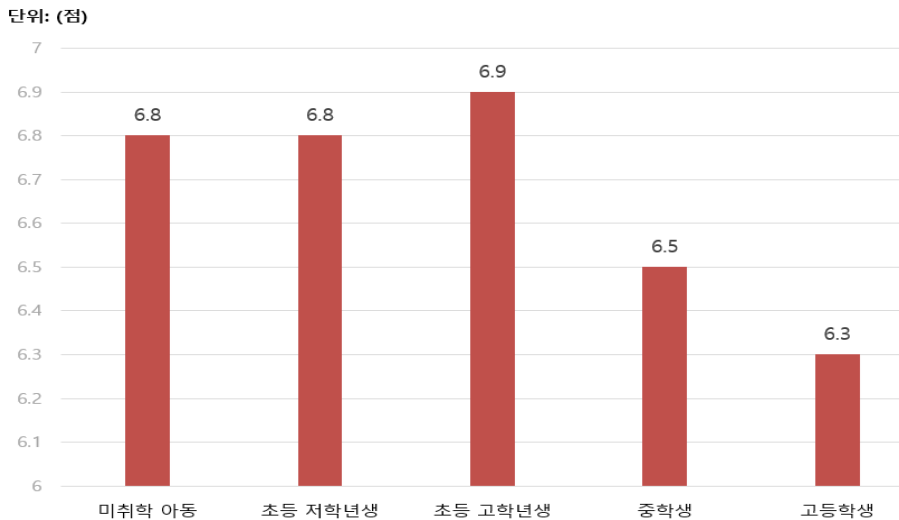
발생(12.9%),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계속 걱정하며 보내야 하는 것(8.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



[그림 2-4]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힘들었던 것¹⁰⁾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대답한 부모의 비율이 73.2%, 비슷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23.9%,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를 보였다(굿네이버스, 2020). 한국심리학회와 질병관리본부의 무료심리상담 제공 결과에서는, 678건의 상담 사례 중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26.8%), 일반적인 불안(16.8%), 우울(10.6%),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8.8%), 가족 갈등(5.6%), 경제적인 어려움(5%) 등이 주를 이루었다(서울신문, 2020; 아동권리보장원, 2020c).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 아동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문제들이 가중되면서, 부모들의 강압적인 양육 방식이 증가하거나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2-5]는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를 0점부터 10점까지 평가한 결과이며, 아동 전 연령에 걸쳐서 모두 5점(보통)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굿네이버스, 2020).

10) 출처: 굿네이버스(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재난대응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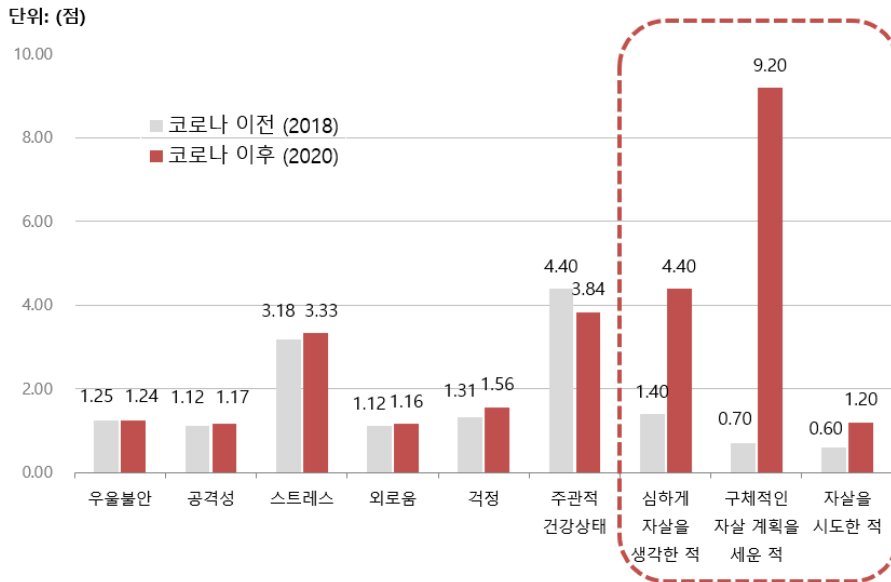
[그림 2-5]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0점 - 10점 평가)¹¹⁾

(5)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의 감염 완화 조치들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것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증상도 가벼울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는 취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아동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에도 동시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환경 전체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학적 영향력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아동은 가장 취약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감정변화 중에 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10점 만점에 7.7 점(2018년), 코로나19 이후에는 10점 만점에 6.0으로 낮아졌다(굿네이버스, 2020). 또한 아동의 우울과 불안감이 상승했으며, 자살을 생각한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1,825명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전(2018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에 우울, 불안, 공격성,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더 늘었고, 외로움, 걱정, 주관적 건강상태도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극단적인 생각은 1.4%에서 4.4%까지 증가하였고, 구체적으로 극단적인 계획을 세운 경우는 0.7%에

11) 출처: 굿네이버스(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재난대응 실태조사. p.56.

서 9.2%로 급증하였다. 심지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도 코로나19 이전에 0.6%에서 코로나19 이후 두 배 증가한 1.2%로 나타났다(정익중, 2021)[그림 2-6].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코로나19 전후 아동의 심리정서, 주관적 건강 및 자살생각 비교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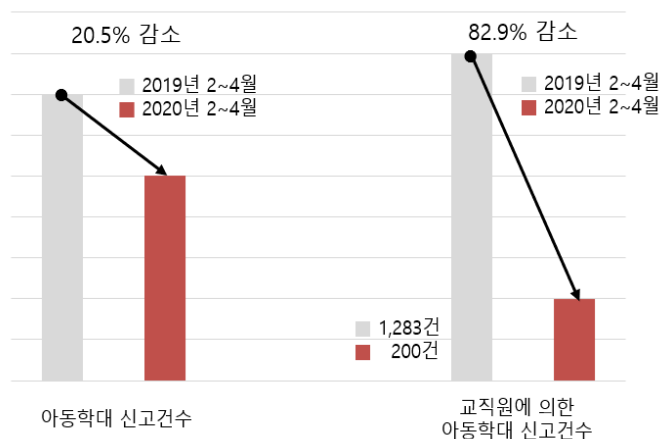
(6) 아동방임과 아동학대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과 그 가족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러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의 돌봄을 제공하는 부모는 그들이 경험하는 소득 감소, 이동 제한, 고립에서 오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아이들을 가정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는 아동방임 및 학대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학교 및 병원, 사회복지단체들이

12) 출처: 정익중(2021).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일상 심층 진단과 행복 방안 모색. 초록우산재단 2021년 제19차 아동복지포럼 자료집.

문을 닫거나 대면 서비스를 제한하면서,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와 같은 신고 의무자가 아동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하여 학교들이 휴교했던 2020년 2~4월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0.5% 감소하였고,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82.9% 줄었다(서한욱, 2020).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정폭력상담소 휴관으로 전화 상담만 가능해진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해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들(학교, 아동기관, 돌봄기관, 의료기관 등 전문가)의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 의무자인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아동학대 발생이 감소했다기보다는 발견 가능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박병현, 2021).



[그림 2-7] 2~4월 아동학대 신고건수 추이¹³⁾

이처럼 코로나19 초기에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줄어든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아동학대는 훨씬 더 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최근 5년 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통계를 보면(대검찰청, 2021), 2020년 ‘아동학대 사범’으로 입건된 이들은 8,80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2016년 4,580명과 비교하면 2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2021년

13) 출처: 서한욱(2020).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가하는 아동학대 위험성: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상반기 1~5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5,572명으로 2016년이나 2017년의 한 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2021년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손현수, 2021). 또한 최근에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아동학대예방 대책에 대한 필요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창녕 9세 아동학대 사건

2020년 5월 29일, 자신의 집에서 가정학대를 당하던 당시 9세 피해 아동이 4층 높이의 집 테라스(베란다)에서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붕을 통해 옆집 테라스로 건너가 극적으로 탈출했다. 9살 아동은 옆집에서 사람의 인기척을 인지한 후 현관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갔고, 이후 거리를 배회하는 피해 아동의 물골을 보고 의심이 간 인근 주민이 피해 아동을 자동차에 태우고, 아동이 목적지로 지목한 편의점까지 함께 동행했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 아동은 주민이 사준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고, 이후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학대를 당하던 아동은 경찰에 인계되었다.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집에서 탈출하기 전, 테라스에 이틀간 쇠사슬로 목이 묶여 감금되어 있었다.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 그리고 부모가 아동에게 집안일을 시킬 때에만 특별히 목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줬는데, 쇠사슬을 풀어준 틈을 노려 지붕을 통해 옆집 테라스로 넘어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운 뒤 탈출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몸에선 다수의 골절이 확인되었고, 심한 빈혈을 앓고 있으며, 등과 목에 상처가 있고, 눈에는 멍이 있으며 손과 발 모두에 심한 붓기와 화상 흔적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빈혈 증세가 너무 심해 아동은 병원에서 수혈을 받았다.

부모는 프라이팬으로 아동의 손가락을 지지는 학대를 했다. 당시 신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심한 화상 때문에 아동의 지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 부모는 쇠막대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또한 200도 이상으로 예열된 글루건을 아동의 발등에 쓰고, 고의적으로 쇠젓가락을 불에 달군 뒤 발바닥을 지저 아동을 고문하는 일까지 자행했다. 또한 욕조에 물을 채워 물고문을 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하루에 한 끼의 식사만을 제공하거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가 아동을 감금하는 등 비인륜적인 행위를 여럿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등교 개학이 지연되자, 학교가 아동학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이런 비극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아동이 탈출 후 처음으로 한 말이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데려다 주세요, 거기. 잘해주시니까. 큰아빠, 큰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였다. 아동이 언급한 큰아빠 집은 실제 친척 집이 아닌 2015년부터 2년간 지낸 경남의 다른 위탁 가정이다. 그 위탁 가정과 연락해본 결과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출처: 나무위키. 창녕 9세 아동학대 사건. (2021.08.16. 검색)¹⁴⁾

(7) 아동의 교육 불평등 발생과 학력 격차 심화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2020년 3월 초·중·고와 대학의 개학을 전면 연기하였으며, 4월부터는 온라인 개학을 하여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게 되었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지만, 가정의 경제 상황, 학습 상황 차이로 인한 학습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은 빈곤 가정과 아동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 조손 가정, 다자녀 가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아동권리보장원, 20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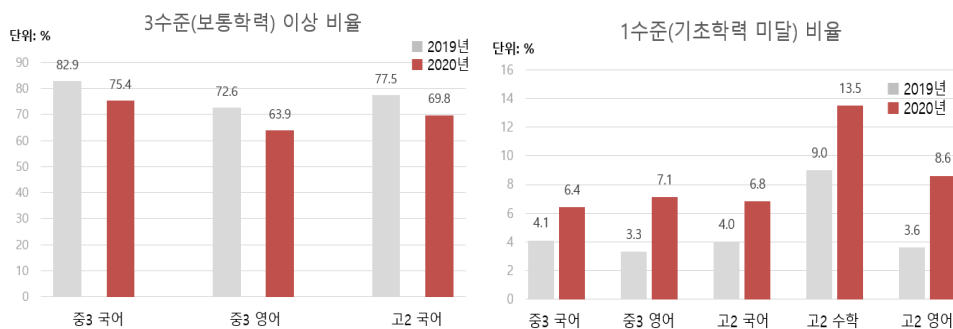
경기도 내 800개 초·중·고 학생, 교사,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육경험과 인식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이정연 외, 2020),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온라인 수업을 듣는 환경과 학습 여건이 열악하였다. 가정환경이 열악할수록 원격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서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원격수업을 위한 전용디지털 기기 소유 여부, 기기의 성능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일수록 온라인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 과제를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선생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기 보다는 혼자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의 온라인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학업을 지도하면서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사교육 참여와 시간에서도 가정배경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교육적 차이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

14) 출처: 나무위키. 창녕 9세 아동학대 사건

<https://namu.wiki/w/%EC%B0%BD%EB%85%95%20%9C%84%B8%20%EC%95%84%EB%8F%99%20%ED%95%99%EB%8C%80%20%EC%82%AC%EA%B1%B4?from=%EC%B0%BD%EB%85%95%EA%B5%B0%20%9C%84%B8%20%EC%95%84%EB%8F%99%20%ED%95%99%EB%8C%80%20%EC%82%AC%EA%B1%B4>

육 불평등 문제로 연계될 수 있다(박미희, 2020).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도 심화되었는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년 6월에 공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 저하가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교 수업이 제한되고 원격 수업의 확대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3은 국어 과목에서 3수준(보통 학력) 이상인 학생 비율이 2019년 82.9%에서 2020년 75.4%로 7.5%포인트(p) 낮아졌다. 보통 학력을 가진 학생은 영어는 72.6%에서 63.9%로 8.7%p 하락했다.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1수준(기초학력 미달)을 보인 학생 비율은 중3에서 늘어났다. 중3 국어는 1수준이 6.4%, 영어는 7.1%로 2019년에 비해 각각 2.3%p, 3.8%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3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3.4%였다. 고2의 경우 국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8%로 2019년 대비 2.8%p 늘어났고 수학은 13.5%로 2019년 대비 4.5%p 늘었다. 영어는 8.6%로 전년보다 5.0%p 증가했다.



[그림 2-8]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¹⁵⁾

중3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지역별로도 두드러졌다. 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 학력 이상 중3 학생 비율은 모두 대도시가 읍면 지역보다 높아졌다. 국어와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중3 학생 비율은 읍면 지역이 대도시보다 더 높았다. 반면 고2에서는 지역 규모별 학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민수, 2021).

15) 출처: 연합뉴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2021년 6월 2일자 기사. <https://m.yna.co.kr/view/GYH20210601003000044>.

(8)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생활

아동생활시설은 아동의 등교가 중단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식자재와 생필품 구매 부담이 증가하였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수급이 어려워졌다. 또한 공간이 협소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기 어려워 밀착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코로나19 진단을 받아야 하고, 즉시 별도의 공간으로 격리 보호해야 하는데, 이는 진단 검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아동을 돌봐야 하는 종사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치료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0c).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자체 내의 모든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해 감염 장소나 시설을 통째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여기에는 아동생활시설도 포함되었다(백경서, 2020). 아동생활시설은 여러 명의 아동들이 다인실의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 내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 또한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선행하지 않은 격리조치는 아동과 종사자의 감염 위험을 높이고,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실시한 조치가 오히려 아동을 의료권으로부터 차별·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동생활시설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의 장으로 감염병 유행 정도와 위험 수준에 따라 지역별 대응 강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적 대응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김형모, 2020).

(9)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19 대응의 어려움

소년보호기관의 주된 설립목적은 기관을 접하는 소년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들의 품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예방하는데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감염병 방역이 소년보호기관의 주된 업무가 되고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년보호기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장단기 소년원 처분(9호·10호)의 경우 2019년 대비 소년원 수용인원, 신규 입소자, 퇴원자 및 퇴원자 중 임시퇴원자 비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1개월 이내 소년원 처분(8호)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

기에는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0년 3월에서 5월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장단기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교과교육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반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무단결석 등으로 인한 퇴학처분 등이 감소한 결과 소년원에서 교과교육을 받는 소년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부인과 접촉이 많은 보호자 교육은 중지되었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외부로 나가야 하는 봉사활동, 체험학습, 외출, 주말가정학습 등과 같은 개방처우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의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집행을 실시하고, 비대면 보호관찰을 실시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2020)에 의하면, 소년보호기관에서는 방역을 위한 공간적인 제약, 직원의 업무 과중, 상황별 매뉴얼의 미비, 부처 간의 협력 부재 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년보호기관에서는 격리 공간의 확보, 수용인원의 감소의 필요성, 감염병 대응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제작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비대면 업무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코로나19가 소년보호기관의 업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관련 아동·가족의 삶의 변화 시사점¹⁶⁾

(1) 아동돌봄체계의 재구조화의 필요성 증대

코로나19 현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아동과 가족의 삶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확산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는 모든 아동의 돌봄, 생활,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은 그동안 아동의 돌봄과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던 지역사회 공공기관 이용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돌봄과 교육의 부담이 가정으로 전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재난 위기 상황에서, 아동들의 돌봄, 생활, 교육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재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교육, 복지, 보건, 노동, 여성 등 유관 기관들의 협력이

16) 아동권리보장원(2021). 코로나19와 아동 삶 설문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함

필수적이며,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광역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

(2) 아동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

코로나19 확산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는 모든 아동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나, 그 변화의 크기와 방향은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사회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돌봄·생활·교육 공백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 유지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거주지역 등으로 인하여, 돌봄과 교육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감염, 양육자의 부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긴급하게 발생하는 욕구에 빠르고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 역량 강화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 위기 상황과 사회적 고립 상황에서, 공공기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소, NGO 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매뉴얼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실무자, 지역주민, 당사자에게 공개되고, 매뉴얼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어, 지역사회가 이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아동중심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중에 있다. 이후 2021년 사회적 재난, 2022년 자연재난에 대응한 아동중심 재난대응 매뉴얼이 개발될 예정이다. 예방적 사례관리, 긴급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역시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학대와 방임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양육 부담의 증가는 가정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학대와 방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으로 인하여, 기존에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전문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해왔던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역할에는 큰 제약이 있었다. 아동학대와 방임은 조기개입과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자체가 발견되지 않거나 아동이 사망하는 시점에서 사례가 드러나 사후 개입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하여, 사회적 투자,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확대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비해 감소하였고, 우울과 자살생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또래와도 만나지 못한 채 가족 내에서 주로 생활을 해야 했고, 특히 빈곤가구와 한부모·조손가구의 아동은 비빈곤가구나 양부모가구 아동에 비해 행복도는 낮고, 우울, 화남, 외로움,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모두 높았다. 또래와는 자주 만나지 못한 채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동 스스로 식사와 학습을 챙겨야 하는 아동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 또한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은 아동의 학습뿐만 아니라 소속감, 또래활동, 정서발달과 같이 다른 중요한 발달과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 우울,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예방 및 조기개입과 함께 상담안내, 전문가 연계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 정책 분석

정부는 2020년 8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확정·발표했다(관계부처합동, 2020). 이번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

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아동정책기본 계획의 수립 시 관계부처가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표 2-1>과 같다.

<표 2-1> 아동정책 수립 시 고려 필요사항

내 용
•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과 동시에 존엄·권리를 지닌 권리 주체라는 복합적 특성을 고려 • ‘아동 행복’은 성인기까지 연결되어 개인 전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 - 아동기 낮은 행복감은 아동 삶의 질, 자존감 하락 → 성인기 불행으로 연결, 개인 전체 삶의 질 저하 → 건전한 사회,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 • 선진국은 정책 전반에 아동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고 충분한 아동보호 하에 아동 권리가 실현되어 ‘아동 행복’이 향상되도록 노력 중 • 주요 선진국 아동정책 방향 - 아동권리 등을 헌법에 명시하고(핀란드,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기본법 규정 등을 통해 아동중심 관점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도록 함 - 또한 행복한 아동기를 위해 아동·가족에 대한 국가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 * (GDP 대비 투자비중) 핀란드 3.1%, 독일 2.2%, 스위스 1.7%, 벨기에 2.8%, 스웨덴 3.6%, 영국 3.4%, 프랑스 2.9%, 일본 1.3%, 한국 1.2% ⇒ ‘아동 행복’, ‘권리주체로서 아동 관점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 정비,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아동 정책 정립 필요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제2차 (‘20 ~’24) 아동정책 기본계획.

이와 함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아동정책이 추가로 구성되었다. 아동정책의 수립 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장기화, 비대면 일상화(거리두기)로 아동방임, 아동학대 등 위험 노출이 증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등 재난이 아동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동정책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1)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I

: 사회적 돌봄 제약 상황에서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 강화

(1)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정양육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가정양육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양육 역량은 약화되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가계의 소득 상실 및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어,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환경이 붕괴되는 등의 물질적 지원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생활고, 보호자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가정해체 등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대면 일상화로 사회적 돌봄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의 돌봄, 급식 등의 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아동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하거나 가정해체 가속화 등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 등의 재난 상황에서는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 방향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강화정책의 방향은 가정의 소득-시간-양육자의 인식·태도 등 종합적인 측면의 지원이다. 이에 대한 주요 관리 지표는 ‘2022년까지 종합적인 가정양육 역량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체계화’이다.

〈표 2-2〉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내 용
• 소득-시간-양육자의 인식·태도 등 종합적인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 (소득) 경제침체 장기화, 격차 심화에 대응하여, 아동 양육 가구의 아동 성장의 모든 기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 (시간) 돌봄시설 이용 제한 등을 대비,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양육자 인식·태도) 아동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부모교육 실시,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제2차 (‘20 ~’24) 아동정책 기본계획.

(3) 중점 추진과제

① (소득) 아동수당 역할 강화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정책이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9월 도입 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 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지만, OECD 32개국 중에서 15세 이상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29개국이며, 18세 이상 지급하는 나라도 2곳이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상화된 사회적 위험 하에서 아동가구 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가정 양육 역량 제고에 기여하도록 아동수당 발전방안을 추진 중이며, 아동수당 지급범위의 점진적 확대 등 아동 양육에 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 및 양육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더불어 0~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2022년)을 계획하고 있다(권윤지, 2021).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위기 시 아동수당 금액, 아동수당의 지급 형태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가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을 거쳐 한시적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만 7세 미만 아동가구 대상,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추가로 지원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1~6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20만 원의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이,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는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됐다.

② (시간) 아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보장

아동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학교와 돌봄시설의 폐쇄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2020a)에서는 아동이 가정에

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을 살펴본 결과, 아동이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은 부모님(33.7%), 형제·자매(26.3%), 친척(14.8%), 혼자서(7.4%)의 순으로 나타났다(아동권리보장원, 2020a). 그리고 어른 보호자 없이 아동끼리만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8%에 이르렀다. 2018년의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9) 결과는 주중에 혼자 지내거나 아동끼리 지내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의 27.7%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코로나19 이후에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돌봄공백의 예방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모성보호 사각지대 보완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직 종사자(학습지 교사 등)·자영업자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예술인부터 출산전후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보장을 추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만료되어도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보장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용보험법 개정사항).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재난 발생 시 가족돌봄 지원 제도화하여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 휴가 기간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③ (양육자 역량) (학)부모 교육 강화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가족관계 증진과 소통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의 체계적 실시 등 다양한 (학)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 관련 각 기관에서 코로나19로 기존 대면 부모교육 진행이 어려워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교육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가족 간 갈등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녀들에게 용기와 격려, 상호존중, 자기존중감,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학)부모교육을 체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양육 관련 교육을,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부모·자녀·부부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교육 및 상담 지원을,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 자녀교육·교육정책 이해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부모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아동 권리, 양육, 학대예방 교육 등 발달 단계별 아동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되어야 하며, (학)부모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달체계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학)부모교육 이수 제도화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아동 관련 사회보장급여 지급과 연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부모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학)부모교육 이수, 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아동복지 급여·서비스 연계방안 모색, (학)부모교육 이수 시 마일리지(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에 해당하면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시 가점, 우선 지급 등 검토 중에 있다. 예를 들면, 일정 시간 이상 (학)부모교육 이수 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우대, 자금대출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우선 심사(30일 → 15일 이내 답변 등)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2)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II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돌봄 체계 마련

(1) 현황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신종 감염병 등장도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확산이 지속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변이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이 무력화될 수도 있고, 치료제 개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 기회의 증가 등으로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 또한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디지털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었다.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에는 음식 배달앱 이용, 온라인 쇼핑 등이 있고,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영상회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시설 휴원 등으로 사회적 돌봄공백이 증가하고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시설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아동의 보호

에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2) 정책 방향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첫째, 보호·돌봄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기반 조성, 둘째,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의 시설, 가정 내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셋째,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방안의 마련이다. 이에 대한 주요 관리 지표는 ‘2024년까지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행’으로,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는 아동 AI 서포터즈(아동 안전관리, 위생관리, 학습지원 등 기능) 시범 보급 등이 포함된다.

〈표 2-3〉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

내 용
• 보호·돌봄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기반 조성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성원 교육, 시설 소독·위생관리와 좁은공간-인원밀집 해소 개선 등 •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의 시설, 가정내 돌봄 지원 체계 구축 - 재난 발생·시설 종사자 감염병 감염 등으로 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 가정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한 신속한 지역기반 지원 체계 마련 •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스마트기기, 인공지능 등 활용하여 원격 사례관리 등 비대면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추진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 제2차 ('20 ~'24) 아동정책 기본계획.

(3) 중점 추진과제

① 보호·돌봄시설의 감염병 재난 대응 역량 강화

1-1.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대응 매뉴얼 체계화

-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아동의 보호·돌봄시설의 종사자에게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종사자 교육 내용으로는 시설 방역방법, 방역물품 구비, 일상소독 등 방역 및 위생수칙 등이며, 이는 사회복지사 실무 교육에서 감염병 등 위기·사회변화 민감성 대처 능력을 추가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 또한 기관별 지침에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평상시 감염병 예방요령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시 초기대응 등을 기관별 지침에 규정, 일관된 대응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 매뉴얼과 기관별 지침 규정에 담길 내용으로는 평상시에는 1일 1회 종사자, 아동 주기적 건강상태 확인, 주 1회 시설방역 실시, 방역물품 비치 등이며, 감염병 확산 시에는 1일 2회 건강상태 확인, 1일 1회 시설방역 등 강화된 방역기준 적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응 매뉴얼, 지침에 따라 시설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주기적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2. 시설 면적기준, 인원비율 등 개선

-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아동 관련 시설의 아동 1인당 면적과 보육교사 대 아동 수 등의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아동 1명당 면적이 6.6㎡ 이상이며, 어린이집은 1인당 전용면적이 4.29㎡ 이다. 만 5세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우리나라는 20명, 미국 10~12명, 호주 10~11명으로 선진국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아동 관련 시설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이게 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집단 발병 가능성을 낮추고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질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감염 예방을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하여 보호자의 책임 하에 가정학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단, 이때는 절차상 사전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거쳐 사후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에 인정하도록 한다.

② 긴급돌봄지원체계 구축

2-1. 재난 상황 대비 공공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는 감염병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체계로 전환하여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돌봄기관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과 안전점검 및 노무·재

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등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곳이다. 특히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어린이집 등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어 있다.

- 2020년 코로나19 폭증 시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한 곳에서 긴급돌봄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제공 서비스 공백 발생하게 되자,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노인·아동·장애인 대상 긴급돌봄을 제공하였다. 특히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 52명에게 누적 돌봄인력 566명을 투입하여 가정생활 지원 및 식사지원을 하였다. 광주 사회서비스원도 긴급돌봄 인력 168명을 모집해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자가격리자 가정에 돌봄인력을 지원하고, 밀접 신체수발이 필요한 장애인·노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원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5월부터 긴급돌봄 인력 60명을 모집해 동일 집단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12곳에 돌봄인력을 지원 중이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도 2021년 초 긴급돌봄 인력 80여 명을 모집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발달장애인 등에게 돌봄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 대전,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등 사회서비스원 또한 긴급돌봄 인력을 모집·사전교육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시설·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신주희, 2021).

2-2. 지역 협력 기반 긴급 돌봄체계 운영

-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감염병 감염 등 재난발생시 지자체와 지역복지자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중단된 시설에 대체인력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족 확진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도시락(식사) 등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역협력 기반의 긴급돌봄체계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③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일상이 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도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 ‘(가칭)아동 AI 서포터즈’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산 등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상담 및 아동 양육환경 점검을 위한 ‘아동 AI 서포터즈’를 시범 사업으로 보급 예정이다. 특히 정보접근, 학습지원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가구, 조부모 가구 등 돌봄 취약가정에 대한 우선 보급을 검토 중이며, 돌봄 취약가정 유형별 욕구분석 및 활용 가능한 AI 기술 매칭 등 시범사업 및 단계별 기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아울러 AI에 부모교육·아동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여, 부모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아동가구의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예는 AI 서포터즈의 부모교육 이수 시 ‘부모교육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차후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심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3)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일시 긴급돌봄 지원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격리 및 휴관 시 필수 복지 서비스의 유지방안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무기준 제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시설 운영 및 종사자 복무처리 등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운영지침 안내, 대상별 서비스 지원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지자체별로 코로나19 대응지침 모바일 앱 제작 및 배포를 시행하였다.

이에 아동영향평가에서는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대응 지침을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분석틀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긴급돌봄 대응

지침이 관련 종사자 혹은 아동의 보호자 등 성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의 권리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자 하였다.

아동영향평가란 아동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법령, 사업, 프로젝트 등이 모든 아동 또는 특정 아동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의 기본 가정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법, 제도, 예산자원, 다양한 행정적 의사결정 등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모든 영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적으로는 아동 관련 법률과 정책, 예산배정, 업무수행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아동권리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는 아동 관련 법률과 정책, 사업 등이 집행된 후 아동에게 미친 실제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효과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수원시정연구원, 2019).

이에 보건복지부의 202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7-3판)」과 2020년 교육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제3판)」 지침서의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성북구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개발하여 성북구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활용하였다(조흥식 외, 2014).

분석의 기본 틀인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는 서울시 성북구가 2013년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로 선정된 이후, 성북구 행정체계 내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 책임을 맡아 개발한 것이다. 해당 점검표는 아동의 제반 권리와 관계, 무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당사자 의견수렴, 홍보,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사후평가 필요성, 개선방안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4>와 같다(조흥식 외, 2014; 양경선, 2018).

〈표 2-4〉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구분	질문
아동의 제반 권리와 관계	해당 단위 사업이 아동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해당 단위 사업이 아동 보호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해당 단위 사업이 아동 발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해당 단위 사업이 아동 참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무차별	해당 단위 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아동 최선의 이익	해당 단위 사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당사자 의견 수렴	해당 단위 사업 기획 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해당 단위 사업에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홍보	해당 단위 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타 법규, 조례와의 관계	해당 단위 사업이 여타의 어린이/청소년 법규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해당 단위 사업이 여타의 법규, 타 조례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사후평가 필요성	해당 단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가?
개선방안	아동권리침해방지와 권리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 출처: 조홍식 외(2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성북구·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1) 생존권

생존권은 아동이 적절한 생활수준과 안전한 주거, 충분한 영양 섭취 등 기본적인 보건의서비스를 수혜 권리 등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 생존권과 관련하여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기준과 그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지침의 내용은 <표 2-5>와 같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대응 지침과 교육부의 운영관리 지침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로는 첫째, 두 대응 지침은 모두 아동과 아동을 직접 돌보고 교육하는 종사자 또는 교직원의 건강과 감염예방 및 감염병의 전파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기관이 문을 닫는 경우에도 긴급돌봄 서비스는 실시하며, 돌봄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 돌봄인력을 채용하는 등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이 결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5> 생존권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업 지침내용

아동영향평가 기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내용	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내용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시설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실시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휴원 시 서비스 유지 • (긴급돌봄) 휴원 시에도 긴급돌봄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사자는 정상근무하되, 돌봄수요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당번제 운영 가능 • 한시 돌봄인력 채용 특례(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배치되는 한시 돌봄인력	•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신학기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안전한 긴급돌봄 제공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돌봄 제공 • (중식제공) 학부모의 도시락 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서 중식 제공 ※ 매식, 도시락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중(간식은 완제품 제공) • 중식 제공은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하되,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동의를 얻어 추진

아동영향평가 기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내용	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내용
	• 백신휴가 실시 관련 - 접종일 분산, 근무시간 조정, 유휴 인력 활용 등을 통해 접종 및 백신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사전 강구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 공백 우려 시에는 시기·지역·직무별 소요를 사전에 협의하여 대체인력지원 사업,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인력 활용 • 급식도 제공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급식카드 지원, 도시락 배달 등 활용	• 비상 상황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돌봄교실 급간식 구매·제공 가이드」 준수(식품의약품안전처-1579, '20.3.6.) 및 학교별 식중독 예방 교육 강화 ◀ 돌봄교실 급간식 구매·보관 가이드 ▶ · 제조업체 도시락은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 표시사항 확인 후 구매·섭취 ·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을 구입하는 경우, 조리 시간부터 2시간 이내 섭취

(2) 보호권

보호권은 아동들이 어떠한 차별과 학대 및 방임, 폭력, 약물과 성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보호권에 대한 평가기준과 이에 해당하는 대응/운영 지침의 내용은 <표 2-6>과 같다.

보건복지부의 대응 지침과 교육부의 운영관리 지침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보호권을 보장하는 지침으로 볼 수 있다. 두 지침은 부모 및 보호자의 돌봄공백 시간에 아동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에게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어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각종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대응인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2020)에는 '가정방문과 같은 핵심적인 아동보호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도록 하고 락다운되어 있는 아동에게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교육부의 지침에는 차이점도 발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아동이 가정 내에서 돌봄

을 받고 있을 경우에도 아동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돌봄의 필요 여부, 건강상태, 결식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이 기관 내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에도 상시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나 방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대응 및 위기상황 발생 시 타 기관과의 연계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교육부의 지침에는 가정 내 아동의 안전에 대한 확인 절차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에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에 대한 내용 위주로만 언급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지침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범위가 제한되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 항목은 발견할 수 없다.

〈표 2-6〉 보호권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업 지침내용

아동영향평가 기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내용	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내용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안부확인) 각 센터는 매일 가정 내 돌봄 아동에 대해 안부확인을 문자,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 • (확인내용) 긴급돌봄이 필요한지 여부, 아동의 건강상태, 결식우려 여부,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성 등 • (돌봄공백 발생시 대응) 아동의 개인별 욕구 및 사정에 맞게 지역자원, 친인척 등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최적의 돌봄서비스 제공 • 지자체(총괄책임부서)는 돌봄공백 발생에 대비한 지역자원(복지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연계체계를 사전에 구축 필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다만, 즉시 귀가가 불가능한 이용아동의 경우 귀가 가능한 시점까지 마스크 착용 및 주변 칸막이 설치(격리실 이동) 등 감염 최소화 조치	• 등·하교시 학부모(대리인) 동행 및 학교 내 안전 확보 우선 • 긴급돌봄 지원인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돌봄인력 전체 건강 체크, 중식 지원, 긴급돌봄 학부모 연락체계 유지, 방역·소독·위생관리지원 등 • 긴급돌봄 참여 학생 및 학부모 비상연락망 구축 •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에 학부모 및 대리인(가족, 친척 등) 포함 • 사전 안내: 발열, 기침 등 유증상 학생 및 확진자, 밀접접촉자, 보호자가 자가격리 중인 경우 관련학생 돌봄 참여 불가, 유증상 시 등교 전 학교에 연락

(3) 발달권

발달권은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교육, 여가 및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에 관하여서는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2020)에는 '아동이 휴식하고 놀 수 있는 권리와 문화적/예술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안을 고안해야 하며, 온라인학습이 현존하는 교육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교사-학생 상호작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달권의 평가기준과 그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대응/운영 지침의 내용은 <표 2-7>과 같다.

보건복지부의 대응 지침과 교육부의 운영관리 지침에는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에서서도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노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 지침은 2021년도 6월에 수정·보완된 지침으로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사자나 외부 강사의 경우,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 확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교육부의 운영 지침에서는 긴급돌봄의 비상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부에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 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표 2-7> 발달권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업 지침내용

아동영향평가 기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내용	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내용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 돌봄에 필요한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 • 백신접종에 따른 면역형성을 고려하여 시설 프로그램 운영 가능범위 확대	•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 신입생의 초기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긴급돌봄 시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배치

아동영향평가 기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내용	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내용
	• (완화) 이용 아동 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종사자, 방문객이 1차 접종완료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프로그램 적극 운영하고 면적당 인원 제한 면제 • (1차 접종완료자)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비말 발생이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 적극 운영 권장 • (접종완료자) 프로그램 전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노래 교실, 악기 강습 등 비말 발생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프로그램 편성·운영) 학교온(on), EBS, e학습터 등 다양한 e-러닝 콘텐츠를 활용하여 긴급돌봄 운영 내실화 • 초·중·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 통합 지원 누리집 - (초등) 학교온 사이트에 새롭게 마련한 '돌봄 아이디어' 코너의 활동 자료 및 아이디어 공유·활용 ※ [참고 10] 학교온 사이트 이용 방법 및 e-러닝 콘텐츠 안내 - (유치원)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섬 중심'의 돌봄 운영 ※ [참고 11] 유치원 개정 누리과정 포털 안내

그러나 실제로 온라인 수업 및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나타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대응/운영 지침에는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교육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학습기회를 보장하는 필수 불가결한 교육방식으로 대두되었으나, 여러 연구에서 한편으로 원격교육에 따른 교육격차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가정의 학습환경(IT기기 및 인터넷 사용 유무), 부모의 학습지원 정도(맞벌이·다자녀·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등),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 교육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개학대비 조사¹⁷⁾(2020)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22만 3천명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가 없다고 응답하여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아동의 발달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기기의 보급 등의 노력이 있지만, 향후 온라인 수업 시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17) 중앙일보(2020.04.03.). '온라인 개학' 22만3천명 스마트기기 없어...교육부 대여 가능.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확대 등의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4) 참여권

참여권은 아동들이 자신 또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표현,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해당 지침 수립 시 당사자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관한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운영 지침은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대응 지침들은 긴급하게 마련되고 그 후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고 있다. 향후 아동대상의 대응지침 및 운영지침 수립 시 아동의 목소리와 아동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무차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바로 무차별의 원칙이다. 모든 아동은 부모의 인종, 종교, 언어, 경제적 상태,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차별요인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정한 유형의 아동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지침을 살펴보면, 이용 아동을 차별하는 내용은 찾기가 어려우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이용할 수 있는 무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 방역 등 필수 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지원, 지원시간 확대 및 지원비율 인상 등 한시적 지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자녀들도 돌봄공백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의료 방역 대응 인력의 자녀들이 부모의 업무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무차별 원칙을 적용한 사례라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8〉 무차별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업 지침내용

아동영향평가 기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내용		
해당 단위 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 자녀 우선 이용 관련 - 지자체별 관할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기관¹⁸⁾에 공문으로 안내·홍보 실시, 추진현황 점검 • 우선 이용 아동 결정 - (적용범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인력의 자녀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구분		비 고
	보건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 하는 인력에 한함
	기타 지원인력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의심자와 직접 접촉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한편 교육부의 긴급돌봄 운영 지침의 내용은 아니지만 「2021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충청남도 교육청, 2021)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학부모 홍보자료의 활용으로 감염병 예방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다. 세부내용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학부모를 위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로 번역된 홍보물을 활용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 역시 다문화 가족의 부모와 아동들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표 2-9〉).

〈표 2-9〉 무차별에 대한 평가기준과 2021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내용

아동영향평가 기준	2021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내용
해당 단위 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다. 학부모용 홍보자료 활용으로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1) 감염병 발생 시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을 포함한 리플렛 보급 2)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번역본 활용

18)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정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전체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준용하여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도 하였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차별을 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2020)에는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시설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이러한 외출·외박 금지 조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아동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로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에 대한 대응지침은 외출·외박·면회 등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21년 6월 이후로는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외출·외박·면회가 허용되고 있으며, 학습 및 자립교육 등을 위한 외출도 허용되고 있다.

〈표 2-10〉 무차별에 대한 평가기준과 2021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 내용¹⁹⁾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성명서 내용	2020-2021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 내용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시설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20)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 (‘20.11월)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를 권장 • (‘21. 3월) 시설 거주아동의 정서 안정을 위해 외출을 제한적(가벼운 운동 및 주변 산책 등)으로 허용하였으며, • (‘21. 6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아동 생활시설 거주아동의 가족관 관계 개선 및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부모-아동간 대면 면회 및 학습, 자립교육 등 학습을 위한 외부활동을 허용(‘21.6월, 7-1판)하였음 • (‘21. 7월) 지침 8판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4단계에서도 제한적으로 외출·외박 및 면회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시행한 바 있음 • (‘21. 7월) 지난 6월 허용한 부모-아동간 면회(백신2차접종자), 학습 및 자립교육 등 학습을 위한 외출 등

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보호아동 제한적 외출·외박·면회 등 허용.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0505>.

(6)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에 따르면(2020),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력을 신체건강,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놀이의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공중보건을 위한 제한은 최소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 지침과 교육부의 운영 지침의 내용 중에 아동의 권리가 행정적인 편의 사항 때문에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만한 부분은 없다. 코로나19 대응/운영 지침은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돌보는 인력도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동과 돌봄자 인력 혹은 교사의 최선의 안전과 감염예방 등 신체건강을 위한 지침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에 따른 다차원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19 대응/운영 지침이 아동 최선의 원칙이 잘 반영되었는가는 단정지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은 사회구성원, 특히 또래친구와의 상호작용, 놀이 등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며 발달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지침에는 아동의 활동을 제한하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금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교 등 대부분의 아동 관련 시설은 공간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지침 내용의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아동을 가림막 속의 한자리에만 머물게 하도록 하기도 한다²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감염예방 등의 안전과 신체건강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그 이외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반영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0) 금강일보. 2021.07.29. ‘거리두기 4단계...돌봄교실은 위태’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096>.

〈표 2-11〉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업 지침내용

아동영향평가 기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내용	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내용
해당 단위 사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 시설이용자(아동),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실시 (아동발달에 필수적인 놀이 및 신체활동 제한 항목이 포함됨) 4. 접촉의 최소화 • 집단지도실, 활동실 등 시설 내 아동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서로 1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지도 • 시설 외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u>가급적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u>하도록 권고 •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신학기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안전한 긴급돌봄 제공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돌봄 제공 (아동발달에 필수적인 놀이 및 신체활동 제한 항목이 포함됨) • (학급편성) 감염특성(비밀감염)을 고려하여 학생 간 밀접 접촉 사전 방지 • 학생이 밀접 접촉하여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u>프로그램 운영 금지</u> ※ 재채기, 콧물, 가래,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환경 등 고려

(7) 당사자 의견 수렴

아동 당사자의 의견 수렴의 원칙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의견수렴은 아동 의견수렴 및 아동 대상 홍보 등 참여 증진 노력 여부가 포함된다. 사업 등 계획 당시에 아동 및 이해관계자의 욕구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설문, 인터뷰,

간담회 등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아동의 욕구를 직접 들었거나 부모나 교사 등의 욕구를 고려하였다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평가지표 공청회 자료를 살펴보면(아동권리보장원, 2021), 평가지표에 '아동의 운영 참여'가 있다. 아동의 운영 참여에 해당하는 의견 제출은 고충 처리와 구분하며, 주로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의미하고, 환류(피드백)는 종사자가 아동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아동에게 통보하거나 센터 운영에 반영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지난 3년간 1회 이상 아동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아동의 의견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진 경우, 아동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를 구비한 경우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지침에는 아동의 의견 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다함께돌봄센터의 평가항목에는 아동의 운영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에 대응지침을 구성할 때에는 대응지침의 내용에 대한 아동 당사자의 의견반영과 환류에 대한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아동의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8) 홍보

홍보의 경우 아동과 보호자, 종사자 및 교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친숙한 표현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단순히 홈페이지에만 홍보한다면 대다수의 아동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관한 정보와 예방수칙 등을 아동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서비스 기관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안내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아동과 익숙한 만화영화 캐릭터들이 아동의 눈높이에서 재미있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내용, 예방수칙에 대한 내용의 홍보가 아동의 권리의 관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표 2-12〉 홍보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업 지침내용

아동영향평가 기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내용	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내용
해당 단위 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붙임 1~5]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아동용 홍보물 예시) 라바와 함께 마스크 쓰고 코로나19 이겨내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학교 내 주요장소에 부착 • [참고4~7] 출입문, 돌봄공간, 교실 등에 코로나19 예방 수칙, 행동요령 게시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health.kr)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9) 타 법규, 조례와의 관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지침과 타 법규 및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을 해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규 및 타 조례 등과 갈등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분석 결과 특별히 갈등이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갈등우려가 있는 사업(조례 포함)이 존재할 경우 대응지침 마련 시 아동권리의 침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10) 사후평가 필요성

아동의 권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응/운영 지침은 사후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침의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사후아동영향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후평가를 진행하면 지침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차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대응지침이 아동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체계 분석

1) 아동권리보장원의 대응

(1)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 구성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학교의 개학 연기, 아동복지시설의 장기 휴원으로 인한 아동의 돌봄, 건강,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선제 대응체계로 ‘감염병 대응 TF’를 운영하였으나, 더 적극적이고 현장중심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 하위 조직으로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표 2-13〉 아동권리보장원의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구분	내용
구성	아동권리본부장(추진단 단장), 본부(센터)별 부장·실무자 등 총 14명
운영기간	’20. 4. 8. ~ 별도 조치 시까지
주요역할	• 복지부·지자체 정기 보고 및 NGO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대외협력) - 보장원 사업 유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현황 모니터링(일 단위) - 보장원 서비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유증상자 모니터링(일단위) - 지역 전달체계, NGO 등 협력체계 구축(비상망 구축, 화상회의 정례화 등) • 보장원 서비스 공백 최소화 전략 마련(콘텐츠 개발, 홍보·확산) -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른 단계별 전략 마련 - 개학시기 차이에 따른 아동서비스별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아동 필요요구별(가정 돌봄, 학습, 건강, 신체놀이 등) 지원 방안 마련 - 지역 내 서비스제공기관의 자원연계 지원 • 감염병 대응 단계별 매뉴얼 마련 지원(콘텐츠 개발) - 감염병 예방관리(시설·개인) → 감염병 발생 대응지침 → 대면 서비스 중단 등 장기화에 따른 지침 → 서비스 정상화 관련 사후관리 등에 따른 단계별 매뉴얼 마련 지원 •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아동참여 보장(홍보·확산) - 아동이 감염병에 취약한 보호대상으로서만 인식되기보다는 비상상황대응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개선 -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기획 및 아동참여 기회 확대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0c).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2)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의 활동 추진전략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의 추진전략의 초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아동의 일상생활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감염자 발생,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아동 결식 우려 및 학습권 보장 문제, 아동복지시설의 폐쇄와 대면 서비스 중단에 따른 아동보호와 돌봄의 공백 등 복잡한 위기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무추진단의 추진전략으로는 ‘위기상황 시 구체적인 현장 수요 파악으로 현실성 있는 대응 추진’,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침에 따라 경보단계별 대응 가이드 마련 지원’, ‘아동복지현장 비상 상황과 아동 대상군에 따른 대응 가이드 마련 지원’, ‘유엔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별, 아동 욕구 지원 대응방안 추진’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20)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아동에게 막대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여 당사국에 아동권리에 입각한 철저한 보호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실무추진단도 4대 아동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응활동을 수행하였다.

〈표 2-1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요구사항

아동권리	요구내용
생존권	영양가 있는 음식과 깨끗한 물의 공급, 의료·위생·출생등록과 같은 기본 서비스의 제공, 격리 아동에게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보호권	가정 내 격리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모든 아동을 차별 없이 보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선별적 조치
발달권	온라인 학습 사각지대 지원, 여가·놀이·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모색
참여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이 참여할 기회 제공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0c).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3) 아동권리별 대응활동 내용

①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

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유니세프 코리아, 2020).

실무추진단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첫째, 보호에 취약한 아동 및 보호자의 확진 및 격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 둘째, 위생수칙 및 생활방역 등 아동·보호자가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

구분	내용
서비스 영역별 긴급보호 현황 모니터링	• 이용시설 휴원 후 긴급돌봄 체계 전환 운영현황 취합·보고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생활시설 내 아동 돌봄 모니터링(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가정 내 양육 중인 보호아동의 돌봄(사례관리대상 아동) 지원 강화
시설 내 감염자 발생지침에 대한 지원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대응지침 안내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참여시설 지침 안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지침 안내 • 집단행사 방역관리 및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안내 • 의심환자·유증상자 등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지자체별 전담공무원제 운영 등을 통한 단체생활시설 방역물품 지원 및 자체소독, 예방수칙 준수 등 공지 및 확산 방지 독려 • 정부지침에 관한 아동판 제작
공동체를 위한 생활방역 지침 제작	•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각 공동체별 생활방역 지침 제시 - 가정, 기관 및 1:1 사례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활방역 가이드 제작
방역물품 지원 및 필요자원 연계	•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각 기관별 필요물품 육구조사 진행 • 아동 및 기관종사자 개인방역 물품(손소독제, 마스크 등) 지원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0c).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② 아동 보호권 보장을 위한 지원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

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유니세프코리아, 2020).

실무추진단은 보호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학대예방 지원'과 '취약한 보호 상황에 대한 지원',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활동 목표를 설정하였다. '학대예방 지원' 활동의 목표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방임 등 학대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며, '취약한 보호 상황에 대한 지원'의 목표는 아동보호에 취약한 보호자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시설 내 아동에 대한 보호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회·경제적 긴급지원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보호종료 아동 심리상담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동 보호권 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은 <표 2-16>과 같다.

<표 2-16> 아동 보호권 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

구분	내용	
학대예방 지원	가정 내 학대예방 지원	• 학대예방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 • 학대예방 신고 안내 및 상담서비스 지원 - 카드뉴스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신고앱(아이지킴이콜) QR코드 안내, 학대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미취학아동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 안내문자 발송 추진
취약한 보호 상황에 대한 지원	특별한 욕구 상황에 있는 보호자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	• 가정 내 아동 돌봄 시간이 증가한 고연령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양육 가이드 제공 - 사례관리 아동 중 고령의 보호자(조부모 등) 유선상담 정례화 • 코로나19 대응으로 온라인 예비입양교육 실시(보건복지부, 법원 협력) - 신속한 입양절차를 통해 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주거, 식생활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지원	•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안내 지원 • 주거, 식생활 등 아동보호를 위한 콘텐츠 개발 -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관리 안내, 기관 내 아동의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경제적 긴급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발생현황 조사 • 사회·경제적 긴급지원 필요 여부 검토 및 정보제공 접근성 강화 - 자립지원 모바일 어플 개발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예정
	보호종료 아동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 실시	• 한국상담심리학회 연계 전문상담서비스 지원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0c).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③ 아동 발달권 보장을 위한 지원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유니세프코리아, 2020).

실무추진단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지원은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습 지원’과 ‘심리정서 발달 지원’, ‘건강한 신체발달 지원’이 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습 지원’의 목표는 온라인 학습 환경 편차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심리정서 발달 지원’의 목표는 감염병 유행에 따른 불안과 집단 우울감 등 심리방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건강한 신체발달 지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최소화 등 아동의 신체활동 제한을 보완하기 위한 실내 신체놀이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아동 발달권 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은 <표 2-17>과 같다.

<표 2-17> 아동 발달권 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

구분	내용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습 지원	온라인 개학 활용 가이드 지원	- 온라인 개학에 대한 정보 콘텐츠 제공 - 아동, 보호자, 종사자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체크리스트 제공
	온라인 학습환경 지원	학습지, 학습도구, 도서, 노트북 등 온라인 학습을 위한 물품 지원
심리정서 발달 지원 (마음방역)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방역 콘텐츠 제공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가족마음방역 콘텐츠 활용 배포 - 온라인 활용 확대에 따른 사이버 중독 예방 콘텐츠 개발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아동의 온라인 활용 확대에 따라 사이버 중독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관계회복을 위한 콘텐츠 제공	- 생활방역 전환에 따른 아동 관계회복 관련 콘텐츠 제공 -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온·오프라인 활동과 실천 방안을 담은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코로나19 트라우마 등 심리·정서 지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 위탁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심리·정서적 문제 발생 시 지원 - 보호종료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 한국심리상담학회와 심리상담사 연계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보호대상 입양인 한국어교육, 심리상담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구분	내용	
건강한 신체 발달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생활 콘텐츠 제공	- 위탁아동 교육지원 사업 - 한솔교육희망재단 위탁아동 도서 전집 16세트 지원(1~10세 대상) - 개학연기 등에 따라 아동이 활용 가능한 무료 온라인 콘텐츠 소개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부모 대상 80가지 콘텐츠 자료 공유
	실내 놀이 콘텐츠 지원	보호자 및 종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 놀이 콘텐츠 제작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0c).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④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지원

참여권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을 말한다(유니세프코리아, 2020).

실무추진단은 참여권 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첫째,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사회 문제에 아동이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둘째, 권리를 지닌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은 <표 2-18>과 같다.

<표 2-18>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세부 활동 내용

구분	내용
‘주체적 권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강화	- 아동이 감염병에 취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아닌, 사회문제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라는 인식 증진 - 아동의 ‘참여권’ 향상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응원 캠페인 진행, 감염병 대응에 수고하는 아동복지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 이벤트
아동과의 다양한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 마련	- 아동권리보장원 내 아동참여 플랫폼 개설 추진 - 유관기관 온라인 참여형 게시판 운영현황 조사 → 코로나19 등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아동의 주요 질의내용 조사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개편(2020년 7월 예정) 시, 아동만의 참여게시판 신설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0c).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4) 아동복지서비스별 대응활동 내용

아동권리보장원의 코로나19 대응활동도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과 정부의 방역조치 단계에 따라 전개하였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단계별로 아동복지 현장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① 아동권리본부 대응활동

(담당사업: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본부는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를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아동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홍보와 대외협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아동과 가족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돌봄과 관련한 것이었으므로, 아동권리본부는 먼저 긴급돌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아동과 가족, 아동기관 종사자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대응사항에 따른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지원하는 아동기관에 코로나19 대응 현행화 가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동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아동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② 아동보호본부 대응활동

(담당사업: 입양 및 입양인 지원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사업, 디딤씨앗지원사업)

아동보호본부는 보호대상아동의 대안양육체계인 입양과 가정위탁보호사업,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산형성사업(CDA)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본부에서는 보호대상아동과 이들을 보호하는 기관과 양육자(위탁가정,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아동보호본부의 대응 중 가장 눈에 띄는 대처는 기존에 대면 방식으로 수행하였던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아동보호본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서비스 이용자와 아동기관에 대해 서면형식으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SNS 소통 채널 개설, 온라인 교육과 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도입하였다.

③ 아동학대예방본부 대응활동

(담당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실종아동지원사업)

아동학대예방본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종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본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관심단계부터 현장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빠르게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업무지침과 대응매뉴얼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례관리 아동의 안전상황을 전수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2)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교육부에서는 2020년에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해서 운영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교육부는 유·초·중·고·대학 등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상황에 총괄 대응하고, 원격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학습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 부처 최초로 2개의 긴급대응반(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을 설치하는 등 공백 없는 방역·배움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교육부, 2021).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여 교육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기 4차례 개학 연기 및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2020년 5월 이후에는 지속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등교를 병행하도록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에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방식이 실시되고,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오석환, 2021).

(1) 학사운영에서 방역·학습·돌봄 3대 교육안전망 마련

① 방역 안전망: 방역체계를 촘촘히 보완하고 심리방역 강화

학교에서는 방역물품 충분히 비축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현장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물품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일괄 구매하도록 하고, 교원의 수업 전념을 위한 방역 인력 지원을 추진하는 등 학교의 방역 역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자가격리확진자는 물론 일반 학생이나 교직원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심리방역’에 노력을 기울였다. 정신과 전문의 60여명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 비대면 24시간 모바일 상담시스템 등 맞춤형 심리 지원을 강화하였다.

② 학습 안전망: 학습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교육용 사이트 접속을 위한 모바일 데이터 무상 지원 등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바탕으로 초·중고 학생 534만 명 중 98.9%가 원격수업에 참여하였고, 교사가 업로드한 콘텐츠 수도 2,890만 개(7.31 기준)에 이르는 등 원격수업이 점차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 기초학력 부족 학생 대상 1:1(소그룹) 맞춤형 대면 지도를 확대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협력수업을 활성화하는 등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위기학생 등 원격수업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시각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원격수업 콘텐츠에 점자자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달장애 학생은 필요시 철저한 방역 하에 1:1 또는 1:2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③ 돌봄 안전망: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학생 안전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돌봄공백과 아동학대 등 보호안전의 사각지대가 발견되었다. 이는 학교 안팎에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였으므로, 돌봄서비스 확대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교실 리모델링 등 돌봄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24(정부종합민원포털)와 연계해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교육지원청,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 이 참여하는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위기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통합적인 대응을 추진하였다.

(2) 학교 방역 시스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새로운 학교방역 모델을 도출하였다. 코로나19 유행 단계에 따라 방역 지침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관별 방역 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다.

〈표 2-19〉 코로나19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학교방역 모델

구분	밀집도 완화된 수업모델 개발	학교 내 촘촘한 방역환경 조성	유증상자 밀착관리
주요내용	• 지역별 등교규모 기준 조정 • 등교 및 쉬는 시간 차등화 • 교실분반 수업 및 온·오프라인 블렌디드러닝 •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	• 책상 이격배치, 창문 수시 개방, 열화상카메라 설치 • 마스크, 냉방장치 사용기준 마련 • 책상·출입문 손잡이소독 • 식탁 칸막이 설치, 단방향 식사	• 등교 전 자가진단 및 유증상시 등교 중지 • 임상증상 발생시 전원선별 진료소 방문 진단검사 • 해외 입국자 등교 중지 • 기숙사 입소 전 진단검사

* 출처: 교육부(2021).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백서.

(3) 돌봄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청, 학교 등은 상호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을 제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장밀착형 긴급돌봄 대응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학사운영과 연계한 긴급돌봄 제공, 긴급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의 돌봄 강화, 수요조사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제공, 긴급돌봄을 위한 지침 마련과 프로그램 내실화, 긴급돌봄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운영 등의 성과가 있었다.

〈표 2-2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계적 돌봄 대응

구 분	긴급돌봄	긴급돌봄 (온라인 개학 시)	등교수업 후
적용시기	개학연기(휴업)로 인한 돌봄운영(3.2~4.15)	초등 온라인개학 시 돌봄운영(4.16~5.26)	등교개학 시 돌봄운영 (5.27~현재)
대상	1~6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1~6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 저학년 맞벌이 우선	대상 학생 ※ 맞벌이, 저소득, ·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7시	오전 9시~오후 7시	오전 9시~오후 7시
학급규모	급당 10명 내외	급당 10명 내외	밀집도 고려하여 운영
중식	도시락 지참 및 중식제공	중식제공 (도시락 매식 등)	학교급식 제공
프로그램 및 수업	EBS, 학교온 등 온라인콘텐츠 활용	원격수업, EBS, 학교온 등 온라인콘텐츠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인력활용	모든 교직원 참여	원격수업 지원은 원격학습도우미 활용(방과후학교 강사 등), 돌봄은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담당	원격학습도우미 활용 (원격수업 지원, 방역활동 등), 돌봄은 전담인력이 담당, 필요시 보조인력 활용
코로나19 안전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준용 매뉴얼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및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 출처: 교육부(2021).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백서.

(4) 코로나19 시기 교육비 지원

코로나 19시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추진되었다.

첫째,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예산 640억 원(2020 결산기준 838억 원(국고3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였다.

둘째, 원격수업으로 인한 급식 중단 상황에서 학부모 및 생산농가 등의 어려움해소

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급식 잔여예산을 활용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 500만 명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되었고, 농산물 4만 5천 톤이 소비되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코로나19에 따른 아동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년 9~10월 중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특별 돌봄, 비대면 학습 지원을 실시하였다.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령기 학교밖 아동을 포함하여 400만 명 이상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넷째,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20년 선제적으로 시행(한 학기 내외)하여 학업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큰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고교무상교육은 당초 국정과제 계획 보다 1년 앞당겨 '20년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1 무상교육도 조기 시행하게 되었다(오석환, 2021).

3) 여성가족부의 코로나19 대응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위기와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과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공백 등 가족문제 대응을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과 공동체 돌봄 확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지원 강화', '고립감과 우울감 등 가족문제에 대한 심리·정서상담 지원', '비대면 가족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지역 내 취약 가족의 발굴 및 통합 지원' 등이 대응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여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한부모사례관리 가족을 위한 생필품지원 등 지역센터를 활용한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또한 '긴급돌봄지원TF'를 구성한 바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 그 일환으로 "가족관계방역 카드뉴스"를 배포하였으며, 아동학대 및 방임아동 지원 등의 시범사업과 매뉴얼 개발 등 대응하고 있다(박경은, 2020).

(1) 가족센터 기반 자녀 돌봄 수요 파악 및 서비스 연계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맞벌이,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개별 가족의 여건에 따라 자녀 돌봄문제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활동

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 가족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군·구별로 센터가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비상시 가족의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관기관으로 역할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돌봄취약계층 가정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기관에서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지도사, 배움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가정방문 돌봄 인력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 및 돌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주민이 주도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역의 33개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 '공동체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020년 268개소에서 2021년에는 33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 2-21〉 여성가족부의 온라인 학습지원

방식	사업	대상	지원 서비스 내용
가정내 돌봄지원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영상 시청,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원격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
	배움지도사	한부모 조손가족 초등학생	
	아이돌보미	맞벌이가정 등 초등학생	-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재 등 준비물 보조 - 학습 분위기 조성(소음 억제 등) - 돌봄대상아동의 학습상황 관찰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초·중학생	-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영상 시청,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온라인 학습지원 (지역 교육지원청 연계)
시설이용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방과후아카데미 원격수업지원 - 원격수업지원으로 인력 부족 시 대학 근로장학생 활용 - 원격수업에 필요한 근거리 무선망(Wi-Fi) 및 시설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학생	-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원격 학습 지원

* 출처: 김영란(2020).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아이돌보미 안심 보증제 도입

코로나19와 가족생활 실태조사(2020) 결과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해보면, 이는 감염병 시기 기관의 집단 돌봄서비스에 불신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정 방문 돌봄 인력의 보건 위생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재가돌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보미는 이동이 많고 다수의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아동과 아이돌보미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감염병 안심 보증제’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의 정부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긴급돌봄에 대응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안전한 돌봄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 가족관계 개선, 우울감 및 스트레스 대응을 위한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가족 갈등 경험도 높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도 커진 것으로 코로나19와 가족생활 실태조사(2020)에서 나타났다. 이에 코로나 블루, 고립 우울감 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성가족부는 코로나로 인한 가족문제에 대한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장기간의 ‘집콕 생활’로 인해 누적된 고립감과 우울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족 간 갈등 등에 대해 심리·정서상담서비스 지원하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가족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가족상담 전문인력을 306명으로 확충해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219개소)의 심층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족 내에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기관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가구 단위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다.

(4) 비대면 가족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스템 마련

현재 가족센터에서 문화체험, 캠프, 교육 등 가족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고 육아품앗이사업 등을 하고 있으나 모두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족상담 역시 전화상담 이외에는 모두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가족 사업에서 비대면 방식의 활동 프로그램이나 상담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운영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상담 운영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며,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을 위한 지원과 비대면 가족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에 있다.

(5) 지역 내 취약 가족의 발굴 및 통합 지원

취약한 가족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기 고용불안정, 소득감소, 결식, 돌봄 공백 등의 문제와 더불어 열악한 주거여건에서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지내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위기가족 긴급지원 규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족에게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을 2021년에 79개소에서 88개소로 늘리고 원격 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령기 자녀가 있는 한부모와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배움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등의 가정방문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4)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1) 가족돌봄휴가제 개선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휴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폭주하였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9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연장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아동과 관련해서는 휴가 기간 확대와 유급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감염병 등 긴급상황 시 이용 가족 범위 확대 등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아동을 기준으로 직계 가족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 감염병 심각 단계와 같은 긴급상황에서는 부모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의 확대가족 자원을 활용하여 여러 명이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

(2)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1년도 추경에 420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 원)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5)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1) 코로나19 감염아동 자가치료 안내서 발간

아동이 격리될 경우 부모와 분리로 인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는 정신건강의 큰 위협이 되며 이로 인한 애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이후 평생에 걸쳐 오랜 기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슬픔, 불안, 죽음에 대

한 공포, 부모의 죽음에 대한 공포, 병원에 혼자 고립되는 것에 대한 공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이는 심리적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격리 조치의 심리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에서 격리자의 28~33%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그리고 20%에서 공포를 보였으며, 이외에도 우울, 기분 저하, 불면, 분노, 정서적 소진 등을 보였다(최지옥, 2021).

이와 같은 이유로 만 12세 이하 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치료 센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보호자와 집에서 격리 상태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도 확진된 경우 자가 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소아 2명이 감염되더라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일 경우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소아, 보호자 모두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자가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방역당국은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소아 환자 등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4. 시사점

1)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의 시사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이며 아동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권리 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의 4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중의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이며, 이 전략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가정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보호와 돌봄체계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정 양육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모성 보호 사각지대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보호와 돌봄시설 내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과 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시설면적기준과 종사자 및 아동 비율을 개선하는 안도 계획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행,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환류할 수 있게 돕고, 이 과정에서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고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0b).

2)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영향평가 분석틀을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의 2021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7-3판)」과 교육부의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제3판)」 지침서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지침의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지침 내용에는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며,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분의 내용이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권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대응/운영 지침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서비스와 정신건강 서비스의 내용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22>에는 아동 정신건강 관련 법률과 그 내용이 담겨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실시하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근거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 아동의 재난 및 트라우마 관련 심리·정서지원 및 정신건강지원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완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난대응 지침의 정신건강 관련 내용이 새롭게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22〉 아동 정신건강 관련 법률 내용

아동 정신건강 관련 법률	아동 정신건강 관련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복지법」	-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시행령: 35조2항에 따른 지원서비스 2. 정신적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 관련 검진, 상담 및 교육서비스
「청소년기본법」	-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사회의 책임)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 정신건강 관련 법률	아동 정신건강 관련 내용
「학교보건법」	• 제7조(건강검사 등)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교육기본법」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아동의 발달권과 관련한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학습의 실시로 인한 교육격차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기기의 보급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향후 온라인 수업시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확대 등의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무차별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거나 코로나19 방역현장 인력의 자녀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 있고,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아동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특정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외출·외박·면회 금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관련 지침은 계속 수정 보완을 거쳐 개선 중에 있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방역 관련하여 다소 제한점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대응 지침들은 직접적으로 아동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력을 신체건강,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놀이의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공중보건을 위한 제한은 최소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운영 지침은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돌보는 인력도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동과 돌봄자 인력 혹은 교사의 최선의 안전과 감염예방 등 신체건강을 위한 지침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차원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감염예방 등의 안전과 신체건강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그 이외의 다른 측면들 특히 아동의 놀이가 제한받는 등 아동최선의 이익의 반영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아동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시사점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교 및 등원 제한으로 아동의 교육은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일상 활동의 제약으로 아동이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처럼 가정 내 교육과 돌봄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가운데, 아동은 돌봄의 공백 상황에 놓이거나 교육 격차가 심화된 교육 불평등의 상황에 놓이거나 폭력에 노출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담아낸 최초의 포괄적 협약으로, 4대 기본원칙(무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보호·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 하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협약이다(유니세프코리아 홈페이지, 2021). 아동의 권리란 아동이 가진 인권, 즉 아동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고 있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과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이러한 아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아동의 행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는 아동들의 생존권의 관점에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하여 왔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돌봄현장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한시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도 하였다. 학교의 휴교와 유치원 휴원과 원격수업에 따른 급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교육부의 농산물 급식 꾸러미 제공 등도 급식 공백의 해결과 아동의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식생활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아동의 결식비율도 증가하였다. 아동에게 규칙적이고 균형있는 식사는 아동의 건강과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은 가장 긴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아동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배포하며, 종사자의 사전 교육을 통해 대응방안을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대응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학대 대응인력과 피해아동가정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기에 단계별로 대응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침을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재발방지와 업무 사각지대 발생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재난 상황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동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동보호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위험 아동을 예측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집되는 사회보장 빅데이터 변수뿐만 아니라 아동특화 변수인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여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 이력 등 위험변수를 추가하고 어린이집과 학교의 취학과 출석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아동 가정방문 등 아동면담 실적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아동학대 기반시설의 확충, 쉼터와 전문위탁가정

제도의 활성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처우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하도록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윤혜미, 2020).

셋째, 아동의 발달권과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교육계의 대응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권과 발달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 간 준비도의 편차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나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는 못했다. 「교육기본법」은 학습권을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규정한다. 정부는 가정환경이 열악한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수업 실시 이후에 학력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격차를 더욱 줄여나갈 대책이 필요하다(강대중, 2020).

특히 코로나19 상황은 학교의 돌봄기능 확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긴급돌봄, 긴급보육 대책이 수립되었지만 정책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강대중, 2020).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중의 한 가지는 바로 ‘아동 의견 존중’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각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아동이 동일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에 대한 정보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감염병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도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아동권리보장원, 2020c).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아동의 참여와 아동의 욕구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으며, 아동뿐만 아니라 유아를 위한 정보는 드물고, 코로나19를 위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례도 드물다(아동권리보장원, 2020c).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단체에서는 아동과 함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 참여 토론회’를 열고, 아동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굿네이버스, 2020). 토론회에 참가한 아동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 맞춤 정보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상

황에서도 아동의 놀 권리에 주목하는 어른이 많아지면 좋겠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등 아동만의 생생한 시각이 담긴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동을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하고, 아동 관련 정책에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다(박정순, 2020).

III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코로나19 아동인권 기반 대응

Ⅲ.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코로나19 아동인권 기반 대응

1. 국제기구의 코로나19 확산과 아동인권에 대한 우려

아동의 권리 및 보건 영역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UNICEF, UN 아동권리위원회,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World Bank와 같은 정부기구,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ction Network(ECDAN)과 같은 비정부기구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기구가 우려한 아동인권 침해 상황, 아동과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및 국제기구가 촉구하는 사회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UNICEF

(1) UNICEF가 우려하는 아동인권 침해 상황

UNICEF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동과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출처: COVID-19 and children: UNICEF data hub)

① 더 많은 가구가 빈곤가구로 추락

- 개발도상국 아동 1억 4천만 명이 추가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됨

② 학습위기가 악화됨

- 2020년에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4억 6천 3백만 명의 아동이 비대면 학습에 접근할 수 없었음

③ 아동의 생존과 건강 위협

- 78개국 자료에 의하면, 8,700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앞으로 1년간 20만 건의 유산이 추가될 수 있음

④ 취약한 아동의 영양실조 위험 증가

- 3억 7천만 명의 아동이 영양가 있는 학교 급식을 공급받지 못할 것임

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

- 코로나19로 인해 적어도 68개국에서 1세 미만 8천만 명의 아동이 필수 백신을 받지 못함

⑥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에이즈와의 전쟁 후퇴

- 6개월간 예방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12만 4천 명의 아동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음

⑦ 폭력, 착취, 학대의 위험 증가

- 66%의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과 관련된 폭력예방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응답함

(2) UNICEF가 제공하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UNICEF는 ‘부모를 위한 코로나19 지침(Coronavirus Guide for Parents)’이라는 별도의 섹션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개 섹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학습과 놀이’에서 다루는 내용 중 일부

- 1-1.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의 학습을 돕는 5가지 방법
- 1-2.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로 복귀하기
- 1-3. 코로나19와 인터넷 안전
- 1-4. 영유아에게 자극을 제공하는 실내놀이 아이디어

② ‘보건과 건강’에서 다루는 내용 중 일부

- 2-1. 팬데믹 상황에서의 양육
- 2-2. 아이에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설명하기
- 2-3. 코로나19로 힘든 아이들을 부모가 지지하는 6가지 방법
- 2-4.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용하는 수 있는 건강하고 적당한 가격의 먹거리

③ ‘임산부와 신생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위하여’에서 다루는 내용 중 일부

- 3-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건강하게 산모와 아기 보호하기
- 3-2.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모유수유하기
- 3-3.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3가지 자기관리

④ ‘긍정적인 상태 유지하기’에서 다루는 내용 중 일부

- 4-1. 가정에서 조화롭게 생활하기
- 4-2. 체계적인 시간 관리
- 4-3. 아이와 개별적인 시간 갖기
- 4-4.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 다루기

이 외에 아이들에게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104개국 1,700명의 어린이, 부모, 돌봄제공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아 재난 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인도적 지원기관 관 상임위원회 준거집단(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Reference Group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이 “당신은 나의 영웅(my hero is you)”라는 책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백여 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한국어판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 UNICEF에서 발간한 ‘당신은 나의 영웅’의 한국어판 중 일부

(3) UNICEF가 촉구하는 사회적 변화

UNICEF가 촉구하는 사회적 변화 중 아동의 주요 환경을 구성하는 가족과 학교

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UNICEF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가족친화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1. 유연한 근무환경의 조성: 근무시간 유연화, 휴직정책 유연화, 근무장소 유연화
- 1-2.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안전하고 적절한 아동돌봄 제공
- 1-3.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개인안전(예: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제공 등

② UNICEF는 학교폐쇄 및 재개, 온라인/TV/라디오를 통한 비대면 교육 접근성에 대해 전 세계 국가의 교육부로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육실태를 조사하였다. 학교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실태와 교사 및 아동의 감염률 등을 근거로 학교폐쇄 및 재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학교폐쇄는 아동의 건강, 교육, 발달, 가족의 소득과 전반적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는 우리가 안전이 담보되어 있을 때 학교가 가장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다시 문을 열어야 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학교를 폐쇄하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을 때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2) UN 아동권리위원회

(1) UN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4월 8일 성명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어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공공보건 정책을 실현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성명서의 11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력을 신체건강,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놀이의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 국가의 비상사태 선언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인권의 향유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중 보건을 위해 국제인권법도 일부 인권의 제한을 허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제한은 필요할 때 최소한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각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협약 실행에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아동이 휴식하고 놀 수 있는 권리와 문화적/예술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 이러한 방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기준을 적용하여 적어도 성인 지도가 따르는 야외활동을 하루에 한번 이상 하는 것, TV/라디오/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이 있다.

③ **온라인학습이 현존하는 교육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교사-학생 상호작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온라인학습은 교실학습의 창의적 대안이지만 기술 및 인터넷 접근성이 부족한 아동이나 부모의 적절한 지도가 없는 아동에게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아동이 교사로부터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④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많은 아동이 유일한 영양식을 학교급식을 통해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긴급, 재난, 혹은 락다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의료서비스, 식수, 위생 그리고 출생신고와 같이 아동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의료서비스 과부하와 의료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의료서비스(코로나19와 관련 있는 혹은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검사와 백신), 정신건강 서비스, 기저질환의 치료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긴급, 재난, 혹은 락다운 상황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서비스는 늦춰져서는 안 된다.

⑥ **가정방문과 같은 핵심적인 아동보호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도록 하고 락다운되어 있는 아동에게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로 아동은 가정내 신체적/심리적 폭력에 노출되거

나, 과밀하거나 최소한의 거주기준도 충족되지 않은 가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 장애나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과 가족은 가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정부는 전화와 온라인 신고 및 의뢰체계를 강화하고 TV, 라디오, 온라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과 인식수준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에는 아동, 특히 빈곤아동이나 적절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⑦ 팬데믹으로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 이런 아동으로는 장애아동, 빈곤아동, 노숙 아동, 이민자 아동, 난민 아동, 국내 실향민 아동, 소수민족 아동, 토착민 아동, HIV/AIDS를 포함해 기저 질환이 있는 아동,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유치장, 감옥, 이민자 수용소 등에 수용된 아동, 그리고 시설 아동이 해당된다. 국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행할 때 모든 아동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실행해야 한다.

⑧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시설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많은 정부가 시설에 살거나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예: 유치장, 감옥, 이민자 수용소 등)의 면회나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제한이 필요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아동은 항상 가족과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전자통신이나 전화로라도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긴급상황이 연장될 경우, 방문을 제한하는 정책이 재사정되어야 한다. 이민관련 상황에 놓인 아동은 구금되어서도 안 되고 동반한 부모와 떨어져서도 안 된다.

⑨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지침을 어긴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어 있는 아동은 즉각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 ⑩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는 장애아동, 이민자 아동, 인터넷 접근이 제한적인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아동친화적인 포맷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⑪ 팬데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고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아동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며 팬데믹에 대응한 결정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2)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에 대한 국가의 반응

각국은 2020년 4월에 발표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에 다음과 같이 대응 현황을 보고하였다. 다음은 스코틀랜드 정부의 대응상황으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8월 6일, 10월 2일 대응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의 11개 항목에 대한 스코틀랜드 정부의 대응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한 방법과 예산편성

- [2020년 8월 6일] - 아동권리와웰빙영향평가(Child Rights and Wellbeing Impact Assessment[CRWIA])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정책(Acts)을 위해 발표되었음. 성명서 권고사항 11번에 기초하여 아동권리단체와 아동 및 젊은이(young people)의 견해가 CRWIA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2020년 5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코로나19 아동과 가족 집단 리더십 그룹(leadership group[LG])을 조직하여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취해야 할 액션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아동, 젊은이, 가족 자문단(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Advisory Group[CYPFAG])을 구성하여 LG를 지원하도록 하였음. 2020-21 스코틀랜드 예산은 예산구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우리는 기회, 부, 권력을 더 평등하게 공유함으로써 빈곤에 대항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였음.
- [2020년 10월 2일] - 3단계 CRWIA가 2020년 9월 25일 발표되었음. 보고서에 기초하여 아동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아동과 젊은이들이 가능한 한 일상적인 사회적 모임을 가져야 한다고 제1장관이 발언하였음.

② 쉬고 여가를 즐기고 놀 권리와 문화예술 활동

- [2020년 8월 6일] - Parent Club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놀이와 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신체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내용도 다양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실외활동이 아동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실외놀이공원은 6월 29일부터, 실외 스포츠 활동은 7월 13일부터 재개하였음. Young Scot은 어린 양육자(young carer)가 돌봄을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패키지(young carer package)를 제공하고 있음.
- [2020년 10월 2일] - Creative Scotland를 통해 음악과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를 통해 교내/교외 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임. Access to Childcare Fund를 통해서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 돌봄, 음식, 가족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③ 온라인학습

- [2020년 8월 6일] - 2020년 8월 11일 학교가 문을 열었음. 디지털 소외로 인한 학습기회 손실을 막기 위해 교육에 적합한 노트북 컴퓨터와 6개월 무료 데이터 사용을 제공하는 Connecting Scotland 시범사업을 하고 있음. 2020년 4월에 스코틀랜드 정부는 코로나19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생, 부모, 교사를 위한 학습 지침을, 6월 5일에도 학습의 지속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 학교수업 재개에 따른 정보는 Parent Club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TV, 라디오,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되었음.
- [2020년 10월 2일] - 다양한 온라인학습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Connecting Scotland도 지속하고 있음. Youth Link Scotland가 젊은이들의 디지털 기술 학습 욕구가 급상승했다는 점을 보고하자 정부는 훈련을 지원하였음.

④ 음식 접근성

- [2020년 8월 6일] - 가구 내 음식지원(현금 지원 포함)과 교내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편성되었음. 팬데믹 상황으로 가구의 경제상황이 바뀐 상황에 맞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음. Food Fund 지침

은 현금 우선 정책을 표명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맞춰 유연하게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함.

- [2020년 10월 2일] - 학교가 재개하면서 학교는 지속적으로 선별적 무료 급식과 보편적 무료 급식(초등학교 1학년~3학년)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고 있음. 만약 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면 현금, 바우처, 가정배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음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⑤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2020년 8월 6일] - 보편적 의료서비스인 Health Visitors와 Family Nurses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음. 주민등록서비스 중 사망신고가 이 시기에 더 많이 강조되기도 하였으나 국가기록부(National Records of Scotland)와 함께 출생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음. 2020년 4월에 집시들을 위한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음(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구성원의 캐러번 격리, 공동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 화장실과 세면시설 설치)
- [2020년 10월 2일] - 보건과 돌봄 영역에 추가재원이 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상적인 보건, 돌봄, 병원진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⑥ 아동보호

- [2020년 8월 6일] - 2020년 3월 21일 가정폭력과 관련한 아동보호 지침이 관련기관에 배부되었음. Childline, Stop it Now! Scotland와 같은 민간기관이 아동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미디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음. 시설아동에 대한 지침도 개발되었으며, 폭력에 연루된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 조기중재 프로그램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성명이 사회복지사 협회, 경찰청, 정보를 통해 발표되었음. 면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상심의(virtual-hearing)가 진행되었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경우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면담을 할 것을 제안하였음.
- [2020년 10월 2일] - 8월 6일과 동일함.

⑦ 취약아동

- [2020년 8월 6일] - 취약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추가지원금이 배정되었으며 아동가족이사회(Children and Families Directorate)가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치는 실제적/잠재력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으며, 경찰청, 보건서비스 등과 같은 국가기관, 지역사회 파트너십 등을 통해 매주 자료가 수집되고 있음. 어린 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하였으며, 저소득 양육자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음. Social Security Scotland는 Young Carer Grant 신청자를 매달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정보로 나누어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2020년 10월 2일] - 자가격리로 인해 소득에 손실을 입은 저소득층을 위해 자가격리 지원금(self-isolation support grant)이 지급될 예정임. 휴교로 학습에 타격을 입은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Attainment Scotland Funding을 배정하였으며 담임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Pupil Equity Fund도 2020년부터 2년간 배정하였음. 보조교사와 지원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예: 장애아)을 위해 학년 및 교급 전환 지원, 학교재개 등과 관련된 지침을 Parent Club을 통해 개시하였음.

⑧ 자유롭지 않은 상황의 아동

- [2020년 8월 6일] - 만료기간이 가까운(5월 4일 기준으로 90일 이하 복역) 단기 복역수(18개월 이하)는 출소조치 되었음. 종신형이나 성범죄자, 가정폭력범, 테러범죄자는 해당되지 않았음. 면회가 제한된 경우 일주일에 2.5파운드의 전화사용비가 지급되었으며 화상통화를 통해 가상 방문을 진행하였음. 스코틀랜드에 있는 유일한 이민자수용소인 Dungavel에 구금된 아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아동은 보호시설(secure care)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상황점검 후 퇴소하고 있음.
- [2020년 10월 2일] - 면회가 2020년 8월 3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부 감옥에서는 다시 연기되기도 하였음. 9월 10일 이후 한 번에 면회할 수 있는 가구의 수를 2가구에서 1가구로 줄이는 결정을 하였음.

⑨ 코로나19 규정을 어긴 아동

- [2020년 8월 6일] -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어긴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16세 혹은 17세 이하 아동에게는 고정벌칙통지(fixed penalty notice)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2020년 10월 2일] - 위와 동일함.

⑩ 아동친화적인 정보

- [2020년 8월 6일] - Children in Scotland, Children's Parliament, Scottish Youth Parliament, Young Scot과 같은 다양한 아동단체들과 협업하여 아동 및 젊은이와 코로나19에 대해 명료하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2020년 5월 15일에 쉬운버전(easy read version)의 '코로나19: 의사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출판하였음. Parent Club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Parent Club 홈페이지는 World Wide Web 컨소시움에서 웹컨텐츠 접근성으로 AA 등급을 받았음.
- [2020년 10월 2일] - 위와 동일함

⑪ 의사결정 참여

- [2020년 8월 6일] - 스코틀랜드 제1장관은 3차례에 걸쳐 아동과 젊은이로부터 받은 화상 질문에 대해 답변하였고 영상은 Young Scot의 유튜브 채널을 비롯하여 여러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음. Scottish Youth Parliament는 Young Scot, YouthLink Scotland와 함께 젊은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음. Children's Parliament도 8~14세 아동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3차례 실시하였음. 두 기관의 보고서는 정부에 전달되었으며 널리 공유되었음.
- [2020년 10월 2일] - 2회차 온라인 서베이가 2020년 9월 28일 실시되었으며 3회차 서베이는 2021년에 실시될 예정임. 2회차 서베이는 포커스그룹을 운영할 것이며 어린 양육자(young carers),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될 것임.

스코틀랜드 아동권리동맹(Scottish Alliance for Children's Rights; <https://www.togetherscotland.org.uk/>)은 위의 11개 항목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의 보고서 및 스코틀랜드 정부, NGO가 출간한 보고서를 수집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권고사항과 관련해 수집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Recommendation 1 - limiting restrictions on children's rights	
The UN Committee called on governments to consider children's rights and ensure any restrictions are necessary, proportionate and kept to an absolute minimum. The Committee also recommended that governments should use child rights-based budget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Consortium Scotland report (May 2021)	+
Children in Scotland, Cattanach and the Carnegie UK Trust report (March 2021)	+
WHO proposals (31st March 2021)	+
Eurofound briefing (2021)	+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report (20th October 2020)	+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impact monitoring report (October 2020)	+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statement (2nd October 2020)	+
Aoife Nolan blog (May 2020)	+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statement (May 2020)	+
Scottish Community Safety Network position statement (5th April 2020)	+
Children and Young People's Commissioner Scotland briefing for MSPs (31st March 2020)	+
Scottish Human Rights Commission briefing (30th March 2020)	+

(3) UN 아동권리위원회 쟁점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채택을 위해 제출한 각국 옴부즈맨 보고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보고서 제출, 쟁점질의목록 채택과 정부의 답변 등의 절차를 거친 국가들의 경우, 옴부즈맨 기관들이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예를 들고자 하는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아동 옴부즈맨은 2020년 2월 27일 쟁점질의목록에 포함되길 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20년 6월 15일 스웨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쟁점질의를 포함되길 원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추가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웨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 다른 나라와 달리 스웨덴은 락다운을 하지 않았으며 확진자 급증 커브를 원만히 하는(“flatten the curve”) 정책을 펼쳤음. 보육시설부터 중학교까지 문을 열었으며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권리영향평가에 기초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의 확진 및 유증상으로 인한 결근과 바이러스 확산 감소를 위해 학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음. 정부는 집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보건서비스와 대중교통으로 인해 손실이 큰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음.

② 코로나19가 아동권리에 미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미칠 영향력

2-1.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미친 UNCRC의 긍정적인 영향력

- 정부가 보육시설 이상의 교육기관의 문을 열기로 한 것은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아동권리 관점에 기초한 결정이었음. 교육기관은, 특히 취약가구의 아동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의 접촉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온라인 학습은 고등학생들에게 부정적, 긍정적 영향력을 동시에 미쳤음. 주의력부족, 자폐스펙트럼 아동에게는 온라인 학습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음.
- 스웨덴 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 교정시설의 방문을 제한할지를 결정할 때 아동권리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였음. 평가에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였음. 평가결과는 방문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니지만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방문제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뒤 화상통화를 통해 친인척 및 친구와의 접촉을 지속하도록 하였음.
- 정부는 아동에게 현 상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여러차례 가졌으며, 이 기자회견에는 아동만 질문을 할 수 있었음. 총리도 한 차례 아동과의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다른 회견들도 다른 부처의 장관들이 평등부장관(Minister of Equality)과 함께 하였음.

2-2.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고 있는 혹은 잠재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력

- 옴부즈맨은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하였음. 정부, 주정부, 시민단체와의 미팅을 통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정책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위협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주차원, 지역차원, 지역사회차원의 많은 정책들이 아동권리 영향평가 없이 결정되었음. 2020년 1월 1일 이후 UNCRC가 국가법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우려되는 상황임.
- 고등학생의 학생 보건서비스는 학교가 문을 닫거나 담당인력이 유증상으로 출근하지 못했을 때 접근이 어려웠음. 보건서비스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도 대면 접촉 제한으로 인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음. 아동의 의료기관 이용횟수와 아동학대신고건수도 급격하게 감소되었음.
- 건강 및 사회복지 검사관(Health and Social Care Inspectorate)의 업무가 노인을 위한 시설과 가정보호에 집중되면서 대안양육시설 등에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음.
- 많은 아동이 아무런 증상도 없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집에 격리되면서 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필요성을 감지할 수 있는 다른 성인과의 접촉을 잃고 있음.
- 아동과 성인이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면서 아동이 온라인 상의 학대나 음란물에 노출될 확률이 늘었음.
- 취약계층 아동은 이미 과밀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학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직업을 잃거나 돌봄을 위해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음.

2-3. 코로나19로 인해 예측되는 향후 아동권리 위반사항

- 대응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아동권리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장단기적으로 아동의 권리는 위협받을 것임.
- 고등학생들은 학사일정의 변화와 실습이 부족한 온라인학습으로 인해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학교 보건서비스, 공공 보건서비스, 그리고 아동청소년신경정신과 접근이 힘들어지면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이들 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것은 이 기관들이 취하고 있는 대면 검진 제한 때문이다.
- 신경심리학적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의 의료검진도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음. 진단이 내려진 후에야 이 아동들은 학교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입에 어려움이 있음.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은 학교에서 떨어진 채 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더라도 발견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음.

③ 질의 제언

- 어떤 근거를 통해 스웨덴 정부의 팬데믹 대응 정책이 아동권리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 스웨덴 정부는 팬데믹 관련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아동권리영향평가(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를 국가, 권역(regional), 지역(local) 차원에서 진행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하였는가?
- 스웨덴 정부는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아동을 위한 지원과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스웨덴 정부는 팬데믹이 야기한 재정적 재난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3) World Bank의 휴교 및 학교 재개에 대한 지침

UNICEF에 의하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2억 1천 4백만 아동 - 아동 7명 중 1명꼴 - 이 3/4 이상 대면 학습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학습 빈곤(learning poverty)은 코로나19 이전 53%에서 코로나19 이후 63%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재발은 앞으로도 간헐적인 휴교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World Bank는 UNICEF, UNESCO, the World FOOD Program과 함께 학교 재개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2021년 5월 27일 World Bank Blog²¹⁾).

21) <https://blogs.worldbank.org/education/getting-back-learning-key-policy-actions-reopening-schools>

World Bank는 학교 재개와 관련하여 각 나라가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사항을 (1) 보건과 안전, (2) 학교교육, (3) 학교운영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보건과 안전

- ① 언제 학교를 재개하는 것이 안전한가?
- ② 학교에서의 질병 전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2) 학교교육

- ① 학습손실을 줄이고 학생들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일정을 재조정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1-1. 하루 수업시간 늘리기

- 휴교로 인한 교육일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영국이 고려하고 있는 방안임. 연장된 수업시간을 위해 정규교사, 대체교사,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이 필요함.

1-2. 주 6일 수업

- 코로나19 이전에도 보충을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탄자니아에서 휴교로 인한 등교일 보충을 위해 토요일에 등교하고 있음.

1-3. 교육기간 늘리기

- 방학을 연기해서 등교일을 채우는 방법으로 모로코에서 이 방식을 취하고 있음.

1-4. 여유 있게 휴업일 설정하기

-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휴교할 상황을 대비하여 교육일정을 세울 때 학기 중간중간에 휴업일을 설정해 놓는 것으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② 학생과 교사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과과정은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가?

2-1. 핵심과목에 집중하기

- 대부분의 국가가 언어와 수학에 수업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칠레는 언어, 문해력, 수학,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수학, 지역언어, 영어, 파키스탄은 언어, 수학, 과학에 집중하고 있음.

2-2. 기본 능력에 집중하기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수세기, 순서대로 놓기, 표나 그림으로 나타내기 등에 집중하면서 자료 다루기와 같은 내용은 생략하였음.

2-3. 교육과정 교수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하기

- 교사가 내용지식이나 교수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학생의 교육은 반년이 늦춰지게 됨. 모잠비크와 앙골라에서는 구조화된 교사 지침을 제공하였음.

2-4. 사회정서 능력 포함하기

- 칠레에서는 수정된 교육과정에 사회정서 능력을 포함하였음. 마음챙김과 같이 최근 팬데믹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을 수업 시작 전에 실시함. 미국에서는 모든 교급에서 하루 30~60분을 사회정서 학습에 사용하며, 자기인식, 자기관리, 관계맺기 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 등을 다루고 있음.

③ 어떤 책략이 취약한 학생들의 학교 재등록을 높이는가?

- 3-1.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자율형사립고, 사립 특목고 제외)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으나 세계 여러 나라의 등록금 면제, 장학금, 현금지원, 무상급식, 무상교재 및 교복, 유연한 등록절차 등을 적용하고 있음.

④ 각 국가는 어떻게 교사를 준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가?

- 4-1. 휴교와 학교 재개 관련 결정내릴 때 교사들을 참여시키기
- 4-2. 학생들의 재등록과 관련된 지침 제공하기
- 4-3. 보건 프로토콜을 강화하는 지침 제공하기
- 4-4. 질 높은 보수교육 제공하기
- 4-5. 학생들과 관계 맺기
- 4-6. 평가하기

4-7. 교육과정과 교습

4-8. 디지털 기술

4-9. 교사를 지원하는 학교행정 강화하기

⑤ 각 국가는 가정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5-1. 책과 복사물 제공하기, 보건당국의 허가가 있다면 아동 개인 혹은 집단을 방문하여 학습 지원하기

5-2. 문자메세지나 전화 이용하기

- 보츠와나에서 아동이 풀 수 있는 수학문제는 문자메세지로 보낸 집단과 수학문제와 함께 15~20분 전화로 풀이와 함께 동기부여까지 한 집단을 비교한 결과 후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음.

5-3.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이용한 학습

5-4.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 콜롬비아는 모든 교육정보가 모여 있는 포털을 만든 후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음. 또한, 네트워크 대역폭이 낮은 지역의 사용자를 위해 라이트 버전을 따로 제작하였음.

5-5. 학습정보가 모여 있는 온라인 플랫폼

5-6. 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 예) 여러 언어로 번역된 Sesame Street의 놀이기반 학습 활동

5-7. 아동보호

- 교사에게 가정에서의 생활을 묻는 프로토콜을 제공하거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가정방문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⑥ 각 국가는 어떻게 학습평가와 시험에 대처해야 하는가?

6-1. 학습진단 및 평가

- 코로나19로 조정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핵심과목 중심으로 진단평가 실시함. 교육부가 평가지를 제공하거나 전년도 평가지를 사용할 수 있음. 인도

네시아에서는 핵심과목에 대한 진단평가 실시 후 교사에게 점수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칠레에서는 팬데믹 이후 새롭게 개발한 평가를 통해 읽기, 수학, 사회정서기술 수준을 확인하며 교사에게 해석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손실을 확인하여 위하여 학생인구를 대표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6-2. 졸업시험과 입학시험

-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나라에서는 시험의 포맷을 바꾸기도 하는데, 홍콩은 대학입학시험에서 구두시험을 없앴으며 에쿠아도르는 시험내용을 졸업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루었음.
- 많은 나라들은 시험일정을 늦추었음. 연기된 기간 동안 시험 내용이나 포맷에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준비할 추가적인 시간을 줄 수 있음.
- 아일랜드와 영국은 시험을 취소하고 내신성적에 기초한 교사평가로 대체하였음. 이를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외부자의 평가가 더 객관적일 수 있음.

(3) 학교운영

① 국가는 학교운영자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지원해야 하는가?

1-1. 태스크포스 또는 워킹그룹 구성하기

1-2. 학교운영자와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기

- 여러 정책부서가 학교에 유사한 정보를 보내지 않도록 통로를 일원화하고 지난 지침 이후 바뀐 지침이 무엇인지를 명시해야 함. 권장사항과 법으로 정한 지침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노르웨이의 경우 규정을 “must-follow(반드시 따라야 할)”와 “should-follow(따라야 할)”로 나누어 제공하였음

1-3. 학교 재개 계획을 구성하기 위한 자원 제공하기

1-4. 학교 재개 계획에 모든 학생들을 고려하도록(inclusive) 하기

1-5. 학교운영자간 협업 기제(mechanisms for collaboration) 만들기

1-6. 학교가 학교 재개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② 학교관련자와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책략은 무엇인가?

2-1.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여 이른 시기에 자주 의사소통하기

2-2. 지역사회에서 의사소통하는 노력하기

2-3. 통합성을 고려하기

- 중국, 몽고 등은 화상회의내용을 수화로 번역하였으며, 호주의 New South Wales 교육청은 안내문을 음성녹음하여 QR로 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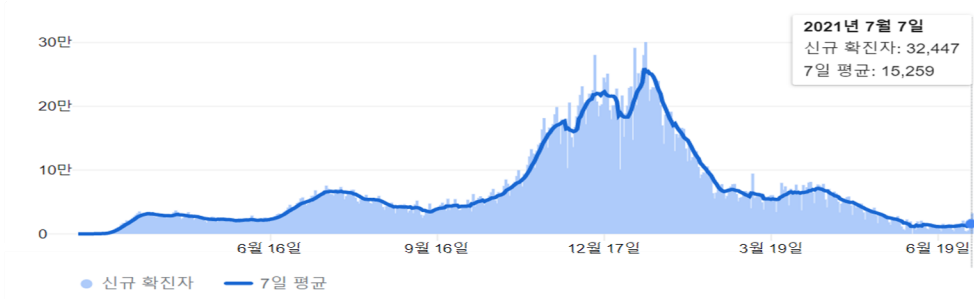
2-4. 보건과 안전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2-5. 학습지속성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2-6.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기

2.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대응체계 현황 및 분석

1) 미국



[그림 3-2]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2020년 3월 - 2021년 7월)²²⁾

22) 출처: CSSEGISandData/COVID-19

(1) 미국의 코로나19 아동 확진율 및 치명률

미국은 2021년 7월 7일 현재 확진자는 3370만 명으로 전체 인구(3.282억 명)의 약 10.3%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음. 확진자 중 사망자는 60.5만 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1.8%를 보이고 있다.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²³⁾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아동 10만 명당 5,374명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초반에는 아동은 전체 확진자의 3%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 중반에는 20%를 차지하고 있다²⁴⁾. 이는 1억 명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져 성인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율이 높고 학교활동 규제가 느슨해진 점에서 기인한다. 최근 12세 이상 아동에게까지 백신접종이 승인되면서 아동 확진율은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4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사망자는 297명으로 전체 사망의 0.06%를 차지하고 있다²⁵⁾.

(2)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체계

- ①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 중에는 아동을 보살피는 유일한 성인(예: 한부모)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의 아동돌봄을 다음과 같이 아동의 연령, 가정 밖에서 돌봐줄 수 있는 돌봄제공자 여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1. 나이가 많은 아동의 경우

- 부모와의 물리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아동은 법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연령이어야 하고 스스로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야 한다.

1-2. 어린 아동의 경우

- 가정 밖에서 아동을 돌봐줄 성인을 찾아야 한다. 아동을 돌봐주는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질환이 초래되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 돌봄제공

23) <https://services.aap.org/en/pages/2019-novel-coronavirus-covid-19-infections/children-and-covid-19-state-level-data-report/>

24) <https://www.npr.org/sections/coronavirus-live-updates/2021/05/03/993141036/children-now-account-for-22-of-new-u-s-covid-cases-why-is-that>

25) <https://www.aappublications.org/news/2021/04/19/pediatric-covid-cases-041921>

자는 아이가 확진자와 6피트 이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밀접접촉자라는 점에서 14일 동안 격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3. 아이가 집에서 확진된 부모와 있어야 하는 경우

- 아이와 부모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아이가 2세 이하이거나 호흡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없이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손을 자주 씻고 6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며 자주 환기하고 아이에게 주는 물건은 소독한다. 부모는 자신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면서 하루에 두 번 아이에게 코로나19 증상(예: 열, 기침)이 있는지 체크한다.

②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1-1. 예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가르치고 습관이 되게 하라

- 손 씻기, 마스크 쓰기(붐비지 않거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접촉하는 야외에서는 쓰지 않아도 됨), 밀접한 접촉 피하기, 기침과 재채기 가리고 하기

1-2.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검진이 필요할 때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예방접종을 놓치지 마라

1-3. 아이가 신체활동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 연령에 적합한 수준의 신체활동량과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팁을 소개

1-4. 아이가 사회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라

- 전화나 비디오화면을 이용해 전화하기, 카드쓰기
- 사회정서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소개 (예: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he Yale Center for Emotional Intelligence)

1-5. 아이가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

- 아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증상과 해결책을 소개해 놓은 Parental Resource Kit를 소개함. Parental Resource Kit은 아동의 연령별로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초기성년기로 나누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함

- 예를 들어, 영유아기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루틴의 변화, 돌봄이나 학습의 연속성 끊김, 건강관리(예: 예방접종)의 연속성 끊김, 중요한 인생사건(예: 생일, 장례식)을 놓치는 것, 안전과 안정의 손상을 들고 있음.

1-6. 학교의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라

1-7.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면 CDC의 '발달장애와 코로나-19' 편의 내용을 참고하라

③ CDC가 제공하는 여러 정보 중 아동기 연령에 해당하는 K-12 학교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K-12 학교의 안전한 대면 수업 운영 필수 요소

1-2. 의료 형평성 고려사항

1-3. 교내 코로나19 전파 줄이기 예방 전략

1-4. 청소 및 위생적인 시설 유지

1-5. 백신 접종 완료

1-6. 지역사회 감염 지표

1-7. 단계적 예방

1-8. 학교 COVID-19 예방 추가 전략

1-9. 검사

1-10. 교사와 교직원 백신 접종

위의 주요 내용 중 '단계적 예방'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대면 교육은 아동의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교는 가장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하는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표 3-1〉 미국 교육부에서 제시한 단계적 예방의 핵심 개념

단계적 예방

K-12 학교에 대한 단계적 예방 접근법은 몇 가지 핵심 개념이 중요합니다.

K-12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모든 예방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휴교하며, 안전이 확보되면 가장 먼저 다시 개학해야 합니다. 이는 결정권자와 지역사회가 감염을 통제할 때 실내 식당, 주점, 사교 모임, 밀접 접촉 스포츠 등 비필수 사업 및 활동보다 학교 재개와 대면 교육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중략)...장기간의 원격 또는 가상 학습은 학생 학업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취약 지역 학생, 영어 학습자, 장애 학생은 원격 학습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학교 외부의 학습 지원 시스템과 서비스가 적어 학습 뒤처짐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대면 교육은 또한 장기간의 가상 학습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사회적, 정서적, 정신건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중략)...중증 질환 고위험군 학생(특별 의료 돌봄이 필요한 학생 포함) 또는 고위험군 식구와 같이 사는 학생의 가정에는 학교의 학습 형식에 관계없이 가상 교육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미국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체계

교육부는 코로나19 구호기금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대한 주정부의 예산 사용 계획을 검토하였다. 미국 구조 계획은 연방 의회가 통과한 세 번째 코로나19 구호기금으로 주정부 교육 지원 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주 정부가 지역 유초중등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할당하도록 하였다. 지난 3월 교육부는 주 교육부 및 교육구에 할당된 1,220억 US달러(한화 약 138조 1,650억 원) 규모의 구호기금 중 810억 US달러(한화 약 91조 7,325억 원)를 배부하였다²⁶⁾.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지원받는 주는 기금의 일정 부분을 학생의 학습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한 28개 주의 예산 계획을 살펴보면, 주 정부들은 학생의 정신 및 정서적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집중 과외 등 학업결손 회복을 위한 지원, 영양 지원(학교 급식), 여름학기 참여 교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며 주정부별 예산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 텍사스(Texas) 주 : 원격학습과 대면 학습을 모두 활용한 과외 프로그램을

26)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국가별 교육동향”에서 발췌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092&nTbBoardArticleSeq=830963>

지원하고 주내 20개의 지역서비스센터를 통해 연장 수업 및 학기 프로그램을 지원

- 미시건(Michigan) 주 : 행동건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초중등(K-12) 학생을 추적관리하여 청소년 자살 예방, 정신건강 문제 해결, 교사-보호자-서비스 제공자 간의 의사소통 촉진 도모
- 뉴저지(New Jersey) 주 : 기존의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기금에 코로나19 구호기금을 더하여 각 학생의 학습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
- 코네티컷(Connecticut) 주 : 영어학습자의 대면 학습 참여율을 높일 계획
- 조지아(Georgia) 주 : 원격학습 전문가가 진행하는 ‘온라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PLC)’ 구축
- 뉴욕(New York) 주 :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생 등록이 증가한 차터스쿨(Charter school, 일종의 자율형 공립학교)의 시설 예산 확대

(4) 미국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체계

2021년 7월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메인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정보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코로나19 치료를 소개하고 있다.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를 통해 Rapid Acceleration of Diagnostics - Underserved Populations (RADx-UP)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율과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명료하고 쉬운 언어로 코로나-19 및 진단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NIH의 기금을 받아 RADx-UP를 운영하는 여러 기관 중 하버드 대학교 공공보건대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포스팅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²⁷⁾.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하나
-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인 나오면
- 확진자를 가정에서 돌볼 때
-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27) <https://www.hsph.harvard.edu/iscce/rapid-acceleration-of-diagnostics-underserved-populations-radx-up/>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무엇을 해야 하나

2020년에는 취약계층 밀집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RADx-UP가 진행되었지만 2021년 7월에는 아직 백신접종 연령에 해당되지 않은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대면 수업 촉진을 목표로 RADx-U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²⁸⁾. 이는 취약계층 아동(예: 저소득층, 장애아동, 건강문제가 있는 아동)에게는 학교를 통한 서비스 제공(예: 식사, 언어/작업치료, 방과후수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직 백신접종 연령에 해당되지 않은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대면 수업을 위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영국



[그림 3-3]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2020년 3월 - 2021년 7월)²⁹⁾

(1) 영국의 코로나19 아동 확진율 및 치명률

영국은 2021년 7월 7일 현재 누적 499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구(6665만)의 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2.8만 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2.6%를 보이고 있다.

영국정부의 자료³⁰⁾에 의하면 약 63만 명의 아동(0~19세)이 확진되었으며 19세

28) <https://www.nih.gov/news-events/news-releases/nih-covid-19-testing-initiative-funds-additional-research-projects-safely-return-children-person-school>

29) 출처: CSSEGISandData/COVID-19

30) https://coronavirus.data.gov.uk/details/cases?areaType=nation%26areaName=England#card-case_rates_by_age_and_sex

이하 아동 사망자는 2021년 3월 2일 현재 32명이다³¹⁾.

(2)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정부 통합 사이트

‘Coronavirus(COVID-19)’³²⁾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모든 지침을 통합하여 제공함. 단계 격상, 지역별(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소모임 가능한 인원,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에 따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가령 잉글랜드의 경우 2021년 8월 19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벽히 마쳤거나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코로나19확진자의 밀접접촉자라고 해도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진단검사를 해야 하며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지침과 지원 중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을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규칙과 로드맵

: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사는 삶으로 방향을 설정하면서 확진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필수 행동을 제시한 4단계 로드맵을 2021년 2월에 발표함. 큰 이벤트를 중심으로 단계별 차이를 설명하면, 1단계(2021년 3월 29일 이후)에서 장례식 인원은 30명, 결혼식 인원은 6명이며, 2단계(4월 12일 이후)에서는 결혼식 인원이 15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5월 17일 이후)에서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이벤트는 30명 이내까지 허용되며, 실내 이벤트는 1천명이나 최대인원의 50%까지, 실외 이벤트는 4천명이나 최대인원의 50%까지 허용되며 4단계(7월 19일)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음.

31) <https://post.parliament.uk/latest-evidence-on-impacts-of-covid-19-in-children-march-2021/>

32) <https://www.gov.uk/coronavirus>

STEP 1 8 March 29 March	STEP 2 No earlier than 12 April At least 5 weeks after Step 1	STEP 3 No earlier than 17 May At least 5 weeks after Step 2	STEP 4 No earlier than 21 June At least 5 weeks after Step 3 All subject to review
EDUCATION 8 MARCH • Schools and colleges open for all students • Practical Higher Education courses	EDUCATION • As previous step	EDUCATION • As previous step	EDUCATION • As previous step
SOCIAL CONTACT 8 MARCH • Exercise and recreation outdoors with household or one other person • Household only indoors 29 MARCH • Rule of 6 or two households outdoors • Household only indoors	SOCIAL CONTACT • Rule of 6 or two households outdoors • Household only indoors	SOCIAL CONTACT • Maximum 30 people outdoors • Rule of 6 or two households indoors (subject to review)	SOCIAL CONTACT • No legal limit
BUSINESS & ACTIVITIES 8 MARCH • Wraparound care, including sport, for all children 29 MARCH • Organised outdoor sport (children and adults) • Outdoor sport and leisure facilities • All outdoor children's activities • Outdoor parent & child group (max 15 people, excluding under 5s)	BUSINESS & ACTIVITIES • All retail • Personal care • Libraries & community centres • Most outdoor attractions • Indoor leisure inc. gyms (individual use only) • Self-contained accommodation • All children's activities • Outdoor hospitality • Indoor parent & child groups (max 15 people, excluding under 5s)	BUSINESS & ACTIVITIES • Indoor hospitality • Indoor entertainment and attractions • Organised indoor sport (adult) • Remaining accommodation • Remaining outdoor entertainment (including performances)	BUSINESS & ACTIVITIES • Remaining businesses, including nightclubs
TRAVEL 8 MARCH • Stay at home • No holidays 29 MARCH • Minimise travel • No holidays	TRAVEL • Domestic overnight stays (household only) • No international holidays	TRAVEL • Domestic overnight stays • International travel (subject to review)	TRAVEL • Domestic overnight stays • International travel
EVENTS • Funerals (30) • Weddings and wakes (6)	EVENTS • Funerals (30) • Weddings, wakes, receptions (15) • Event pilots	EVENTS • Most significant life events (30) • Indoor events: 1,000 or 50% • Outdoor seated events: 10,000 or 25% • Outdoor other events: 4,000 or 50%	EVENTS • No legal limit on life events • Larger events

[그림 3-4] 영국의 로드맵

정부통합사이트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다음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 해외여행
- 백신
- 자영업과 사업
- 직장 지원
- 학교, 대학, 교육, 아동돌봄

이 중 아동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학교, 대학, 교육, 아동돌봄’은 ① 부모와 돌봄제공자(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를 위한 지침과 지원, ② 대학과 평생교육

기관에 있는 학생을 위한 지침과 지원, ③ 학교와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지침과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모와 돌봄제공자를 위한 지침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검사
 - : 신속진단검사 방법으로 사용되는 '횡방향 흐름 검사(rapid lateral flow test)'에 대한 정보와 자가격리되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어야 하는 부모를 위해 지원금에 대한 정보 제공
- 교육관련 정보
 - : 2021년도 여름학기 성적부여방식, 부모와 돌봄제공자가 알아야 하는 것, 방과후 클럽과 수업료, 무료 학교 식사 신청 등
- 학생 웰빙 지원
 - :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웰빙 지원, 가정 내에서 학습 지원,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아이 지키기 등

(3) 영국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체계

교육부에서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 4단계에 진입(7월 19일 이후)하면서 4단계에서 부모, 돌봄제공자가 보육시설, 학교, 대학 교육에 대해 숙지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³⁾.

- 모든 교육 및 보육기관은 재개하며, 학교교육의 경우 출석은 의무화되며 보육기관이나 대학의 경우에는 출석이 장려됨
- 영국 소아청소년과학회(Royal College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는 아동과 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 없거나 아주 약한 증상을 경험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힘
- 여름 동안, 학교관계자,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진단검사(신속진단검사)를 계속 받아야 함

3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at-parents-and-carers-need-to-know-about-early-years-providers-schools-and-colleges-during-the-coronavirus-covid-19-outbreak/step-4-update-what-parents-and-carers-need-to-know-about-early-years-providers-schools-and-colleges>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들은 여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가을에 학기가 시작할 때 교육현장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4단계에서는 보육기관, 학교, 대학에서 밀접접촉자를 추적하지 않을 것이며, 밀접접촉자는 National Health Service(NHS)의 Test and Trace가 식별할 것임.
- 4단계부터는 아이들은 더 이상 지속적 집단(bubbles)에 있지 않아도 됨.
- 4단계부터는 12세 이하 학생, 학교관계자, 방문자들에게 교실이나 공용공간에서 마스크 쓰기가 더 이상 권장되지 않음.

(4)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쟁점질의목록을 위한 보고서³⁴⁾

영국의 Children's Commissioners는 2020년 12월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쟁점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항목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족한 아동보호로 인해 아동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 아동의 연령에 따른 규정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북 아일랜드에서는 연령차별에 대한 법이 공포되었지만 16세 이상만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동'은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영국 전역에 해당하는 Coronavirus Act 2020에서도 스코틀랜드의 16세, 17세 아동은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 체포되거나 최장 1년까지 구금될 수 있음.

② 장애아동을 지원할 자원이 부족함

- 장애아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긴축조치로 인해 자원 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코로나19 이전에도 특수교육을 위한 진단 및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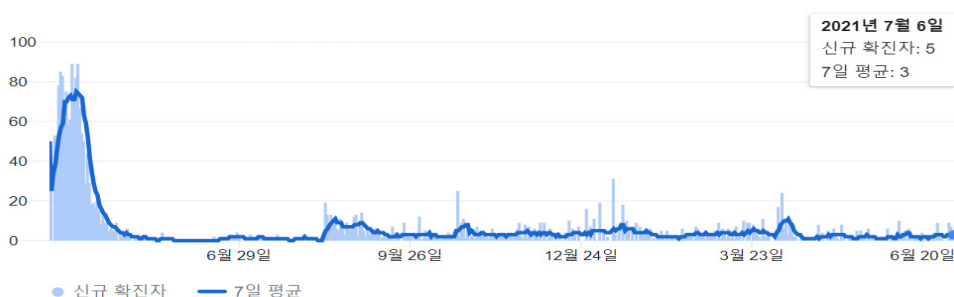
34) Children's Commissioner, Children & Young People's Commissioner Scotland, Children's Commissioner for Wales, & NICCY (2020. 12). Report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amination of the combined sixth and seventh periodiv report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경험하고 있으며 잉글랜드는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SEND)를 점검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음.

③ 아동빈곤과 복지개혁

- 2018~2019년 (상대적)빈곤아동은 420만명으로 전체 아동의 30%에 해당되지만, 2022년에는 52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영국정부는 최근 Benefit Cap을 설정하여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등의 복지개혁을 실행하였는데 이는 다른 집단보다 아동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음.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해야 할 것임.

3) 뉴질랜드



[그림 3-5] 뉴질랜드의 코로나19 확진자 (2020년 3월 - 2021년 7월)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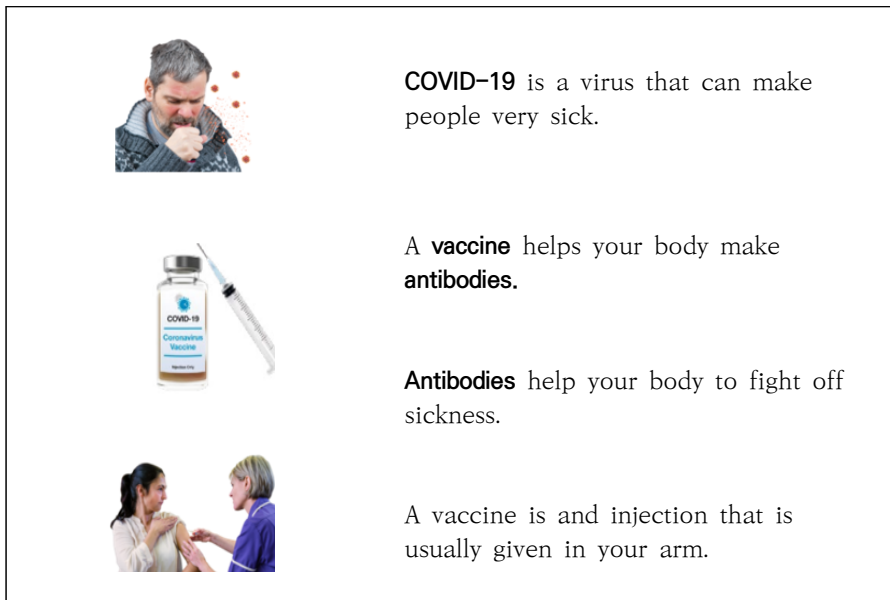
(1)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아동 확진율 및 치명률

뉴질랜드는 2020년 초반 몇 달간의 락다운을 경험하였으며, 현재까지 2764명이 확진되어 전체 인구(491.7만) 중 0.06%의 확진율을 보임. 이 중 사망자는 26명으로 0.9%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아동 확진자 비율은 10%로 높은 편이나 현재까지 아동 사망자는 0명임. 2020년 1월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보건 조정 센터(NHCC)를 설립하였다.

35) 출처: CSSEGISandData/COVID-19

(2) Unite against COVID-19³⁶⁾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관련 기사와 정보를 담고 있는 종합정보 홈페이지로 30개 이상 언어로 정보가 번역되어 있다.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 문해력이 낮은 사람, 영어가 제2외국어인 사람, 노인,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큰 글씨, 쉬운 버전(easy read), 수어로도 정보가 번역되어 있다.



[그림 3-6] 쉬운 버전의 예

(3) 뉴질랜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체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 가족, 교육영역에 대한 정보와 안내(Information and advice for students, whanau, and the education sector³⁷⁾)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부모를 위한 정보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보육 서비스 안내
- 학교 안내

36) <https://covid19.govt.nz/>

37) <https://www.education.govt.nz/covid-19/>

- 16세 이상 대상 교육(대학/직업교육) 제공자를 위한 안내
- 16세 이상 학생을 위한 안내
- 가족과 식구(whanau)를 위한 안내
- 직장 웰빙 패키지
- 마스크 사용 지침
- 코로나19로 인한 즉각적 비용지출을 위한 펀딩
- 외국인 학생을 위한 안내
- 코로나19와 웰빙
- 보육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위한 펀드
- 코로나19 긴급 지원 펀드
- 취약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
- 보육시설, 학교에서의 비대면 학습 옵션과 지침
- 주요 연락처

각 재난 경보 단계에 따라 교육 관련 상황에서의 지침을 정리하여 제시해 놓았다. 학교를 위한 보건 및 안전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을 위한 보건 및 안전 지침 (재난 경보 1단계~4단계)
- 놀이학교(playgroup)를 위한 보건 및 안전 지침 (재난 경보 1단계~4단계)
- 학교를 위한 보건 및 안전 지침 (재난 경보 1단계~4단계)

각 경보 단계에 대한 설명과 이에 해당하는 지침은 다음과 같다.

〈표 3-2〉 뉴질랜드의 경보단계

단계별 특성과 교육현장 적용	
경보 1단계	해외에는 질병이 퍼져 있지만 뉴질랜드 안에서는 억제되어 있는 상태. 모든 학교는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
경보 2단계	질병이 통제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전염 위험이 있는 상태.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에 가며 학교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
경보 3단계	높은 위험 수준. 질병이 통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에 갈 수 있지만 출석 인원엔 제한이 있음. 가능하면 가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
경보 4단계	질병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 모든 학교시설은 폐쇄하지만 원거리 학습은 제공.

이 중 경보 3단계에서의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학교는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열어 야 한다.
- ② ‘필수 인력/서비스’는 없으므로 일을 하는 모든 부모는 재택근무나 휴직을 하는 대신 직장에 출근해 근무한다.
- ③ 학교현장에서는 20명 미만으로 그룹(bubbles)을 구성해야 하며 각 그룹 간 간격은 2미터 이상을 지켜야 한다.
- ④ 교육을 받고 제공하는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과 접촉자 추적을 위해 학교를 닫을 수 있다.
- ⑥ 아플 때 집에서 머물고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을 때 의사와 상의 후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⑦ QR 코드 포스터, 출입자 명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⑧ 필수적 공공 보건 지침은 계속 지켜야 한다(예: 사회적 거리두기, 손 위생, 기침/재채기 에티켓, 접촉이 잦은 표면의 정기적 소독) 등

(4) 뉴질랜드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체계

아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최근 정보와 장애인, 고위험군, 임산부, 여행자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와의 교류가 잦기 때문에 자가격리 없이 여행갈 수 있는 호주 지역에 대한 안내 등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7월 현재 Group 3 (65세 이상, 질환이 있는 사람, 장애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뉴질랜드와 이웃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로, 아동이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가 되었을 때 보호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표 3-3〉 호주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시: 구체적인 시나리오 이용³⁸⁾

아동이 격리되어야 할 때 가족들의 대응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음. 이 중 가족이 아동과 격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아닐 때의 상황의 예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시나리오 1 - 가족들이 가구 내에서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맥은 세 명의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2세 여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6세, 8세 남아)이 있다. 어린이 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연락을 해 왔으며 보건소는 2세 딸이 밀접접촉자라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자가격리 되어야 한다고 한다. 맥은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은 후 집에 와서 자가격리 기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맥은 아이들이 집 안에서 서로 접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맥과 아들들도 14일간 집에 머무르며 외부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일이 되던 날은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았다. 14일이 되던 날 자가격리가 끝나 맥의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학교로 돌아갔다. 맥과 아들들은 증상이 없었고 딸이 음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5) 민간조직인 KidsHealth³⁹⁾

KidsHealth는 뉴질랜드 소아청소년과학회(The Paediatric Society of New Zealand)와 Starship Foundation이 설립한 조직으로 보건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KidsHealth에서 제공하는 정보 가운데 아동에게 코로나19에 대해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비디오와 이야기 책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8) <https://www.health.nsw.gov.au/Infectious/covid-19/Pages/isolation-advice-for-parents-and-carers.aspx>

39) www.kidshelth.org.n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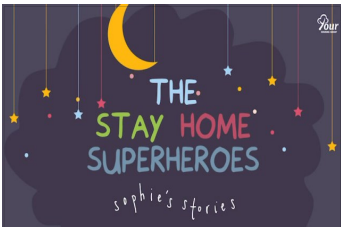
① “몇몇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 (when some kids went back to school)”

	경보 4단계로 학교가 폐쇄된 이후 경보 3단계가 되었을 때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어 학교에 가게 되는 아이들을 위한 지침서
---	--

② “코로나 때문에... (Because of COVID...)”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좌절을 보여주는 온라인 도서
---	--

③ “집에 있는 수퍼히어로 (The stay home superheroes)”

	아이들이 무서워하거나 당황스러워하는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적 이야기. 비디오 버전과 프린트 버전이 있음.
---	--

(6)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쟁점질의목록을 위한 보고서⁴⁰⁾

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는 2020년 3월 1일 UN 아동권리위

40) 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 (2020. 6. 15). Submission to the UNCRC on COVID-19.

원회에 쟁점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6월 15일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6월 15일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적 락다운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뉴질랜드 정부는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국가적 락다운을 하며 8주간 학교, 놀이터, 보육시설과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의 운영을 금지하였음.
- 2020년 6월 현재 수집된 코로나19를 경험한 아동들의 자료는 이들이 가족의 소득, 재정적 불안정, 부모의 실업, 락다운 동안 급여제공, 아동돌봄, 주거의 질, 가족구성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 일부 아동은 교급의 전환기에 여유를 가지거나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소수집단에 해당하는 가족의 문화와 언어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도 하였음.
- 일선 서비스 제공자는 락다운 이후에 음식꾸러미 요청과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였으며, 친지를 만나지 못하고 중요한 가족사건(예: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② 아동권리를 반영한 코로나19 대응

- 뉴질랜드 정부는 락다운 동안 임금부족분을 보전하는 정책 등을 즉각적으로 실시하였음. 온라인 연결망을 확충하고 학습기기 및 교재를 가정에 전달하였으며 TV를 통해 교육방송을 송출하였음.
- 락다운 동안 경찰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처벌적 대응보다 교육적 대응을 하였으며 구치소에 있는 청소년 및 젊은이의 수도 감소하였음. 그러나 신속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망은 제외되었으며 Civil Defense(민간방위)가 지역사회에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

③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과 현재의 우려점

- 코로나19가 아동빈곤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기에는 이른 시기이지만 직업과 소득의 손실을 보았을 때 증가하였을 것임. 스트레스에 따른 가정폭력의 증가는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인

종주의와 차별에 노출된 아동에게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될 것임.

④ 아동의 시선으로 긍정적으로 재구축할 기회

- 긴급공중보건에서 경제적 재건으로 관점이 바뀌면서 정책적 대응을 할 때 아동의 시선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기를 촉구함. 2019년 Welfare Expert Advisory Group의 제안을 실행하여 복지 지원이 재정적 안전망이 되기를 바람.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하며 아동의 관점과 욕구가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함.

⑤ 2020년 3월에 제출한 쟁점질의목록에 더하여 UN 아동권리위원회가 뉴질랜드 정부에 다음의 질문을 던져주길 바람.

- 아동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아동의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 코로나19 회복에서 아동의 권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 현재와 이후의 정책에서 아동은 자신의 의견이 경청되고 반영되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4) 일본



[그림 3-7]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2020년 3월 - 2021년 8월)⁴¹⁾

41) 출처: CSSEGISandData/COVID-19

(1) 일본의 코로나19 아동 확진율 및 치명률

일본은 2021년 8월 현재 누적 116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구(1.263억명)의 0.9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5,450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1.3%를 보이고 있다.

확진자의 연령별 비율⁴²⁾을 살펴보면, 전체 확진자 중 20세 미만의 비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초기에는 10% 미만을 차지하다 2020년 가을 이후 10%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1년 9월 이후 20%를 넘어섰다.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는 20대가 3295.5명으로 가장 높으며, 30대가 1919.5로 그 뒤를 잇는다. 10대는 10만명당 1526.0명, 10세 미만은 913.명을 보인다. 9월 28일 현재 40세 미만의 사망자는 94명으로 아동의 사망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2)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⁴³⁾⁴⁴⁾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정책 결정은 내각에 설치된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책본부’는 2020년 1월 30일 내각의 결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었으며 3월 26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감염여부를 파악하는 검사

-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PCR검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음.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초기에 높은 검사기준(37.5도 이상의 고열, 강한 나른함, 4일 이상 지속)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임.

② 감염(의심)자에 대한 격리

- 격리를 포함하여 일본에서의 코로나19 대응조치는 강제성이 없음. 이와 같

42)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oronavirus-japan-chart/>

43) 이윤경 외(2020).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심포지움: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정책자료 2020-06-02.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44) 최은미(2021).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정책결정과정. 일본연구, 87, 147-168.

은 강제력 없는 행동자숙이 「일본모델」의 특징으로 언급되기도 함. 이는 과거 군국주의 시대를 거친 역사적 배경,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강한 거부감 등 사회문화적 배경뿐 만 아니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③ 감염확대를 방지하는 방역의 측면

- 일본은 클러스터대책을 취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염된 사람의 80% 이상이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고 특정 조건(3밀: 밀접, 밀집, 밀폐)에서 특정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전문가회의」의 견해를 따른 것임. 국가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선언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특정조건(3밀)을 유의하는 클러스터대책을 취하며 방역과 경제를 양립해 나갔음.

(3) 일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 및 보육 정책⁴⁵⁾

일본은 2020년 2월 말 전국 학교가 일제히 휴교하였으며 6월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학습진도의 지체를 우려하여 여름방학을 축소하였다. 한국의 수행평가 확대 및 자유학기제에 해당하는 ‘유토리 교육’과 ‘커리어 교육’ 등을 추진하여 왔던 일본 초중고 교육은 토론과 탐구, 공유를 중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행평가 및 토론, 비교과 활동에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 및 보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격 학습 및 학생지원

- 원격으로 학생의 건강을 관찰하고 학습성과를 확인하며 그룹웨어를 이용하여 가정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음. ICT를 활용하여 학습 개별지도를 실시하며 온라인을 통해 매일 아침 조회를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 OECD 보고서⁴⁶⁾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에 조사된 교사의 ICT 기반 교수 준비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학교장의 온라인

4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년 3월 24일). 국외 COVID-19 대응 학교 교육 대처 방안 사례.

46) <https://www.oecd.org/education/japan-coronavirus-education-country-note.pdf>

교육에 대한 지원 및 지지수준도 가장 낮았음.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예측할 수 있음.

- 2020년 6월 이후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⁴⁷⁾, 여전히 교재 및 공지사항을 용지로 배포하여 등교 시에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가정에 따라서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정이 대부분으로 상당한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등학교조차도 구글 검색이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으로, 일부 지역 초중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동경도(東京都)에 한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프린트 배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학교의 ICT 활용: 독일의 경우⁴⁸⁾

독일은 2020년 3월부터 5월초까지 1차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12월 16일부터 2차 원격수업을 실시하였음. 2020년 4월말과 12월에 1천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독일의 교내 ICT 수준은 낮은 편이며 2019년 5월부터 모든 학교에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각 학교의 신청은 저조한 편이었음.

코로나19로 인하여 1차 원격수업을 실시하게 되었을 때 응답 교사의 58%는 학교의 기술적 장비와 교사가 사용할 디지털 기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답했으나, 2020년 하반기에는 등교 수업에서도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교사의 디지털 수업자료 사용 능력이 향상되었음. 한편, 독일은 사회의 대부분이 섰다온된 12월에도 초반에 학교는 등교수업을 강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교사의 56%가 코로나에 전염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음. 전반적으로 코로나19는 디지털 수업 형태와 디지털 소통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교사들은 평가하고 있음.

- 일본은 담임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와 상담을 하는 ‘가정방문’ 제도가 있음. 코로나19 초기에 가정방문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현관 앞에서’, ‘10분 정도’의 조건으로 가정방문이 진행되고 있음⁴⁹⁾.

47) 이은주(2020).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일교육의 변화 전망: 부등교 시대에 따른 학습권의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5(2), 75-90.

48) 주독일한국교육원(2021년 2월 26일). 독일 교육정보: 코로나-19 상황에서 독일교육의 변화. <https://www.keid.or.kr/german-education-info/0a25741a-2820-4cdc-a54c-6a4238d60bed>

49) 야마모토 겐지(2020). 코로나19 사태와 일본의 학교: 가고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벗, 57호.

② 보육 및 영유아교육기관의 대응⁵⁰⁾

- 2020년 1월 31일 후생노동성의 ‘보육소 등에 있어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의 통지는 관련자에게 현재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고 코로나19를 이유로 편견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
- 2020년 2월 25일 후생노동성의 ‘보육소 등에 있어서 어린이 등에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 통지는 ‘의료직 등 사회적 요청이 강한 직업 등에 종사하는 부모의 영유아에게 방문형 일시 보육, 보육교사 방문에 의한 보육, 아이 돌봄 활동 등을 고려하고, 각 시구정촌에서 필요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③ 기초학력 지원 정책

- 2020년 6월 등교수업이 재개된 시기에 ‘배움의 보장’이라는 종합대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음. 학생들의 가정학습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학생 한 명 당 한 대의 단말기를 배부하고자 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요보호 아동 학생 원조비 보조금’, ‘특별지원교육취학 장려비’, ‘고등학생 등 장학 급부금’ 등으로 명명된 통신비를 추가 지원하였음.
- ‘배움의 보장’이라는 종합대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소인수 학급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원, 학습지도원,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인력, 학교 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였음.

(4) 일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아동보호정책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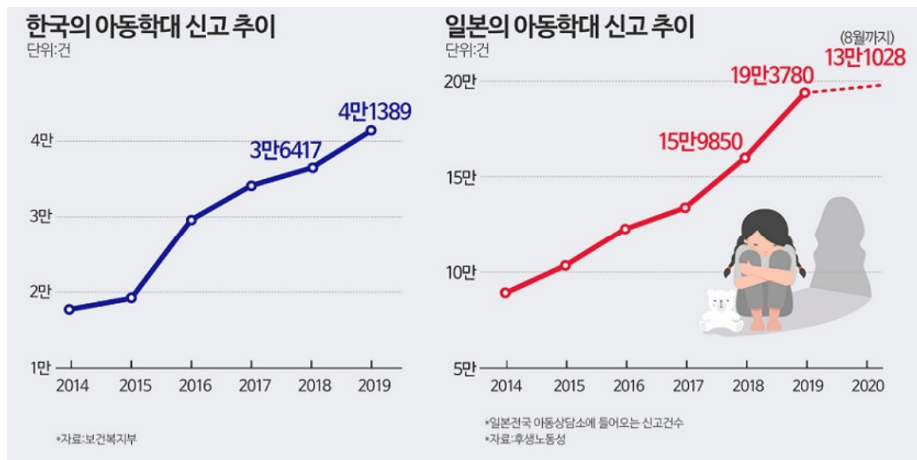
일본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및 학대를 일차적으로 다루는 기관인 '아동 상담소'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대응 건수는 2002년 이후 2019년까지 18년 연속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8월까지 해당 건수가 13만건을 넘는 등 역대 최대 급증세를 보였으며 일본 경시청이 적발한 학대 건수도 역대 최대였다. 일본 민법은 감호·교

50) 최순자. (2021). 일본 후생노동성 코로나 19 지침과 영유아교육기관 대응 사례. 한국일본교육학 연구, 26, 27-42.

51) 매일경제 (2021년 1월 16일). 다뤄진 일본판 '정인이 사건'...계부 학대에 짓밟힌 '동심'

육 범위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보장하였으나, 2020년 4월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1년 9월에는 3세 아동이 어머니의 동거남의 학대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정을 방문한 어머니의 지인과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보육원에서 여러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시 당국과 아동상담소의 결정으로 아무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코로나 확산 속에 보육원이 문을 닫으면서 모니터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이는 보육서비스는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아동의 돌봄 뿐 만 아니라 아동보호의 차원에서도 보육서비스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3-8] 우리나라와 일본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 추이⁵²⁾

52) 출처: 매일경제 (2021년 1월 16일). 다올린 일본판 '정인이 사건'...계부 학대에 짓밟힌 '동심'

비상돌봄의 이용: 독일의 경우⁵³⁾

독일은 2020년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영유아돌봄기관 등원과 학교 등교를 전면 금지하였음. 아동돌봄과 관련된 가족지원 정책으로 비상돌봄이 운영되었으며 바이에른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비상돌봄 프로그램은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성인이 직업으로 인해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중한 병이 있어 아동을 돌볼 수 없을 때 운영되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부모는 비상돌봄을 이용할 수 없음. 구체적인 대상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국가의 중요 인프라 체제와 관련있는 분야,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상황에 근로하는 경우가 해당,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업무출장이 잦아서 일주일이 대부분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음.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안녕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 학대)도 비상돌봄에 해당함. 또한, 재학 중인 대학생 부모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돌봄이 필요하거나 직업교육 중인 부모가 교육이나 실습으로 인해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도 비상돌봄을 이용할 수 있음.

바이에른 주는 5월초부터 이웃의 상호도움으로 자녀돌봄을 해결하는 사적인 돌봄조직 모임을 허용하였음. 질병증상이 없는 건강한 아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변동이 없어야 하고 베이비시터와 같은 제3의 인력이 투입되어서는 안 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하였음.

3. 아동인권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분석

앞서 제시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고한 스코틀랜드의 보고서, UN 아동권리위원회 쟁점질의목록 채택을 위해 제출한 스웨덴의 옴부즈맨 보고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스코틀랜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UNCRC가 국내법으로 곧 적용되는 스코틀랜드는 2차례에 걸쳐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아동권리단체, 아동 및 젊은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권리와웰빙영향평가(CRWIA)를 발표하였으며

53) GlobalA(2020년 10월 19일). [독일 유아돌봄] '코로나19' 비상 돌봄지원 프로그램 가동.
http://m.globala.co.kr/view.php?ud=EJ1818182784825ed56eecd_a_37

이에 기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젊은이의 일상적 사회적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방역과 보건을 넘어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응 정책을 실시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NGO 및 국가단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생활실태 및 인권현황을 파악한 반면, 스코틀랜드는 아동 및 청소년 의회와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을 반영하였음.
- 스코틀랜드는 어린 양육자(young carer)를 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다양한 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집단을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를 볼 때, 미혼모, 한부모 등 혼인여부 및 배우자여부로 가족구조를 파악하기 보다는 어린 연령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집단도 앞으로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스코틀랜드의 아동권리동맹은 UN아동권리위원회의 코로나19 대응 성명서의 11항목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및 보고서를 총망라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누구나 정보추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NGO별, 국가기관별 코로나19 대응 정보가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도 추후 이와 같이 정보의 관문(gateway)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스웨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UNCRC를 국내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UNCRC에서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보육시설부터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음.
- 고등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권이 침해된 경향이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및 보건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있었음. 의료서비스, 특히 아동청소년신경정신과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진단이 있어야만 개별적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역시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일부 영역에서는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모든 영역, 모든 수준에서(예: 국가, 권역, 지역)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음.

3)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 아동의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류해서 제시할 정도로 대응방안이 구체적임. 휴교와 온라인 학습으로 발생한 학습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 구호기금이 편성될 정도로 학교는 아동의 학습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학교를 통한 각종 서비스제공(예: 식사, 언어/작업치료, 방과후수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교 대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다각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확진률 및 사망률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 이는 민간중심의 의료체제로 인해 저소득층 및 유색인종의 의료접근성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도 다른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여 아동의 생존권 및 발달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

4) 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영국은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을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설계한 후 2021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사회적 제약을 해제하였으며 7월 19일 이후에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영국과 몇몇 국가의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을 위한 정책 실행은 델타변이의 확산 및 장기적 백신 효과의 감소로 인해 현재 성과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임.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을 치루는 대신 내신성적에 기초한 교사평가로 대체하였음. 2021년 8월부터 전면 등교를 결정하면서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에게 신속진단검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쟁점질의목록 채택을 위해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연령에 대한 불일치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시 일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 정책의 점검이 연기되었음.

5)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코로나19 관련 기사와 정보를 담은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30개 이상 언어로 장애, 연령, 비영어권 시민을 위한 다양한 버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정보단계별 교육기관의 대응상황을 보면 ‘학교는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열어야 한다’, ‘필수 인력/서비스’는 없으므로 일을 하는 모든 부모는 재택근무나 휴직을 하는 대신 직장에 출근해 근무한다.’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이슈를 개별 가정이 해결하기 보다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
- 인구의 수도 작고 인구밀도도 낮으며 다른 국가와 접촉한 국경이 없는 섬나라의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이 크지 않았음. 쟁점질의목록 채택을 위해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의견을 경청해서 반영하는 노력은 부족했으며 이후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할 때에도 아동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6)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

- 초기 대응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10월부터 긴급사태와 중점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지 않고 예방적 차원의 전국적 휴교를 실시한 점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공중보건 측면에서는 긍정적 의의가 있었을 수 있으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심리적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사회의 전반적 ICT 기술 발달 수준에 비해 학교의 ICT 기술 도입 수준과 학교장 및 교사의 ICT 기술 수용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은 공립학교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지진 등의 재난상황을 대비해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상담하는 ‘가정방문’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가 아동의 건강과 학습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음. 그러나 필수업종에 재직

하는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보육원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로 인해 사각 지대의 아동학대가 아동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음.

4. 시사점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의 반영정도를 분석한 스코틀랜드의 보고서, UN 아동권리위원회 쟁점질의목록 채택을 위해 제출한 스웨덴의 옴부즈맨 보고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적절성과 한계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아동인권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2020년 4월 성명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 필요성

- 몇몇 국가는 2020년 4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 조항의 이행 정도를 분석하여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 성명서에 대한 이행정도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쟁점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옴부즈맨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아동 인권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2019년 10월에 받은 상태로, 이후 국가보고서 제출까지는 기한이 있는 상황임.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2020년 4월 성명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아동인권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성명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제안함.
- 또한, 20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한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후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에 기반한 대응정책을 결정할 때 반영해야 할 것임.

2)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과 관련된 성명서, 보고서, 연구 및 통계자료의 관문(gateway) 마련

- 스코틀랜드의 아동권리동맹은 UN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4월 성명서의 11개 조항별로 국가 내외의 보고서, 연구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2020년 2회에 걸쳐 성명서에 대한 보고서를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NGO, 국가연구기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개별 연구자가 코로나19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보고서 및 논문의 형태로만 결과물이 공유되고 있어 원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각 결과물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UN 아동권리위원회 성명서의 11개 조항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이 아동인권에 기반한 것인지를 11개 문항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진행된 보고서, 연구 및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결과물을 정리할 때 UN 아동권리위원회 성명서의 11개 조항에 나누어 정리하고 함의를 분석하여 추후 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아동 발달권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 재정립

- UNCRC에 가입한 국가들은 휴교를 하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며 아동의 발달권 및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학교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늦게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UNCRC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의 경우에도 해당됨.
- 우리나라는 온라인 관련 인프라, 디지털기기의 준비 등 비대면 학습 진행에 큰 무리는 없었으며 초기의 혼란기 외에는 교사들의 온라인수업 진행과 학생들의 참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비대면 수업일

도 학습일에 포함할 때 휴교일이 짧은 국가에 해당되지만 휴교나 대면 수업일수를 책정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다거나 아동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공교육이 휴교와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는 동안 사교육은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쉽 없이 대면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계층별 교육격차가 커졌음. 이는 공교육 외의 대안이 없는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점임.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사교육으로 인한 격차까지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학습권에서 학교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대응은 적극성이 부족하거나 학교 외부기관 활용에 주력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임(예: 사기업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활용).
-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학교는 교과과정을 전달하는 교육 및 학습의 역할뿐 아니라 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믿을 수 있는 성인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재난 상황에서 학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IV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 실태에 대한 질적 분석

IV.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 실태에 대한 질적 분석

본 장에서는 아동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있어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미래의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아동 인권을 우선으로 한 대응에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를 아동(초/중/고), 부모(외벌이/맞벌이/한 부모), 아동 돌봄 기관 종사자, 교사, 전문가, 행정가로 세분화한 뒤 집단별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하였고 이를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1.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코로나19는 아동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아동은 가정 내 가족뿐 아니라 학교와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와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대면 관계를 차단하다 보니 아동 생활의 많은 부분이 ‘콘택트’에서 ‘언택트’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생존과 방역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아동의 생존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었으나 그 외 중요한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은 잘 보장되었을까? 아동은 자신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아동의 생활과 인권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 평가해왔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현상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경험 또한 변화되며, 더불어 이런 경험은 각 개인이 가진 고유성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각 개인의 경험은 타인과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동 인권과 관련된 여러 구성원의 개인 경험을 바라보는 것은 아동인권을 미시적, 거시적 체계 안에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이

하는 한 가지 현상으로 단순하게 정의되기 어렵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되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자신뿐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속해있는 사회 여러 구성원 각자가 경험한 아동인권과 관련된 경험 및 인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그다음, 이를 기반으로 아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추후 적절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 자신뿐 아니라 아동에게 중요한 외부 체계에 속한 사람들의 아동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동인권은 아동 자신뿐 아니라 가정, 학교, 더 나아가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라는 체계의 관계 속에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동인권 상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각 체계에 속한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연구 주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공통된 특징을 가진 5-10명의 참여자로 구성된 그룹 토론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탐색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Krueger, 2014)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FGI로 얻어진 모든 자료는 전사하여 문서화 하였다. 문서화 된 모든 자료는 우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에 기반한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 빈도에 기초하여 참여자 그룹별 중요 단어와 그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아동인권에 대한 그룹별 기초자료를 파악하였다. 그다음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러한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사하기에 적절한 질적연구방법(Creswell, 2009) 중 내용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질적연구방법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얻어낼 수 있고,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Thomas, MacMillan, McColl, Hale, & Bond, 1995).

2. 연구 절차

1) 연구참여자 선정

FGI를 위한 연구 참여자는 인터뷰 주제에 대하여 풍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로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해당 주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동질성을 확보한 사람들이어야 한다(Krueger,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유념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적 표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 그룹은 코로나19와 아동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아동 당사자, 양육자, 교사, 아동 돌봄 기관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총 14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집단별 참여 인원은 4~7명이었다. 성인 그룹의 경우 총 인원은 5~7명으로 구성하였고, 아동의 경우 발달 연령상 타인에게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룹 안에서 자기 의사를 편안히 표현하면서도 집단 구성원 간 이야기를 촉진할 수 있기 위해 총 4~5명으로 구성하였다. 요보호 아동의 경우 집단 인터뷰 시 예상되는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과 참여 아동의 정서적 불편감을 예방하기 위해 일대일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집단 구성 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 지역, 가족 형태 및 근무 형태를 고려하였다. 최종 참여자는 연구자들의 논의 및 합의를 거쳐 총 61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연구참여자 정보

참여자	그룹	지역	구분
A1	아동 (초등학교)	서울	초등학교 (6학년)
A2		경남	초등학교 (6학년)
A3		강원	초등학교 (6학년)
A4		경기	초등학교 (5학년)
B1	청소년 I (중학교)	경기	중학교 (2학년)
B2		강원	중학교 (3학년)
B3		서울	중학교 (3학년)
B4		전남	중학교 (2학년)

참여자	그룹	지역	구분
C1	청소년 II (고등학교)	충청	고등학교 (2학년)
C2		서울	고등학교 (2학년)
C3		서울	고등학교 (2학년)
C4		제주	고등학교 (2학년)
C5		서울	고등학교 (1학년)
D1	아동 (요보호 초등학생)	서울	초등학교 (5학년)
D2	청소년 (요보호 고등학생)	서울	고등학교 (2학년)
E1	부모 (맞벌이)	대구	맞벌이
E2		경기	맞벌이
E3		경기	맞벌이
E4		부산	맞벌이
E5		제주	맞벌이
F1	부모 (외벌이)	경기	외벌이
F2		부산	외벌이
F3		경기	외벌이
F4		경기	외벌이
F5		대구	외벌이
G1	부모 (그 외)	경기	한부모가정
G2		대구	한부모가정
G3		부산	한부모가정
G4		인천	다문화가정
G5		인천	조손가정
H1	교사 (영유아)	경기	유치원 교사 (사립)
H2		서울	유치원 교사 (공립)
H3		강원	어린이집 교사
H4		부산	어린이집 교사 (직장형)

참여자	그룹	지역	구분
I1	교사 (초등)	제주	초등학교 교사
I2		경기	초등학교 교사
I3		인천	초등학교 교사
I4		충북	초등학교 교사
I5		부산	초등학교 교사
I6		서울	초등학교 교사
I7		경기	초등학교 교사
J1	교사 (중고등)	광주	고등학교 교사
J2		대구	고등학교 교사
J3		경남	중학교 교사
J4		부산	중학교 교사
J5		경기	중학교 교사
K1	아동돌봄기관 I (이용시설)	서울	다함께돌봄센터
K2		경기	드림스타트
K3		서울	지역아동센터
K4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
K5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L1	아동돌봄기관 II (생활시설)	서울	아동양육시설
L2		서울	학대피해아동쉼터
L3		대전	아동보호치료시설
L4		경기	공동생활가정
L5		인천	아동일시보호시설
M1	행정 및 관련 전문가	서울	굿네이버스
M2		서울	서울시인권담당관
M3		서울	복지정책과
M4		서울	복지부
M5		전북	교육청 / 장학사

2) FGI 질문지 구성

FGI에 사용될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과 관련 연구(권혜진, 2021, 김상옥, 2020, 김진아·우민지·임민정, 2021, 노성향, 2020, 박선영, 2020, 박영아·조미현, 2020, 서영숙, 2020, 이장희, 2020, 정익중·이수진·강희주, 2020)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내용(성미애 외 2021, 유선우·최미향, 2021, 정익중, 2020, 최아라, 2020)을 중심으로 예비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①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변화 ② 코로나19로 아동이 경험한 어려움 ③ 이에 대한 대책 ④ 코로나19 관련 정책 ⑤ 확진자에 대한 태도 등이 추출되었다. 그 다음 각 주제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을 만들어 예비 질문지를 구성하였는데, 세부 항목은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하였다. 모든 연구진이 참여하여 총 3회에 걸친 검토를 통해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최종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그 후 최종 질문지에 대해 총 6인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최종 질문지는 아래 <표 4-2>, <표 4-3>, <표 4-4>, <표 4-5>, <표 4-6>과 같다.

<표 4-2> 초등학교 질문지

“여러분과 같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성인과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육을 받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놀이를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했나요?

1. 코로나19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특히 앞서 설명한 인권과 관련하여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 1-1) 학교(교육)
- 1-2) 집(돌봄/가족과의 관계)
- 1-3) 친구
- 1-4) 여가시간(신체 활동, 놀이 및 기타 여가활동)
- 1-5) 일상생활(신체 및 정신건강 측면)
- 1-6) 지역사회(주변환경)
- 1-7) 주변 친구들의 달라진 행동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ex: 자해, 문제행동)

2.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특히 앞서 설명한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2-1) 학교(교육)
 - 2-2) 집(돌봄/가족과의 관계)
-

-
- 2-3) 친구
 - 2-4) 여가시간(신체 활동, 놀이 및 기타 여가활동)
 - 2-5) 일상생활(신체 및 정신건강 측면)
 - 2-6) 지역사회(주변환경)
- 3.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나요?
- 4. 코로나19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고, 궁금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 4-1) 코로나19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4-2) 어떤 것으로 궁금증을 해결했나요?
 - 4-3)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 5.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되거나 불안한 것이 있었나요? 특히 앞서 설명한 인권과 관련하여 걱정되거나 불안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5-1) 그럴 때는 어떻게 했나요?
 - 6.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
 - 6-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
 - 7.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여러분의 인권이 잘 보호받기 위해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
 - 8. 주변에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 된 친구(후배, 선배)가 있었나요?
 - 8-1)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어땠나요?
 - 8-2) 그 친구(후배, 선배)는 주변의 어떠한 도움을 받았나요? 그 도움은 적절했나요?
-

〈표 4-3〉 청소년 질문지

“여러분과 같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성인과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육을 받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놀이를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

- 1. 코로나19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특히 앞서 설명한 인권과 관련하여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 1-1) 학교생활과 학업
 - 1-2) 일상생활(규칙적인 일과/신체 및 정신건강 측면)
 - 1-3) 가족간의 관계(돌봄)
 - 1-4) 친구관계
 - 1-5) 여가 시간(신체활동 및 기타 여가활동)
 - 1-6) 진로탐색
 - 1-7) 주변 친구들의 달라진 행동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ex: 자해, 문제행동)
-

2.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특히 앞서 설명한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2-1) 학교생활과 학업
- 2-2) 일상생활(규칙적인 일과/신체 및 정신건강 측면)
- 2-3) 가족간의 관계(돌봄)
- 2-4) 친구관계
- 2-5) 여가 시간(신체활동 및 기타 여가활동)
- 2-6) 진로탐색

3.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나요?

- 3-1) 어떻게 해결했나요?
- 3-2)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나요?

4.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찾아보았나요?

- 4-1)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 4-2)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5.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되거나 불안한 것이 있었나요? 특히 앞서 설명한 인권과 관련하여 걱정되거나 불안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5-1)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6.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

- 6-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7)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학교 교육 및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인권이 잘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 7-1) 도움이 되었던 정책이 있었나요?
- 7-2)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정책이 있었나요?
- 7-3) 국가 정책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8) 주변에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 된 친구(후배, 선배)가 있었나요?

- 8-1)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어땠나요?
 - 8-2) 그 친구(후배, 선배)는 주변의 어떠한 도움을 받았나요?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

〈표 4-4〉 부모 질문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성인과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육을 받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놀이를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1. 코로나19 이후 자녀와 관련되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특히 앞서 설명한 인권과 관련하여 변화된 부분이 있었나요?
 - 1-1) 부모의 양육 및 훈육(돌봄)
 - 1-2) 가정의 식생활 및 건강 또는 학교 급식
 - 1-3) 자녀의 학습
 - 1-4) 자녀의 놀이 및 여가시간
 - 1-5) 가족관계 및 자녀의 친구관계
 - 1-6) 자녀의 신체 및 정서 건강
2. 코로나19 이후 자녀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특히 인권 침해 관점에서 설명해주세요.
 - 2-1) 부모의 양육 및 훈육(돌봄)
 - 2-2) 가정의 식생활 및 건강 또는 학교 급식
 - 2-3) 자녀의 학습
 - 2-4) 자녀의 놀이 및 여가시간
 - 2-5) 가족관계 및 자녀의 친구관계
 - 2-6) 자녀의 신체 및 정서 건강
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나요?
4. 어려운 점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셨나요?
 - 4-1)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4-2)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셨나요?
5. 코로나에 관련된 정보는 어떤 경로로 얻으셨나요? 그것이 자녀를 대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6.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 6-1)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7.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정책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특히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7-1) 코로나19 관련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 재난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지원, 급식꾸러미 등)
 - 7-2) 지원받은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8.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정책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특히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9. 주변에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 된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었나요?
 - 9-1)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
 - 9-2) 그 아동이나 청소년은 주변의 어떠한 도움을 받았나요? 그 도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표 4-5〉 관계자 질문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성인과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육을 받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놀이를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의 관점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험했다고 판단된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다음 질문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 및 생각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1.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경험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변화는 어떠하였습니까? 특히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주세요.

1-1) 환경

가정에서의 돌봄	
학교	
기관환경	

1-2) 신체건강 상태

1-3) 정서건강 상태

1-4) 학교 및 기관 내에서의 사회관계

학교	
기관	

1-5) 학습태도 및 성취

2.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이 각 영역에서 아동인권과 관련된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2-1) 환경

가정에서의 돌봄	
학교	
기관환경	

2-2) 신체건강 상태

2-3) 정서건강 상태

2-4) 학교 및 기관 내에서의 사회관계

학교	
기관	

2-5) 학습태도 및 성취

3.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코로나19 대응 업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특히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또한,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노력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3-1) 이러한 변화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4. 현장에서 적용되었던 코로나 관련 정책은 무엇이었나요? 특히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었나요?

4-1) 도움이 되었던 정책은 무엇이 있었나요?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였나요?

4-2)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정책은 무엇이었나요?

4-3)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까요?

5. 주변에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 된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었나요?

5-1)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5-2) 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대처는 어땠나요? 그들은 충분히 혹은 적절히 보호 받았나요?

〈표 4-6〉 행정가 질문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성인과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육을 받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놀이를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아동 및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한 점이 무엇 인가요?

2. 코로나19 관련 아동 및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 때 무엇을 참고 하셨나요?

3. 코로나19 관련 아동 및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용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 인가요?

4. 코로나19 관련 아동 및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무엇 인가요?

5.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아동 및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 인가요?

6. 주변에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 된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었나요? 그들과 관련한 정책은 실제로 도움이 됐나요? 보완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6-1) 그들과 관련한 정책 중 보완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3) FGI 진행

각 그룹별 인터뷰는 2021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본 연구 참여진 5명과 그 외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생 2명이 각 집단의 진행을 맡아 비대면 화상회의로 1시간 30분 - 2시간가량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진행자는 본 연구 회의에 참여하여 질문지 내용을 수정, 보완한 연구원으로 한정하였다.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기 일주일 전 참여자에게 질문지를 이메일이나 SNS로 발송하여 질문 내용을 미리 안내하였다. 인터뷰는 구조화된 질문을 하여 참여자의 응답을 듣고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 후 참여자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추가하길 원하는 경우 이메일, SNS 메시지를 통하여 보충 답변을 얻었다.

인터뷰 진행자는 인터뷰 시작 전 연구 참여 동의서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함께 작성하였다.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다. 또한 자료 수집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내용의 녹음과 녹화를 고지하였다. 연구참여자 동의서와 연구 안내문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사 자료를 기반으로 키워드(주요 주제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키워드 분석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주요 주제어를 살펴본 후 전체 자료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자료 안에서 주제어 간의 관계를 찾고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연구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성을 확보하였다(오상은 박재현, 최창환, 2020).

두 번째, 질적 내용분석 방법(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끌어내기 위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서(Weber, 1985), 사회과학에서의 연구 방법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주요한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대희, 서승현, 2011; 조재영, 2013). 질적 내용분석은 주어진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

류 방법인 코딩 과정을 통해 내용의 패턴과 주제를 밝히는 연구 방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다양한 연구참여자들의 코로나19와 아동인권과 관련된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의미들을 찾고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61명의 연구참여자가 응답한 내용을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절차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텍스트 전체를 심층 이해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유의미한 진술 찾기 단계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구술을 문장 다발로 다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문장 중에서 연구 주제에 유의미한 진술문들을 발췌하여 그 의미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명명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범주화 단계로 연구 자료의 의미를 개념화한 후 이러한 개념 중에서 유사하거나 상호관계에 처해있거나 공통적인 것들을 재결집하여 범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였다.

- 평정자 : 2명 이상의 평정자를 두어 주관적이거나 편향된 관점을 피하며 반복적인 합의를 거치는 팀 기반 분석(Hill, 2016)을 하였다. 본 자료의 평정자는 질적연구를 다수 진행한 교수 1인과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 1인으로 구성하였다.
- 전문가 검토 : 평정자들이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한 후 연구 주제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가능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추출한 자료에 대한 교차분석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4. 분석 결과

1) FGI 자료의 키워드(주요 주제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의 키워드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는 사회연결망 프로그램인 넷마이너 4(NetMiner 4.4.3)를 사용하였다. 키워드(주요 주제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 자료의 전처리 과정으로 오타자 교정, 정제, 유의어 구분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분석을 통해 얻은 자료와 데이터를

함께 검토하며 그 과정을 반복하였다. 전처리 과정 내용의 일부는 다음의 <표 4-7>과 같다. 분석 후 빈도수를 기준으로 크기에 따라 직관적으로 주요 주제어를 보여줄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결과표에 주요 주제어 빈도수는 상위 10위 까지, 워드 클라우드는 총 130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시각화하였다.

<표 4-7> 전처리 내용

전체 자료 오탈자 교정	
정제	코로나, 코로나19, 팬데믹, 코비드 제외
	개인적 배경 내용 삭제 (지역, 소속, 지위)
	의미 없는 관형사, 접속사, 접미사 등을 제외
유의어 구분 예시	• 애, 애기, 아기, 아동, 아이는 동일한 의미이므로 '아이'(부모), "아동'(그 외 집단)으로 통일 • 선생, 교사, 답임은 동일한 의미이므로 '선생님'으로 통일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위챗은 'SNS'로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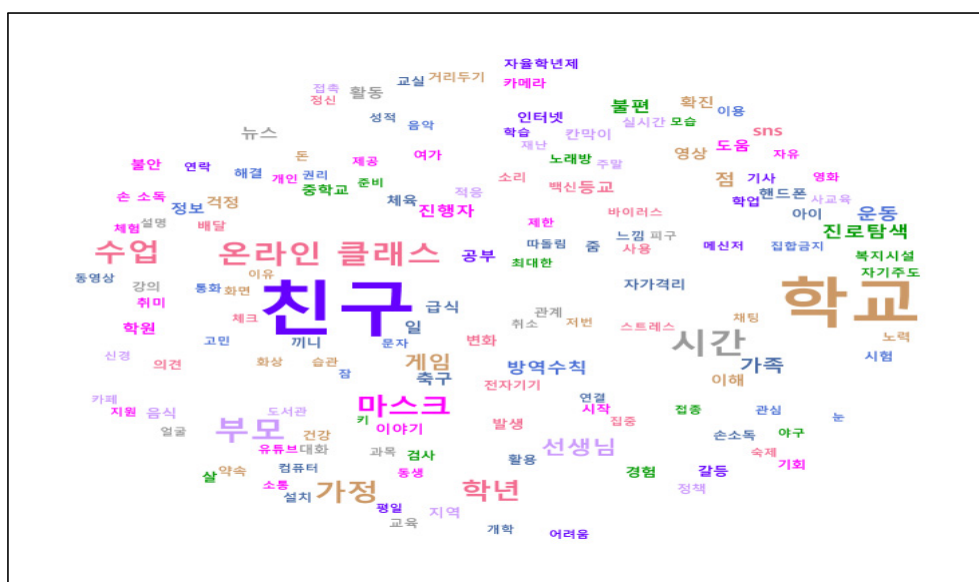
네트워크의 개체 및 구조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심성(centrality) 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Bhat & Milne, 2008). 중심성 지표로는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이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본 연구는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연결의 '질'을 고려하는 지표로,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진 주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연결된 노드들의 중심성에 가중치를 반영하므로 전체 네트워크상의 영향력을 파악하기에도 유용하다.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후 네트워크 구조의 이미지화를 진행하면서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중심성이 가장 높은 노드를 '★'모양으로 변경하였다. 그다음으로 중심성이 높은 구간에 포함되는 노드는 '■'로, 그 외 중심성이 0.1~ 0.2 미만에 속하는 노드는 '▲'로 지정하였다.

(1) 아동

① 아동 그룹의 주요 주제어와 워드 클라우드를 다음 <표 4-8>, [그림 4-1]과 같다.

<표 4-8> 아동 그룹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순서	키워드(빈도)	순서	키워드(빈도)
1	친구(172)	6	수업(55)
2	학교(152)	7	가정(52)
3	시간(66)	8	마스크(50)
4	부모(61)	9	학년(46)
5	온라인클래스(59)	10	선생님(34)



[그림 4-1] 아동 그룹 워드 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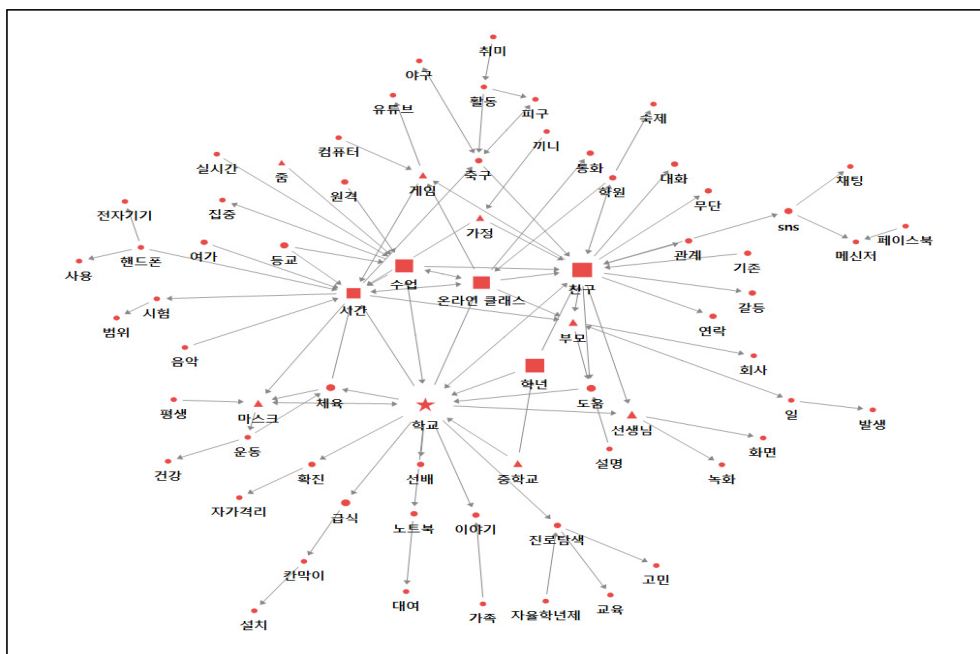
- 아동 그룹에서 ‘친구’, ‘학교’의 빈도수는 다음 순위인 ‘시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교’와 관련 있는 ‘온라인클래스’, ‘수업’, ‘학년’ ‘선생님’과 같은 주요 주제어가 상위 빈도수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마스크’도 아동

그룹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아동 그룹 워드 클라우드에는 주제어 ‘불편’, ‘불안’, ‘갈등’,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다.

② 아동 그룹의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위와 네트워크 분석은 다음 <표 4-9>,[그림 4-2]와 같다.

〈표 4-9〉 아동 그룹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순서	키워드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서	키워드	아이겐벡터 중심성
1	학교	0.53	6	시간	0.23
2	친구	0.37	7	선생님	0.18
3	학년	0.35	8	마스크	0.14
4	수업	0.32	9	중학교	0.13
5	온라인클래스	0.30	10	부모	0.13



[그림 4-2] 아동 그룹 아이겐벡터 중심성 네트워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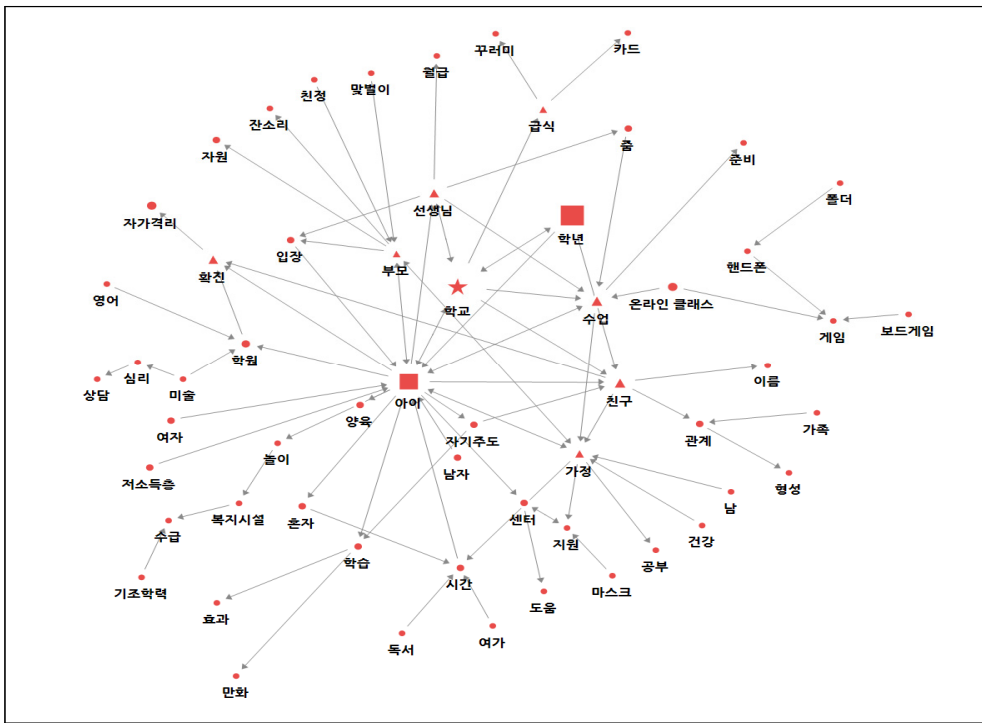
- 빈도기반 주제어 분석에서는 ‘친구’의 빈도수가 제일 높았으나 아이젠벡터 중심성은 ‘학교’가 가장 높았다. 이는 ‘친구’보다 ‘학교’가 주요 단어들과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지며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진 주제임을 의미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연결된 ‘시간’, ‘학년’, ‘온라인클래스’도 아이젠벡터 중심성이 높다. 두 번째로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친구’로 ‘SNS’, ‘게임’, ‘갈등’과 같은 주제어와 연결되어있다.
- 빈도수와 중심성이 모두 높은 주제어는 ‘마스크’이다. 이는 자주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주요 주제어들과 연결되어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의미이다. ‘마스크’는 ‘평생’, ‘체육’, ‘시간’과 함께 연결되어있다. 아동 그룹 네트워크에서는 ‘피구’, ‘야구’, ‘노래방’, ‘축구’, ‘운동’ 등과 같은 여가활동 관련 주제어도 살펴볼 수 있다.

(2) 부모

- ① 부모 참여자 그룹의 주요 주제어와 워드 클라우드는 다음 <표 4-10>, [그림 4-3]과 같다.

<표 4-10> 부모 그룹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순서	키워드(빈도)	순서	키워드(빈도)
1	아이(526)	6	친구(177)
2	부모(372)	7	학년(156)
3	가정(357)	8	선생님(152)
4	학교(350)	9	수업(142)
5	시간(261)	10	학원(136)



[그림 4-4] 부모 그룹 아이젠벡터 중심성 네트워크 이미지

- 부모 그룹의 아이젠벡터 중심성 분석 결과 ‘학교’의 중심성이 가장 높았다. ‘아이’를 중심으로 연결된 노드의 수가 가장 많음에도 ‘학교’의 중심성이 더 높은 이유는 ‘학교’와 연결된 단어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주제어 ‘학년’, ‘수업’은 빈도수 순위보다 중심성 순위가 높았다. 또한 ‘확진’과 ‘급식’은 빈도 기반 분석 순위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아이젠벡터 중심성은 높았다. 이것은 해당 주제어들이 다른 단어들과의 연결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진’은 ‘자가격리’, ‘학원’, ‘친구’와 ‘급식’은 ‘꾸러미’, ‘카드’와 같은 주제어와 연결되어있다.

(3) 교사

- ① 교사 참여자 그룹의 주요 주제어와 워드 클라우드는 다음 <표 4-12>, [그림 4-5]와 같다.

<표 4-12> 교사 그룹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순서	키워드(빈도)	순서	키워드(빈도)
1	아이(531)	6	친구(176)
2	학교(385)	7	가정(164)
3	선생님(348)	8	시간(131)
4	수업(262)	9	학년(118)
5	부모(313)	10	마스크(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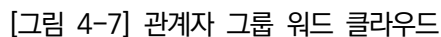
[그림 4-5] 교사 그룹 워드 클라우드

- 교사 그룹의 주요 주제어 빈도는 ‘아이’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 ‘수업’ ‘부모’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친구’, ‘가정’, ‘시간’이 비슷한 빈도로 언급되었다. 교사 그룹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고민’, ‘걱정’ 등의 주제어가 포함되어 있다.

- 주요 주제어와 연결된 핵심 노드를 살펴보면, ‘수업’은 ‘진행’, ‘참여’와 ‘선생님’은 ‘투입’, ‘업무’, ‘대응’, ‘지도’와 연결되어있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사에게 요구되었던 역할이나 대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관계자 그룹의 주요 주제어와 워드 클라우드는 다음 <표 4-14>, [그림 4-7]과 같다.

순서	키워드(빈도)	순서	키워드(빈도)
1	아동(123)	6	기관(59)
2	복지시설(107)	7	학교(52)
3	가정(105)	8	교육(40)
4	부모(91)	9	지원(39)
5	선생님(63)	10	센터(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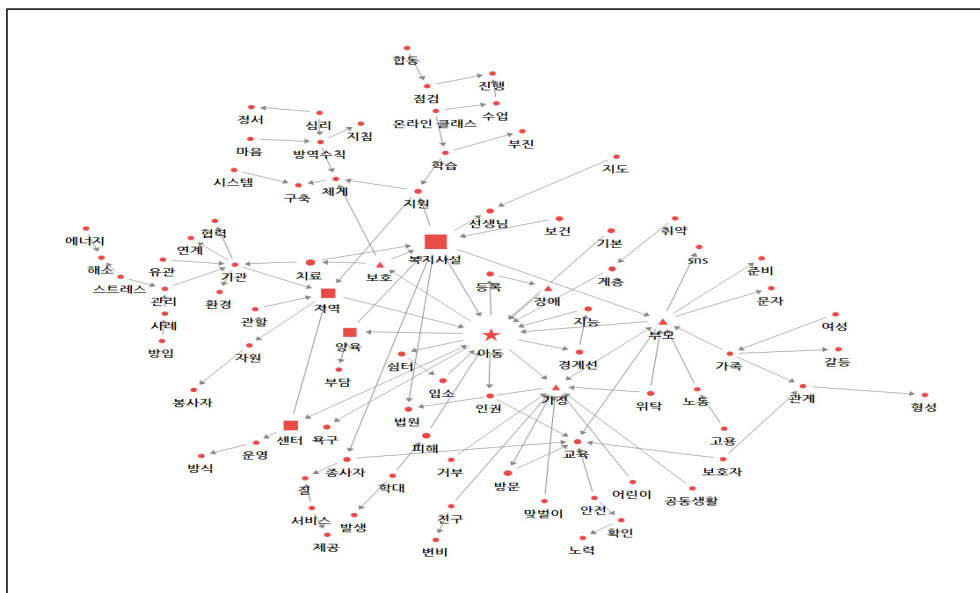


- 관계자 그룹에서는 빈도가 가장 높은 주제어는 ‘아동’이었다. 다음 ‘복지시설’, ‘가정’, ‘부모’, ‘선생님’뿐 아니라 ‘기관’, ‘지원’, ‘센터’라는 주제어도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관계자 워드 클라우드에는 ‘위험’, ‘취약’, ‘어려움’, ‘위기’와 같은 주제어가 포함되어 있다.

② 관계자 그룹의 아이젠벡터 중심성 순위와 네트워크 분석은 다음 <표 4-15>, [그림 4-8]과 같다.

<표 4-15> 관계자 그룹 아이젠벡터 중심성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순서	키워드	아이젠벡터 중심성	순서	키워드	아이젠벡터 중심성
1	아동	0.63	6	부모	0.17
2	복지시설	0.51	7	보호	0.15
3	지역	0.26	8	장애	0.13
4	센터	0.25	9	가정	0.12
5	양육	0.22	10	치료	0.09



[그림 4-8] 관계자 그룹 아이젠벡터 중심성 네트워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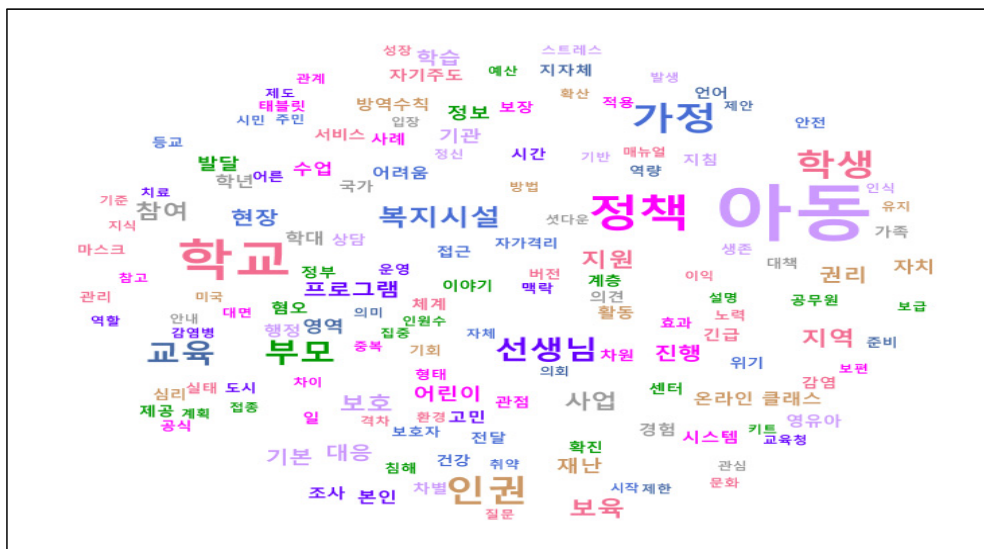
- 관계자 그룹의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아동’, ‘복지시설’, ‘지역’ 순으로 높았다. ‘아동’과 연결된 주제어 ‘양육’, ‘보호’, ‘장애’, ‘치료’는 빈도수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심성 분석 순위는 높다. 이 주제어들은 ‘복지시설’과 연결되어있는데, ‘복지시설’이 언급될 때 함께 중요하게 언급되었음을 의미한다.

(5) 행정가

- ① 행정가 그룹의 주요 주제어와 워드클라우드는 다음 <표 4-16>, [그림 4-9]와 같다.

<표 4-16> 행정가 그룹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순서	키워드(빈도)	순서	키워드(빈도)
1	아동(134)	6	학생(51)
2	학교(84)	7	교육(42)
3	정책(71)	8	선생님(41)
4	가정(57)	9	복지시설(34)
5	인권(55)	10	보육(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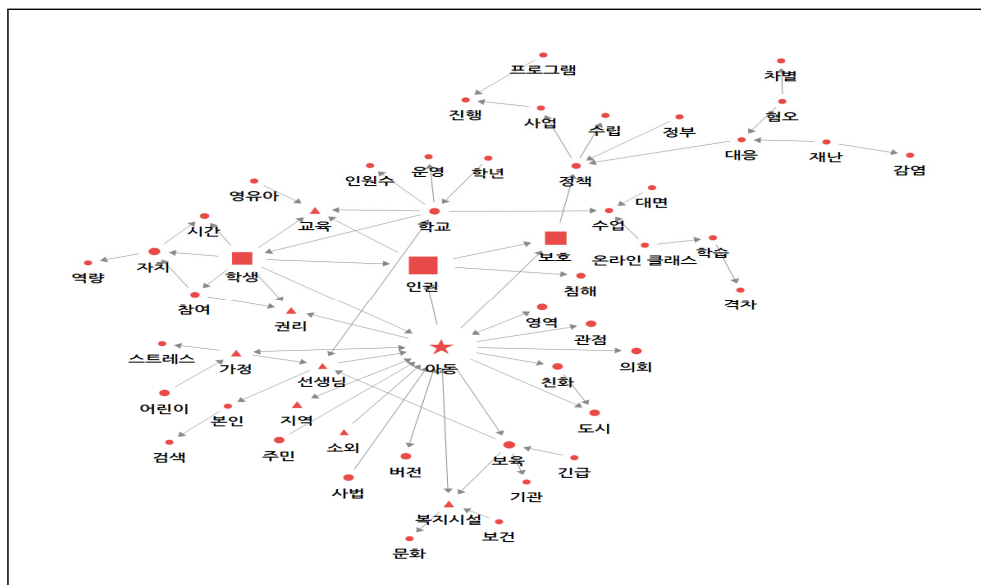
[그림 4-9] 행정가 워드 클라우드

- 행정가 그룹에서는 ‘아동’, ‘학교’, ‘정책’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다음으로 ‘가정’, ‘인권’, ‘학생’이 비슷한 빈도로 언급되었다. 행정가 그룹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고민’, ‘스트레스’, ‘혐오’라는 주제어가 포함되어 있다.

② 행정가 그룹의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위와 네트워크 분석은 다음 <표 4-17>, [그림 4-10]과 같다.

<표 4-17> 행정가 그룹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순서	키워드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서	키워드	아이겐벡터 중심성
1	아동	0.58	6	교육	0.125
2	인권	0.51	7	지역	0.123
3	보호	0.33	8	권리	0.120
4	학생	0.32	9	복지시설	0.104
5	가정	0.126	10	소외	0.100



[그림 4-10] 행정가 그룹 아이겐벡터 중심성 네트워크 이미지

- 행정가 그룹에서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가진 주제어는 ‘아동’이다. ‘아동’을 중심으로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인권’, ‘보호’, ‘학생’, ‘가정’ 등이 연결되어 있다. 중심성이 두 번째로 높은 주제어 ‘인권’은 빈도 기반뿐 아니라 중심성 기반 분석에서도 순위가 높았다. 이는 ‘인권’과 연결되어 있는 ‘보호’, ‘학생’ ‘교육’이 다른 주제어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주제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룹별 키워드(주요 주제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순위표

총 5그룹의 키워드(주요 주제어)와 네트워크 분석 순위표는 다음 <표 4-18>, <표 4-19>와 같다.

<표 4-18> 그룹별 주요 주제어 빈도기반 분석 순위표

순위 \ 대상	아동	부모	교사	관계자	행정가
1	친구	아이	아이	아동	아동
2	학교	부모	학교	복지시설	학교
3	시간	가정	선생님	가정	정책
4	부모	학교	부모	부모	가정
5	온라인클래스	시간	수업	선생님	인권
6	수업	친구	친구	기관	학생
7	가정	학년	가정	학교	부모
8	마스크	선생님	시간	교육	교육
9	학년	수업	학년	지원	선생님
10	선생님	학원	마스크	센터	복지시설

그룹별 주요 주제어 빈도기반 분석 순위표를 살펴보면, 그룹별 동일한 순위에 같은 주제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제어 ‘부모’, ‘학교’, ‘가정’, ‘선생님’은 그룹에 따라 순위 차이는 있으나 모든 참여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주제어들이

공통으로 많이 언급되었으므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어임을 알 수 있다.

〈표 4-19〉 그룹별 아이젠벡터 중심성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표

순위 \ 대상	아동	부모	교사	관계자	행정가
1	학교	학교	수업	아동	아동
2	친구	학년	원격	복지시설	인권
3	학년	아이	온라인클래스	지역	보호
4	수업	수업	아이	센터	학생
5	온라인클래스	친구	학교	양육	가정
6	시간	선생님	부모	부모	교육
7	선생님	확진	시간	보호	지역
8	마스크	가정	선생님	장애	권리
9	중학교	부모	등교	가정	복지시설
10	부모	급식	춤	치료	소외

그룹별 빈도기반 분석과 아이젠벡터 중심성 분석 결과의 주제어 순위에는 차이가 있다. 주요 주제어 빈도 기반 분석은 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많이 이야기했느냐를 살펴볼 수 있고 아이젠벡터 중심성 순위는 그 경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룹 참여자에 따라 어떤 주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는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그룹별 네트워크 분석 주요 노드(단어) 비교 분석

각 주요 그룹(아동, 부모, 교사, 관계자, 행정가)별 키워드 분석 및 아이젠벡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많이 언급되거나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주요 주제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요 주제어에 대한 그룹별 참여자들의 FGI 원문을 제시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제시하였다.

① 아동 vs 부모 vs 교사 (주제어: 시간/ 학년/ 마스크/ 온라인클래스)

시간	
아동	“학교를 다니면 사실 평일에는 그냥 거의 학교에만 매진해야 되고, 주말에 노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평일에도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원래 코로나 이전에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축구나 농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서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시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많아진 것 같아요.”
부모	“코로나가 계속 심해졌었기 때문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실외활동은 많이 못했어요. 제가 집에 없으면 또 혼자는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놀거나 여행으로 놀러 다니는 경우, 또 외식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고요. 가족의 영향은 주말에 같이 있는 시간이랑, TV 보는 시간은 많이 늘었고요.” “온라인 수업은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고 이것을 누군가가 있으면 지도를 해주거나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줄 기회가 되면 좋은데 사실 뭐 조손가정이라든지 또는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들 봐주고 싶지만, 그 시간 때 그걸 해 줄 수 없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사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학생들 관리하는 시간까지 추가가 되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업무 피로도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인거죠.” “두 시간마다, 우리가 방학 때는 방과 후 수업을 2시간~4시간 하게 되는 데 2시간마다 발열 체크를 시키고 환기를 2번 시키고 또 음식물 반입 금지 시키고 손 세정제, 거리 유지, 마스크 항상 착용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상담할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다가 넘어가고 문제가 나오다가 넘어가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친구들과 사귀는 관계라든가, 대인관계 보면서 훈련받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졌다. 이런 거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의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 등교 형식의 변화로 아동이 학교에서 보내던 시간은 줄어들거나 제한되었다. 이에 아동 일상과 여가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다. 보호자 역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역할이 더 커졌다. 교사는 새로운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부모와 교사는 방역이라는 역할도 맡았다. 이렇듯 ‘시간’이라는 주제어 안에는 아동, 부모, 교사의 일상 변화뿐 아니라 그들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도 포함되어 있다.

학년	
아동	“저희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는 EBS 온라인클래스를 활용했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는 2학년 때 다 바뀌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올 때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은 완전 다 초면이었는데 가뜰이나 개학도 미뤄졌잖아요.” “5학년이 제일 아쉬웠어요. 그나마 그래도 6학년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조치들 같은 게 있으니깐 이제 친구도 몇 명 사귀긴 했는데…”
부모	“일학년 들어가면 학교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아이가 거의 학교 못 갔어요. 그래서 아마 1학년은 그냥 유치원 정도로 똑같이 지낸 게 아닐까 싶었어요.” “가족관계 변화에서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가 어느 정도 억압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 약간 사춘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작은애처럼 하는 게 안 통하더라고요.” “1학년 때 쓰기 한글 이런 거 안 된 친구들 되게 많았던 거 같고, 저희 아이는 다행히 그 전에 해놔 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지나오긴 했는데…. 큰아이는 제가 봐주는 데 한계가 있으니깐, 부모가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교사	“지난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학교가 지난해하고 봤을 때 지난해 코로나 초기에 안 드러났던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중학생 전 학년 사이에 흡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는 격주제로 등교를 하게 되면 또래 집단 형성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학년 상관없이 격주제로 하면 친구 사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학년 담임을 할 때는 크게 이렇게 아이들이 달라진 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올해 또다시 5학년 담임을 했더니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작년 4학년을 거의 허투루 보내고 올라왔구나.”
의의	‘학년’에 따라 아동이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달랐다. 또한 대응 정책이 ‘학년’마다 변화되기도 하였다. 부모 역시 자녀의 ‘학년’이 학습 공백에 미친 영향을 관찰할 수 있었고 자녀의 ‘학년’에 따라 말아야 하는 부모 역할이 달랐다. 교사는 ‘학년’에 따른 학생들의 차이점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마스크	
아동	“소심하거나 조금 말 걸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친구를 사귄 기회조차 없고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과 조금 더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서 조금 더 친구 사귀는 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배우러 학원 같은데도 다녔었는데 마스크 쓰고 운동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고 그만두게 되니까 또 귀찮아서 다른 운동을 안 하게 되가지고 건강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면 원래 저의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몰랐던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제가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제 모습을 조금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기도 하고...”
부모	“저희는 항상 한 2~30분씩, 아이들 엄마들도 마스크 낀 상태에서 그래도 너무 아이들이 안 됐다 아이들 좀 즐겁게 놀게 해주자. 그런데 야외에서 한 2~30분 정도라도 놀다가도 큰 아이가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딜 나가더라도 항상 소독제나 마스크는 필수로 항상 잘 챙겨 나가고요. 처음에는 막 마스크도 못 내리고 아이들끼리 말 못 하게 하고 밥 먹을 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상황에 라면, 쌀, 마스크, 손소독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물량이 처음에 그 때에도 마스크가 비쌀 때 주셨거든요.”
교사	“올해 1학기 때도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한 반에 20명 정도인데 체육을 하는데 밖에서 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하라고 하면 하다가 전부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여럿이 있다 보면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 를 착용하다 보니 신경이 날카워지고, 쉽게 짜증을 내고, 다른 친구와 접촉하면 그 접촉에서 요새 제재가 들어 가다 보니 쉽게 민감한 반응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의 얼굴을 마스크를 쓴 채로 보고 하다 보니까 표정을 읽는 그것도 힘들어 하고 그리고 같이 스킨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소극적인 아이들이 지금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의	주제어 ‘마스크’와 관련하여 아동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함과 번거로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부모와 교사에게 ‘마스크’는 챙겨야 하고 마스크 착용을 관리해야 역할에 대한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선생님	
아동	“저는 노트북이랑 카메라가 있어서 저는 괜찮지만 저희 학교만 가면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ZOOM 접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기기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은 무조건적으로 화면을 켜라 하셔서 그 과정에서 화면을 못 켜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을 좀 존중해주지 못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역 담당 선생님들께서 상시 복도에 계셔서 방역 수칙을 신경 써주셔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등교 시간이랑 점심 먹기 전에 정기적으로 매일 체온측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좋았고...” “ 학교에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도움을 달라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학교 상담실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받았어요.”
부모	“이제 선생님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눈으로 보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상태에서 케어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다 비대면은 아니었지만 중간 중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선생님이 되게 꼼꼼하신 분이라 숙제를 내가지고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 체크하셔서 안 한 부분은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이렇게 되게 꼼꼼하시더라고요.” “다른 학습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또래 관계나 이런 선생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던 게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인 것 같고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EBS 보면 똑같은 선생님만 전국 1학년들이 공유를 했어요.”
교사	“학생들이 신체 권익도 떨어지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훈계까지 계속적으로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도 짜증을 많이 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교과 선생님들께서 수업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학생들 실시간 채팅이나 SNS, 유선 등으로 학생들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관리가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학생들 관리하는 시간까지 추가가 되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업무 피로도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인 거죠.”
의의	코로나19로 교사는 방역에 대한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수업 방식에 적응을 해야 했다. 교사는 이런 새로운 역할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다. 아동에게도 교사와의 비대면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에게 선생님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부모는 자녀의 수업 장면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고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인해 교사와 아동 관계가 변화된 것도 경험하였다.

② 부모 vs 관계자 vs 행정가(복지시설)

복지시설	
부모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소득이 좀 줄어들었어 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복지관에 서도 이제 식자재 같은 거를 배달해 주시고 하셔서 초기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없고 힘들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나서가지고 이런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내 주셔서 신청도 해주셨고 제가 받게 도와주셨고 생활이 거기 복지시설이 있으면서 금전적인 도움도 거기서 받았고요.”
관계자	“복지시설 대부분은 비슷하겠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또는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에서 특수하게 치료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해 왔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24시간 생활을 하면서 이제 더욱이 공동생활가정으로 정원이 7명인데 이 협소한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공간 내에서 아이들이 코로나 19를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가	“부모님들이 여유가 없어서 아이들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가정, 특히 이제 주 소득자가 직업을 잃고서 집 안에 계시는 경우에 나타나는 많은 불화가 생겨서 저희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건수가 아주 몇 배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치료 시설이나 아동 보호 치료 시설은 또 이런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 일반 아동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는 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의의	부모에게 ‘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을 도와주는 경험과 연관되어 있었다. 관계자와 행정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시설’이 받은 제한과 어려움을 경험했다. 관계자와 행정가는 현장에서 밀접하게 ‘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FGI 자료의 내용분석

코로나19 발생부터 지금까지 아동 관련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인권의 주체는 아동이므로 권리침해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 인권과 관련된 아동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동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통해 아동 인권의 현주소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 보장 및 침해란 그 특성 상한 개인의 문제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을 둘러싼 전체 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인의 발달과정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1979, 1992)이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아동인권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기본 개념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목소리와 함께 미시, 중간, 거시 체계에 속하는 양육모, 유아교육기관 및 학교 교사, 지역시설 기관장, 행정가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그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1) 아동의 목소리 듣기

아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5명씩 총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하였다. 코로나19 관련 경험에 대한 아동의 목소리에 대한 범주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학교를 가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친한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새로운 친구들과는 사귀기 힘들었어요.’, ‘선생님과 엄마에게 혼이 났어요.’, ‘가족과는 친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집에 있으니 살짝 귀찮고 너무 대충하게 돼요.’,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피폐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뉴스에 나오는 말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마스크 지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었던 급식 바우처가 좋았어요.’, ‘관리강화 vs 교육 강화 vs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의 총 10개로 도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주 1: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연구 참여 아동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한 영역이 바로 교육영역이었다. 등교와 수업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던 일상이었으므로 아동에게 있어서 등교의 비일관성과 수업 형태의 전환은 삶의 규칙성을 깨는 매우 낮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급진적인 변화이다 보니 사회 시스템 안에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특히 아동에게 큰 혼동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상이 비일상으로 전환되고 당연한 것으로 누려왔던 권리가 박탈되는

경험을 통해 연구 참여 아동들은 다음과 <표 4-20>과 같은 불안과 혼란을 호소하였다.

<표 4-20>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개 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매일 학교를 가지 못해서 과제도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이므로 더 놀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되어 학습에 집중이 안 됐어요	공교육의 중요성
		-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쉬면서도 불안했어요 -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하게 되어 성적이 올랐어요	
	EBS 강의를 짜깁기해서 올려주어서 교과서와 다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EBS 강의 활용해서 기초 부분이 많이 어려웠어요	EBS 강의 활용의 어려움
- 음악 수업 시 소리가 겹쳐서 제대로 지도를 받을 수 없고 어려웠어요 -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 체육을 해서 힘들었어요		특수 전문교과목은 실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습의 불균형
	가림막과 마스크로 친구들 소리가 안 들리고 발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 무단결석, 무단 지각이 많아졌어요 - 시험 전에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없었어요	

개 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 실시간 수업, 원격수업들이 엄격해져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
•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만나서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토의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 힘들었고 수업 내용을 찾기도 어렵고 집중도 잘 안 됐어요	• 실시간 강의 때보다 국·영·수 과목은 인강으로 많이 올려주어서 시험 전에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 아이들이 비밀채팅으로 뒷담을 하는데 교사는 이를 알지 못하었어요			
• 영상 보여줄 때 계속 끊기고, 정확히 보이지 않고, 교사가 렉이 걸려 나가는 상황도 종종 발생했어요	• 전자기기가 필요하고 로그아웃이 되거나 접속이 계속 끊기는 등 장애가 발생해서 힘들었어요		
• 줌 수업 때 핸드폰,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다른 거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 성적이 낮아졌어요 • 혼자 있을 때 잠이 들어서 출석 체크를 못했어요	• 온라인 수업 때 강의 틀고 친구들과 SNS 하거나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 성적이 떨어졌어요	
		• 학원 다니는 친구와 안 다니는 친구 간에 학업 격차가 커졌어요	학습의 격차가 커짐
	• 진로 탐색이 무산되어 일률적인 진로 교육받았어요 • 관심 분야에 대해 집에서 더 많이 찾아보고 알고 싶은 것만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 특강도 많이 취소되어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적어졌어요 • 관심 분야에 대해 집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진로 탐색에 미친 영향

이러한 학습에 대한 인식에는 학년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매일 학교를 가지 못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 초등학교 아동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공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1-2. 학습에 집중이 안 되고 불안했어요. vs 성적이 올랐어요.

- 고등학생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상황이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율성이 발달한 고등학생의 경우 오히려 시간을 잘 활용하여 성적이 오르기도 하였다.

1-3. EBS 짜깁기 강의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 코로나19 초기에 등교가 금지된 상황에서 많은 학교에서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EBS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였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1-4. 실습이 필요한 교과목은 제대로 지도를 받을 수 없었어요.

- 음악, 체육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실습 위주의 전문교과목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학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시 모든 연령의 아동들에게 불리한 경험이 되었다.

1-5. 실시간 수업이 어려웠어요.

-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때도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그 내용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가림막과 마스크 때문에 발표 등의 수업 참여가 어려웠다고 보고한 반면, 고등학생들은 등교할 때 무단결석, 무단지각이 많아졌고, 수업 내용이 녹화되어 다시 제공되지 않다 보니 시험 전에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1-6. 온라인 수업 때 판짓을 하다 보니 성적이 떨어졌어요.

-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줌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때, 많은 아동들은 화면은 쳐놓고 자기 얼굴은 보이게 해놓고 화면 밑으로 핸드폰, SNS, 게임 등을 하는 등 판짓을 했다는 것을 학교급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성적이 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1-7. 진로 탐색 수업이 무산되었어요.

- 진로 탐색에 대한 문제는 중·고등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어려움이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단점이 공존하였다. 학교에서 진로 탐색 관련 수업 및 특강이 무산되어 의미 있는 진로 탐색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스스로 자신에 관심사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장점이 보고되었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수업 형태에 있어서는 학교급에 따라 현저하게 다른 반응이 보고되었다. 전체적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해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적응도가 낮았고, 고등학생들은 높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어려웠어요. vs 도움이 되었어요.

- 온라인 수업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집중하기 어려웠고 질의응답 및 토론이 어려웠으며 비밀채팅으로 뒷담화하는 것까지 교사가 알지 못했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면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 감독이 엄격해져서 집중도가 높아졌고 녹화된 영상을 재생해서 볼 수도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여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학원 다니는 아이와 아닌 아이 간에 차이가 많이 생겼어요.

-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만 사교육으로 인한 학업 격차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학 진학에 근접해 있다 보니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다른 때보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과 이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파악된다.

② 범주 2: 학교를 가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연구에 참여한 초, 중, 고등학교 아동 모두 등교를 하지 않아 더 편안하다고 하였다. 등교 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등교하는 주에는 학교 가기 싫어서 절망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였다. 이런 아동들의 호소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표 4-21>과 같다.

〈표 4-21〉 학교를 가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개 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 등교 전에 자가진단을 하고,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야 해요			등교 전 방역 점검을 해야 했음
• 등교 날이 학년마다 달라졌어요 • 학교의 많은 행사가 취소됐어요 • 작년에는 쉬는 시간이 5분으로 줄었어요 • 급식도 칸막이 설치, 거리 두기, 젓가락 책상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규칙이 생기고 이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방역 중심의 교내 생활을 함
•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야 해서 힘들었어요	• 학교나 학원 다닐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힘들었어요	• 체육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많이 불편했어요	마스크 착용이 힘들었음
• 학교가 멀어서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았어요	• 온라인클래스를 하다가 학교를 가니 일어나기 힘들고 적응이 안 되고 귀찮았어요	• 학교를 가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 등교 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학교 수업을 할 때 적응이 안 되고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졌어요. • 등교하는 주에는 학교 가기 싫어서 절망에 빠졌어요	등교가 힘들어짐
• 등교일에 따라 급식메뉴가 달라서 이에 대한 불만이 생겼어요		• 학교 급식을 못 먹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지 몰랐어요	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함
• 학교의 방역 규칙을 잘 지키다 보니 적응되어서 지금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최근 상황

2-1. 등교 날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새롭게 많이 생겼어요

- 등교를 하는 날 아침에는 등교 전에 자가진단으로 하고, 등교 후에는 열 체크, 교실 입실 전에는 손 소독을 하는 등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많았다. 또한, 학교생활에서는 방역 중심의 ‘하지 말아라.’라는 새로운 규칙이 많아지고 이를 감독하는 사람들까지 새롭게 생기면서 자율성과 발달의 공간이었던 학교는 통제와 규제의 공간으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작년에는 쉬는 시간이 5분으로 줄고 학교의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어요

- 방역 수칙으로 인해 학교의 지침이 인권존중이 아닌 방역 중심의 생활지대로 전환되다 보니 각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없애거나 5분으로 최소화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외부 인력이 학교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외부 활동도 어렵다 보니 그동안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해왔던 많은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이 되었다.

2-3.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야 해서 힘들었어요

- 등교 시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가장 많이 호소했던 어려움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불편감이었다. 이로 인해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거나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체육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많이 불편했다는 호소가 많았다.

2-4. 등교가 힘들고 귀찮아요

- 연구 참여 아동들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의 규칙이 무너지면서 등교를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움직이는 것, 운동을 하는 것 등이 점점 귀찮아졌다는 호소를 많이 하였다. 특히, 등교의 날이 학년마다 달라지고, 등교하지 않는 날은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되는 등 그동안 최소한 지켜왔던 일상의 규칙성이 깨진 것은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무력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5. 학교 급식을 못 먹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지 몰랐어요.

- 등교가 금지되거나 불규칙해지면서 아동들이 학업과 더불어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식생활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연구 참여 아동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학교를 등교할 때조차도 자신이 누려야 하는 권리는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만 증폭된 학교생활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아동들의 일상 중 반드시 지켜야 했던 최소한의 규칙인 등교의 일관성이 깨졌고,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들고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지침이 매뉴얼화되어 있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이는 아동에게 상황에 대한 통제 소재를 외부로 귀인하게 만들어 내적통제력을 저하시켜 심리적 안전감을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아동 내면에는 전반적으로 무력감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것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③ 범주 3: 친한 친구들과는 더 친해지고 새로운 친구들과는 사귀기 힘들었어요

코로나19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동에게는 전반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참여 아동들이 친구 관계를 맺는 중요한 통로는 SNS였는데, 각 학교급 간에 SNS에 대한 활용 정도와 부작용에 대한 호소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표 4-22>와 같다.

<표 4-22> 친한 친구들과는 더 친해지고 새로운 친구들과는 사귀기 힘들었어요

개 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 짝 없어졌어요	• 친구들과 같이 만나지도, 먹지도 못했어요 • 마스크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져서 친구 사귀는 것이 더 어려워졌어요	• 불규칙한 등교로 친구들과 친해지기가 어려웠고 반 아이들끼리 어색했어요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워짐
• 새로운 친구 많이 못 사귀고 옛 친구들 더 친해졌어요	• 새로운 친구들은 사귀기 어려워지고 원래 친했던 친구들과만 카톡, 메시지, SNS 연락을 했어요	• 원래 친했던 친구가 아니고는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친구관계 진입장벽이 높아짐
	• 올해에는 친구들끼리 약속도 잘 안 잡고 막상 나가려면 너무 귀찮았어요		관계가 피상적으로 맺어짐

개 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 사교성이 있는 아이들은 잘 지냈어요	• 소심한 아이들은 친구 사귄 기회가 아예 없었어요	• SNS를 활발히 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소통을 많이 했어요	내적자원에 따라 관계 맺기가 달라짐
• 밖에서 놀지 못하고 SNS, 게임을 같이 했어요	• 밖에서 못 놀고 게임을 많이 했어요	• 아이들도 다 같은 상황이었고, SNS로 이미 친구를 사귀어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 화상채팅 어플을 통해 모니터로 얼굴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더 편했어요 • 온라인 통화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게임도 했어요	게임, SNS가 친구 관계의 통로가 됨
• SNS로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 SNS로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 SNS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따돌림을 당했어요 •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다 보니 친구들을 직접 만났을 때 정작 놀지를 못했어요	• SNS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졌어요	SNS를 통한 관계 맺기의 문제점
		• 줌 수업 시 무단결석이 되지 않도록 아침에 미리 모닝콜을 해주고 책을 교환해서 같이 필기하는 등 도움을 줬어요 • 공부, 게임 등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여전히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임
	• 만나도 놀 곳이 없어서 빨리 헤어졌어요	• 요즘은 그냥 마스크 쓰고 친구들과 카페, pc방, 노래방에도 다녔어요	최근 상황

3-1. 짝이 없어졌어요

- 초등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짝”이 없어졌고, 중학생들의 경우 거리두기 방역 정책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급식 시간에도 함께 식사하지 못하게 하여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이에 더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 불규칙한 등교로 인해 반 아이들끼리도 어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3-2. 원래 친했던 친구가 아니고는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옛친구들, 원래 친했던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존에 친구 관계가 형성된 친구들만 카톡, 메시지, SNS를 통해 교류하면서 관계를 유지했다.

3-3. 소심한 아이들은 친구를 사귄 기회조차 없었어요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교성이 있는 초등학생들은 친구들과 만나고, 운동,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을 같이하였고, 중학생 이상이 되면 무리를 형성하여 또래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 아동들은 소심한 아이들은 친구를 사귄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을 걱정하였다.

3-4. 막상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면 너무 귀찮아요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또래들과 못 만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2021년에는 친구들과 약속도 잘 안 잡게 되고 막상 나가려고 하면 너무 귀찮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막상 “만나도 놀 곳이 없어서 빨리 헤어지는” 등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구 참여 아동들은 또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맺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3-5. SNS를 활발히 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소통을 많이 했어요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SNS 및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연령의 아이들보다 SNS를 통한 교류가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이미 친구를 사귀어서 또래 관계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였고, 대면 관계보다 SNS를 더 편안한 의사소통의 통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3-6. SNS로 이야기할 때 오해가 많이 생겼요

- SNS를 통한 의사소통에는 부작용도 보고되었는데, 이 역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SNS를 통한 상호작용 시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오해가 많이 생겼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SNS 사용이 일상화되어 오히려 SNS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SNS 활용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중간 단계로 파악되었다. 중학생은 SNS를 통한 의사소통 시 오해도 생겼으나 SNS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보고하였고, SNS로 의사소통을 하다가 막상 대면으로 만나면 어색하여 잘 놀지 못하였다고도 하였다.

3-7. 공부할 때와 게임을 할 때 도움을 받았어요

-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또래 관계는 학업 및 여가시간 모두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수업 출결 사항은 대학 진학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또래 관계를 통해 서로 모닝콜을 해주고 필기를 돕는 등 학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④ 범주 4: 선생님과 엄마에게 혼이 났어요

연구 참여 아동들은 방역지침으로 인해 학교에서 교사와 갈등이 많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와의 갈등 역시 증가하였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연구 참여 아동들은 자기 삶에서 의미 있는 성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이 증가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역시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등생에게서 교사 및 모와의 갈등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중학생은 중간 정도 수준에서 갈등에 대한 호소가 있었던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불편감이 호소되지 않았다. 이는 <표 4-23>과 같다.

〈표 4-23〉 선생님과 엄마에게 혼이 났어요

개 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선생님께 혼이 났어요			방역 수칙으로 갈등 증가
숨쉬기 어려워서 턱스크 쓰고 있는 아이들과 교사와 다툼이 많이 일어났어요			마스크로 인해 갈등 증가
쭈 수업이나 학교에 와서 조는 것 때문에 혼이 났어요	기기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쭈 접속이 어려운 친구들을 존중하지 못한 교사와 갈등이 있었어요		학교 수업 관련 갈등 증가
모와 숙제, 학습, 사소한 다툼 등으로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집에서 수업할 때 너무 참견을 많이 해서 짜증이 났어요		모와의 관계
모가 많이 힘들어서 쉽게 화를 났어요			

4-1. 선생님에게 혼이 났어요.

- 등교 시 교사와의 마찰이 증가한 것은 연구 참여 아동들에게 빠지지 않는 호소내용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는 방역 수칙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교사들은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많은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생의 경우에는 중·고생보다 교사와의 마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와 더불어, 쭈 수업과 관련된 갈등도 많았는데 수업에서 조는 것 때문에 혼이 나기도 했고, 여러 이유로 쭈 접속이 어려웠던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개별적인 존중이 없었던 것도 중요한 갈등의 요소로 부각되었다. 특히 중학생이 되면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는 교사들의 태도를 민감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4-2. 엄마가 쉽게 화를 내고, 엄마와 사소한 것으로 다투게 되었어요.

- 모와의 갈등에 대한 인식에서도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등생의 경우 모가 집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숙제, 학습, 사소한 다툼 등으로 모와 다툼이 많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모가 너무 참견을 많이 하여 짜증이 났다고 보고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불편감이 보고되지 않았다. 즉, 아직 모와 정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등생의 경우 일상생활에 대한 모의 지도·감독이 많다 보니 모와 사소한 갈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독립을 시도하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모의 지도·감독을 참견으로 받아들여 이를 견디기 힘들어했다.

⑤ 범주 5: 가족과는 친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것이 장기화되다보니 가족들 간의 역동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학교급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표 4-24>와 같다.

<표 4-24> 가족과는 친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개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 언니와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 동생과 더 많이 친해지기는 했으나 그만큼 더 많이 싸우게 됐어요	형제와 친밀감/싸움이 증가함
• 함께 하는 시간이 아주 많아졌어요	• 코로나 전에도 이야기 많이 했으나 지금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편해지고 친밀해졌어요	•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어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대화를 좀 더 할 수는 있었어요 •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 증가하면서 서로에 관한 이야기,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가족 간에 친밀감이 증가함
• 같이 있다 보면 많이 싸우다가도 저절로 화해돼요		• 가족들 모두 노력해서 애 투해지고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개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견해가 달라서 갈등이 있었어요 • 다들 집에만 있으니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면서 많이 싸웠어요		가족 간에 갈등이 증가함
	• 휴일이나 주말에 놀러 가고 핸드폰만 해서 오히려 가족들과 대화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오히려 대화가 감소함

5-1. 가족과는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친해졌어요.

- 가족들이 가정에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연구 참여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양가감정을 경험하였다. 가족관계 역시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였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싸웠다’, ‘저절로 화해되었다’라는 식의 단순한 보고 보다 ‘더 다양한 이야기’, ‘진로에 관한 이야기’ 등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보고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면서’, ‘애꿔해지고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등과 같이 가족 간에 경험하는 정서 및 역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였다.

5-2. 오히려 대화가 감소되었어요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가족들이 함께해 왔던 여가활동 역시 제한되면서 가족 간에 친밀감이 형성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화도 감소하였다는 보고 역시 귀담아들어야 하는 아동들의 목소리였다.

⑥ 범주 6: 집에 있으니 살짝 귀찮고 너무 대충하게 돼요

〈표 4-25〉 집에 있으니 살짝 귀찮고 너무 대충하게 돼요

개 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집에서 할 일 목표를 세웠으나 하기 어려웠어요.	수면, 식습관, 공부하는 습관이 다 달라졌어요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규칙적인 일과가 많이 풀어져서 낮밤이 바뀌었어요	규칙이 깨짐
학교에 안 가니 매일 카톡, 게임, 유튜브 보느라 새벽 1~3시까지도 안 잤어요	온라인클래스를 하다 보니 늦게 일어나도 되어 밤늦게 까지 게임을 했어요		늦잠을 잠
집에 있으니 살짝 귀찮고 숙제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어요	계속 늘어져 있고 귀찮아서 운동도 잘 안 하게 돼요		귀찮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운동도 하기 귀찮아졌어요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너무 대충했어요		
게을러지고 게임을 할 때를 빼고는 좀 멍해진 것 같아요	안 나가다 보니 앞에 편의점 가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심심해요	집에만 있다 보니 갑갑해요	계속 집에만 있어야 하니 할 것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어요	심심함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 수업 후 게임을 하다 보니 삶이 피폐해졌어요 - 게임을 많이 했지만 계속하니 지겨워지고, 조절하려고 노력했어요	게임을 많이 함
부모가 직장을 가면서 돈을 주고 가서 배달 음식을 계속 먹게 됐어요	급식을 먹으면 골고루 먹는 데 집에서 라면, 배달 음식을 먹게 됐어요	집에 있으면 돈을 많이 쓰게 됐어요	배달 음식을 많이 먹음
여가활동을 안 하니 허전했지만, 지금은 적응이 됐어요	몸보다 장기, 바둑 같은 머리 쓰는 취미생활을 즐겼어요	집에서 취미생활을 많이 했어요	혼자서 하는 취미 활동 증가
혼자 유튜브 등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많아졌어요			

1년 6개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변화를 경험해 온 아동들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한 문장과 단어는 ‘귀찮아요’, ‘심심해요’, ‘게임’, ‘늦게 자요’, ‘배달 음식’이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아동의 삶 속에 일상성이 와해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아동들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유아교육기관 및 학교에 가고, 방과 후 학원 생활을 하는 등 어느 정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 활동이 정지되면서 아동들은 아무 일정 없이 집에만 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이런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아동에게는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유능감’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자기 효능감 형성을 방해하고 무력감으로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 4-25>와 같다.

6-1. 다 달라졌어요

-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동은 한결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이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아동들에게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상의 규칙을 깨는 가장 중요한 생활의 변화였다. 이는 연쇄작용을 하여 늦잠을 자도 된다는 생각에 새벽까지 카톡, 게임, 유튜브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취침 시간이 늦어졌다. 이런 생활은 수면 시간, 기상 시간, 아침 식사, 학습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 참여 아동 중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 목표도 세워보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쉽지 않았고, 중·고등학생 역시 규칙적인 일과가 깨지면서 밤낮이 바뀌는 등 수면, 식습관, 공부하는 습관 등이 모두 달라졌다고 보고하였다.

6-2. 귀찮아요

- 일상의 항상성이 깨지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아동들에게 나타났던 주된 호소는 ‘귀찮아요’였다. 모든 것을 더욱 대충하게 되고 집 앞 편의점에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삶의 활력이 저하되다 보니 적극적인 게임을 할 때 이외에는 ‘게을러지고 멍청해지는 것 같다’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6-3. 심심해요.

- 연구 대상 아동들 모두 외부의 활동이 거의 차단된 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심심하고, 집에서 할 것이 없어서 불편했다고 보고하였다.

6-4.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삶이 피폐해졌어요.

- 연구 대상 아동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여가활동이 바로 게임이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자각이 있어 나름 조절해보려고 시도하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6-5.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 아동이 등교하지 않거나 급식을 먹지 못하고 오게 될 때 맞벌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출근 시 아이들에게 식대로 용돈이나 카드를 주고 가게 된다고 하였다. 학교 급식의 경우 영양소가 고려된 식단이 제공되지만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는 주로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6-6. 혼자서 하는 취미 활동이 늘었어요.

- 연구 대상 아동 중 자발성과 주도성이 발달한 아동은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대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취미 활동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동적인 활동이 어려우니 장기, 바둑과 같은 정적인 놀이를 하기도 하였고,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활동을 찾아서 하기도 하였다.

⑦ 범주 7: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피폐해졌어요

아동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생활의 변화로 인해 신체 및 정신건강이 나빠졌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표 4-26>와 같다.

〈표 4-26〉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피폐해졌어요

개 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 집에 많이 있으니 살이 많이 찼어요. • 핸드폰, 전자기기 등을 많이 봐서 눈이 나빠졌어요. • 키도 더 작아졌어요. • 운동신경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 학교를 안 간다고 생각하니 몸무게도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 운동도 안 하고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서 건강이 나빠졌어요.	• 배달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살이 너무 찼어요.	신체 건강이 나빠짐
• 동생한테 틱이 생겼어요. •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격이 난폭, 불평, 소심, 우울해진 친구들이 생겼어요. • 스트레스를 먹기, 게임하기, 유튜브 보기, 스트레칭 등으로 풀고 있어요.	• 학교를 안 간다고 생각하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어요. • 급식도 없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나서 답답하고 스트레스받은 것을 먹는 거로 풀었어요. • 부모님의 경제 상황 악화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 친구가 한부모가정인데 엄마가 실직을 해서 친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정신건강이 나빠짐

연구 대상 아동들은 신체 건강에서는 모두 운동 부족과 배달 음식 섭취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고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을 공통으로 이야기하였다. 정신건강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틱, 공격성, 우울 등의 정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를 적절히 해결할 통로를 찾지 못해 대부분 먹기, 게임하기, 유튜브 보기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이는 다시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고 또다시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신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친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범주 8: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뉴스에서 나오는 말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연일 마스크와 인터넷 기사 등에서

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많이 송출하고 있다. 방역 기관에서는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핸드폰에서 알림 소리가 들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아동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 이때 발생하는 불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표 4-27> 과 같다.

<표 4-27>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뉴스에서 나오는 말은 어려워 잘 이해가 안 돼요

개 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 뉴스, 인터넷 많이 찾아보고 모와 함께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 학교에서 코로나 영상을 보여주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 궁금할 때는 뉴스,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았어요.	• 뉴스, SNS, 휴대폰 알림 문자를 받았어요.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처
• 학교에서 보여준 코로나 영상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었어요.	• 뉴스에서는 어려운 단어와 말을 많이 사용해서 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 정확한 정보가 아닐 때 혼동이 되었어요.	코로나 관련 정보 이해정도
	• 확진자 동선 공개를 할 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느껴졌어요. • 전 세계의 백신 접종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어요.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 시 아쉬운 점
• 주변에 코로나 안내문이 많고, 확진자 생기면서 심리적으 많이 무서웠어요.	•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까 봐 조금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 일단 나 자신이 확진될까 봐 제일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따돌림, 괴롭힘을 당할까 봐 걱정되었어요.	• 코로나가 점점 확산하다 보니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 만약에 내가 확진되면 주위 사람들도 확진될 확률이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될까 봐 많이 불편했어요.	코로나 관련 불안
• 내가 확진되어서 가족들에게 옮길까 봐 걱정되었어요.	• 같은 학년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나도 걸릴까 봐 걱정되었어요.		

개 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코로나가 끝나면 마스크를 벗게 될 텐데 다른 사람이 저의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돼요.	코로나가 평생 간다. 평생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속상했어요.	코로나 이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
부모님, 친구, 선생님을 통해서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생긴 학교 문제는 선생님과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계속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익숙해지고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은 별로 없어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 방역에 대해 많이 안일해져서 평일에 카페, 식당가 자주 이용했어요.	코로나 관련 대처
학교에서 방역 규칙을 잘 지키다 보니 저절로 적응되어서 지금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 안전 문자를 이용해서 정보 및 동선을 체크했어요. - 주변에 확진자가 없어서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고 마스크를 잘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8-1. 뉴스, 인터넷, 알람 문자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 모든 아동은 코로나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자신들만을 위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받지는 못하였고, 성인 위주의 정보를 뉴스, 인터넷 기사,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영상을 보여준 학교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초등학생들의 경우 코로나 관련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8-2. 어려운 단어와 말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 연구 참여 아동 중 초, 중등 학생들의 경우, 성인 위주의 지식 전달이 이루어진 매체를 통한 정보가 다소 어렵게 다가와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혼동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8-3.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가 표현되지 않았으나, 중·고등학생부터는 코로나19 확진 상황,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원하였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인지적인 노력의 하나로 파악된다.

8-4. 심리적으로 많이 무서웠어요.

- 대부분의 연구 참여 아동들은 자신이 확진되는 것도 두려워하였지만, 자신으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전염될 것을 더욱 염려하고 있었다. 이는 집단주의문화 속에 성장한 아동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아동들은 코로나19로 확진되었을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배척되면서 발생 가능한 따돌림, 괴롭힘 등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불안 역시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관련 불안을 적게 호소하였고 확진에 대한 불안은 호소하지 않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처 인식 및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들은 방역과 관련하여 ‘나태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8-5. 코로나19 이후의 생활에 대해 걱정이 돼요.

-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의 생활에 대한 걱정도 호소하였는데, ‘마스크를 벗은 자기 모습에 대한 수용 정도’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살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를 보고하였다.

8-6. 주변의 도움과 방역 규칙을 잘 지켜 걱정이 줄었어요. vs ‘나는 아니겠지’ 라면서 안심해졌어요

- 연구 참여 아동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등 및 중학생의 경우에는 주변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과의 교류와 학교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통해 불안을 해소해 나갔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소 안일해진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⑨ 범주 9: 마스크 지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었던 급식 바우처가 좋았어요.

연구 참여 아동들이 학교, 지역사회 및 국가에서 지원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 <표 4-28>과 같다.

<표 4-28> 마스크 지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었던 급식 바우처가 좋았어요

개 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 학교에서 방역 수칙 안내장과 마스크, 손소독제, 전용 칫솔 세척기 등 물건을 받았어요. • 지역사회에서 마스크를 주었어요.	• 코로나 확진자는 신상을 보호해주고 병원비를 지원해주었어요. • 처음 마스크 구하기 어려웠을 때 마스크를 지원해 준 것이 좋았어요.	• 마스크가 한창 귀했을 때 노인 분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준 것이 좋았어요. • 학교에서 마스크를 준 것이 좋았어요. • 밀접 접촉자 친구들 같은 경우 보호 관리를 받는데 저녁도 원하는 것을 시켜주어서 계속 있다고 했어요. 대우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역 관련 지원
	•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기계가 없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빌려주었어요.		
• 지역사회에서는 마스크, 지역 상품권,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원해주었어요.	•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없었어요. • 도에서 시민 대상으로 10만원씩 돈을 준 것이 좋았어요. •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했어요.	• 학교에서 준 급식 바우처는 지정 제한이 있었지만,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생활 지원

일반적으로 모든 연구 참여 아동들은 마스크 지원을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코로나 관련자에 대한 보호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취약계층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과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급식 바우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⑩ 범주 10: 관리강화 vs 교육 강화 vs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정책

연구 참여 아동들이 학교, 지역사회 및 국가에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점들은 다음 <표 4-29>와 같다. 이 역시 연령에 따라 강조하는 측면에 차이가 있었다.

<표 4-29> 아동들이 지각한 정책 평가 및 제안

개 념			하위범주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집 앞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해서 좀 아까웠어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 사람들이 서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불법으로 클럽, 사이비 종교 같은 시설에 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법 같은 거를 정해놓았으면 좋겠어요.	확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못 해주니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행동 수칙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명확하게 잘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관리 및 교육이 강화되기를 원함
백신 접종 같은 해결책을 빨리 주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해결책

초등학생은 ‘관리강화’를, 중학생은 ‘교육 강화’를, 고등학생은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춘 제안을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 아동들의 인지발달 및 도덕성 발달 단계와 관계되는 것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2) 양육모의 자신에 대한 목소리 듣기

양육모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의 양육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요보호 가정의 모와 조모, 총 5명과 일반 외벌이 및 맞벌이 가정의 모 각각 5명씩 총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학교나 지역센터 등에서 담당해주었던 돌봄 및 교육에 공백이 생겼고 이는 아동의 1차 보호 체계인 모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모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요보호 가정과 일반 가정 간에 다소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요보호 가정과 일반 가정 간에 나타난 일반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경험에 대한 양육모의 자신에 대한 목소리 범주로는 ‘양육환경에 변화가 생겼어요’, ‘양육에 지쳐서 쉽게 화를 냈어요’, ‘일상생활에서 방임이 발생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의 총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는 다음 <표 4-30>과 같다. 또한 지원 관련 범주로는 ‘마스크, 현금이 가장 도움이 되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도시락 지급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지원에 대한 평가’, ‘정책이 잘못돼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었어요’, ‘가능한 학업 및 식사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의 총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는 다음 <표 4-31>과 같다.

〈표 4-30〉 요보호 가정 및 일반 가정 모의 목소리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요보호 가정	일반 가정(외벌이, 맞벌이)		
제가 가장인데 일 중단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2배로 증가하여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고 여가활동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핸드폰, TV보기 시간이 늘어서 대안으로 보드게임, 만들기, 최신영화 보기 등을 대안으로 마련하였어요	양육환경에 차이 발생함	양육환경에 변화가 생겼어요
초기에는 양육에 전념했으나 장기화되면서 귀찮아졌어요	초기에는 양육을 잘하려고 했으나 장기화되면서 지쳐서 그냥 놔 버리게 되었어요	장기화로 인해 지침	
식사, 학습 등 양육의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만 집중되어 모든 영역에서 다 힘들었어요	교육, 양육을 모두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하므로 너무 벅창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양육이 가중됨	양육에 지쳐서 쉽게 화를 냈어요
- 개입과 통제의 강도가 강해졌어요 - 아이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어요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하려고 매우 강압적으로 훈육했어요	양육의 강도가 강해짐	
아이들끼리 음식을 해 먹다가 다칠까 봐 걱정되었어요	- 맞벌이라서 아이들 식사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 힘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두 끼만 주게 되었어요	식사에 대한 걱정 발생	
돌봐줄 다른 어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혼자 놓고 가야 했어요	-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은 집에서 방치되었어요. - 외출 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아이는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어쩔 수 없는 방임 발생	일상생활에서 방임이 발생했어요
아이와 함께 공부도 하고, 아직 어릴 때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좋았던 점	좋은 점도 있어요

① 범주 1: 소득이 중단되었지만 생활비는 2배가 되었어요

요보호 가정과 일반 가정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이었다. 특히 요보호 가정의 경우, 모 자신이 주 소득원인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하거나 일자리가 줄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되었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두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식사비 등 생활비가 2배로 증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일반 가정에서는 소득 감소에 대한 어려움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② 범주 2: 양육에 지쳐서 쉽게 화를 냈어요

2-1.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지만 장기화되면서 그냥 놔 버리게 되었어요.

- 양육모들이 자신의 생활 변화에 관한 이야기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는 ‘힘들었다’, ‘벅찼다’, ‘지쳤다’, ‘귀찮아졌다’였다. 코로나19로 학교 및 외부 활동이 차단되면서 두 유형의 가정의 모 모두는 처음에는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으나 점차 지쳐가면서 의욕이 상실되었다.

2-2. 모두 다 내가 알아서 해야 했어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모의 의욕 상실의 주된 원인은 모든 것을 다 도맡아 해야 했던 모의 역할 가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 학원이나 지역사회에서 나누었던 돌봄이 모두 차단되면서 모든 책임이 오롯이 모에게 집중된 것은 두 유형의 모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스트레스를 높여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아이들에게 쉽게 화내고 소리를 질렀어요.

- 모에만 집중된 양육은 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이는 모의 신체, 심리 등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두 유형의 가정 모 모두에게는 사소한 일로도 자녀에게 화를 내고 통제하는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요보호 가정의 모에서 개입과 통제를 많이 했다는 보고가 좀 더 많았다.

③ 범주 3: 일상생활에서 방임이 발생했어요

3-1. 식사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 모든 연구 대상 모들은 양육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식사’를 지목하였다. 특히 요보호 가정 및 맞벌이 가정에서는 모의 부재 시 자녀들의 식사 문제가 큰 고민거리였다. 최근 인천에서 아이들끼리 방치된 가정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

생하면서 요보호 가정의 모 중에는 “아이들만 놓고 나갈 때 외부의 시선이 신경이 쓰인다”라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삼시세끼 자녀의 식사를 챙겨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점점 두 끼만 차려준단지,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식사의 양과 질이 저하되었다는 보고를 많이 하였다.

3-2.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혼자 놓고 가야 했어요. vs 외출 시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 하는데 아이가 싫어했어요.

- 요보호 가정과 일반 가정 모두에게서 돌봄 공백은 발생하였으나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요보호 가정의 경우 돌봄 공백은 어쩔 수 없는 방임으로 연결되었다. 외부 지원기관과의 연계가 차단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모가 출근해야만 하는 요보호 가정 및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생활하게 되는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모가 외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동반하여 나가려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④ 범주 4: 좋은 점도 있어요

4-1. 그래도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요보호 가정의 모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연구 대상 모 중에서는 지금이 그동안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장점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⑤ 범주 5: 마스크, 현금이 가장 도움이 되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도시락 지급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요보호 가정뿐 아니라 일반 가정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인적 자원 활용’, ‘기존의 지원 지속’, ‘현금 및 상품권’, ‘물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각 지원내용과 수혜자들의 평가는 다음 <표 4-31>과 같다.

〈표 4-31〉 요보호 가정과 일반 가정에의 지원내용 비교

지원처		요보호 가정 지원내용	요보호 가정지원 평가	일반 가정 지원내용
인적 자원 활용	지역사회	• 모의 부재 시 조모나 이웃의 도움 • 학원 원장의 개인적 지원		• 친정모, 부, 동네 엄마들끼리 교류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도움도 받음
	구청	• 한 부모 대상 양육비 지원 (월 10만 원) • 조부모 양육 시 대리 양육으로 아동 기초생활 수급 수당	• 매우 도움이 되었음.	
기존 지원		• 수급제도	• 방과 후나 병원비 등 도움을 많이 받음	
		• 재난지원금	• 가장 도움이 됨	
현금 및 상품권	동사무소	• 가운 카드	• 저소득층 대상으로 좀 큰 금액으로 1년 동안 사용하게 함	
	지역사회 (학교, 건가, 드림스타트, 미혼모카페, 센터, 시설 등)	• 3만 원짜리 쿠폰 • 온누리 상품권 • 재래시장 상품권 • 지역화폐 • 캐시백 10%	• 유용했음 • 지정된 사이트에 방문해서 과일, 옷 살 수 있게 함	•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이 많아 사용 어려움)
		• 톨볼 쿠폰 • 포인트 쿠폰	• 정해진 곳에서만 사용 가능	• 복지관에서의 톨볼서비스는 사용이 복잡하여 시설 서비스를 활용함

지원처	요보호 가정 지원내용	요보호 가정지원 평가	일반 가정 지원내용
지역사회 (학교, 강가, 드림스타트, 미혼모카페, 센터, 시설 등)	방역	• 마스크, 손소독제	• 마스크가 매우 비쌀 때 지원해주어 • 천 마스크 지원 시 사용 어려움 서 너무 유용했음 • 어린 아동용은 지원이 되지 않았음
	생활	• 식품, 쌀, 라면 • 학교나 센터 급식 지원 • 아동 급식(도시락 지급) • 급식 꾸러미 • 음식물 꾸러미	• 쌀은 원래도 싸게 구매 가능 • 라면을 너무 많이 받았음 • 학교 급식 지원은 외부 시선 때문에 거부하여 말뿐인 정책이 됨 • 똑같은 것을 계속 먹으니 아이들이 질려하고 잘 먹지 않았음. • 급식 꾸러미를 학교에서 지정해서 보내서 아쉬움 • 농수산물 꾸러미는 한 번도 지원받 지 못함
	학습	• 사량이 PC	
	여가	• 보드게임, • 집에서 만들 수 있는 키트	
생활 및 심리지원	심리지원	• 심리상담	• 모가 받아서 도움이 됨 • 아동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음
	가족 돌봄 휴가		• 편하게 사용하기 어려움

⑥ 범주 6: 지원에 대한 평가

요보호 가정과 일반 가정에서 받은 지원에는 종류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평가에는 대부분 공통점이 많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 직장을 잃은 한부모 가정의 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 한부모 가정에서 모가 가장일 때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일거리가 줄어들어 수입 감소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 부모인 엄마들이 직장을 잃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다.

6-2. 현금 및 상품권이 유용하고 도움이 되었고, 마스크는 너무 유용했어요.

- 요보호 가정의 모 대부분은 현금 및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가장 도움이 되고 유용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물품으로는 단연 마스크가 가장 유용했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 모들은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 물량이 원활하지 않은 시기에 각 가정에 마스크가 지원된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동용 마스크는 지원이 되지 않거나 필터를 넣어 사용하는 천 마스크 등은 효용성이 떨어져 불만 사항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수혜자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거나 생존권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이 우선 지원될 때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6-3. 돌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요.

- 요보호 및 일반 가정의 모들은 모두 자신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시간에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살펴줄 수 있는 지원을 원하였다. 일반적으로 돌봄 공백이 있을 때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요보호 가정의 경우 “학원비가 너무 많이 비싸서 보내기 어려웠어요.”라는 호소가 많았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집에 방치될 때 ‘식사 해결’ 및 ‘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한 걱정’이 큰 고민거리로 대두되었다. 이에 연구 대상 모들은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식사 등의 지원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으로 다닐 수 있게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6-4. 좀 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지원 물품으로는 대부분 식품, 쌀, 라면, 도시락 등이 제공되었다. 물론 생필품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도 많았으나 수혜자가 직접 선택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도시락’, ‘급식 꾸러미’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도가 낮았다. 연구 대상 모의 보고 중 “똑같은 도시락을 매일 먹으니 아이들이 질려서 잘 먹지 않았어요.”라는 보고는 일괄 제공되는 지원의 비효율성을 제시하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요보호 가정에서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쌀과 라면의 경우에도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가난하면 쌀과 라면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많이 주셨지만, 쌀은 원래도 싸게 구입이 가능하고, 라면은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배달앱에서 쿠폰을 주기 보다는 시켜 먹을 수 있는 캐시를 주는 것이 좋았겠어요” 라는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각 수혜자의 ‘필요’를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하거나, 수혜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주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6-5. 다양하고 공평한 지원이 필요해요.

- 연구대상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각 가정의 필요를 자세히 살펴서 정책을 펼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 대부분은 국가 지원이 지방에는 잘 적용되지 않고, 지역센터 중심의 지원 역시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보고하였다.

⑦ 범주 7: 정책이 잘못돼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었어요.

요보호 가정의 모들은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받은 지원에 100% 만족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잘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등과 같이 비교적 국가 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힘이 그래도 조금 컸던 것 같아요”라고 지역아동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⑧ 범주 8: 가능한 학업 및 식사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요보호 및 일반 가정의 모들이 공통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은 크게 학업과 식사 지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교육에서 담당해왔던 학업 지도와 식사 지원이 오롯이 양육모의 책임으로 이관되면서 양육모의 양육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증가한 양육모의 양육 부담은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 연구 대상 모 중 몇몇은 '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8-1. 가능하면 학교 수업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학교 환경을 조절해서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교실 수 및 학급 인원수 잘 조절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수업부터 방과 후까지 연결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학교 방역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하면 좋겠어요."라는 요청을 하였다.

8-2. 학습 및 식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돌봄 공백 중 학습 공백과 식사 제공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이에, "학습지나 학습 지도 선생님 지원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 식사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요청하였다.

8-3. 심리상담 및 부모 코칭의 제공이 필요해요.

-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양육자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증가한 것을 보고하면서 "부모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대처 방법, 가정에서의 놀이문화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안전감을 증진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하는 방법에 대한 부모 코칭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발생 후 다른 대안 없이 공교육의 기능만 축소했는데, 이는 가정에서의 양육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 아동의 학습권뿐 아니라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추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공교육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정책적 노력 및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아동 인권의 1차 방어체계인 가정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기도 하다.

(3) 교사 자신에 대한 목소리 듣기

아동의 2차 보호 체계인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을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집단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 변화 및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 교사 5명, 초등교사 5명, 중·고등 교사 5명, 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사 자신의 목소리는 ‘아동인권정책의 적용이 어려웠어요’, ‘교사업무가 가중되었어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어요’, ‘정서 및 가정지원을 했어요’, ‘확진자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어요’의 5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32>와 같다.

<표 4-32> 교사 자신에 대한 목소리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유아교육기관교사	초등교사	중고등교사		
	•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었어요	• 인권개념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아동인권 정책적용의 어려움	아동인권 정책의 적용이 어려웠어요
• 방임증가로 가정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 긴급돌봄 지원 부족으로 교사의 업무가 크게 가중됐어요 • 교사 개입이 많아졌어요	• 등교 시 청소, 방역, 확진자 발생 시 책임지는 것 등 모든 것을 교사가 다 해야 하는 것이 중노동입니다	• 온라인 수업 및 학생 관리 시간까지 추가되어 업무 피로도 증가했어요 • 방역 문제로 학생들과 갈등과 다툼이 증가했어요	교사 업무가 가중됨	교사 업무가 가중되었어요
•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하는 빈도가 증가했어요 • 1:1 정서 케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관계 문제가 생겨도 교사가 해결할 시간이 없어요		개별적 접근의 어려움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유아교육기관교사	초등교사	중고등교사		
- 구청이나 운영위원회 동의하에 함께 놀이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했어요 - 찾아오는 체험학습 형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교내 강사 초빙하여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했어요		외부 네트워크 활용함	
- 교사들이 직접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 부모-아동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해서 가정에 제공했어요	-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에 신청해서 등교하도록 하고 따로 교실에서 수업받았어요 -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습꾸러미를 집으로 보냈어요 - 기초학력 반을 운영했어요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어요
- 방역보다는 놀 권리, 학습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 자발성, 규칙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 최대한 체육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 교육활동에 흥미 활동을 제공했어요 - Zoom 수업 시 소회의실 열어서 대화 창구를 만들었어요	농촌체험 하는 학습이 도움이 되었어요	학습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함	
1:1로 정서적 케어를 했어요 - 매일 전화상담을 하고 학부모 방문 시간을 정해서 방문 허용했어요	- 위클래스 연계하여 상담을 지원했어요 - 학부모와 오픈 채팅 활용하여 학교 급식의 낙인효과 없앴어요 - 요보호 가정 아동에게 현물을 지원했어요		정서적 지원을 함	정서 및 가정지원을 했어요
			가정 및 부모에 대해 지원을 함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유아교육기관교사	초등교사	중고등교사		
	• 확진자 발생 시 대처하는 대응 지침이 있어서 이에 따라 대응했어요 • 확진자나 접촉자는 수업 중 귀가 조치를 하다 보니 비밀보장을 할 수 없었으나 아이들에게 낙인찍히지 않도록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학생들에게 철저히 교육했어요	확진자 대우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	확진자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어요

교사들의 목소리는 학교급에 따라 다소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방역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학습 지도뿐 아니라 방역까지 감당하느라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주 1: 인권개념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은 하였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생존권을 위해 방역지침을 지키게 하는 것과 학습권을 비롯한 아동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쉬는 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었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못 가게하고 수업 시간에 가게 하되 2명 이상은 가지 못하게 하고, 급식도 먹지 못하고 하교할 때도, 가림막이 있어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에 더하여 “식사 후 양치도 못 하게 하고 정수기 물도 잠가 놓아” 물도 자유롭게 마실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실에 갇혀있고, 자꾸 학교 안에만 가둬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죠”라며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인권 개념이 들어가면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현장에서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요. 교사에게 보호 체계가 없으니 지도하기가 어려워요”라고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학생이 인권 존중을 들고 나오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자꾸 지키라고 명은 내려오니 고충이 많았습니다.”라

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교사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아동인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잘못 적용하지 않고 현장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범주 2: 교사 업무가 가중되었어요

2-1.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노동이었어요.

- 교사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가중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모든 학교급의 교사들은 입을 모아 업무가 매우 힘들었다는 호소를 하였다. 모든 학교급의 교사들은 방역, 온라인 수업 및 학생 지도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었으나 교사를 위한 지원 부족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이 방역지침을 따르게 하는 것과 온라인 수업에 참여시키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어 고등학생들의 경우 교사와 갈등과 다툼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2-2. 문제가 생겨도 일대일로 해결할 시간이 없어요.

- 유아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사가 아동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일대일로 다루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었으나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업무가 가중된 상태에서 학생들 간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일대일로 해결할 시간이 없어 현장에서 아동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③ 범주 3: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어요.

3-1. 구청,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거나 강사를 초대했어요.

- 코로나19로 인해 내·외부의 활동이 모두 차단된 상태였으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구청 및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거리두기 지침을 다소 완화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급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3-2.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정으로 자료를 보냈어요.

-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과 학교에서 많은 걱정을 한 것은 바로 학습의 격차였다. 이에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과

제물이나 학습꾸러미를 각 가정에 보내어 가정학습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서는 기초 학력 반을 운영하여 학습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3. 최대한 체육, 취미 활동 관련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 학교급마다 학생들의 내·외부 활동이 금지되어 체육, 음악 등 여러 취미 관련 활동들이 전면 금지되어 아동의 학습권 및 참여권에 많은 침해가 있었다. 이에 많은 교사는 정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많은 학생 수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많은 한계를 경험하였다.

④ 정서적 케어 및 가정지원을 했어요

4-1. 정서적 케어를 하고 상담을 연계했어요.

- 유아교육기관에서는 1:1로 교사들이 세심하게 아동의 정서를 다루려고 노력하였고, 초등학교에서는 위클래스와 연계하여 아동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4-2. 학부모와 전화나 오픈 채팅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했어요.

-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학부모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점심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운영하였으나 이를 이용하면 오히려 낙인효과가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픈 채팅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⑤ 범주 5: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와 낙인을 찍지 않게 하려고 교육했어요.

5-1. 확진 아동 발생 시 대응을 하고 확진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낙인찍히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 유아들의 경우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와 낙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초등 및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사들은 최대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이들에 대해 배려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 급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파악한 아동의 발달 침해 사항은 다음 <표 4-33> 과 같다.

<표 4-33> 아동 발달 및 학업 지연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학교급	내용
영유아기	- 특히 만 1세 아동의 경우 언어발달이 많이 지연됨 -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한 모방이 어려워 언어발달은 계속 지연될 듯함 - 지속해서 원 생활을 했던 아동들과 하지 않았던 아동 간에 신체 및 언어발달에 차이가 발생함 - 등원이 정상화되면서 대소 근육 발달의 격차가 줄어들었음 - 인지, 언어발달 영역은 등원해도 여전히 지연이 두드러짐 - 모와 분리 어려움, 규칙준수의 어려움 등 사회·정서 발달 지연되었으나 정기적으로 등원하면서 많이 좋아짐 - 또래 관계 형성 어려움은 정기적으로 등원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음
초등생	- 초등 1학년의 경우 받아쓰기와 연산 능력에 차이가 많았음 - 학력 저하가 있었으나 등교를 하면서 점차 회복됨 - 원래 있던 사회·정서 문제가 더 심각해짐
중학생	- 학력 저하는 발생함 - 학업 중단이 많이 발생함
고등학생	- 발달에는 큰 문제가 없었음 - 학력 저하는 발생함 - 사회성 문제에 대해 걱정했으나 큰 문제는 없었음

교사들의 인식에 따르면 학습권 침해가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의 연령과 관계가 많았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신체, 언어, 인지 및 사회성 전 영역의 발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으나 다시 정기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등원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아들의 경우 언어 및 인지 영역의 발달 지연은 다른 영역만큼 빨리 복구되지 않는 측면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다. 그 외 초, 중,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력 저하 및 학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 역시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사회성 발달 영역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나, 기존에 사회정서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아동들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교육 현장에서 시행되었던 아동인권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 <표 4-34> 와 같이 제안하였다.

<표 4-34> 교육 현장에서 아동인권 관련 정책 평가 및 제안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 확진자 접촉 및 격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학대 및 방임 신고를 하면 경찰과 구청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 정보화기기 지원 정책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확진 학생에 대한 심리적 지원, 상담을 제공한 정책이 매우 좋았습니다.	도움이 된 정책	
• 방역이 통제라는 개념으로 변환되고 통제라는 개념이 인권침해로 이어졌습니다. • 학생들에게 뭘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방역지침은 계속 내려오니 힘들었습니다. • 공문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이것을 학생에게 다 전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많은 정책이 교사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한 면피성이었습니다. • 학교 내의 학습 도우미는 결국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이 왜 신청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	아동인권 관련 정책 평가
• 교사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스트레스는 상호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자율성 발휘할 수 있는 복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 교사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 교사와 학생들에게 우선 백신 접종을 받게 해야 합니다. • 방역 도우미들이 많이 충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 내 원격수업 도우미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운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발산시켜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책	아동인권 관련 정책 제안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위기 상황에서 지침을 따를 수 있는 매뉴얼 및 아동학대 신고 시 민관의 협업을 통한 대처 등 위기 관련 대응 정책에 도움을 받았고, 학생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 전체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교사들은 방역 중심의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통제 중심의 실천 행동으로 이어지다 보니 결국 인권침

해로 귀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아동인권을 보호하면서 방역 관련 통제를 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였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인권 감수성으로 인해 교사의 통제에 저항하는 정도가 강해지다 보니 현장에서 교사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교사들은 권한은 작지만, 의무와 책임은 많이 요구하는 정책적 요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교사들은 자신과 아동 간에 스트레스로 인해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인력 충원 및 교사들의 자율성 보장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이용시설 종사자의 목소리 듣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안전한 일상이 위기의 일상으로 전환되고 학교나 대부분의 서비스 체계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아동을 둘러싼 보호 체계에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 보호 체계 중 하나인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와 아동인권에 대한 경험을 듣기 위해 이용시설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이들의 목소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 및 대처내용’, ‘정책 제안’의 3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① 범주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 및 대처내용

지역 복지 서비스 체계에 포함된 이용시설의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다음 <표 4-35>와 같다.

〈표 4-35〉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 및 대처내용

개 념	하위범주
- 가정방문을 거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기관이나 학교에서 돌봄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 교육청 지침 계속 수정, 변화되어 현장에서 실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행정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았습니다. - 사업평가가 융통성 없이 이루어져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직면했던 어려움
- 지역 내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 지침을 긴급하게 수정해서 일시 돌봄을 받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관 연계 및 매뉴얼 준수하려고 노력함
- 기관 정책에 따라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했습니다. - 아동학대 발견 시 일단 분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 관할지역 경찰들, 지자체들과 함께 재학대 가정 및 위험도 있는 가정들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학대 관련 사업을 시행함
- 기기 지원을 통해 수업을 지원하는 등 학습권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소수 인원으로 체육활동 진행했습니다. - 어머니 단톡방을 활성화하였습니다. - 카카오 스토리, 카드 뉴스, 공통 채널 등을 통해 아동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고 자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함
개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함
- 부모와 평상시 라포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정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덜했습니다. - 부모 모임을 강화해서 양방향의 의사소통 통로를 열어놓았습니다. - 재단과 연계해서 경제적 후원을 했습니다.	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함
-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2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종사자들을 지원함
위탁가정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정책변화를 지원함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했던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우선, 가정과 학교에서 협조와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행정지침

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평가 등으로 혼동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지역 내의 유관기관들과 연계하고 운영 및 대처 매뉴얼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고, 돌봄 공백 등으로 증가한 아동학대에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 방법의 하나로 시니어 집단과 함께 협업하거나 안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가정방문을 시도하여 가정 상황을 살펴보기도 하였고, 관할지역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기기 지원, 활동 지원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였고, 코로나 관련 정보를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톡 스토리, 카드 뉴스, 공통 채널 등을 개설하였던 것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 시설 종사자들은 수혜자 각각의 요구에 맞추는 ‘개별 맞춤형’으로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문제 목적 후 회의하여 문제 원인 파악하였고, 이에 관한 해결책 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 형태를 취하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시설 사업을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했는데, 평소에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 아동권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보고는 귀담아들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부모의 양육 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우선, 기존의 대집단 부모교육을 방문교육으로 변경하였고, 자조 모임을 강화했으며, 센터 활동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방법을 통해 이용시설 종사자와 학부모 간에 신뢰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 모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보고였다. 이는 아동권리의 1차 보호 체계인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접근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범주 2: 정책 제안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무엇보다 재난 발생 시에 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다음 <표 4-36>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였다.

〈표 4-36〉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정책 제안

개 념	하위범주
•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확대해주세요. • 코로나 정책에 아동 욕구 및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아동 대상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 반영이 필요함
• 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질적인 위기관리 대응 모델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합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매뉴얼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실태파악 및 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기 상황 속에서 유관기관들의 대응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매뉴얼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할 것
•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 교육환경의 격차 완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 양방향 교육을 위한 관련 제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실내에서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놀이 및 휴식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플랫폼, 교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 심리방역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심리지원을 강화할 것
• 취약계층 아동 대상 체계적, 구체적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 정서 및 멘토링 사업이 필요합니다. • 디테일한 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주세요.	취약계층 아동 대상 지원이 필요함
• 업무 시 정체성 및 대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책임만 강조하지 말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주세요.	기관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나 스트레스 관리 지원 체계가 필요함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총 6개의 하위범주로 정책 제안을 하였다. 가장 먼저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된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균형 잡힌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유관 기관들의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 또한 추후 정책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 개인이 해결하고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다. 무엇보다 심화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아동의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파악된다.

또한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정책이 발달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인 영유아와 아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현실을 지적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등과 같이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실에서 이들의 심리적 소진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다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나가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책임만 강조하지 말고 지원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이들의 요청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5) 생활시설 종사자의 목소리 듣기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로부터 분리 조치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리했던 생활시설 종사자들 역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코로나19 이후 현장에 경험한 아동인권 실태에 대한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외 여러 지역의 생활시설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이들의 목소리는 크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면한 어려움’, ‘대처내용’, ‘정책 평가 및 제안’이라는 3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① 범주 1: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면한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호소한 어려움은 다음 <표 4-37>과 같다.

〈표 4-37〉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면한 어려움

개 념	하위범주
• 아이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이에 대해 아동과 종사자들 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출입제한으로 인해 아동과 갈등이 증가함
• 개별로 필요를 묻고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힘들었어요. • 온라인 교육 개발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현저히 저하되었어요. • 기관 내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직원의 업무 과중
• 어린 아동과 장애아동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시 분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분리 조치에 어려움 발생
• 생활시설에서 식사할 때 가림막 설치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입니다. • 아동이 확진되었을 때 분리할 발달상황도 아니고 분리할 공간이 없는데도 무조건 분리 조치하라고 일괄 지침만 준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 아동시설 종사자들이 백신接種의 우선 대상자가 되지 않았어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은 ‘아동의 출입제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등교 등의 공식적인 일정 외에 아동의 외부 출입이 금지된 것은 생활 시설에 생활하는 아동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되었고, 종사자들은 이를 최대한 완화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들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과도한 업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아동을 분리 조치하기에는 공간 및 아동의 발달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종사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이미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식사할 때도 가림막을 설치하라는 등의 일괄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과 종사자들이 백신接種의 우선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 등은 생활시설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이었다는 점을 공통으로 보고하였다.

② 범주 2: 대처내용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다음 〈표 4-38〉과 같이 대처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표 4-38〉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처

개 념	하위범주
• 기관 운동장, 인근 축구장 등 활용하여 운동시켰어요. • 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외부 활동을 했어요. • 아이들에게 1인 1 PC가 제공된 것은 좋은 점이었어요. • 보라매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학습권 및 참여권 보장
• 방역물품을 지원했고 지정병원과의 협력 통해 병원 진료를 받게 했어요.	생존권 보장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연구했어요. • 아이들이 원하는 레시피로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 아이들과 가사일을 분담하여 직원과 아이들 간에 부담을 줄였어요. • 아이들의 다툼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고민하다 보니 폭력 예방 교육이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직원 교육과 회의를 자주 하다 보니 프로그램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어요.	아동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20%를 더 받으라는 국가 정책에 이의제기하고 실질적인 정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정책 조정

생활시설은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어 24시간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다 보니 종사자들은 아동의 학습권, 생존권, 참여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아동들의 외부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아동의 스트레스가 급증하면서 종사자와 아동, 아동들 간의 갈등 심화로 다툼이 증가하였다. 이에 종사자들은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히려 폭력 예방 교육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다. 또한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생활공간 속에서 아동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들을 요리 및 집안일에 참여시킨 것도 종사자와 아동 모두의 이익을 보장한 Win-Win 전략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③ 정책 평가 및 제언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된 정책에 대한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평가 및 제언사항은 다음 〈표 4-39〉와 같다.

〈표 4-39〉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책 평가 및 제언

개 념	하위범주
- 서울시에서 소독 점검을 지자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해 준 것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 여러 가지 많은 지침과 시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준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된 정책
- 인력 보강, 대차 인력 및 방역 도우미 지원이 필요합니다. - 간이 면회실 설치를 지원해주세요. - 매주 실시해야 하는 기관 소독을 지원해주세요. - 방역 관련 기기를 지원해주세요.	인력 및 시설 지원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생활 방역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책적으로 지침만 내려줄 게 아니라, 지침에 따르는 구체안도 제시해주세요.	매뉴얼 재정비 및 개발이 필요함
- 중앙 예산 확보하여 지원해주세요. - 아동시설 종사자와 아동들의 백신 접종을 우선해서 지원해주세요. - 중앙정부에서 아동시설만 코로나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이를 지원해주세요.	예산 및 코로나 접종과 검사비 지원이 필요함
- 부모나 입양 부모의 대면접촉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와 단절이 아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외부와의 최소한의 접촉을 허용할 것

무엇보다 생활시설은 아동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다 보니 종사자들은 방역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와 동시에 종사자들에게는 방역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인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인력 보강뿐 아니라 외부인 출입 시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 지원, 통과식 열 감지기나 비접촉 체온 측정 장치 등의 기기 지원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교사, 이용시설기관과 더불어 생활 시설기관 종사들이 공통으로 요청한 것은 바로 매뉴얼 정비와 개발이었는데, 이는 예측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에 대한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그 외에도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주된 요구에는 종사자와 아동들에게 대한 선제적인 코로나 접종, 검사 비용 지원, 부모나 입양 부모의 대면접촉 허용, 외부와의 최소한의 접촉이 허용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6) 행정가의 목소리 듣기

코로나19 이후 현장에서 경험한 아동인권 실태에 대한 행정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외 여러 지역의 행정가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행정가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국가 위기 속에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목소리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면한 어려움’, ‘대처내용’, ‘정책 제안’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는 다음 <표 4-40>, <표 4-41>, <표 4-42>와 같다.

① 범주 1: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면한 어려움

행정이란 국가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므로 각각의 개별적인 인권을 고려한 새로운 인권 정책을 단기간에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행정가들은 다음 <표 4-40>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표 4-40>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이 직면한 어려움

개 념	하위범주
•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하나의 아주 큰 국가적인 목표로 삼다 보니 아동의 행동 및 활동의 기회가 제한되고 관리와 통제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동안 아동인권에 대해 노력해왔으나 재난 상황에서는 아동인권이 행정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 Top-down 식의 정책으로 인해 아동인권 정책의 고유성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성인 중심의 아동인권 보호 정책으로 진행되어 보호, 관리, 통제가 정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 방역에 최우선을 두었고, 개별 인권보다는 전체 어린이집 대상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생존권 보장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 ‘너희는 따라라’식의 행정으로 정책의 대상인 학생들의 이야기 듣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 아동의 참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 아이들의 쉬고 노는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 온라인 교육 및 기기 지원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 것일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학급 당 많은 인원수가 학습권 침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학년으로 등급 제한을 하다 보니 교실 공간 안에서의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방역 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가 계속 침해당함

개 념	하위범주
현장의 필요성을 정책화하여 사업으로 연결하는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현실 반영 정책실시가 어려웠음
- 무상보육으로 인해 긴급 보육을 24시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게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 보육 서비스의 비대면으로의 대체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24개월 미만 마스크 미착용 권고했으나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민간 청소년 돌봄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진행하여 참여권을 증진했으나 사업 영역이 아니어서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돌봄에 대한 정책이 부족했음

행정가들은 무엇보다 국가적인 목표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동인권 정책을 펴는 것과 큰 충돌을 가져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으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실제 행정지침은 보호, 관리, 통제를 기조로 하여 Top-Down 형태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가들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아동인권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점과 아동인권 정책의 고유성이 매몰되었다는 점에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아동인권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너희는 따라라’ 식의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도 큰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행정가들은 방역 위주의 보호, 통제 지향적인 행정으로 인해 아동의 참여권, 여가 및 놀이권, 학습권이 지속해서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조장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 환경으로 OECD국가와 비교해서 학급 당 학생 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교사들의 보고 중 ‘학급 수 및 인원이 적었던 학교에서는 방역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적절한 학급수 및 인원 배정’은 추후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 판단된다.

학교뿐 아니라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어려움은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0~5세까지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방역과 관련하여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

은 ‘등원 문제로 학부모들과 실랑이가 많아졌고, 방역지침을 설명하느라 업무가 가중되었다’라고 보고한 내용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또한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빠지지 않는 갈등 요인 중 하나였다. 이에 더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마스크로 인해 영유아의 언어발달이 지연되었다는 보고가 많았다. 사실, 24개월 미만의 유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전염성이 낮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현장에서는 24개월 미만의 아동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던 점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범주 2: 대처내용

행정가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다음 <표 4-41>과 같이 보고하였다.

<표 4-41> 행정가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처

개 념	하위범주
-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 지침, OECD, 유니세프 및 다른 나라 정책을 참조했습니다. - 실제로 적용하고 지원이 가능한 정책 및 사업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 활동 콘텐츠를 제공하고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 태블릿 PC, PC를 지급하는 등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했습니다. -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치 시간을 반드시 교육과정 안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 아동 관리 모니터링단 사업에서 안내문을 아이들의 시각에 맞게 각색해서 학교에 공유했습니다.	학습권, 참여권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함
학교 안에서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해서 음원 제작 및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혐오 대응 정책을 펼침
- 심리·사회적 지원을 하였고, 아동 및 가정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족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 부모 대상 심리적 접근을 위해 많은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 작년에 학교 연관 사업으로 정서적 마스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정신건강을 지원함
- 보조 교사나 대체 교사를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지역공동체의 협업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사 지원 및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시도함

행정가들은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지침을 참조하였다. 하지만 행정의 우선순위가 권리의 보장이 아니라 방역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가들은 아

동인권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데 많은 제한점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적용과 지원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찾고자 노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행정가들은 무엇보다 학습권, 참여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 중 현장에 지원한 콘텐츠 제공, PC 제공 등은 교사와 학생들의 목소리에서도 해당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행정가집단이 정책으로 시도하였던 학교에서의 자치 시간 편성이나 아동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아동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한 지원이나 경험 등은 교사와 학생들의 목소리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처럼 행정가들은 '실실했다'고 보고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받은 바 없다'라고 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③ 범주 3: 정책 제안

약 2년 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행정가들이 그동안 실시한 정책내용의 검토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음 <표 4-42> 와 같다.

<표 4-42>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가들의 정책 제안

개 념	하위범주
-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아동인권 교육을 보편적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권리 감수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아동에 대한 접근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서 코로나 관련 차별과 혐오 금지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 아동과 청소년의 필요를 듣고 참여시키는 사회 정책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호시설 아동에 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요보호 대상뿐 아닌 온 국민 대상의 보편적인 복지정책 점검이 필요합니다.	의식개선이 필요함
- 각 가정에 맞는 개별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돌봄휴가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 학부모를 지원하여 가정 연계를 해야 합니다. - 확진 시 가정에 적절한 도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호자 대상 아동의 권리나 인권교육을 의무화해 합니다. -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

개 념	하위범주
• 학급당 인원수를 OECD 국가들 평균 수준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 환경 조정이 필요함
• 정부가 좋은 공동체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역 내 연대를 활성화하고 기관 별로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관별 주요한 역할과 역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간과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조합하여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책 전달체계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및 정책 공급 및 역할 대리자가 필요합니다. •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내에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상시 실태조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재난 상황에서 협의체 내에서 의견 개진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공식화된 기준이나 지침안에서 대응 절차 안내하여 보호받는다느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방 단계, 즉시 개입 단계, 사후 단계 등의 단계별 정책이 필요합니다 • 아동학대 기준 및 양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 대상 소규모 긴급 임시 돌봄을 할 수 있는 중간 장치가 필요합니다. • 정신건강 예방 측면을 다루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3-1. 의식 개선이 필요해요

- 행정가들은 무엇보다 아동인권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재고 및 아동인권교육의 보편화, 코로나 관련 차별과 혐오 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연령별, 대상별로 차별 및 혐오 대응에 관련된 그림책 형태의 교재 발간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앞서 살펴본 교사들의 목소리에서 ‘아동인권 개념 재정리’의 필요성과 현장에서 아동인권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동인권 개념 정립 및 이에 대한 의식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이에 더하여 행정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교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목소리와 중첩되는 제안이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3-2. 가정의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 '가정의 기능 강화'는 아동의 1차 보호 체계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각 가정에 맞는 개별적인 조치, 돌봄 휴가의 법제화, 아동인권 교육의 의무화 및 정신건강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가정에서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싶으나 회사 분위기로 인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모의 보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책 제안이라고 파악된다.

3-3. 아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 행정가들은 현재 한국 초, 중, 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 정도로 이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과 직접 부딪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교 교사의 목소리와 일치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급당 아동 인원이 많아 어떤 방역 조치를 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등교도 학년별로 통제하다 보니 학교 교실 공간에는 변화가 없어 방역 조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점 역시 추후 방역 조치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파악된다.
- 이와 더불어, 행정가들은 학생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생회 학생 자치 역량 키우기 위한 예산 지원 시 이를 직접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3-4. 지역사회 내에 대응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 행정이 각 개인의 구체적인 필요를 고려하여 개별적 지원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행정가들은 지역사회 내에 좋은 공동체를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 내 연대를 활성화하고 주요한 역량과 역할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 기관별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앞서 서비스 수혜자들이 공통으로 지원 서비스의 중복을 이야기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책 제안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안한 대로 이를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행정가들 역시 정책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공급을 대리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기구에 대해 제안하였다.

3-5. 구체적인 행정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 행정이 각 기관에 잘 전달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의 실제 요구가 잘 반영되어야 하므로 행정가들은 상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행정가들은 공식화된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고 안내할 때 수혜자들은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아동학대 및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번 아동인권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서비스 종사자들 뿐 아니라 행정가들 역시 이에 대해 인식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 또한 중요한 제안 중 하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행정가들은 아동인권의 1차 보호 체계인 가정, 2차 보호 체계인 학교, 3차 보호 체계인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책 제안뿐 아니라 거시 체계에 해당하는 사회 인식 제고까지 제안하여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인권을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7) 목소리 모아서 비교 고찰하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 자신, 아동을 둘러싼 1차 보호 체계인 양육 모와 보호자, 2차 보호 체계인 교사, 3차 보호 체계인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그리고 4차 보호 체계인 행정가들의 목소리를 각각 살펴보았다. 앞서 고찰해 보았듯이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은 생존권 중심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 아동의 인권이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웠다. 또한, Top-Down 식의 정책으로 인해 개별

적인 상황이나 인권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얼마나 아동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었고, 이를 아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각 체계의 목소리들을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각 범주에 대한 비교 고찰 표는 <부록 5>에 제시해놓았다.

① 범주 1: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1-1. 공교육의 중요성

- 공교육의 중요성은 아동, 양육모, 교사, 그리고 행정가들이 절감했던 부분이였다. 아동 집단에서는 ‘매일 학교를 가지 못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아동의 목소리는 양육모, 교사 및 행정가집단과 일치하였다. 특히 양육모의 경우 공교육 시스템의 중단 및 불규칙적 운영으로 인해 양육의 양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증가하는 연쇄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 역시 학습권의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고려하였으며, 행정가집단에서도 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임에 동의하였다.

1-2. 집에서의 학습

- 집에서의 학습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발달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간에 보고의 차이가 있었는데, 놀면서도 불안한 양가감정을 느낀 아동과 오히려 시간을 잘 활용하여 성적이 오른 아동도 있었다. 그러나 양육모는 공통으로 ‘공부를 안 해서 뒤처질까 봐’ 걱정을 하였는데, 이 중 외벌이로 양육에 전념할 수 있었던 모의 경우에는 가정에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모 또는 과외교사를 통해 학습 시간을 증가시키면서 선행학습을 주도하였다. 이에, 교사들도 이러한 양육환경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고, 온라인 수업시 양육모의 협조가 없을 때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학습에서의 ‘자율성’이 발달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할 몫을 해낸다는 아동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1-3. 시스템과 수업 관리

- 연구참여자 중 코로나19 상황에 학습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양육모들이 가장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자 학습 공백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 자신의 관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담감이 높게 형성되었다.

1-4. EBS 강의 활용

- 갑자기 확산된 코로나19 초기 시기에는 누구도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학습에 대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학교마다 EBS 강의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학생들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초 부분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양육모는 이를 '학습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느꼈다'로 보고하면서 불안이 기반 된 불만을 토로하였다.

1-5. 학습결손

- 학습결손은 아동들에게는 보고된 바 없으나 양육모, 교사와 지역시설 종사자들에게는 공통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교사 집단에서는 기초학력 저하를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였다.

1-6. 학습격차

- 사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집단뿐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모든 집단에게서 동일하고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었다. 고등학생집단에서는 단순히 학원에 다니는지, 아닌지의 문제로 접근했으나 양육모 집단과 교사 집단에서는 아동의 똑똑함이라는 내적 자원과 부모의 경제력에 집중하였다.

1-7. 학습의 불균형

- 주요 교과목 외에 음악, 체육, 특수 교과목 실습 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습 불균형의 문제는 다른 집단보다 아동 집단에서 가장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이는 중요한 아동의 목소리다. 아동인권 중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정책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1-8. 전반적인 수업 태도

- 전반적인 수업 태도에 대해서는 아동들의 보고는 없었으나 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변화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다’ 보니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학교중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19 이전에도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9. 실시간 수업

- 아동들은 마스크와 가림막으로 인해 발표도 어렵고 친구의 발표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불규칙한 등교로 인해 무단결석이나 지각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시간 수업보다 녹화영상을 재생해서 볼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좀 더 선호하였다. 교사의 경우에는 실시간에도 마스크와 가림막으로 인해 아동들의 표정과 반응을 살필 수 없어 원활한 수업 진행이 어렵거나, 가림막을 보호막 삼아 숨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제재해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1-10. 온라인 수업

- 참여집단 모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른 집단에 비해 아동 집단에서 이 범주에 대해 매우 많은 논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아동 집단 목소리에서 도출된 다른 범주보다 하위범주로 구분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연령차가 있었는데, 초등, 중학생의 경우에는 ‘집중이 잘되지 않는다’, ‘토론하거나 질문하기 어렵다’, ‘비밀 채팅으로 뒷담을 하는 것을 선생님이 알지 못한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고등학생집단에서는 ‘수업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엄격하게 관리하니 집중이 잘 된다.’ 등으로 호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양육모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으나 학습효과 및 효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교사 집단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없고 가정과의 협력이 되지 않았을 때 수업 관리 및 진행이 어려웠던 점을 보고하였다.
- 아동 집단에서는 어릴수록 발표,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을 원하였고, 채팅에

서 오가는 이야기에 더욱 민감했다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후 양방향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교사가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하며 자신이 있어야 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되는데 이번에 진행된 온라인 수업형식은 교사에게 매우 힘든 수업이었고, 가정에서의 지원이 없는 경우 효율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좀 더 편안하고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1-11. 온라인 수업 태도 및 결과

- 이 범주 역시 아동 집단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들은 줌 수업 시 판짓을 하게 되고 이는 성적 저하로 이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양육모의 보고와도 일치하며 생활시설에서 아동들을 지도하는 종사자도 직면했던 어려움이었다.

1-12. 진로 탐색

- 진로 탐색 범주에서는 아동 집단에서만 논의가 있었다. 이는 아동들은 단순히 성적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볼 때, 아동들에게는 성장 동기가 있어 현재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보다 다양한 학습을 하고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에게 학습에서의 자율성이 발달하여 있을 때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학습을 지켜나갈 힘이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양육모는 공교육의 시스템이 멈춘 상태에서 학습의 부담을 오롯이 혼자서 지다 보니 자신의 역할에 압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신이 자녀의 학습 결핍과 지연의 원인 제공자가 될까 봐 걱정하여 더욱 통제적으로 되어 자녀의 자율성을 발달시킬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 역시 온라인 수업 진행의 어려움에 압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 진행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② 범주 2: 학교를 가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2-1. 전반적인 학교생활

-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집단과 행정가집단에서만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있었다. 먼저 교육행정에 대한 국가의 목표 및 방향 설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행정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있으니 너희들은 따라라”식의 Top-Down 형태의 정책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고 생각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이런 정책의 방향으로 보호, 통제, 방역 중심의 교육환경이 조성되다 보니 유아기 초기와 고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다른 연령층의 아동들보다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전반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어려움이 더 많이 보고되었다.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가정 보육의 영향력이 원 생활까지 지속되어 적응 및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호소를 하였다. 이처럼 방역지침과 관련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좀 더 고민이 많았던 것은 현재 어린이집 지원을 무상으로 하는 정책과의 충돌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상 긴급 보육을 24시간 운영할 수밖에 없었지만, 방역지침 내에서 이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사들과 양육모와 이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었고, 교사들은 양육모를 설득하고 방역에 관해 설명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이에 행정가집단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등교 전 방역 점검을 해야 했음

- 아동, 양육모, 교사 모두 등교 전 방역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 번거로움과 지도감독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다”라고까지 고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2-3. 방역 중심의 교내 생활을 함: 불규칙했어요. vs ~을 못하게 했어요. vs 학년으로 등교 제한을 해서 공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 아동 집단에서는 방역지침으로 인해 학교 등교일의 불규칙함, 학교 행사의

취소, 쉬는 시간의 축소 및 새로운 방역지침이 생기는 등의 자신이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편감이 보고되었다면, 그 외 모든 집단에서는 아동의 행동 및 생활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 특히 교사들은 이러한 제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실제 현장에서 목도한 제한의 부당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방역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 지도 시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교사들이 제기한 “학습터는 배경화면 기능이 없는 온라인 학습 방법이었는데 이로 인해 각 아동의 가정형편이 그대로 노출되어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교사들만이 파악한 어려움이었다.
- 이에 반해 행정가들은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학급의 인원수가 많은 데 반해 방역 정책은 학년으로 등교를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교실 공간에는 큰 변화가 없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방역 관련 지도가 어려웠던 점에 주목하였다.

2-4. 마스크 착용이 힘들었어요. vs 3초 땡 !으로 2~3초 만에 벗어버렸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어려움은 학교 현장에 있었던 아동 집단과 교사 집단에서만 보고되었는데 아동 집단에서는 ‘마스크 때문에 힘들었어요’라고 호소했던 반면 교사 집단에서는 아동이 “거부했다.”, “3초 땡 !으로 2~3초 만에 벗어버렸다.”, “마찰이 생겼다” 등으로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것이 잘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호소로 집중되었다.

2-5. 등교가 힘들어졌어요

- 오히려 등교하는 것을 싫어하고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아동 집단, 양육모 집단과 교사 집단에서 공통으로 보고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불편감은 양육모에게서 더 많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양육모가 실제 생활에서 등교와 관련된 지도를 하고 아동들의 호소를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학교 교사 집단 중 초등 저학년 담당 교사는 아동이 학교에 오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

나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

2-6. 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함: 학교 급식을 못 먹는 것이 영향을 많이 주었어 요. vs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 인터뷰 중에서 많은 아동, 양육자들에게 많이 보고된 단어 중 하나는 ‘급식’, ‘식사’였다. 고등학교 집단에서는 학교 급식을 못 먹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지 몰랐다고 했고, 초중등학교 아동들 모두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 간식 및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늘었고, 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했다는 어려움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였다. 물론 양육모 집단에서도 학교 급식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지만, 삼시세끼를 챙겨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 급식처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밥을 먹고 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라고 보고하였다.

2-7. 최근 상황

- 초등학교 아동 집단에서만 최근에 학교 방역을 잘 지키다 보니 적응이 되어 학교생활이 편안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학교생활에서도 아동들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핵심 내용을 다른 집단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각자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아동 집단에서는 대부분 ‘이 상황이 힘들어요.’라고 호소하고 있었지만 다른 집단들에서는 ‘제한하느라 힘들어요’라는 호소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현장에서 학부모와 방역과 관련된 마찰이 많았던 점이 두드러졌다.

학교생활이 방역 중심으로 진행될 때, 아동들은 학교생활이 예측할 수 없고 불규칙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주된 호소내용이었던 것에 반해 교사는 지침에 따라 아동의 기본 생활을 제한해야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행정가집단에서는 근본적인 정책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아동 집단에서는 ‘힘들어요’라는 호소가 많았지만, 교사들은 ‘거부했다’, ‘벗어버렸다’, ‘마찰이 생겼다’는 등으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아동의 행동에 더 주목하고 있었다. 등교가 힘들다는 부분에서는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는 학생 지도에 어

려움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악된다.

급식의 중요성 역시 아동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했다면, 양육모는 양육의 부담이 감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③ 범주 3: 친한 친구들과는 더 친해지고 새로운 친구들과는 사귀기 힘들었어요

또래 관계는 아동뿐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모든 체계에 속한 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예의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집단보다 아동 집단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보고가 많았다.

3-1.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워짐: "어색했고 오히려 요즘에 대면하면서 어려워요" vs "마스크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어려워요" vs "전보다 다툼이 줄었고, 대면 수업 증가하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행정가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이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특히 아동 집단에서는 여기서도 여전히 불규칙성에 대한 어려움과 이로 인한 어색함에 대해 호소하였고, 등교가 정상화된 최근에는 오히려 대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호소를 하였다. 반면 양육모, 교사집단과 지역시설 종사자들은 "∼ 때문에 어려웠다", "코로나 전보다 다툼이 줄었어요", "대면수업이 증가하면서 또래관계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등과 같이 현상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3-2. 갈등증가

- 다툼 등의 갈등 증가는 교사와 생활시설 종사자들에게만 보고되었다. 유아 교육기관 및 초등학교에서는 마스크로 인해 서로의 이야기를 잘 못 듣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중학교에서는 "방역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다 보니 학교폭력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공통으로 아동들이 외출 금지로 인해 스트레스가 급증하여 서로 다투는 일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아동 집단에서는 아동 간의 갈등 및 싸움에 대한 인식은 보고되지 않았다.

3-3. 친구 관계 진입장벽이 높아짐

- 새로운 친구는 잘 못 사귀고 예전 친구들과는 더욱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더욱 친밀해졌다는 보고는 아동 집단과 양육모 집단에서만 논의되었다. 양

육모 집단에서는 어린 아동의 경우 친구 관계가 엄마들의 친분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4. 관계가 피상적으로 맺어짐: "너무 귀찮아요" vs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 또래 관계가 피상적으로 맺어져 의미 있는 관계가 지속해서 맺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 집단에서도 자각이 되기는 하였지만 양육모 집단에서 이에 대한 불안이 더 많이 표현되었다. 아동의 경우, 외부생활의 차단이 지속되면서 생활 속에서 무력감이 일상화된 것 때문에 또래 관계도 '너무 귀찮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의 경우에는 아동이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는 것처럼 성격이 변화되는 것으로 지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 친구와는 관계가 피상적으로 되는 것 같다"는 것처럼 기존 인간관계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의구심 때문으로 파악된다.

3-5. 내적 자원에 따라 관계 맺기가 달라짐: "소심, 사교성, SNS 소통 능력 때문에" vs "마스크 때문에 더욱"

- 소심, 사교성, 활발한 SNS 소통 능력 등 아동에게 형성된 자질과 능력 때문에 관계 맺기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은 아동 집단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다. 양육모 집단에서도 자기 자녀가 내향형이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웠다는 보고가 있었고, 교사 집단에서는 소극적인 아동은 "마스크 때문에" 더욱 힘들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볼 때, 아동 집단에서는 또래 관계를 맺기 힘든 것을 외부 환경이 자신의 내적 자원으로 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적 귀인은 우울과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추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3-6. 여전히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임

- 아무리 또래 관계를 맺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동 집단에서만 또래 집단을 여전히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네트워크로 지각하고 있었다.

3-7. 게임, SNS가 친구 관계의 통로가 됨

- 아동 집단에서만 게임, SNS, 화상채팅 어플, 온라인 통화 등을 친구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되었다는 순기능을 보고하였다.

3-8. SNS를 통한 관계 맺기의 문제점: "따돌림당하지 않기 위해" vs "욕하고 괴롭히는 행동이 증가했어요."

- 이와 더불어 아동 집단에서는 또래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SNS의 역기능 역시 많이 보고하였다. 아동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직접 만났을 때 오히려 놀지 못하고", "SNS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친구와 소통이 어려워져서" SNS로 친구와 소통한다고 보고한 것을 살펴볼 때, 학교 및 외부 활동이 차단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또래 관계를 맺기 위해 어쩔 수 없이 SNS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양육모도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 SNS를 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아동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 그러나, 교사와 지역사회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이를 선택한 아동의 내면의 목소리보다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증가했어요.", "채팅을 통해 욕하고 괴롭히는 행동이 증가했어요." 등과 같이 SNS를 통로로 하는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④ 범주 4: 선생님과 엄마에게 혼이 났어요

코로나19로 인해 관계에서 많이 달라진 점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아동과 모, 교사와 종사자 간에 갈등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4-1. 교사와 방역 수칙으로 갈등 증가

- 아동 집단에서는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선생님에게 혼이 났어요"라는 정도로만 간단히 보고한 반면, 학교 교사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게임 용어나 캐릭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어요.", "학생-교사 마찰로 교권위원회가 자주 개최되었어요.", "학생들이 짜증을 많이 났어요." 등과 같은 갈등에 대한 호소가 많았고 더 나아가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인권 존중을 하면서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원론적인 문제까지 어려움으로 호소하였다. 쉼터 등의 생활시설에서는 교사와 아이들 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했다는 호소도 있었다. 이는 아동 집단보다 지도하는 교사 집단에서 방역 관련 지도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 갈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교사들의 업무 중 특히 방역 관련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인력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4-2. 교사와 마스크로 인해 갈등 증가

- 마스크로 인한 갈등은 아동 집단과 교사 집단에서만 동일하게 보고되었다.

4-3. 학교 수업 관련 갈등 증가

- 아동 집단에서는 온라인 수업이나 실시간 수업 때 학교에 와서 줄거나 접속에 어려움이 생겨서 교사와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고, 교사 역시 “온라인 수업 때 학생들을 깨우는 것이 일”이었고, “수업 시간에 가림막을 보호막 삼아 몰래 핸드폰을 하는 것 등으로 갈등이 매우 심해졌다”라는 보고가 있었다. 즉, 아동과 교사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형태에 적응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4-4. 모와의 관계 : 혼났어요. vs 부모 자녀 문제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다고 해요. vs 방임, 폭언, 학대가 증가했어요.

- 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동 집단보다 양육모 집단과 교사 집단에서 심각함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 아동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은 “엄마가 숙제, 학습에 대한 참견이 너무 많고”, “엄마와 사소한 다툼이 많이 생겼다.” 정도로만 보고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원인을 “엄마가 많이 힘들어서 쉽게 화를 냈어요.”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반면 양육모는 “작은 일로도 혼을 내게 되었고” “하루 종일 잔소리를 했으며” 엄마는 자꾸 뒤통수 맞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점과 더불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부부 문제보다는 부모 자녀 문제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고, 부모 자녀 간 갈등 관련 신고는 2~3배 증가했다고 해요”라며 관련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에는 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이보다 정도가 더 심각하

게 인지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관찰하기에는 모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점점 지쳐가면서 자녀와 함께 있어도 자녀를 심각한 수준으로 방임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훈육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자녀에게 과잉개입, 통제, 폭언, 학대하는 등으로 모의 양육 태도가 변해갔다는 보고가 많았다.

-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 아동들의 경우에는 모에게 혼이 나는 식의 부정적인 훈육을 경험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양육 현장에서는 방임, 학대 수준의 양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5. 부와의 관계

- 아동 집단에서는 부와의 관계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반면 양육모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집단에서는 부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녀에게 잔소리가 늘어났고 엄격한 훈육 태도로 인해 아동에게 부정적인 행동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실제 부가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음에도 아동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동안 바빠서 자녀에 대해 관찰할 기회가 없었던 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를 관찰할 시간이 많아진 것은 부의 부정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와 건강하고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마음속에 부가 건강하게 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⑤ 범주 5: 가족과는 친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5-1. 형제 관계

- 형제 관계에 대해서는 아동 집단에서만 친해지기도 하고 갈등도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5-2. 친밀감 증가

-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은 아동 집단에 매우 고무적인 생

화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족들과 더 다양한 이야기를 했고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 노력해서 애뜻해지고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보고가 많았다. 그러나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보고한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어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즉,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에 가족관계가 건강했던 가정은 큰 문제가 없었고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 요보호 가정의 양육모의 경우에는 형제들끼리 잘 지냄으로 인해 모의 돌봄 공백을 대처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는 것과 일반 가정에서는 심리적으로 끈끈함이 생겼다는 정도의 보고가 있었다.

5-3. 갈등 증가 : “집에만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vs “개인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vs “스마트폰, 인터넷 장기간 사용 문제로”

- 가족 간에 갈등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파악이 아동 집단과 양육모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아동 집단에서는 “견해가 달라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과 “집에만 있다 보니 많이 싸우게 되었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졌기 때문이다”라고 갈등의 원인을 보고하였다. 반면 양육모는 가족 간의 갈등은 “각자 휴식 시간이 없고”, “개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각하였다. 지역시설 종사자들에게서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소리 지르고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아동학대가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인터넷의 장기간 사용 문제를 주된 원인으로 보고하였다.
- 즉, 아동 집단과 양육모 집단들은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고 지역시설 종사자는 다소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 집단이 단지 스트레스라고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모의 화와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여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자녀 간에 좀 더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5-4. 오히려 대화 감소 : “놀러 가지 못해서” vs “갈등 때문에”

- 아동 집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간에 함께 즐겼던 여가활동이 사라

지고 가족들이 핸드폰만 하는 등 밀접한 상호작용이 감소하여 오히려 대화가 감소했다고 파악했고, 양육모와 지역시설 종사자들은 갈등으로 인해 대화가 감소하였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 가정에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종합해보면, 아동 집단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가정의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된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족 간에 대화가 증가하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서로 노력해서 애써해지고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집단에 비해 친밀감 증가에 대한 보고를 많이 하였다. 반면 가족 간의 갈등 증가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 아동 집단은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대략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양육모 집단에서는 “개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모-자녀 간에 오해가 생기고 이는 다시 갈등이 증폭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육모 및 가족 간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화 감소에 대해서도 아동집단은 “놀러 가지 못해서”라고 보고했지만 양육모 집단에서는 “갈등 때문”이라고 보고하는 등 원인에 대한 시각이 달랐다. 우선 아동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양육부모를 대상으로는 가족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⑥ 범주6: 집에 있으니 살짝 귀찮고 너무 대충하게 돼요

6-1. 시설 아동이 직면한 어려움 : “무기력하고 이제는 포기했어요” vs “역차별 받고 있어요”

-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은 “친구들은 이제 외출도 하고 놀러 다닐 수도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고 이제는 포기했어요”라고 답답하고 우울한 심정을 호소하였다. 이에, 지역시설 종사자들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외부 출입이 금지되는 등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고 하였다.

6-2. 규칙이 깨짐

- 아동 집단과 양육모 집단 모두 규칙이 깨지고 낮과 밤이 바뀌는 것 등으로

모든 습관이 바뀌었다고 한목소리로 보고하였다. 지역시설 종사자는 이에 더하여 '여가와 자유시간이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를 하였다.

6-3. 늦잠을 잤

- 특히 아동 집단에서 학교에 가지 않는 것 때문에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등으로 늦게 자게 되고 그 결과 늦잠을 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늦잠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은 아동이 이런 생활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6-4. 귀찮음 : “귀찮다, 늘어져 있고” vs “집이 편해서”

- 아동 집단에서 '귀찮다', '하기 싫다', '늘어져 있고', '대충'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반면, 양육모는 '집이 편해서'라고만 표현하고 있었다. 아동들은 일상생활에서 무력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지만 성인 집단에서는 이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것이 유의할만한 사항이다.

6-5. 심심함

- 아동 집단은 “집에서 할 것이 없어서” “심심”하고 “갑갑”하다는 감정표현이 많았고 양육모 집단에서도 이에 대해 인식하면서 “그냥 집에만 있는 시간”, “지루해함”이라고 표현하였다.

6-6. 게임을 많이 함 : “삶이 피폐해졌어요” vs “소통이라는 숨구멍은 아닐지? 그러나 걱정됨”

- 아동 집단에서는 게임을 많이 하게 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과 더 나아가 자기 삶이 피폐해졌다는 느낌까지 가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를 조절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다. 양육모의 경우에는 게임과 핸드폰 사용 등에 대해 양가감정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소통이라는 숨구멍일 수 있다”라는 마음과 “놀이와 학습의 경계를 알기 어려워졌다”라는 불안함과 더 나아가 자극적인 게임으로 인해 보드게임은 지겨워하게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6-7. 혼자서 하는 취미 활동이 증가함

- 아동 집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여가활동을 찾은 것에 대한

보고가 많았다. 반면 양육모 집단에서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고등학생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라고 안도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스스로 생각하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고 탐색할 수 있게’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6-8. 배달 음식을 많이 먹음

- 아동 집단에서 배달 음식에 대한 보고가 많았다. 급식을 먹으면 골고루 먹게 되지만 집에 있다 보니 라면,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고 특히 맛별이 가정의 경우에는 더욱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 “집에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반면 양육모들은 배달 음식에 대한 보고가 없었는데, 이보다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하루 2끼만 먹게 되었다” 등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6-9. 식사 해결

- 식사 해결은 양육모의 고민 중 하나였는데 “센터에서 저녁을 제공해준다고 하여 센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였고, “등교해서 밥을 먹고 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어려움을 교사들은 잘 인지하고 있어서 “가정마다 점심에 대해 고민을 했다”라고 보고하였다.

6-10. 센터를 선호함

- 양육모는 방역의 문제 및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아동은 “모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센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모와 아동 간에 발생한 동상이몽으로 아동에게는 외부의 교육적 자극 및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6-11. 돌봄 공백

- 아동 집단에서는 돌봄 공백에 대한 실제적인 보고가 없었고 양육모 집단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임에 대해서만 보고하였다. 그러나 교사 집단에서는 돌봄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까지 보고하였다. 특히 학교 온라인 수업에서 돌봄 공백으로 인해 아동을 도와줄 사

람의 부재로 수업 진행이 어려웠던 점은 교사 집단에서 중요한 고민거리가 된 듯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일상생활은 코로나19라는 상황과 이로 인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아동들은 생기를 잃어가고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귀찮다", "하기 싫다", "늘어져 있고", '대충' 등과 같은 무력감과 다소간의 우울감을 보고하고 있었으나 양육모는 이를 "집이 편해서"로 표현하고 있어 아동에게 내재화되고 있는 무력한 정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이나 SNS를 많이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동들은 조절 능력을 잃어가는 것 때문에 "삶이 피폐해져 간다"고 표현을 하였고 나름대로 조절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육모는 소통이라는 숨구멍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자극적인 것에 길드는 것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아동을 둘러싼 그 어떤 성인 집단에서도 아동들의 자기조절에 대한 내적 투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달 음식을 많이 먹은 것은 맛별이 및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고등학생 중에는 "오히려 집에서 돈을 더 많이 썼다"는 표현을 하는 등 자기행동에 대한 검열 및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양육모와 동상이몽이었던 지점은 센터 등 외부 활동이었는데 모는 식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낸다는 마음이었으나 아동은 오히려 학습 및 교류의 기회를 얻게 되어 더 좋아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즉, 아동을 둘러싼 여러 체계는 아동에게 나타나는 행동만 보지 말고 내면에 형성된 무력한 정서 및 조절에 대한 욕구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⑦ 범주 7: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피폐해졌어요

7-1. 신체 건강이 나빠짐

-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영항의 규칙이 깨지고 삶의 균형이 깨지고 영양분 있는 식사 제공도 어려워지면서 체중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매우 많았다. 이는 자존감 및 성조숙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활동량의 감소로 체력이 감소하고 키도 작아졌고, 핸드폰과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시력도 저하되고 마스크 사용으로 피부트러블 등이 생기기도 하는 등 건강상의 문

제를 동일하게 보고하였다.

7-2. 정신건강이 나빠짐

- 아동 집단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성격이 난폭해지고, 우울해지는 등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고,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양육모는 자신 및 자녀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불안을 많이 보고하였고, 모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장기화되면서 무력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자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는데, 그중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모에게 더욱 의존적으로 되는 등 성격이 변하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다소 취약한 고등학교 자녀를 둔 요보호 가정의 모에게는 자녀의 탈모, 빈혈 등의 문제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교사 집단에게서 더욱 구체적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아동들의 사회정서 발달의 지연 및 정서적 위축에 대한 보고가 많았고, 초·중·고등학교 아동들에게서 “수동성”, “무력감”, “의욕 상실” 및 “분노 표현” 등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 중 몇몇에게 자해 및 자살 시도까지도 나타났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아동들의 문제가 방역 문제로 학교에서 자기표현이나 활동을 못 하게 하고 가둬놓고 있었던 것을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7-3. 좋아진 점

- 양육모와 지역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좋아진 점으로 위생에 신경을 쓰다 보니 잔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양육모는 “처음에는 등교도 하지 않고 잠도 마음껏 잘 수 있어서 아동에게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하였지만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는 생활이 거의 적응되어 힘이 덜 든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7-4. 대처

- 아동 집단에서는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 특별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양육모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는 나름대로 주말을 활용해서 아동과 함께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반면 요보호 가정의 모의 경우 자괴감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맘카페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동 집단, 양육모 및 교사들은 모두 아동의 건강 및 정신건강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아동 집단 역시 세부적으로 자신의 신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고, 정신건강 부분에서는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모두가 나타난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양육모는 자녀의 신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더 세부적으로 나타났지만, 교사 집단의 경우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애착 문제에서부터 자해 및 자살의 문제까지 정서 건강에 대해 더욱 세부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가정에서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인 문제가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학교에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상담센터와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신체 및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아동 스스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부족해 보이므로 주변 성인들의 도움뿐 아니라 아동에게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을 증진시키고 주도성 및 책임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 및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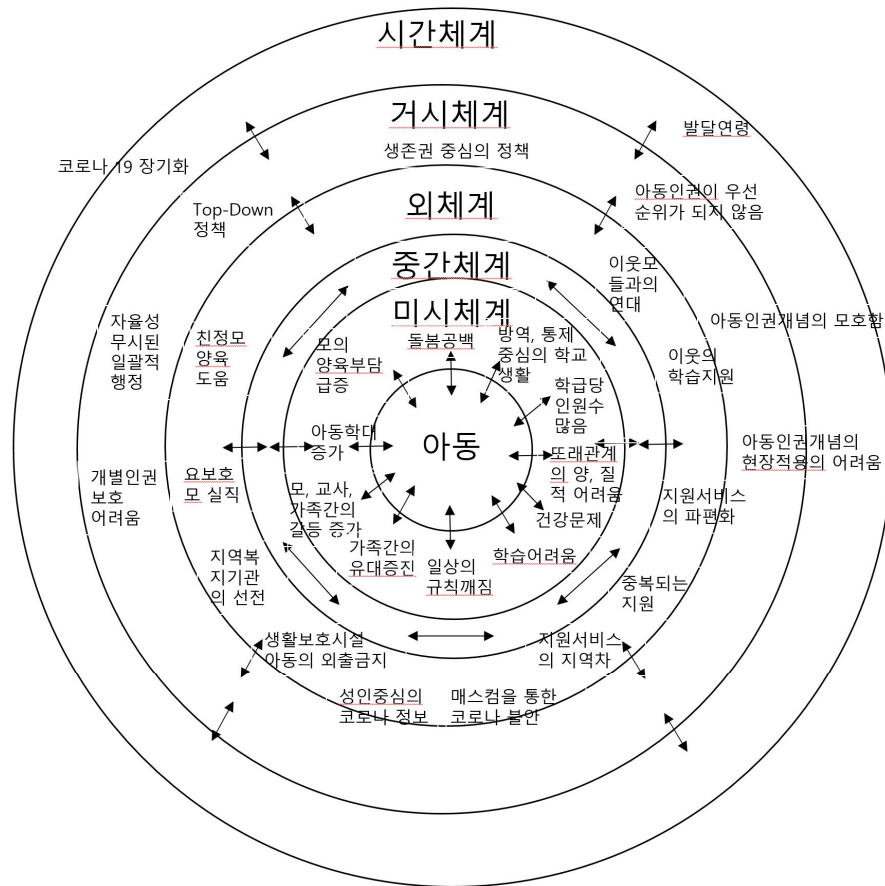
⑧ 범주 8: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뉴스에서 나오는 말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코로나 관련 정보 및 대처는 대부분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동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코로나 관련 정보 이해 정도와 정보 제공 시 아쉬움에 대해서는 아동의 목소리만 있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코로나 관련 불안에서도 아동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심적 불안에 관해 이야기했으나, 그 외 양육모와 교사 집단에서는 아동의 마음에 발생하는 불안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성인 집단에서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고려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상이 아닌 이로 인해 아동이 겪고 있는 심적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중학생 이상의 아동들에게는 코로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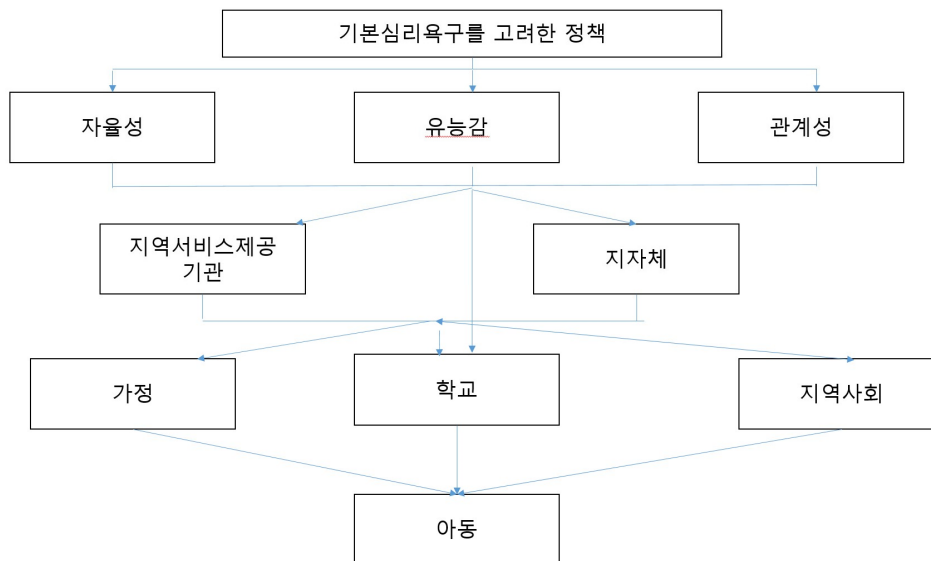
후의 생활 및 미래에 대한 염려가 보고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재난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와 적응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교사 집단에서 확진 및 자가격리 후 등원한 아동을 대하는 매뉴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학교로 복귀한 다음 아동에 대해 격려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아동인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생태체계적 모델은 다음과 [그림 4-11] 같다.



[그림 4-11]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생태체계적 모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중 하나인 기본심리욕구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을 기반으로 한 정책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그림 4-12]와 같다.



[그림 4-12] 기본심리욕구를 고려한 정책 모델

기본심리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autonomy), 관계성(relatedness), 유능성(competence)의 세 가지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인간이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욕구로서 심리적인 성장과 적응 및 안녕감에 필수적인 심리적 자양분이며(Deci & Ryan, 2000), 문화 및 발달적 차이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중요하다(Vansteenkiste, Ryan, & Soenens, 2020). 아동에게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좌절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와 강요를 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유능성에 대한 욕구가 좌절될 때 자기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실패감을 경험하게 된다. 관계성의 욕구가 좌절될 때 소외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Chen et al., 2015; Vansteenkiste & Ryan, 2013).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삶에는 바로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좌절되었고, 이것은 아동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앞으로 아동인권 관련 정책은 아동의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 욕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5.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아동, 양육모 및 주 양육자, 교사, 시설종사자와 행정가 총 6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아동인권에 대한 경험을 생생한 각자의 목소리로 수집하고 이를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키워드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 아동, 부모, 교사 집단에서는 학교 및 가정이 중요한 주제어로, 시설종사자와 행정가들에게는 복지시설, 정책과 더불어 가정과 학교가 중요한 주제어로 제시되었다. 아동 집단의 경우, 가정보다 친구, 학교가 좀 더 높은 순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재난 상황으로 인해 공교육 및 또래 관계가 훼손된 것이 아동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질적 분석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학교를 가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친한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새로운 친구들과는 사귀기 힘들었어요’, ‘선생님과 엄마에게 혼이 났어요’, ‘가족과는 친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집에 있으니 살짝 귀찮고 너무 대충하게 돼요’,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피폐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뉴스에 나오는 말은 어려워져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마스크 지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었던 급식 바우처가 좋았어요’, ‘관리강화 vs 교육 강화 vs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이라는 총 10개의 범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아동은 연령에 따라 외부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므로 초등, 중등, 고등으로 학교급으로 나누어 각 목소리를 비교 고찰하였다.

양육모의 경우, ‘양육환경에 변화가 생겼어요’, ‘양육에 지쳐서 쉽게 화를 냈어요’, ‘일상생활에서 방임이 발생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의 총 4개의 범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지원 관련 범주로는 ‘마스크, 현금이 가장 도움이 되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도시락 지급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지원에 대한 평가’, ‘정책이 잘못돼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었어요’, ‘가능한 학업 및 식사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의 총 4개의 범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교사들의 경우, ‘아동 인권 정책의 적용이 어려웠어요’, ‘교사 업무가 가중되었어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어요’, ‘정서 및 가정지원을 했어요’, ‘확진자 대응 및 개인정

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어요' 의 5가지 범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용시설종사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 및 대처', '정책 제안'의 2가지 범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생활시설종사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면한 어려움', '대처내용', '정책 평가 및 제안'이라는 3가지 범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행정가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면한 어려움', '대처내용', '정책 평가 및 제안'이라는 3가지 범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그다음, 아동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양육모, 교사, 이용시설종사자, 생활시설종사자, 행정가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아동의 목소리로 비교 고찰하였다.

이 모든 목소리를 종합해보았을 때, 그동안 아동인권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는 생존 및 방역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인해 아동인권 이 행정에 있어서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런 정책 방향으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모든 대처는 Top-Down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성인의 목소리 중심으로 '너희는 따라라'라는 식의 행정 및 대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현장에서 교사와 행정가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아동인권개념의 모호성이었다. 재난 상황 속에서 아동인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방향을 잃다 보니 이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추후 아동인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아동의 인권 보장을 다루는 구체적인 매뉴얼 개발에 대한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경우, 돌봄 공백, 일상생활의 일관성과 규칙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이로 인해 무력감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문제를 외적으로 귀인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학습된 무력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동에게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내면에 형성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지원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학년이 증가할수록 코로나 이후의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고려해볼 때,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목소리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의 1차 보호 체계인 가정에서 양육모의 양육 부담이 증대되었던 점과 2차 보호 체계인 교사들의 업무가 증대되었던 점, 3차 보

호 체계인 시설종사자들의 업무가 증대되었던 점은 아동에게 중요한 성인들이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게 한 중요한 지점이었다. 또한 학급의 인원수가 많았던 환경 역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 큰 방해가 되었던 중요한 지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 2, 3차 보호 체계에 속한 성인들이 아동의 행동에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으나 아동의 내면에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교사들의 경우 방역으로 인한 학부모 및 학생들과의 갈등과 수업 진행에 대한 어려움으로 아동 개개인의 인권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아동 및 양육모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점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거나 지원받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점이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물론 국가 정책이 각 개인의 모든 인권을 고려하면서 개별적으로, 단기간에 제정되어 시행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를 고려할 때, 최대한 각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각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내적 유능감이 형성되며, 이런 내적 귀인을 통해 재난 상황을 견뎌내는 개개인의 능력이 함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율이 증가했다는 보고와 더불어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어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각 지역사회에서 이용기관 관계자들이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파악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라는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는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할 중요한 목소리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재난 상황에서 1차 및 2차 보호 체계인 가정과 학교의 기능을 강화해서 안전감 및 관계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람은 이를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자신 뿐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모든 보호 체계에 속하는 양육모, 교사, 시설종사자와 행정가들이 경험한 코로나19에서의 어려움 및 대처 노력에 대한 모든 목소리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가 추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쉽게 소외되는 아동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V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아동인권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V.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아동인권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전염병이 만연한지 2년여가 되어간다.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봉쇄에 들어갔고, 11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겨우 학교 등교가 정상화되었다. 코로나19 전염병 발병이후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들은 아동의 위험을 예방하고, 특히 취약한 환경의 아동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위험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조치결과로 아동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일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매일매일 아동보호와 양육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앞선 본 보고서의 2장, 3장, 4장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아동인권 기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재난 시 대응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체계는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특정 집단 사람들이 서로 연관되는데, 이를 어떻게 실천 할 수 있는가와 같은 논제를 염두에 두고 제도개선안을 제안하였다.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코로나19 성명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인 위축을 우려하고,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실행할 때 11개의 사항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스코틀랜드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4월 성명서의 11개 조항별로 국가내의 보고서, 연구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2회에 걸쳐 성명서에 대한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준비하는 국가는 쟁점질 의목록 채택을 위한 옴부즈맨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아동 인권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2020년 4월 성명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아동 인권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서 우리나라 정부도 성명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한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후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 기반 대응정책을 결정할 때 반영해야 할 것이다.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11개 항목 성명서 내용에 따른 대응

본 연구에서 11개 항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사항을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력을 신체건강,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놀이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제한은 필요할 때, 최소한 적용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협약 실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치사항

- [2020년 8월]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발표하였음. 여기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아동정책이 추가. 아동정책 수립 시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과 동시에 존엄·권리를 지닌 권리주체라는 복합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 정부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도 아동이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방안, 영아수당 도입(2022) 등 <아동수당> 역할 강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만7세미만 아동가구 대상 아동돌봄쿠폰(40만원 상당)을 지원. 그 밖에 2020년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1~6학년 아동가구에 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 만 13~15세 아동에게 비대면학습지원금(1인당 15만원)지급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모성보호 사각지대 보완> 정책을 구체화하며 아동돌봄공백 예방 방안 추진 중임. 더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 양육관련 교육,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 및 상담지원.
-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 실시. 코로나19상황이 지속에 따라 2021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 시행함. 수혜대상자는 코로나19 가족 감염자, 혹은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초등2학년 이하 자녀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임.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② 아동이 휴식하고 놀 수 있는 권리와 문화적/예술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 이러한 방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기준을 적용하여 적어도 성인 지도가 따르는 야외활동을 하루에 한번 이상 하는 것, TV/라디오/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이 있다.

조치사항

- [2020. 04]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 실무 추진단’ 구성 및 운영하여 보호자 및 종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아동 놀이콘텐츠 제작.
- [2021. 06] 보건복지부의 대응지침에 백신예방 접종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함. 프로그램 참여 종사자나 외부강사의 경우 1차 접종완료자는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비말 발생이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2차 접종완료자는 프로그램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비말 발생 프로그램(ex. 노래, 악기강습) 운영 가능 명시.

- ③ 온라인학습이 현존하는 교육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교사-학생 상호작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온라인학습은 교실학습의 창의적 대안이지만 기술 및 인터넷접근성이 부족한 아동이나 부모의 적절한 지도가 없는 아동에게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아동이 교사로부터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조치사항

- [2020] 여성가족부에서는 돌봄취약계층 가정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기관에서 원격학습 지원. 그 밖에 방문교육지도사, 배움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가정방문 돌봄인력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및 돌봄지원.
- [2020. 04]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은 온라인 개학 정보콘텐츠 제공. 온라인 학습환경(ex. 학습지, 학습도구, 도서, 노트북 등) 지원.

- [2020] 교육부 긴급돌봄 운영지침서에는 학교온(on), EBS, e학습터 등 다양한 e-러닝 콘텐츠를 활용하여 긴급돌봄 운영 내실화.
- [2021] 교육부에서는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백서」에서 ‘밀집도 완화된 수업모델’ 내용게재. 여기에 지역별 등교규모 기준 조정, 등교 및 쉬는 시간 차등화, 교실분반 수업 및 온오프라인 브렌디드러닝,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에 대한 내용 포함.

④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사항

- [2020] 교육부 긴급돌봄 운영지침서에는 중식제공은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하되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동의를 얻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비상상황에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돌봄교실 급간식 구매·제공 가이드」 준수
- [2021. 05]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마트(대표 강희석), 롯데마트(대표 강성현), 본아이에프(대표 이진희)와 5월 3일(월) 오후 14시 30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31만 명이 지원대상임. 또한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지정 착한가격업소*(전국 4,500여 개)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의 가맹점 참여 유도
- [2021] 보건복지부 대응지침(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언급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급식카드 지원, 도시락 배달 등을 활용.
- [2021] 교육부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백서」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돌봄을 대응하면서 중식제공 언급. 개학연기(휴업 20.03.15.~20.04.15.)으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 시 도시락 지참 및 중식 제공, 온라인 개학 상황(20.04.16.~20.05.16.)에서 긴급돌봄 운영 시 중식제공(도시락 매식), 등교수업 후(20.05.27~현재) 학교급식으로 대체.

⑤ 의료서비스, 식수, 위생 그리고 출생신고와 같이 아동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동은 의료서비스(코로나19와 관련 있는 혹은 관련 되어 있지 않는 검사와 백신), 정신건강 서비스, 기저질환의 치료 제한

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긴급, 재난, 혹은 막대한 상황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

조치사항

- [2020] 교육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제3판)」 지침서에서는 감염특성(비밀감염)을 고려하여 학생 간 밀접 접촉을 사전 금지. 또한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금지 조치.
- [2021] 보건복지부 발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7-3판)」에서는 집단지도실, 활동실 등 시설 내 아동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서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지도, 시설 외 실시 프로그램은 방역수칙 및 인원당 면적(4m2당 1명)을 고려한 운영 권고
- [2020] 교육부 긴급돌봄 운영관리 지침에는 개학이 연기되던 당시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긴급돌봄 제공.
- [2021]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휴원시에도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원칙. 돌봄수요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당번제 운영 가능. 돌봄 공백 해소 및 센터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인력을 한시적으로 추가 배치.

- ⑥ 가정방문과 같은 핵심적인 아동보호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도록 하고 봉쇄상황의 아동에게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조치사항

- [2020. 08]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에는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를 위해 아동 시서포터즈(아동 안전관리, 위생관리, 학습지원 등 기능) 스마트기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원격 사례관리시범사업 추진.
- [2020] 교육부 긴급돌봄운영지침서에는 비상상황 발생시 보호자 비상연락망언급
- [2020. 04]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은 이용시설 휴원 후 긴급돌봄 체계 전환 운영현황 취합/보고/돌봄서비스 제공과 생활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아동 돌봄 모니터링과 가정 내 양육중인 보호아동 돌봄 지원 강화.

- [2021] 보건복지부 대응지침(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아동이 가정 내 돌봄을 받고 있을 경우에도 긴급돌봄 필요여부 및 건강상태, 결식우려 여부 등 아동의 안부를 확인하고, 학대 방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한 돌봄공백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 명시.
- [2021. 03] 보건복지부 대응지침에서는 코로나19 현장에서 필수인력(예: 방역, 의료)에 대한 아동돌봄서비스 우선 지원하고, 지원시간을 확대하거나 지원비율을 인상하여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을 줄이고자 함.
- [2020. 12]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⁵⁴⁾ 발간, 각 지방자치단체 전달. 여기에는 만 12세 이하 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보호자와 집에서 격리치료 받을 수 있는 지침 명시.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의 확진경우 자가치료 대상 포함. 소아 2명이 감염되더라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며 2명 이상의 경우 보건소와 협의규정.

⑦ 팬데믹으로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조치사항

- [2020. 04]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은 코로나19 트라우마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아동에게는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예: 치료비, 검사비, 교통지원 등),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연계한 전문상담서비스 지원, 보호대상 입양아동에게는 한국어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 [2020] 「코로나바이러스-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
- [2020. 11]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를 권장
- [2021. 03] 시설 거주아동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외출의 제한적 허용
- [2021. 06] 대응지침 7-1판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생활시설 거주 아동의 가족관계 개선 및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부모-아동 간 대면 면회 및 학습, 자립교육 등 학습을 위한 외부활동 허용.

54) http://ncov.mohw.go.kr/upload/ncov/file/202012/1609387821557_20201231131021.pdf

- [2021. 07] 대응지침 8판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4단계에서도 제한적으로 외출, 외박, 면회가 가능하도록 개편 실행함
- [2021] 교육부 지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제작한 「2021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학부모를 위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로 번역된 홍보물을 활용

⑧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만약 시설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조치사항

- 장단기 소년 처분(9호,10호)의 경우 소년원 수용인원, 신규입소자, 퇴원자 및 임시퇴원자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전후 큰 변화가 없었음. 외부인과 접촉이 많은 보호자 교육은 중지됨. 종교활동은 비대면 전환됨. 외부로 나가야 하는 개방처우(예: 봉사활동, 체험학습, 주말가정학습, 외출 등) 거의 실시되지 못함.
- 보호관찰소에서는 소수인원 집행실시, 비대면 보호관찰 실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20) 연구결과 방역을 위한 공간적 제약, 상황별 매뉴얼 미비 등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 발견. 감염병 대응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제작을 통한 확산예방과 비대면 업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⑨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지침을 어긴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어 있는 아동은 즉각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조치사항

- [2020. 11] 방역대책본부에서 11월 9일에 발표한 보도자료 중 ‘붙임6. 마스크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내용’에는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예외자에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명시되어 있음. 이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⁵⁵⁾⁵⁶⁾
- [2020. 04]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은 정부지침에 관한 아동판을 제작하였음

- ⑩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는 장애아동, 이민자 아동, 인터넷 접근이 제한적인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아동친화적인 포맷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치사항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아동과 익숙한 만화영화 캐릭터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함.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코로나 관련 홈페이지⁵⁷⁾에 게시(라바와 함께 마스크쓰고 코로나19 이겨내요!⁵⁸⁾, 라바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해요!⁵⁹⁾
- [2020. 04]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은 정부지침에 관한 아동판을 제작하였음

- ⑪ 팬데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고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치사항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응지침에 명시된 바 없음.
- 다함께돌봄센터 3년간 1회 이상 아동의 의견 수렴하여 센터운영.
- [2020. 07]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 실무추진단’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는 개편하여 아동만의 참여 플랫폼을 신설.

55) 안전신문고홈페이지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56) 안전신문고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safetyreport.go.kr/#customercenter/notice/81082>

57)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코로나 관련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58) 라바와 함께 마스크쓰고 코로나19 이겨내요! <https://youtu.be/z4V-svP6yY8>

59) 라바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해요! <https://youtu.be/nWuFq41CdX0>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성명서 11개 조항 각각에 대한 재난 대응 상황 평가 보고서 작성
- 영향 평가 항목에 따른 재난 대응 상황평가

2) 전반적 평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11개 항목 성명서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내용의 특징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중심의 대응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랜 기간 동안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공장소와 놀이시설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였고, 마스크 사용의 영유아 발달영향력도 신중하게 평가되지 않아 방역우선의 착용중시 경향이 강했다. 영유아 감염의 낮은 수치와 발달시기의 결정성에 대한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영유아 마스크 착용을 극히 제한한 외국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접근이었다. 학교 휴교의 영향력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노력이 미흡하였으며, 특히 개인 간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개별 지원이 부족하였다. 가장 늦게 봉쇄하고 가장 먼저 봉쇄가 풀려야 할 학교에 대한 조치도 세밀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가 컸다. 아동감염자와 부모 감염의 경우 지원 내용이 미흡하였다. 아동감염자 격리 기준 적용 연령이 12세로 협약의 아동연령 18세미만 아동을 모두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보편적인 대응조치가 많아 코로나19 재난이 야기한 아동과 가족 등 보호자의 개인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다녀야 하는 아동에 대한 조치와 배려/긴급 돌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의 한계, 비좁은 가정환경의 아동의 온라인 교육 접속과 가능 여부, 컴퓨터 지급이라는 일괄 지원 방식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개별 대응 미진, 부모 감염과 사망 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돌봄 등이 없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아동 전반의 생활변화와 영향에 대한 통계 산출

이 미진하다. 전국의 아동 생활 실태 전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 산출이 없었고, 엔지오, 연구기관, 개별 연구자에 의한 실태조사는 조사 항목의 중복과 조사 문항 개념 차원의 상이함으로 자료 사용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부모 실질 소득 감소, 정신적 심리적 변화 등 부모와 가족 변인의 변화 추이도 파악되지 않았다.

넷째, 필요한 인력의 보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기관 인력의 업무 과중이 많았다. 학교 교사의 경우, 방역에 집중된 업무로 인해 학생 상담과 학업지도에 어려움을 느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에도 추가 인력 배치가 있었으나 보육교사의 새로운 업무를 분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공급된 것은 아니었다.

다섯째,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삶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자녀를 둔 가족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개별 가족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전반적 지원 항목의 필요보다 다른 개인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지원이 부족하였다. 특히 근무시간 조정이 어려웠던 부모나 보호자의 자녀 양육 돌봄 공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

여섯째, 코로나19에 대한 아동의 생각, 생활의 변화, 요구와 필요, 그리고 심리적 상태 등 아동참여 기제가 취약하였다. 아동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궁금함을 해소할 통로를 알지 못하였다. 관련 정보에 대한 아동용 버전이 제작되기는 하였지만, 접근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실효적이지 않았다.

2.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 의미와 원칙

재난 상황은 사회, 정부, 공동체, 그리고 개인을 시험한다. 재난 시 대응 조치가 가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재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아동인권에 기반 한 대응체계를 통해 아동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기는 생물학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아동기가 이해되는 방식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아동기는 능동적인 협상을 거쳐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에 의해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다.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로서 아동기는 언제나 시간, 장소, 문화 속에서 맥락화되며, 계층, 젠더, 다른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연적, 보편적 아동기는 없으며, 자연적, 보편적 아동은 더더구나 없다. 이런 배경 때문에 재난 시 아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의미가 있다.

1)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원칙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은 세계 각국이 새롭게 맞이한 불확실한 상황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체계의 기반이 되는 아동인권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는 가치중립적이고 어떤 곳에서도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탈맥락화 되어야 한다.

제도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일은 학문적 지식 및 실천적 경험을 적용하는 가치중립의 기술적 과정이다. 특정한 목적이 압도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아동인권 중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아동인권 옹호의 목적에서 현상이 빚어낸 복잡한 다양한 변인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제도 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동인권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는 다음의 원칙에 기반 해야 한다.

1

재난 시 아동은 자기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어른들은 아동을 진지하게 대하고 주고 민주적 대화와 의사결정에 아동을 참여시키고,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 시 아동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은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아동이 참여하는 방식은 온라인을 통한 수시 참여, 대면상담 등의 참여, 실태조사 등 조사를 통한 참여 등과 같이 그 방식이 다양하다. 모든 관련 자료는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연령에 맞는 언어로 정보가 제공되고, 정보 제공의 주기도 수시 제공, 정기제공 방식까지 정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 아동은 그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구성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그리고 경험적 지식을 쌓아가는 주체자로서 배움에 공헌하는 사회적 행위자이다.



2

재난 대응체계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도의 선택이 완전히 만족되지 않고,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Durac, 2011). 이 때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선의 이익은 3중 개념인데, 실제적 권리, 해석상의 기본법적 권리, 절차 규칙이다. 재난 확산 방지에만 초점을 둔 조치가 아니라, 조치가 아동발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아동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아동도 차별적으로 대우 받아서는 안 되며, 재난 시 대응은 소외받거나 서비스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4

재난 대응은 아동이 사회적 자원 제공과 생산에 공헌하며, 비용과 부담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확고한 인식에 바탕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려면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체 양육이 제공되고 양육정보와 관련한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아동은 부모와 다른 어른들과 부합되지 않는 그들 나름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인식에 바탕한다.

아동은 생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식과 문화와 나름의 정체성의 공동구성자로 부각된다. 과거 아동이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위치하였지만, 이제 아동은 국가와 부모의 공동책임이며 이런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 국가정책, 목표 등의 연관성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인권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은 아동을 잊어버릴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해방시킬 것이다. 특히 위기환경 아동의 결손이 더욱 심화하여 다른 아동과의 격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2) 재난 대응 조치 시 필수 검토 사항

어떤 재난 하에도 인권에 대한 모든 간섭은 정당화되고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 대응 조치를 취할 때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최종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 조치로 인하여 아동의 권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재난 조치 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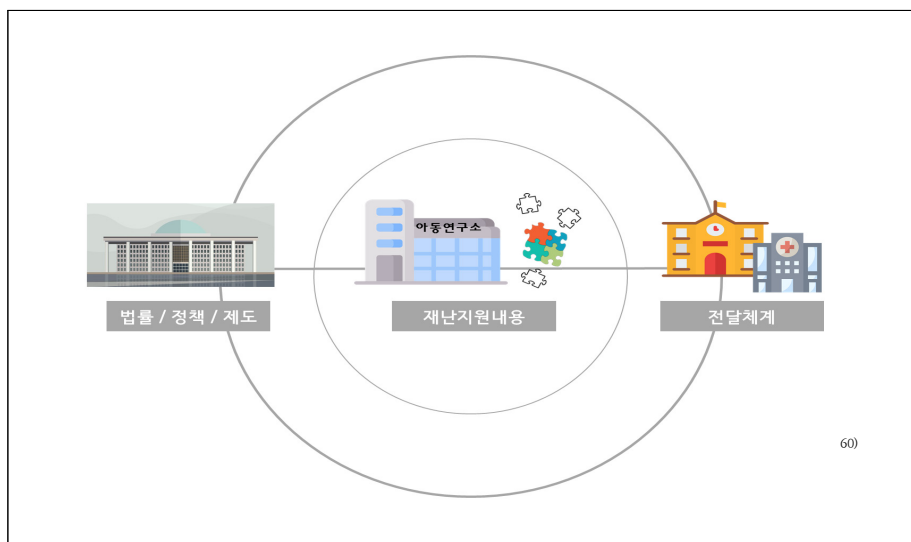
- 학교 교육 제한의 영향
- 학업평가의 위축에 따른 영향과 대체방안의 적절성
- 사회적 관계와 활동 범위 제한의 영향
- 영양과 건강공급 제한의 영향
-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관계 변화 추이 예측
-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위축 정도와 이로 인한 영향
- 아동복지기관 내 아동 삶의 변화와 영향

-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잠재적 영향과 우선적 고려, 그리고 보육 및 교육 조치
-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지연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 빈곤이 야기하는 전반적인 아동인권 침해 가능성
-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망 확보와 기능 강화
- 가출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아동의 위험

위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 제도 계획 및 이행에서 아동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도모하는 방안을 선택한다. 특히 정책과 제도 수립단계에서 결정이 해당 아동에게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해당권리를 어떻게 존중했는지, 즉 무엇을 최선의 이익으로 고려했으며,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했는지, 다른 고려 사항과 어떤 식으로 비교 검토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아동인권 중심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1) 아동 재난 대응체계의 3개 차원



[그림 5-1] 재난 대응체계

아동 재난 대응체계는 크게 3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하나는 법률과 정책/ 제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 그리고 전달체계의 3개 차원이다.

먼저, 법률 제정과 정책 수립 및 제도를 마련하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코로나19 등 아동 재난 대응과 직접 관련한 법률로 아동복지법을 들 수 있는데,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 ‘안전’을 제 1조 목적에서부터 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서 총 22회 적시하였다. 아동 안전 관련 책무와 관련자의 안전보장 의무 준칙을 망라하여 각 사회 영역과 관련자 업무 영역별로 언급하고 있는데, 재난 시 안전 관련 조항은 언급이 없다. 재난 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어떤 기관이 어떤 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은 아동이 함께 넘어야 할 상황으로 재난 시 아동이 처한 상황을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아동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 조치가 가능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재난 대응의 법적 기반 조항을 추가하거나,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안에 재난 대응 관련 전반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아동관련 법에 재난 시 특별 조치 조항의 한시적 규정 및 적용 근거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재난 지원의 내용에 해당한다. 재난의 범위와 범주, 그리고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성 재해 혹은 자연 재해 등의 재난 시 아동인권 기반 재난 지원 내용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협약을 기준으로 생명,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각 인권 영역에서 재난 지원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 지원의 내용은 프로그램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차원은 전달체계이다. 전달체계는 법과 규정을 근거로 재난 지원의 내용을 전달하는 체계이며 아동관련 기관과 인력이 포괄된다. 학교,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이 망라되어 재난 시 아동인권 기반 대응체계 과정에서의 각 기관과 인력의 역할

60) 그림출처 : <div>Icons made by Freepik from www.flaticon.com</div>, <div>Icons made by iconixar from www.flaticon.com</div>, <div>Icons made by surang from www.flaticon.com</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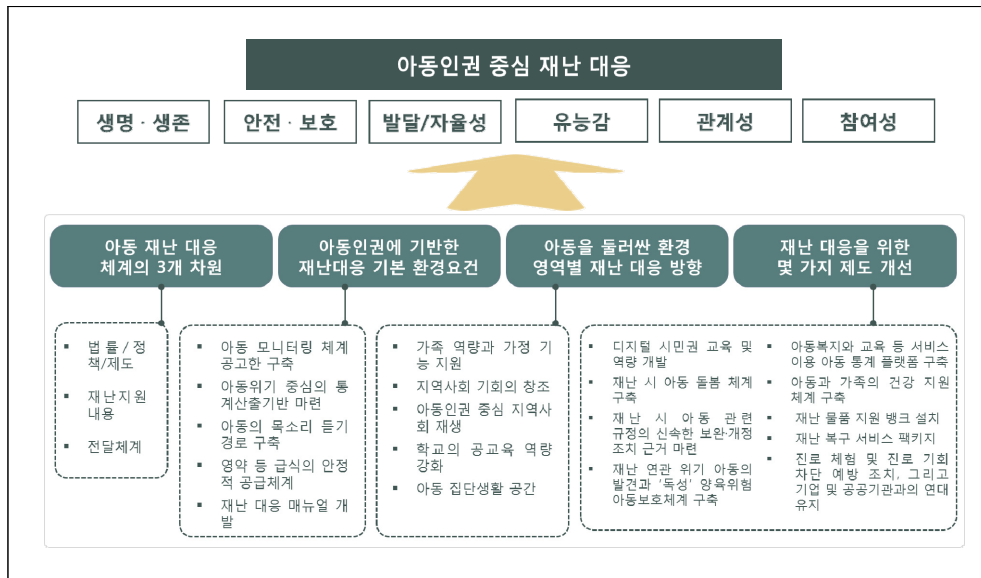
과 책임, 업무조정 등의 전달체계와 추가 인력 배치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응체계는 아동재난 대응의 핵심 추진 기관을 중심으로 각 개별기관의 재난대응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2) 아동인권 기반 재난 대응 기본 환경 여건

아동인권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는 협약의 일반원칙과 권리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 지식, 정체성, 문화 재생산자로서의 아동, 순수한 존재로서의 아동, 생물학적인 단계를 갖는 과학적 존재로서의 아동, 노동시장 공급요인으로서의 아동과 더불어 이제 아동은 지식, 정체성 문화의 공동구성자로서의 아동으로 이해된다. 아동은 사회의 일부분이면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이해되고 인정된다. 아동은 권리를 가진 한 사람의 시민이며, 감당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질 수 있다. 아동은 사회와 세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들과 능동적인 관계에 있다. 아동은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세계를 구현하고 세계에 의해 영향 받는 존재이다. 세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세계에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때문에 재난 시 아동인권이 보호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존 라울스는 정의 이론에서(1971) 사회적 정의를 책임 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공동체와 기관 안에서 공평함과 협동정신으로 공동의 선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개념화했다. 그러한 사회는 인간의 권리를 이해하고 가치를 두며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한다(Zajda, Majhanovich, & Rust, 2006). 사회적 정의는 어떤 이념으로써 뿐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살아 있는 습관이다.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고려 역시 사회적으로 살아있는 습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앞선 장에서의 분석결과 아동인권에 기반한 재난 대응체계는 [그림 5-2]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림 5-2] 아동인권 기반 재난 대응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재난 시 아동인권 기반 대응체계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삶 모니터링 기제 구축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 기반 구축⁶¹⁾

재난 시에도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주 책임기관이 있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다. 아동권리모니터링의 법적기반이 모호하고 턱없이 낮은 예산과 부족한 인력에 의지한 위탁 형식의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크게 위축시킨다.

코로나19의 재난 대응 시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취약성은 필요한 역할 부재와 정보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개별기관의 독자적인 정보 제공이 오히려 부모나 아동 관련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되었다. 공급자와 수요자 아동 사이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어려웠다. 앞선 본 보고서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각 부

61) <https://www.childrenscommissioner.gov.uk/coronavirus/>

쳐는 관련 정보의 생산 및 보급 등을 통해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였는데, 정보의 연관성이나 실제 유용성, 그리고 정보와 서비스의 중복,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지 않은 획일 지원이었다. 실효적이지 못한 지원이 많았다. 개별 기관이 쏟아낸 코로나 19 관련 자료들이 오히려 정보 접근성을 떨어뜨려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불평까지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0년부터 ~ 2021년까지 세 차례의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제안하여 정부의 조치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아동 상황을 파악하면서 모든 아동의 욕구와 처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가 주로 아동서비스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서 코로나 등의 재난 상황에서 아동전반의 위기와 위험상황을 추적, 확인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의 서비스 대상 아동은 대부분 위기 아동으로서 이들의 삶의 환경 변화 궤적을 통계적으로 추적하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런 상황은 서비스 제공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으로 국한될 가능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위기 상황의 사각지대 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의 삶을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어려움과 문제 등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19에서 위기 아동의 삶의 궤적 변화 즉 부모의 감염여부, 학교 등교 유지 여부, 정신병리적인 어려움 여부에 대한 통계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던 외국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제언과 더불어서 재난 시 아동의 삶을 살피고, 아동인권 침해를 막는 신속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동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일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은 각 해당 기관의 몫이었다. 중앙의 지원과 제공 없이 각 개별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은 노력이 분산되고, 자료가 중복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코로나19상황에서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관이 중심이 되어 모든 아동이 실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아동과 관련한 관련 자료가 모여 어느 한 사이트만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한 국가와 재난 대응 시 아동인권 측면에서 접근의 차이가 크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학교 교육을 받아야 했던 아동은 사회봉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이다. 아동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여러 조치는 대부분 방역중심의 조치였으며, 관련자들에게 부과한 업무도 방역 관련 사항이 주류를 이루

었다.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조처 내용 및 관련 기관의 서비스 내용 등은 개별 접수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해서 비효율적이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경로를 알지 못하여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 상황은 우리나라 아동권리모니터링 체계의 취약성에서 기인한다. 법적 기반이 분명하고, 관련인력과 자원 등이 충분히 마련된 아동권리모니터링과 ombuds 활동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을 통해서 재난 시 각종의 아동인권 침해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하며, 그리고 예방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권리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 권리 모니터링 기능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부여하여 아동권리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시 아동의 상황과 의견을 직접 듣고 확인하고 소통하면서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재난 지원을 체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충분한 정도의 예산분배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관인 커미셔너가 COVID-19와 관련한 아동직접지원과 관련 통계 제시, 연령별 및 각 기관별 관련 정보 제공을 망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 COVID-19와 관련한 정보수집과 지원 내용, 그리고 추가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면 아동권리커미셔너를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직접 상담 창구를 열어 신속한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예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의 법적 기반 강화 및 제도 강화

- 〉 재난 정보 공유
- 〉 재난 대응 관련 정책 프로그램 등 자료 플랫폼 운영
- 〉 아동목소리 플랫폼 상시 운영: 특히 재난 시 아동의 상황 이해 통로
- 〉 재난 시 아동실태 관련 통계 생산
- 〉 재난 대응 조치 관련 자료 개발
- 〉 아동관련 전문가의 재난 시 어려움 등 현안 듣기/ 해결방안 모색 등

(2) 재난 시 아동이 처한 위기 중심의 아동 통계 산출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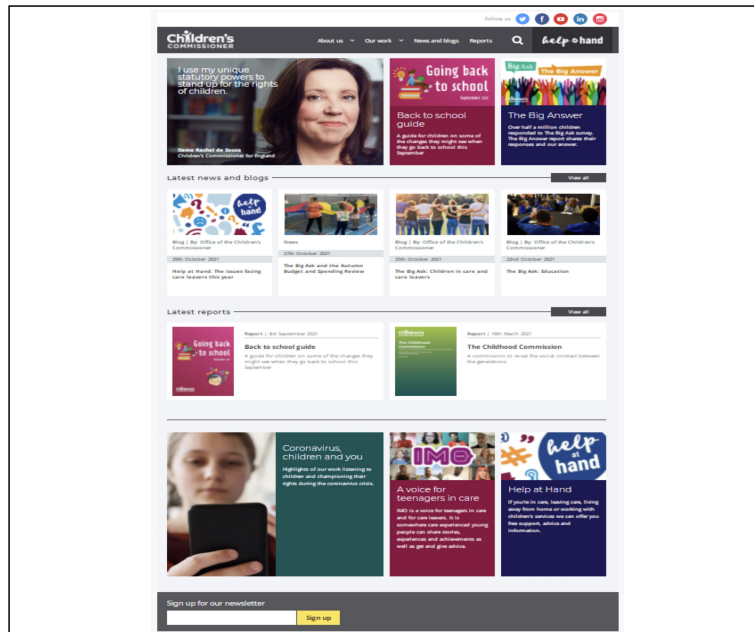
재난 상황으로 인해 아동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통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한 기관에서 확인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망라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과 관련한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우리나라는 NGO, 국가연구기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개별 연구자가 코로나19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결과물이 축적되어 있으나 각 결과물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분류항목과 범주 수준이 달라서 공식 통계로 보기가 어렵다.

확인할 수 있는 신뢰로운 통계 자료는 아동연령대별 확진자수와 사망자수 정도이다. 그마저도 아동연령에 따른 확진 추이 등을 살펴볼 통계자료가 제시되지는 않는다. 당연히 아동의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는 없다. 아동인권에 기반한 관련 통계가 수시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기관의 개별 통계 수집으로는 정책이나 제도, 서비스의 포괄적 접근이 불가능하며, 통계의 중복으로 정확한 통계 산출이 안 되고, 통계 해석의 오류 가능성도 높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수시 확인 발표되어야 할 통계수치는 아동의 등교일 수, 등교한 아동의 수, 사회정서 상담에 의뢰된 아동의 수,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수, 가족과 보호자의 사망 및 재난 노출 상황(예; 실직 등) 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재난의 유형에 따라 확인된 수치 변화도 추적 가능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가족과 보호자의 사망, 그리고 이로 인한 양육공백의 현황, 실직과 소득 감소 가구의 아동실태 생활 실태, 부모 등 보호자의 정신 건강 변화 추이 등 의 통계 역시 파악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하루 종일 불안하거나 우울한 부모의 비율이 코로나 초기 6%에서 10%로 증가하였다는 보고까지 있다. 근로자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변화 추이도 확인된다. 아동 주변의 부모나 보호자와 관련한 통계 수치의 변화까지 수집되어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관련 기관들은 재난 시 아동관련 통계의 변화를 예의주시 한다(Pins, & Ananet, 2020).

우리 정부도 재난 시 ‘재난에서의 아동기, 아동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국의 코로나 시대의 아동기 통계 보고서는 좋은 참고가 된다.⁶²⁾

62) <https://www.childrenscommissioner.gov.uk/wp-content/uploads/2020/09/cco-childhood-in-the-time-of-covid.pdf>, 2021.8.15일 검색



[그림 5-3] 영국의 Children's commissioner 홈페이지

- 〉 재난 관련 지표 아동 통계 생산 제도화
- 〉 재난 관련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의 아동 양육관련 통계 생산
- 〉 아동기 자녀를 둔 사람의 실직과 소득 감소, 실업 급여 지급 추이 통계 생산
- 〉 즉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의 비율
- 〉 가정에서 온라인 원격교육을 수행 추이 변화
- 〉 영유아기부터~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긴급 돌봄 이용 현황 등
- 〉 부모의 정신건강 증상 변화 추이
- 〉 급식지원 이용 비율
- 〉 아동 정신 행동발달 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 변화추이 등

(3) '아동의 목소리 듣기' 경로 구축

: 상시 도움요청 가능한 통신망 구축 및 아동을 통한 직접 의견 청취

재난 상황은 아동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준다. 재난상황에서 아동 각자가 처한 사정과 상황을 파악하고, 개별적이 필요와 요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드물고, 코로나19를 위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례도 적었다. 굿네이버스에서 아동과 함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 참여 토론회'를 열고 아동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아동의 참여와 아동의 욕구 반영은 미흡하다. 아동관련 정책에 당사자(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대응 지침들이 긴급하게 마련되고, 그 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코로나관련 운영지침에 아동 의견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동의 목소리와 아동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는 아동의 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 잉글랜드 아동권리 커미셔너는 위기 상황이나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지 상시 도움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구축하고 아동으로부터 직접 전화 상담 등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실태를 아동으로부터 직접 파악하고자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6주 동안 'Big Ask: Big Answer.' 질문 사이트를 열고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아동권리커미셔너는 잉글랜드 아동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과 아동개별 사정을 동시에 파악하고 있다. 2021년 10월 31일 현재 4~17세 아동 557,077 명이 이 사이트에 접속 응답하였으며 다양한 자신의 처지를 글로 남기고, 이를 본 관련자는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 지역사회, 복지, 학교, 진로, 요보호 아동 등 6개 분야에 대해 아동은 캐치업이 필요한 것,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 장기과제 등의 의견을 남겼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12조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하는 요체임을 강조한다. '듣기'는 타당하다는 것에 대한 전 개념 없이 아동들의 질문과 답들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의 사고를 공중하게 대하는 것이며, 아동의 생각과 의견 그 자체를 들리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아동이 처한 상황을 아동으로부터 직접 들어 그들의 필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도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아동에 대한 직접 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생활실태 변화를 아동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민간기관에서 아동 생활실태 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내용이 포괄적이며, 개인의 요구 파악과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아동 권리모니터링 차원에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삶의 변화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서 이들의 어려움과 생활 실태를 상시 듣고 지원할 수 있는 헬프라인의 가동도 필요하다.

〉 아동의 목소리 듣기 경로 구축

- 상시 도움 요청 디지털 전산망 구축
- 헬프라인의 가동
- 아동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재난 지표 중심의 전국 규모 아동조사 실시

〉 당사자 의견 수렴

(4) 웰빙을 위한 급식 등 영양의 안정적 공급 체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과 학교의 휴교는 아동의 급식 공백을 불러일으켰다. 하루 1끼 이상 결식률이 15.9%이며(아동권리보장원, 2020), 코로나19 이후 3끼 모두 잘 먹는다는 응답이 35.9%(굿네이버스, 2020)에 불과하였다. 놀이 및 여가가 줄었다는 응답이 84.3%에 이르고, 가족 간 갈등 증가(36.0%)로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황옥경 외, 2020)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 추진하였고, 교육부의 농산물 급식꾸러미 제공 등의 대응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학교의 급식실을 개방하여 도시락을 가져가도

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낙인감 등으로 이용률이 낮았으며, 급식 꾸러미는 아동의 식습관을 반영하지 못했다. 세끼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식생활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결식률 증가 등 식습관이 나빠졌다. 재난 대응체계에서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팬데믹이 나라를 장악했고, 우리는 전례 없는 봉쇄령에 들어갔다. 사회전반은 팬데믹의 확산을 막는데 주력했으며, 아동관련 기관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아동의 위험, 특히 취약아동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전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신체활동이 제한되어 전례 없이 비만아동이 증가하였고, 규칙적인 일과가 파괴되어 늦잠으로 하루 세 끼니는 먹는 아동의 수도 급감하였다. 학교의 봉쇄로 교육격차가 더욱 커졌으며, 불안정한 가족으로 인한 보호위험은 안전한 발달의 장으로서의 학교기능을 더욱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공평한 교육기회와 교육격차의 해소, 그리고 안전한 성장환경의 담보가 될 수 있는 학교가 재난 시에도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다.

재난 대응 매뉴얼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위험해소와 일상 유지, 그리고 재난 이후 회복의 관점이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관련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난 대응 매뉴얼의 구성

1-1. 위험해소를 위한 재난 대응

- 재난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난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으로 인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재난 시 아동재난 대응의 관장 부처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협동 대응 부처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위험 대응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우선해야 하고, 무엇을 차후에 진행해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교육 유

지를 위해 온라인 등 매체의 보급과 설비 지원과 더불어서 학교의 즉각 봉쇄로 인해 급·간식 영향을 받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재난 시 급식 제공 체계의 작동이 필요하였다. 이런 재난을 예측하지 못한 각급의 학교와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적절한 급식제공을 하지 못해 부모들이 나서서 점심 등 지원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1-2. 일상 유지를 위한 재난 대응

- 재난은 개인의 일상의 흐름을 방해한다. 재난 시에도 아동의 일상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기 재난 경험은 아동의 기본생활 습관 형성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식습관, 수면, 학습습관 등 거의 모든 아동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놀이가 크게 위축되었고, 온라인 노출시간이 급격하게 증대하였으며, 게임하는 시간도 늘었다. 세계 기구들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아동기본생활습관 형성을 가장 중시하고, 이의 전략을 안내하였다.
- 아동들이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거주지역 등으로 인해 돌봄과 교육영역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텍사스 주에서는 원격학습과 대면학습 모두 활용한 과외 프로그램 지원해주고 주내 20개의 지역서비스센터를 통해 연장수업 및 학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2021년 7월에는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대면수업 촉진을 목표로 RADx-UP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2020년 1월 이후 UNCRC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육시설부터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1-3. 재난 회복 대응

- 재난 이후 회복은 재난이 아동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다. 일상을 시작할 때, 이를테면 다시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하면, 이에 필요한 사전 적응을 위한 자료와 지침 등을 제공하여 재적응을 돕는다. 재난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면, 등교이후 재난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학교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는지, 친구가 재난

에 노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되는 게 무엇인지,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수칙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적응이 용이하도록 돕는다.

② 재난 대응 관련 사회분야

- 재난 시 학교, 지역사회 등 아동관련 각 사회 부문과 관련 기관 등은 기관별 재난 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재난 대응 매뉴얼은 관련 기관의 협조와 연계도 명시되어야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책임을 이행할 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각 기관의 재난 대응체계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인권의 각 영역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각 관련 기관의 업무 중복과 업무 공백의 문제가 해소되며, 관련 전문가가 투입된 재난 대응이 가능해 진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기관은 학교 봉쇄 시 아동의 급식 공백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교육당국 및 부모와 협의하여 지자체의 아동 이용서비스 기관과 급·간식 공급 방식을 연계 논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급·간식 공급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
- 재난 대응지침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재난 대응지침은 각 기관의 협의 하에 최종 개발 될 수 있어야 하며, 각 기관과 종사자는 평시에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수시 점검 보완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의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정책과 서비스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가족환경에 따라 재난 대응의 방식과 재난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에서도 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 및 성장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

③ 추가인력 배치

- 사회 각 부문이 원활하게 재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사회, 가정, 생활 및 이용시설 등에 추가적인 인력배치 계획안이 재난 대응 매뉴얼에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인력의 전문성 등이 고려된 확보책과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

〉 재난 대응매뉴얼

- 위험해소 대응
- 일상 유지 대응
- 재난 회복 대응

〉 아동관련 기관의 재난 시 업무 대응 매뉴얼 개발

- 재난 시 아동관련 기관 간 업무 공조체계 구축 매뉴얼 개발
- 재난 시 아동관련 기관간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아동인권 각 영역별 주 담당기관 지정 등
- 연령, 발달상태(장애 등), 가족환경 등 아동 개인적 속성에 따른 재난 시 업무 대응 내용 포괄

〉 아동의 언어를 사용한 매뉴얼 개발 및 배포

〉 추가 인력 배치안 마련

3) 아동을 둘러싼 환경 영역별 재난 대응 방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의 많은 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들의 헌신과 희생이 아동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감염 확산을 막았다.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 전문가들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아동들과 함께 일했으며, 아동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자체 개발 활용하는 등 아동발달을 지원하고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 내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자라는 아동과 특히 취약한 환경의 아동의 위기와 그들이 직면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관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방역조치를 취하면서 아동사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동들의 등교는 제한되었는데, 이러한 혼란은 아동의 발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가 도드라지는데,

전반적인 학업성취수준이 낮아졌으며(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0), 학업성적이 나빠졌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아동의 주된 관심사는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로 학업과 친구와 관련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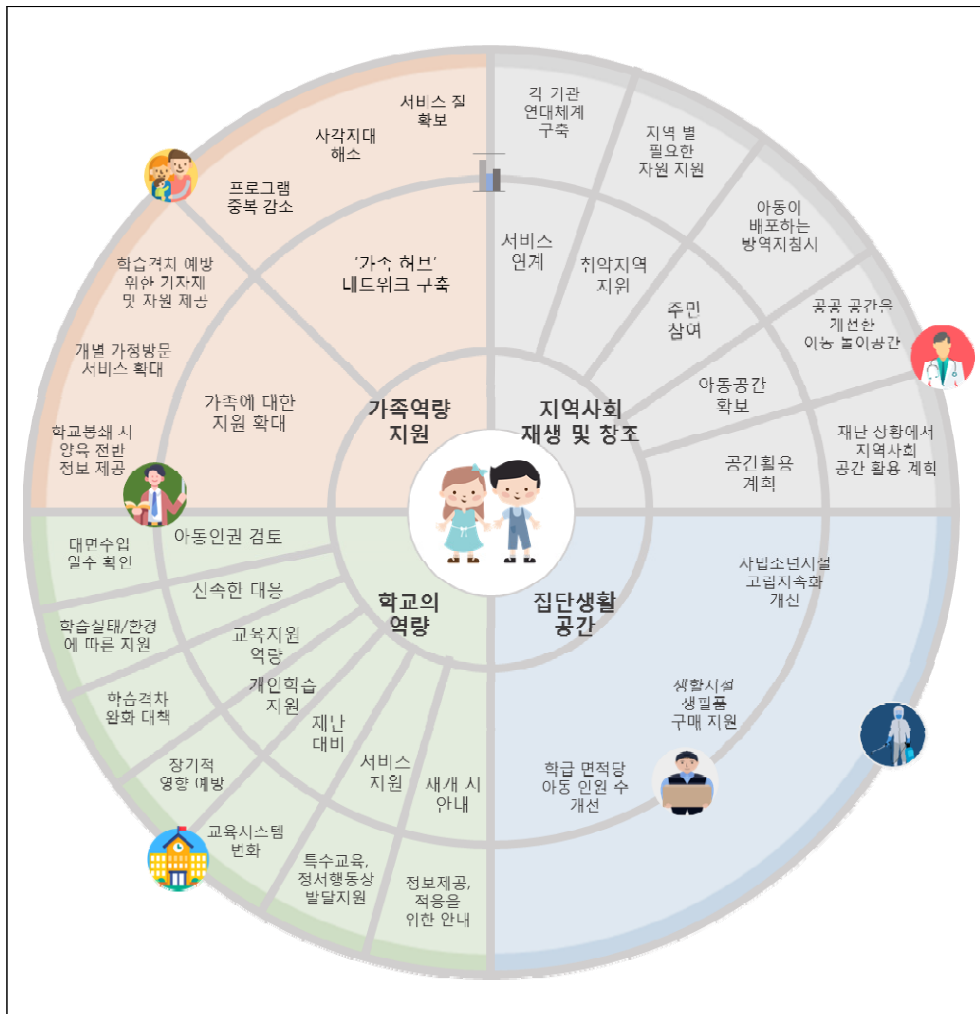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아동기가 중단되지 않도록, 아동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재난 대응체계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인권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와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재난 시 가장 집중해야 하는 4개 영역, 환경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각 영역은 가장 시급한 재난 대응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그림 5-4) 참고).

(1) 가족 역량과 가정 기능 지원

가족은 아동의 삶과 행복의 기둥이다. 때문에 재난 시에는 가족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재난 시 불가피하게 집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재난이 장기화 하면 아동의 학습여건, 경험 등의 현저한 차이가 발달 격차를 유발 할 수 있다. 재난의 장기화는 가족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아동은 불안정하고 불행한 가족이 자신의 삶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가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며 가족의 건강과 필요한 물건 구매 역량에 대한 불만이 11배 높다. 가족생활에 불만족하는 9~17세 아동은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9배 더 높다. 이 아동의 70%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만족하지 않았다(Children Rights Commissioner, 2021).

재난 시 가족역량과 가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역시 재난 시 우선 점검 사항을 목록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4] 재난 대응 방향⁶³⁾

① '가족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활동을 하는 관련 기관의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 접근성, 통합성, 효율성을 향상한다. 즉 프로그램의 난립과 중복을

63) 그림출처 : a href='https://kr.freepik.com/vectors/school'>School 벡터는 macrovector - kr.freepik.com가 제작함, <https://littledeep.com/home-illustration-free-download/>

막고 사각지대 가족의 문제를 해소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질의 일정 수준도 확보 가능할 것이다.

②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불리한 상황에 처한 가족 등의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가정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마련한다.
- 학교 봉쇄 등으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을 경우, 양육 전반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한다. 집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 일과 계획과 우선순위의 훈육, 갈등 조정 방법, 이 외에도 신체활동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체활동이 가능한 활동을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편성, 제공한다. 지역사회 이용 가능한 공간과 공공 프로그램 제공 정보 안내도 포함한다.
- 개별 가정 방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재난 시에는 부모가 처한 어려움이 다양하다. 개별 부모가 처한 어려움에 맞는 서비스가 계획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별 가정방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임신기와 출산한 여성의 경우, 재난 시 어려움이 크고, 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개별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과 대화하는 방식이 서툴고, 가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어려움을 가중하기도 한다. 함께 사는 방식,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에 이르는 방식,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확대, 등과 관련한 양육의 구체적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컨설팅 한다. 아동 재난 플랫폼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망라한 자료를 게시한다.
- 학습경험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기자재 지원 및 학습 환경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대체할 자원을 제공한다. 코로나19는 특히 빈곤가정 아동의 학습에 어려움을 주었다. 학교봉쇄 중 1인실 주거공간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공부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가정 내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재난 시 아동의 성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공간을 확보해 준다. 재난 시 아동이 적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발달기회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 가족에 대한 구체화된 재난 시 지원 지침을 마련한다. 코로나19는 부모의 급여감소, 실업, 부부갈등 등을 통해 아동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모, 한부모 등 혼인여부 및 배우자 여부로 가족구조의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과 더불어서 어린 연령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가족의 특수성 등이 재난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3가지 주요 가족독성 스트레스로 꼽히는 부모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알콜 등 중독 가족, 그리고 실직 상태의 가족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이 계획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 재난 대응을 통한 기회의 창조

지역사회라는 생각은 매우 정서적인 것이며, 그 용어가 최근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다. 지역사회는 물리적 이웃이나 지역적 환경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이웃의 안녕을 돌볼 것이라고 짐작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런 지역사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기 개념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최근 세계 각국은 아동을 시민으로 인식하도록 지역사회를 재생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크게 강조된다.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재생하기 위한 움직임은 사회적 소외를 줄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결핍된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의 영향은 아동의 직접적인 건강과 안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교육적 성취와 아동 비행 등의 요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 비만도 사회적 결핍과 연관되어 있다(Bayliss 및 Sly, 2009).

특히 이 세대의 아동은 시민의식을 갖고 사교적이며 외향적이다. 아동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미있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 더 안전한 삶을 원하기도 한다.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 아동은 배려하고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일부를 느끼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지역사회 공간의 활용을 극도로 제한하여 아동들이 신체활동과 자율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막았다. 아동기가 더욱더 개인화되었고, 아동은 집에 있어야 했다.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적 모형은 아동의 일상적 삶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시 앞선 [그림 4-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 복지기관은 이용자 아동과 부모 및 가족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였다. 이웃의 학습지

원도 관찰되었고, 이웃부모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사회적 재난 상황을 견디는데 서로 지지해 나갔다. 그런데 지역사회 자원에서 지역 간 차이가 있었고, 지역의 각 기관 서비스는 파편화, 중복지원이 발견되었다.

앞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하는가?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단위로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우선순위와 각 기관의 역할 관계를 정립한다.**

-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 등 방과후돌봄기관이 유사한 서비스와 내용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아동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의 누락도 있을 수 있다. 재난 시 지역사회 각 기관의 서비스 연대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② **아동성장의 취약지역 개발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소외와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개발이 되도록 중앙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지역사회 재생 과정이 아동에게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 간 격차로 사람들이 불평등을 느끼면서, ‘지역로또’로 인한 지역적인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재난 시 아동발달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재난 시 지역자원 활용 방안을 가상으로라도 계획한다.

③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격려하고, 시민정신을 고취하여 자발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 준다.**

- 아동의 참여를 포함하며, 이렇게 하면 세대 간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들이 방역지침서 배포 등 몇 국가에서 아동이 참여하여 방역지원을 한 것은 좋은 예이다.

④ **지역사회에 아동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아동기 경험이 바뀌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이다. 중세시대에는 어른과 아동이 대체로 비슷한 삶을 영위했고 서로 옆에서 일하고 놀았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반대가 되었고, 점점 아동과 어른은 공간적으로 격리되고 있다. 사회적 공간의 점유는 실제 또는 감지된 소유권에 따라 좌

우되므로 정치와 법으로 결정된다. 아동은 사회적 권력이 없는 계급으로써 그들의 물리적 소재는 거의 전적으로 어른에 의해 통제 되므로 아동기 공간의 문제는 통제의 문제이다. 때문에 지역사회는 공간을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중심으로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역사회 공간의 아동중심 재생은 재난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계층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의 주요 수단이 된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더 나은 교육 결과, 더 강력한 커뮤니티’라는 기치아래 지역사회 전체를 아동 놀이가 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Playful Learning Landscapes Project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재미있는 놀이가 작동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를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에서는 공터와 버스 정류장을 개조하여 재미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변모하는 두 가지 목표 모두를 성취하였다(황옥경외, 2020).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지역 버스 정류장의 벤치는 어른과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퍼즐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환경의 놀이 중심 개조 작업은 비어 있거나 잘 사용되지 않는 부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고, 공공 공간을 개선하고, 공원과 광장에 흥미로운 새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재투자는 주변 주민의 활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과 아동이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도록 이끌어 주기도 한다.

⑤ 재난 시 아동중심의 지역사회 공간 활용 계획을 마련한다.

-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상황과 사회적 고립상황에서 공공기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소 등의 공간 활용계획을 아동중심으로 세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좁은 집에서 가족들과 부대끼며 온라인 수업에 임해야 하는 아동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신체활동 등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동의 신체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공간 활용계획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를 받아 시간대별 이용자 수를 방역수칙에 맞추어 제한하면서 공공 실외 활동 장소를 개방한 일본을 비롯해 서구의 대응 방식이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 재난 시 아동을 경험하는 경우 재난의 특별한 요소에 맥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동기 경험을 벗어날 수 있고, 경험 위기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생은 인권 보호를 위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이 된다.

〉 지역사회 기획의 창조/ 아동인권중심 지역사회 재생

-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
- 아동에 대한 사회적 소외와 특정 문제 해결중심의 지역사회 자원 개발
- 아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 아동공간의 충분한 확보를 중심에 둔 지역사회 재생
- 재난시 지역사회 기관의 아동중심 공간 활용 계획 수립

(3) 학교의 공교육 역량 강화

학교는 정치조직 그리고 시민 중심 공간이다. 학교는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다. 문화적 이해를 반영하는 관계의 렌즈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정치조직의 개념으로 볼 때 학교는 비판적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의 공간이기도 하다. Hannah Arendt가 말하는 ‘공공 공간’은 구체적인 학습 공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민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강화시키는 사회적 관계가 되어 함께 갈등하게 된다(1989: 201). 아동은 학교가 도전적이지만, 학교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21세기 학습에 투자하는 것은 최초의 대산업 혁명의 핵심이었던 기계산업과 혁신에 투자하는 것과 맞먹는다. 그 당시는 물리적 자본이었으나 지금은 인간자본이다. 아동기는 미래를 위해 안정적이고 잘 준비된 노동력을 생산하는 장기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하나의 밑바탕이다. 때문에 재난 시에도 학교교육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학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은 학교로 돌아가면 정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한다, 취약한 아동의 지원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 시 학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코로나가 부각한 학교 변혁 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난 시 교육권에 대한 조치의 아동인권 영향 검토

- 재난 시 학교에 대한 조치는 아동의 교육권과 관련한 부분으로 그 과정이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조치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아동의 인권이 간섭되어서는 안 되며, 법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변경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정책을 변경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흔히 이런 것들이 간과되기 쉬운데, 정부정책이나 조치가 법적 기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난 대응조치가 법적 기반에 근거하고 아동인권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재난 시 행해지는 여러 조치가 아동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위협할 수 있다. 정부 조치 사항을 관련 재난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다.
- 우리나라는 온라인 관련 인프라, 디지털기기의 준비 등 비대면 학습 진행에 큰 무리는 없었으며 초기의 혼란기 외에는 교사들의 온라인수업 진행과 학생들의 참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수업일도 학습 일에 포함할 때 휴교일이 짧은 국가에 해당되지만 학교휴교나 대면 수업일수를 책정할 때 아동인권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② 신속한 재난 대응 여건 구축

- 코로나19의 긴박성 때문에 학교봉쇄 등의 조치는 코로나19 시 학교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컴퓨터의 제공 등 몇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학교의 아동학습 환경과 조건, 그리고 학습실태 파악 등은 미진하였다. 교사의 온라인 역량 차이가 효과적인 수업관리 대응 지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재난특성에 따른 대응지원과 대응체계가 사전에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의 학습실태 및 학습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산출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결석상황에 대한 파악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학생 상담 및 지원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공교육 기관으로서 교육격차에 대한 학교 교육지원 역량 강화

-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학교교육이 이번 재난을 통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학교는 아동에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중심 기관이자 아동이 가정 외에 믿을 수 있는 성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여긴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휴교 및 비대면 학습으로 인해 발생한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학교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약하다. 학습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들은 학교 외 외부기관을 활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예: 사기업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활용).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염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학교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오후 돌봄 및 긴급돌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④ 개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아동에게 미치는 교육과 학습격차의 장기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별 학습지원 교사를 배치하여 아동의 학습격차 문제를 최소화한다.

⑤ 부모, 가족 교사가 함께 하는 교육

- UNCRC에 가입한 국가들은 아동최선의 이익을 포함하여 휴교를 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권 및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학교는 재난상황에서 '가장 늦게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UNCRC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부모, 가족, 교사가 함께 하는 교육체계의 운영을 가져왔다. 가족-학교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 가족, 교사와 학교가 동등한 의견을 내어 각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공동의 비전을 생성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교육에 대한 가족의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 등 가족은 자녀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학교, 부모 가족은 “학교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학교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어떤 유형의 역량과 기

술을 도와야 할까요?”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 교육시스템의 필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가족의 참여가 학생이 성과를 10% 더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Global Education Evidence Advisory Panel은 학교에서 비디오나 학부모 회의 등을 통한 가족과 의사소통이 질적 교육체계 운용의 "훌륭한 구매"라고까지 하였다. 가족과 함께 논의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학교 교육 기간, 읽고 쓰기 및 수리 능력 습득과 같은 영역에서 아동의 성취수준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Global Education Evidence Advisory Panel, 2020).

⑥ 재난에 대비하는 교육시스템 구축(학습 주도성 회복, 자율성)

- 코로나19는 교육 시스템을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며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불평등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세계적인 중론이다. 교육시스템 개편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다.
- 먼저, 전 세계적으로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이 지식을 공부하던 것에서 "학습 방법의 학습", "협력적 문제 해결" 등의 광범위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Winthrop et al., 2018).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 자동화를 통한 업무체계의 변화, 복잡한 사회 및 환경 위기가 있다.

⑦ 특수교육 및 학교 기반 각종 상담지원 서비스 이용 조치

- 재난 시 특수교육이나 학교 기반의 각종 상담 및 정서행동상의 발달지원을 받고 있었던 아동은 전반적인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이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고, 부모 양육 부담도 가중되기 쉽다. 실제로 대부분의 행동, 발달상이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 부담은 훨씬 가중되었다. 재난 시 이들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⑧ 학교 재개 시 관련 정보 제공과 적응을 위한 안내

- 재난 시 학교봉쇄가 있다면 학교 재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아동에게 제공하고, 적응을 위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아동은 장기간

의 학교 차단으로 인해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을지 걱정한다. 아동에게 학교는 도전적이지만, 아동은 학교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정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취약한 아동의 지원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

- 〉 재난 시 교육권에 대한 조치의 아동인권 영향 검토
- 〉 신속한 대응 여건 구축
- 〉 교육격차 지원 역량 강화
- 〉 개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특수교육 및 학교 기반 각종 상담지원 서비스 이용 조치
- 〉 학교 재개에 따른 정보 제공과 적응안내

(4) 아동 집단생활 공간

아동이 집단생활을 하는 물리적 공간이 선진국에 비해 학급면적당 아동인원이 높은 편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실행의 어려움 등 재난 시 환경적 취약성 있다. 등교가 중단되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 평소보다 더 큰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동생활시설에서 식자재 및 생필품 구매부담이 증가한다. 사법 소년 시설 등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아동이 비상재난 상황으로 인해 고립이 지속화할 수도 있다.

아동이 집단생활을 하는 공간의 각 개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 시 매뉴얼이 제안되어야 한다. 아동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필요할 경우, 지역의 공공공간과 연대하여 아동이 이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 재난 시 공간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년사법시설의 경우에도 비상시 공간제약 등의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디지털 시민권 교육 및 역량 개발

： 재난 대응을 위한 디지털 환경 구축과 아동의 디지털 역량 지원

코로나19는 디지털 성장환경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의 디지털 생활에 대한 유럽평의회의 조치는 주로 교육을 통한 권한 부여나 디지털 사용자로서의 역량 획득보다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술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비판적인 디지털 환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전 세계 교육자들의 최우선적이 관심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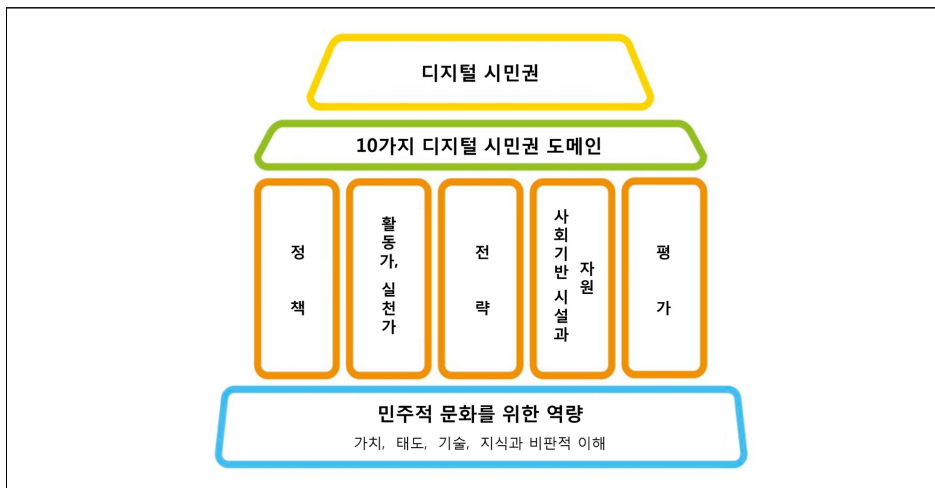
온라인 사용이 급증하면서 아동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아동의 학교 데이터는 이름, 집 주소, 행동 및 기타 악용 시 아동과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매우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게 되지만, 아동을 보호하는 데이터 개인 정보의 보안은 취약하였다. 코로나19 위기는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사례도 발견된다. 코로나19 봉쇄의 영향은 범죄자들이 아동을 학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아동을 유해한 콘텐츠에 더 쉽게 노출시키고 이것은 아동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

디지털 시민권의 개념은 온라인 세계가 제공하는 혜택과 기회를 활용하는 다양한 역량, 속성, 행동을 포함한다. 유럽평의회 교육정책 실천 운영위원회(CDCPPE)는 2016년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먼저,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시민권은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책임 있는 행동 규범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민권은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책임 있는 행동의 규범을 나타내기 위해 정책 담론과 학술 문학에서 등장한 개념이다(Ribble et al., 2004). 디지털 시민권은 "글로벌 시민권"(Parker & Frailon, 2016), "글로벌 역량"(OECD, 2016b), "디지털 역량"(페라리, 2013; 부오리카리, 푸니, 카레테로 고메즈 & 반 덴 브랜드, 2016), "디지털 문해력"(캐나다 디지털 및 미디어 문해력 센터, 2016) 및 "미디어 및 정보 문해력"(Frau-Meigs & Hibbard, 2016; 유네스코, 2013)을 포함한다.

코로나19를 통해 학교 기능과 운영이 디지털 환경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

디지털 역량을 획득하고 디지털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규범과 규율을 지킬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더불어 디지털 시민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시민권에는 디지털 계약, 디지털 책임 및 디지털 참여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기반의 시민권 개념에 의해 뒷받침된다. 디지털 시민권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생성, 출판, 작업, 공유, 사교화, 조사, 재생, 의사소통 및 학습)에 대한 유능하고 긍정적인 참여와 연관한다. 국가와 지역사회, 세계적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환경에 아동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해야 한다. 온라인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아동의 온라인 사용 증가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건강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5] 디지털 시민권의 개념적 모델

(2) 재난 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① 긴급 돌봄 지원 체계 구축과 방식의 다양화

어떤 재난과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아동이 자신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직업으로 인해 돌봄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동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12%(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0), 30%(굿네이버스, 2020) 증가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한 경우 가정 내 양육을 받은 경우가 73%이며,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24%이다.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36.2%가 자녀 양육 공백을 경험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자녀를 혼자 집에 방치(12.2%)하거나 저녁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29.4%)도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이런 통계자료들은 재난 시 아동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공백 없는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은 학교의 돌봄기능 확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각 부처별 긴급돌봄, 긴급보육 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정책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뉴질랜드의 경우 일을 하는 모든 부모는 재택근무나 휴직을 하는 대신 직장에 아동을 데리고 출근해 근무하였다. 아동돌봄 이슈를 개별 가정이 해결하기보다 기업과 공공이 분담하였다. 미국에서는 이웃이 긴급돌봄을 분담한 정책도 있다, 미국에서는 친척, 친구 및 이웃이자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본다면 ‘Working Connections Child Care’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의 유형에 따라 긴급돌봄의 형태와 대상이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처럼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긴급돌봄 공급은 안 된다. 모든 긴급 돌봄을 공공 영역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공공, 기업, 민간, 그리고 이웃이 함께 긴급돌봄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긴급돌봄의 원칙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사항은 긴급돌봄 시 기본 요건이나 수칙, 이에 기반한 재난상황의 긴급돌봄 지원체계, 재난과 관련한 위험의 안전 상태 확인 기준, 급식 및 프로그램의 질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처럼 모든 아동 대면 가정 방문 원칙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 시에도 아동 인권기반 건강한 발달의 요소를 충분히 경험 할 수 있도록 제반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코로나19의 경우 실외활동을 일방

적으로 모두 금할 것이 아니라 아동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체활동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급 제공해 주어야 했었다. 코로나19 시 포대를 만나거나 함께 어울릴 수는 없었지만, 아동이 개별적으로 밖에 나가 공놀이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 적용의 예가 된다.

한편, 아동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 부담가중되었다. 가정양육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양육역량은 약화하였는데, 아동들의 돌봄, 생활, 교육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 재구축과 종합적인 가정양육 역량 제고를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② 재난피해 아동과 가족 돌봄 체계 구축

Human Rights Watch(2020)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가족과 아동의 별도 격리 시 아동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당국은 고아원, 기타 주거 기관 및 이민 관련 구금 상태에 있는 아동 등의 자유가 박탈된 아동을 가족 기반 보호 시설로 이전하고 폐쇄된 환경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에게 자원을 재 할당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난의 피해자 가족과 아동에게 자원을 재할당 할 수 있는 긴급조치 방안과 가족 및 부모와의 분리 규정 등이 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코로나19 지침에서 현재 무증상이나 경증이며,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는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및 부모와의 격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침 상 아동이 12세 이하로 한정되어 협약기준 아동연령 만 17세와 상이하여 자가 격리 대상 아동의 연령이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 시 자가 격리 등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아동의 학습과 발달의 실효적인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도내 생활치료센터 7곳 입소 초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개인 학습 꾸러미를 활용한 영어 학습을 지원하였다.⁶⁴⁾ 이런 지원은 학습공백과 격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이지만, 아동 개인 상황에 따라서 학습꾸러미의 효율적 활용 정도의 차이가 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학습과 발달을 모니터링, 지원하는 인력의 추가 확보 배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격리시설에 입소된 아동의 경우 가족이 함께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발달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험

64) 열린뉴스통신 <http://www.oneyes.tv>

상황에 처한 아동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학습과 발달 모니터링을 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3) 재난 시 아동 관련 규정의 신속한 보완·개정 조치 근거 마련

일반적으로 재난은 한시적인 특별한 어려움을 준다. 때문에 평상시 법규와 규정, 제도를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동의 사회서비스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돌봄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재난 시 재난과 관련한 규정, 제도의 신속한 보완 개정 조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은 코로나19가 덮치자 아동권리 관련 규정을 일시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명시하였다. 재난이 이어지면서 적용시간과 적용내용이 확대되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된 법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진의 코로나19 투입으로 인한 아동 보호과정에서의 의료진단과 평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중단 없는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온라인을 통한 가상 서비스(virtual visit)를 허용하지만, 지역이 폐쇄되고, 자가 격리가 요구되며, 학교 등의 폐쇄 기간에도 모든 경우에 아동과 가족에 대한 대면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Ofsted는 코로나 중 아동의 사회복지 환경 위험평가를 위해서 방문 평가가 이루어짐, 이 평가는 2020. 09. ~ 2021. 03 사이에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 기간 등급 재평가가 이루어졌음.
-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예: 입양예정 아동에 대한 평가가 의료서비스 제한 등으로 의료 관련 정보의 평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 봉쇄 및 자가 격리의 경우, 아동은 얼굴을 모르는 낯선 사회복지사가 아닌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회복지사가 Virtual수단을 통해 방문하고 접촉할 수 있음

위 한시적 개정 내용 중 Ofsted의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에 대한 환경 위험평가, 아동 자가 격리의 경우 낯선 사회복지사가 아닌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회복지사가 온라인을 통해 양육 지원을 하도록 한 것,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의 지연 예방 조치, 모든 아동에 대한 대면 가정 방문 원칙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재난 연관 위기 아동의 발견과 ‘독성’ 양육위험 아동보호체계 구축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사망한 아동, 부모가 격리된 아동 등 재난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의 위기도 있다. 아동 자신이 감염된 사례가 2021년 10월 30일 기준 5만4천759명에 이른다. 10대까지의 아동 자녀를 두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20~40대 어른의 사망자수는 80명에 이른다.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가족과 지내는 시간의 증가로 가족과의 갈등이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보고가 많다. 치명적인 가족폭력에 노출되는 아동의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 등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다.

재난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없다. 이와 더불어 재난으로 인해 특별히 더 위험해진 아동 즉 폭력 노출 가능성이 높거나, 학대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등의 아동 위험군에 대한 집중 보호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등교 차단 등의 조치는 교육손실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다. 국외의 경우, 가정폭력, 부모의 약물 또는 알콜 의존, 심각한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이른바 ‘독성삼중주’의 영향을 받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토대로 이 아동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가정에 갇혀있게 되어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알코올 의존, 약물 의존,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수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학대 발견을 어렵게 하였고, 개입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재난을 이유로 가족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입 자체가 차단되지 않는 상시 개입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예방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 시 개입과정에서 아동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관련된 다양한 정보 수집 내용과 방식에 대한 훈련도 제공되어야 한다. AI를 통한 위기변인을 확인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집중지원과 예방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 불가와 같은 조치 시 상담원이나 관련 전문 인력은 아동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동접촉 방안이 마련되어 아동의 보호가 완전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부처 간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도 있

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가정 내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도 아동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 돌봄 필요여부, 건강상태, 결식 우려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다르게 교육부 지침에는 가정 내 아동의 안전에 대한 확인 절차는 나와 있지 않다.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5) 아동복지와 교육영역에서 서비스 이용 아동에 대한 통계 플랫폼 구축

우리나라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다. 교육복지우선사업지원, 정서행동의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위스타트 지원(학교폭력 상담지원, 학교부적응 아동지원), 학교 밖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역바우처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사업으로 두드림 사업, 시군구에서 하는 여가부의 CYS-net 사업(부적응, 정서, 상담, 학교폭력 피해 가해 포함) 등이 있다. 아동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있지만, 이용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전반의 분포에 대한 통합적인 통계가 없고, 아동이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평가 내지는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의 표준화된 지침조차 없다.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려는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혜 서비스의 유형이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크다. 특히 각 서비스 수혜 대상의 중복으로 우리나라 아동 전반의 사회정서 행동양상과 문제를 확인하는 통계를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유형, 그리고 누락자를 점검할 수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코로나로 인해 각 서비스 대상인 아동의 심리행동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가 없다. 영국은 SEN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아동의 발달행동심리사회적 측면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통계치의 변화를 추적하고, 서비스를 설계 제공하고 있다.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보호서비스 대상 아동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통계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 대상 아동이 재난 상황에서 전반의 발달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영국 아동 권리커미셔너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아동의 생활 통계를 수집 보고하였다⁶⁵⁾.

65) <https://www.childrenscommissioner.gov.uk/wp-content/uploads/2020/09/cco-childhood-in-the-time-of-covid.pdf>

(6) 아동과 가족의 건강 지원 체계 구축

① 의료서비스 추가 지원

- 재난 시 아동은 행복과 건강에 대해 염려한다.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세대이다.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재난 시 아동의 안녕과 양질의 의료지원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 시 아동의료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 지원

- 코로나19 상황이 어떤 아동에게는 이점이 되기도 하였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황옥경 외, 2020; 굿네이버스, 2020; 세이브더칠드런, 2020). 수면시간이 늘었고(세이브더칠드런, 2020; 어린이재단 2020) 스트레스를 받은 비율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반면 가정 내 스트레스와 불화가 심해지기도 하였다(세이브더칠드런, 2020).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활동이나 놀이를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집에 오래 있어서 답답하고 불안을 호소(굿네이버스)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질적 조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각종의 수행지침이 많아지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코로나 이후 우울감이 증가하였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심화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개입하고, 아동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말하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며, 학교와 각종의 아동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의 양육 부담과 무능감 등 가족 내 불화요인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 특히 코로나는 아동이 디지털 상담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디지털 상담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더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외상진료 전문가의 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7) 재난 물품 지원 банк 설치: 선택 가능성이 있는 지원 서비스 제공

본 연구를 위한 질적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재난 시 제공된 방역관련 긴급지원 물품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아니었다는 불만이 상당히 높았다. 제공된 물품의 활용이 낮아 심지어 버리거나 이웃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가능한 물품지원이기를 바라며, 적어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무조건 행정처리의 편리성으로 집단을 대상으로 필요 물품을 일괄 공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재난 시 필요 물품 은행을 만들고, 이 가운데 자신의 필요한 것을 일정 기준 내에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8) 재난 복구 서비스 패키지 만들기

재난 이후 아동의 발달 회복을 위해서 재난 복구 패키지를 재난 상황에 따라 만들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발달회복을 위한 정부 관련부처와 관계 기관은 ‘아동 중심’, ‘아동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아동의 필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세계 선진국은 아동의 최선의 필요가 학습과 정서적 회복 탄력성임을 인식하고 ‘학습 캐치업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회복 탄력 강화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 시행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복구 패키지를 만들어 아동 개별적 특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9) 진로 체험 및 진로 기회 차단 예방 조치, 그리고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대 유지

아동은 재난 시 예도 잘 지내고 싶고, 잘 하고 싶은 바람을 갖고 있다. 재난 시에도 학업 등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직업과 시민의식이 내포된 직업에 대한 관심도 유지된다. 재난 시 진로를 찾아야 하거나, 다양한 진로체험과 견습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진로 체험이 가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은 성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한다. 본 연구의 아동 조사에서 아동들

은 학업지체와 더불어, 학교에서의 진로체험기회 차단으로 인한 불안과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재난 시에도 안정적인 진로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공공부문과 관계 유지 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킵스타트’ (가칭)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진로체험과 연계**

- 기업과 공공기관과 연대하고, 아동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킵 스타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아동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비용지원을 하며, 아동에 대한 임금 지불을 위한 재정지원을 한다.
- 저소득 위기계층 가정 아동의 진로체험의 비용 지원 기간을 늘리며, 소요 비용일체를 지원하고, 다양한 영역의 진로체험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연계, 장보 제공 및 안내, 그리고 진로체험 준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경력전달 프로그램의 확대: ’요람에서부터 직업체험 접근하기(cradle-to-career approach)**

- 모든 아동이 학교에서 다양한 직업분야의 인력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게 한다. 정보는 여아의 경력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분야를 포함하고, 학업성적과 크게 상관이 없는 비 학업 경력 분야의 경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직접 조언을 받도록 한다.

③ **인터십 기회 확대**

- 모든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유무급 인터십 기회를 보장한다.

몇 가지 제도 개선(안)

〉 디지털 시민권 교육 및 역량 개발

〉 재난 시 아동돌봄체계 구축

- 긴급돌봄 지원 체계 구축과 방식의 다양화
- 재난 피해 아동과 가족 돌봄체계 구축

〉 재난 시 아동권리 관련 규정의 신속한 보완개정 조치근거 마련

〉 재난 연관 위기 아동의 발견과 독성 양육 위험 아동보호체계 마련

〉 아동복지와 교육 등 서비스 이용 아동 통계 플랫폼 구축

〉 아동과 가족의 건강지원 체계 구축

- 의료서비스 추가지원
- 정신건강 지원

〉 재난 물품지원 बैं크 설치

〉 재난 복구 서비스 팩키지 만들기

〉 아동, 재난 관련자를 연계한 재난 대응 인식

〉 진로체험, 진로기회 차단 예방 조치, 그리고 기업 및 공공기관의 연대 유지

- 킥 스타트(가칭) 프로그램 계획
- 경력전달 프로그램 확대

VI

결론

VI. 결론

이 세대 아동은 팬데믹 기간 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했다. 배움의 시간을 잃었고, 친구와 단절되어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이것이 아동의 심리적 행동에 미치는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세대는 코로나 시대의 경험이 유산이 되어 자신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유전적인 문제의식으로 부담을 느끼는 세대이다.

재난에서 아동은 특히 취약하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성장환경이 아동기에 잠시 가져다 준 불안과 무력감이라는 심리적 비용이 어떻게 성인기 성장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많은 연구가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 관련기관은 다양한 지원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가 아동을 감염시키지 않고,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응은 주요 선진국의 대응과 크게 대조되었다. 영국정부는 학교 폐쇄로 인하여 최대 8백만 명의 아동이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과 대부분의 아동이 매일 정규학습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학교의 폐쇄를 최소화하고자 사회 구성원들에게 협조를 호소하였다. 특히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빈곤계층의 일일 학습 시간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우려하였고, 학교는 아동을 집밖의 위협과 집에 존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폐쇄는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 학교의 폐쇄를 막고자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동에 대한 위험 수준이 낮다는 것에 주목하여 가능한 학교의 폐쇄를 막고, 실외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아동의 일상을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스웨덴, 아이슬란드는 경제와 관련한 사회의 각 분야는 폐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네덜란드는 기관 폐쇄 해제의 첫 번째 기관이 학교이었다. 대부분의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방역중심의 정책과 서비스이었다. 몇 선진국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이러한 접근은 학교봉쇄를 놓고 아동인권 차원의 논쟁이나 이슈가 거의 제기 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이룬다.

무엇보다도 모니터링의 확고한 체계가 작동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재난 시 아동의

인권보호는 인권영역 전반에서 취약하였다. 특히 돌봄 공백과 가족폭력의 증가, 그리고 상담지원 서비스의 단절 등으로 아동위험 상황이 크게 늘었고, 학교휴업 등의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등 재난 시, 그리고 재난대응에 대한 아동의 생각과 필요를 확인하는 과정과 절차가 미약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동인권 소외의 가장 큰 양상은 아동에 대한 정보제공의 미흡과 아동의 생각을 들어보고, 아동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위협을 구체적이면서 개인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안내와 정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은 크게 불안해하였고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 어려웠다. 지금 현재도 아동관련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간결하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못하다. 아동의 생각을 곧바로 반영하고,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 창구도 없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사례도 거의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방역에 초점이 있었다. 이 대응 과정과 내용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였고, 아동참여는 특히 취약하였다. 본 보고서는 아동의 목소리 듣기,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기, 공동운영자로서의 아동에 대한 확고한 인식, 아동과 가족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독립된 존재로서의 아동 인식이 재난 대응 원칙이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본 보고서는 아동재난 대응은 법 기반 구축, 재난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전달체계 구축 등 재난 대응이 3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아동인권에 기반한 재난대응 기본 환경 요건으로는 아동모니터링 체계의 공공한 구축, 아동위기 중심의 통계산출기반 마련, 아동의 목소리 듣기 경로 구축, 영양 등 급식의 안정적 공급체계,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을 제안하였다. 또한 아동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아동집단 생활공간의 재난 시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아동인권 기반 재난 대응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디지털 시민권 교육 및 디지털 역량 개발, 재난 시 아동돌봄체계 구축, 재난 시 아동관련 규정의 신속한 보완개정 근거 마련, 서비스 이용대상 아동의 삶의 변화 통계 산출 플랫폼 구축, 아동과 가족의 건강지원 체계 구축, 재난 시 물품지원 बैं크 설치, 재난 복구 서비스 패키지 만들기, 진로체험 민 진로기회 차단 예방 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아동은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영국정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아동 생각 보고서의 내용은 재난 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준다. 아동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을 뒤로하고, 잘 회복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 즉 체계에서 아동기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의 봉쇄 상황은 재난 시 '웰빙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

제도와 정책은 그 시대 아동기 인식의 표명 방식이다. 제도를 생산하는 일 자체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도덕적인 영향 하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구성과정이다. 제도개선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객관주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기초한 것으로, 현사회가 요구하는 추세대로 어떻게든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 한다.

아동기 발달의 결정성은 그 어떤 재난 상황의 대처과정이나 대처 내용과 방식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기회를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한다. Frey(2021)는 브루킹스 보고서를 통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아동인구의 급격한 절감이 예상되는 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정부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세계 기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것 역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경우, 그 심각한 결과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아동인권 보호는 그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중 (2020).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적 대응. 아동권리 이슈 BRIEF, 창간호, 14-16.
- 관계부처합동 (2020). 제2차(2020~2024) 아동정책 기본계획.
- 교육부 (2021).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백서.
- 교육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제3판).
-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 국가별동향 (2021). [미국] 주정부들, 학생 정신건강 및 학업결손 회복에 우선순위 두고 코로나19 구호기금 사용할 것.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092&nTbBoardArticleSeq=830963> : Education Week (2021). To Get Billions in COVID-19 Aid, States Pledge Focus on Mental Health, Learning Recovery
- 굿네이버스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I.
- 권윤지 (2021). 2021년 사회복지, 이렇게 바뀐다, 복지타임즈 2021년 01월 26일 기사.
<http://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59>.
- 금강일보 기사 (2021). 거리두기 4단계...돌봄교실은 위태. 2021년 07월 29일 기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096>.
- 김민수 (2021). 지난해 중3·고2 학생 국·영·수 학력저하 뚜렷 ...코로나 장기화 영향 현실화, 동아사이언스 2021년 6월 2일 기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6988>.
- 김민수 (2021). [코로나19, 위기의 아이들] 아동·청소년 대부분 가볍게 앓았다, 동아사이언스 2021년 5월 5일 기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6311>.
- 김양혁 (2021). 만 12세 이하 코로나 확진 소아 자가치료 가능...보호자 추가 2주 격리. 조선비즈 2021. 01. 03 기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3/2021010300394.html
- 김영란 (2020).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
- 김형모 (2020). 코로나19와 아동복지시설.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21-335.
- 나무위키.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 2020년 8월 16일 검색.
-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spo/main.do>.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보호아동 제한적 외

- 출·외박·면회 등 허용. 2021년 7월 21일 기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05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내년 교육 정상화. 2021년 10월 29일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953>
- 더나은미래 기사 (2020).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혼자 방치된 아동 늘었다. 2020년 11월 17일. <https://futurechosun.com/archives/52202>.
- 매일경제 (2021년 1월 16일). 디올린 일본판 '정인이 사건'...계부 학대에 짓밟힌 '동심' 데일리메디 기사 (2020). 소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하는 의사 고충. 2020년 12월 7일 기사.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3688&thread>.
- 박경은 (2020). 코로나19 이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방향성. 2020년 제1차 온라인가족포럼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자료집.
- 박미희 (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 박정순 (2020). [왜냐면] 코로나19와 아동의 권리, 한겨레신문 2020년 11월 18일 기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70510.html>.
- 박영균, 조홍식, 장승원 (2014).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대응 지침 (7-3판).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토론회: 코로나19 시기, 우리 사회 아동은 행복한가?, 정책토론자료집.
- 백경서 (2020). 경북 증가세 '주춤'...예방적 코호트엔 "수당, 위로금 줄 것", 중앙일보 2020년 03월 10일 기사. <https://news.join.com/article/23726539>.
- 서한욱 (2020).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가하는 아동학대 위험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 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동광」 115: 113-129.
- 손현수 (2021). '온라인 수업'의 역설...학교폭력 줄었지만 아동학대는 늘어, 한겨레신문 2021년 6월 14일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9293.html#csidxb76f217ccdc495e97a4bb6e5a9dcfb8
- 송아영 (2021). 코로나19로 가려진 얼굴, 가정폭력. 월간 복지동향, (267), 51-53.
- 서울신문 기사 (2020). 코로나19와 심리방역, 어떻게 해야할까? 2020년 5월 30일 신문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9500124&wlog_tag3=naver.

세이브더칠드런 (2020). 코비드19가 아동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신주희 (2021).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등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원한다. 11개 시도 설치·운영 중...긴급돌봄지원단 체계로 전환해 돌봄 인력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3월 26일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529>.

아동권리보장원 (2020a).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설문조사 분석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2020b). 아동권리 이슈 BRIEF. 1

아동권리보장원 (2020c).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아동권리보장원 (2021). 코로나19와 아동 삶 설문조사 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2021). 2021년다함께돌봄센터 평가지표 공청회 자료집.

야마모토 겐지(2020). 코로나19 사태와 일본의 학교: 가고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벗, 57호.

양경선 (2018).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아동과 권리, 22(1), 1-22.

오석환 (2021). 코로나19 시기, 학교 안에서의 아동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 정책 토론회 자료집.

오상은, 박재현, 최창환 (2020). 체육학에서 노인 관련 연구의 동향 탐색: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 따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2(4), p111-121.

월드비전 (2020). Act now for children.

유니세프코리아 (2020). 유엔아동권리협약.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outline.asp>.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0). COVID-19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성명서.

윤혜미 (2020). 코로나19와 아동학대. 아동권리 이슈 BRIEF, 창간호, 4-6.

육아정책연구소 (2020).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이대희, 서승현 (2011). 공무원 건강감성 변화에 관한 질적 내용분석, 한국정책연구 11(3), 177-193.

이윤경 외(2020). 국제협력 연구 및 국제심포지움: COVID-19와 국가별 아동돌봄. 정책자료 2020-06-02.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은주(2020).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일교육의 변화 전망: 부등교 시대에 따른 학습권의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5(2), 75-90.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 정익중 (2021).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일상 심층 진단과 행복 방안 모색, 초록우산재단 2021년 제19차 아동복지포럼 자료집, 12-36.
- 조흥식, 염태산, 김병수 (2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성북구·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주독일한국교육원(2021년 2월 26일). 독일 교육정보: 코로나-19 상황에서 독일교육의 변화. <https://www.keid.or.kr/german-education-info/0a25741a-2820-4cdc-a54c-6a4238d60bed>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자가치료 안내서.
- 중앙일보 기사 (2020). '온라인 개학' 22만3천명 스마트기기 없어...교육부 대여 가능. 2020년 4월 3일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6763#home>.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0).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일상 변화
- 최순자. (2021). 일본 후생노동성 코로나 19 지침과 영유아교육기관 대응 사례.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6, 27-42.
- 최은미(2021).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정책결정과정. 일본연구, 87, 147-168.
- 최지옥 (2021). 코로나19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60(1), 2-10.
- 충청남도 교육청 (2021). 2021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 한국교육개발원 (2020). 원격교육 상황에서의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완화 방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년 3월 24일). 국외 COVID-19 대응 학교 교육 대처 방안 사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 황옥경, 이영애, 박지민, 명준희 (2020). 코로나 19 대응 놀이정책 연구, 보건복지부
- Anderson, B.L. (1993). The stages of systemic change. Educational Leadership, 51(1), 14-17.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21). Children and COVID-19: State-Level Data Report. <https://services.aap.org/en/pages/2019-novel-coronavirus-covid-19-infections/children-and-covid-19-state-level-data-report/>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News (2021). Children make up nearly 21% of new

COVID-19 cases.

<https://www.aappublications.org/news/2021/04/19/pediatric-covid-cases-041921>

Bhat, S. S. and S. Milne. (2008). Network effects on cooperation in destination website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29(6), 1131-1140.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ronfenbrenner, U. (1992).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 (Ed.),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Revised formulations and current issues*, London: Jessica Kingsley.

Children's Commissioner, Children & Young People's Commissioner Scotland, Children's Commissioner for Wales, & NICCY (2020. 12). Report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amination of the combined sixth and seventh periodiv report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hildren's Commissioner (2020). *Childhood in the time of Dovid*.

<https://www.childrenscommissioner.gov.uk/wp-content/uploads/2020/09/cco-childhood-in-the-time-of-covid.pdf>

Children's Commissioner (2021). *Coronavirus, children and you*.

<https://www.childrenscommissioner.gov.uk/coronavirus/>

Children's Commissioner.

<https://www.childrenscommissioner.gov.uk/wp-content/uploads/2020/09/cco-childhood-in-the-time-of-covid.pdf> 2021년 08월 15일 검색.

Countrynote (2020). *School education during covid-19 were theachers and students ready?*.

<https://www.oecd.org/education/Japan-coronavirus-education-country-note.pdf>

CSSEGISandData/COVID-19 : COVID-19 Data Repository by the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 at Johns Hopkins University(202).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Frau-Meigs & Hibbard (2016). *Education 3.0 and Internet Governance: A new*

- global allianc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s sustainable digital development. Global commission on internet governance, 27.
- GlobalA(2020년 10월 19일). [독일 유아돌봄] '코로나19' 비상 돌봄지원 프로그램 가동.
http://m.globala.co.kr/view.php?ud=EJ1818182784825ed56eecda_37
- GOV.UK (2021). Coronavirus(COVID-19). <https://www.gov.uk/coronavirus>
- GOV.UK (2021). Coronavirus(COVID-19) in the UK.
https://coronavirus.data.gov.uk/details/cases?areaType=nation%26areaName=England#card-case_rates_by_age_and_sex
- GOV.UK (2021). What parents and carers need to know about early years providers, schools and colleg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at-parents-and-carers-need-to-know-about-early-years-providers-schools-and-colleges-during-the-coronavirus-covid-19-outbreak/step-4-update-what-parents-and-carers-need-to-know-about-early-years-providers-schools-and-colleges>
- Han, M. S., Choi E. H., & Chang S. H. et al. (2021).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Viral RNA Detection in Children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in the Republic of Korea, JAMA Pediatr. 175(1), 73-80.
- Human Rights Watch (2020.5)
<https://www.health.org.uk/news-and-comment/blogs/how-are-generation-covid-19-experiencing-the-pandemic>
- Implementation science center for cancer control equity (2021). Rapid Acceleration of Diagnostics – Underserved Populations (RADX-UP).
<https://www.hsph.harvard.edu/isccce/rapid-acceleration-of-diagnostics-underserved-populations-radx-up/>
- Infection situation in Japan seen in the chart New coronavirus (2021).
<https://vdata.nikkei.com/newsgraphics/coronavirus-japan-chart/>
- Krueger, R. A. (1998). Analyzing &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Focus Group Kit 6. CA: SAGE Publication.
- Krueger, R. A., & Casey, M. A. (2002). Designing and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 CA: SAGE Publication.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 Education.". CA: Jossey-Bass Publishers
- Ministry of education (2021). Information and advice for students, whānau, and the education sector.. <https://www.education.govt.nz/covid-19/>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21). NIH COVID-19 testing initiative funds additional research projects to safely return children to in-person school. <https://www.nih.gov/news-events/news-releases/nih-covid-19-testing-initiative-funds-additional-research-projects-safely-return-children-person-school>
- NPR (2021). Children Now Account For 22% Of New U.S. COVID Cases. Why Is That?. <https://www.npr.org/sections/coronavirus-live-updates/2021/05/03/993141036/children-now-account-for-22-of-new-u-s-covid-cases-why-is-that>
- NSW Governanet (2021).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parents and carers of people who need to be isolated due to COVID-19. <https://www.health.nsw.gov.au/Infectious/covid-19/Pages/isolation-advice-for-parents-and-carers.aspx>
- OECD (2016b). FDI IN FIGURES.
- 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 (2020. 6. 15). Submission to the UNCRC on COVID-19.
- Parker & Frailon (2016). Southeast Asia primary learning metrics (Sea-Plm): Global citizenship domain assessment framework.
- Rachel Cresswell, Shreya Sonthalia, Caitlin Webb, & Martina Kane (2021). <https://www.hrw.org/news/2020/04/09/covid-19-and-childrens-rights>
- Ribble, M. S., Bailey, G. D., Ross, & Tweed, W. (2004). Digital Citizenship - Addressing Appropriate Technology Behavior,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Learning & Leading with Technology, 32(1).
- UK Parliament (2021). Latest evidence on impacts of COVID-19 in children. <https://post.parliament.uk/latest-evidence-on-impacts-of-covid-19-in-children-march-2021/>
- World bank blog (2021). Getting back to learning: key policy actions for reopening schools. <https://blogs.worldbank.org/education/getting-back-learning-key-policy-a>

ctions-reopening-schools

Weber, R. P.(1985). Basic Content Analysis. London, Sage.

Zajda, Majhanovich, & Rust (2006). Education and social justice: Issues of liberty and equality in the global culture. Education and Social Justice, 1-12.

부 록

부록 1. 연구 안내문 (아동청소년용)

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코로나 19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비대면 화상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집단은 총 5명으로 구성됩니다.
2. 비대면(zoom) 인터뷰는 약 1시간 30분~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모든 인터뷰는 녹화 및 녹음됩니다.
4. 비대면 인터뷰 후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전화 및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사항을 준수합니다.

1.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본 연구 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됩니다. 녹화된 자료는 연구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쓰이지 않으며 3년 동안 책임연구자의 연구실 특정 장소에 보관 후 안전하게 폐기할 것입니다.
3. 본 연구 참여 시 소정의 참여비를 드립니다.
4. 본 연구는 아동인권 현황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5. 만약 연구 참여 중 불편감을 느끼실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6. 본 연구 참여 시 개별적인 녹화 및 녹음은 불허합니다.
7. 본 내용이 명시된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본 동의서는 인터뷰 시작 전에 인터뷰 진행자와 함께 읽은 후 최종 사인을 할 예정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질문지를 먼저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책임 연구자: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담당 자: 이서현(총괄보조연구원)

직 통 전 화: 010-9968-3803

이 메 일: leeseohyeon@naver.com

부록 2. 연구 안내문 (성인용)

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코로나 19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아동 인권과 관련된 대표 집단을 구성하여 비대면 화상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집단은 **총 6명**으로 구성됩니다.
2. 비대면(Zoom) 인터뷰는 **약 1시간 30분~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모든 인터뷰는 녹화 및 녹음됩니다.
4. 비대면 인터뷰 후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전화 및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사항**을 준수합니다.

1.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본 연구 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됩니다. 녹화된 자료는 연구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쓰이지 않으며 **3년 동안** 책임연구자의 연구실 특정 장소에 보관 후 안전하게 폐기할 것입니다.
3. 본 연구 참여 시 **소정의 참여비**를 드립니다.
4. 본 연구는 아동인권 현황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5. 만약 연구 참여 중 **불편감**을 느끼실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6. 본 연구 참여 시 **개별적인 녹화 및 녹음**은 불허합니다.
7. 본 내용이 명시된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본 동의서는 인터뷰 시작 전에 인터뷰 진행자와 함께 읽은 후 최종 사인을 할 예정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질문지를 먼저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책임 연구자: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담당 자: 이서현(총괄보조연구원)

직 통 전 화: 010-9968-3803

이 메 일: leeseohyeon@naver.com

부록 3. 연구 동의서 (아동청소년용)

연구참여자 동의서

연구제목: “코로나 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1. 나는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읽었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책임자에게 연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2. 나는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들었으며 언제든지 궁금하면 연구 책임자에게 물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3. 나는 스스로 연구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4. 나는 연구 참여를 중단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의사표현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나는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잘 보관하겠습니다.
6. 나는 온라인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고 녹화 및 녹음된 자료는 향후 3년 동안 보관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이라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7. 나는 이 연구에 제공한 모든 자료는 비밀보장이 될 것이며 연구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 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하지 않습니다.

연구대상자 성 명: _____ 서명: _____ 년 월 일

법정대리인 관 계: _____
성 명: _____ 서명: _____

연구책임자 성 명: 황 옥 경 (서명/인)
(담 당 자) 소 속: 서울신학대학교
연 락 처: 010-9968-3803 / leeseohyeon@naver.com

부록 4. 연구 동의서 (성인용)

연구참여자 동의서

연구제목: “코로나 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1. 본인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읽었으며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의논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연구의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본인의 질문에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담당자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본인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언제라도 본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본인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5. 본인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6. 본인은 온라인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고 녹화 및 녹음된 자료는 향후 3년 동안 보관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이라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7. 본인은 본 연구에 제공한 모든 자료는 비밀보장이 될 것이며 연구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8. 본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녹화하거나 녹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대상자 성 명: _____ 서명: _____ 년 월 일

성 명: 황 옥 경 (서명/인)

연구책임자 소 속: 서울신학대학교

(담 당 자) 연락처: 010-9968-3803 / _____ 년 월 일

leeseohyeon@naver.com

부록 5. 각자의 목소리 비교 고찰하기

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공교육의 중요성	매일 학교를 가지 못해서 과제도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학교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나이에 경합해야 할 교육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학교생활의 부재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에요
집에서의 학습	- 코로나 때문이니까 더 놀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되어 학습에 집중이 안 됐어요 -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수면서도 불안했어요 -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하게 되어 성적이 올랐어요	- 학교, 학원 등이 모두 멈추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 해서 뒤처질까봐 걱정이 많이 됐어요 1학년은 유치원과 똑같이 지낸 것 같고, 중학생은 성적이 엄청 낮게 나왔어요 - 저학년의 경우 모가 학습지도 가능했으나 고학년은 어려웠어요 - 왕형제가 있는 경우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미디어 학습 경험하여 도움이 됐어요	-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발달에 격차가 발생했어요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조작 어려움으로 수업 참여를 못했어요 - 동영상 수업시청가부 및 불만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웠어요 - 형제가 여러 명일 때 저학년 동생의 학습권 보장이 안 됐어요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 집에서 공부시키고 과외선생님의 학습시간도 늘렸어요 •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 수학, 영어 선행시켜서 실력도 확 늘기도 했어요 • 영어, 수학 이외의 과목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 공부시간이 증가했어요			
시스템		• 초기에는 학교 시스템도 부족, 종이 보편화되지 않고 수업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어려웠어요			
수업관리		• 교사들도 비대면수업시 학생관리가 비효율적으로 된 것 같아요. • 교사의 수업준비가 부족한 경우 학습이 더 차진다고 느껴졌어요 • 모의 관여와 역할에 따라 교육효과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아 불안했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EBS 강의 활용	- ebs 강의를 짜깁기 해서 올려주어서 교과서와 다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 ebs강의 활용해서 기초 부분 많이 어려웠어요	EBS로 TV 수업을 받으니까 학습이 완전히 무너지고 느껴졌어요.			
학습결손		학습의 결손과 공백이 느껴졌어요	- 작년은 하루루 보내고 진학하여 학력저하가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 기초학력저하가 가장 문제가 되었어요	- 학습성취도 낮아졌어요 -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도 함께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학습능력이 더 저하되었어요	
학습격차 (사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의 양 극화 심해 짐)	회원 다는 친구와 인디나는 친구 간에 학습격차가 크게 발생했어요(고등)	똥똥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간의 차이가 컸어요	-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사람과 공교육만 의지하는 사람 간에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 부모의 경제사정이 좋고 학습을 잘하는 아이들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차상위 계층 아이들은 학력저하가 심해졌어요	- 돌봄공백이 있을 때 학습격차가 매우 커졌어요 - 온라인 수업으로 최소한의 학습권은 보장되었지만 환경 차이가 매우 컸어요 - 사교육비가 증가했어요	학습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학습의 불균형	음악수업 시 소리가 겹쳐서 제대로 지도를 받을 수 없다고 어려웠어요	집에서 종합적인 교육이 어려웠어요	방역지침으로 체험학습, 과학 실험 등을 못했어요	체육, 신체활동이 억압되었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 체육을 해서 힘들었어요 • 특수 전문교과목은 실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 아프다, 귀찮다고 체육시간 참여도가 저하되었어요	• 야외활동, 체험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전반적인 수업태도			•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더 어려워졌어요 •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들이 증가했어요 •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잘 되지 않았고,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 학교 수업이 더 많이 무너져서 학교 수업은 대충 듣고 학원수업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시간 수업	• 기림막과 마스크로 친구들 소리가 안들리고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 마스크와 기림막 때문에 학생들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기 어려워서 수업 진행이 어려웠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 무단결석, 무단지각이 많아짐 - 시험 전에 강의 다시 들을 수 없었어요		책상 앞 가림막을 보호받아야 숨어서 휴대폰을 하기도 했어요		
온라인 수업	-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 실시간 수업 원격수업을 이 엄격해져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어요(고등학생).	- 비대면 수업은 대면수업에 비해 학습효과 및 효율이 절반도 안되는 것 같아요 - 중으로 소통했던 것이 익숙해지면서 관촬아졌어요	- 온라인 수업시 지각,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및 수업효과 확인이 어려워 굉장히 힘들었어요 - 비대면 수업 시 담임 교사들이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 부모 부재 시 온라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 온라인 학습에서 여러 학습 상태, 과제물, 생활 태도가 느슨해졌어요 - 가정 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 비대면 수업의 질 자체에 한계가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최소한의 학습권이 보장되었어요	온라인 교육이 아동의 권리를 위한 것이었는지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만나서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토의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초등) -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기 힘들었고 수업 내용을 찾기도 어렵고 집중도 잘 안됐어요(중등) - 실시간 강의 때보다 국영수 과목은 인강으로 많이 어려워서 시험 전에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고등)	초등학생은 온라인 수업 어려워했지만 고등학생은 계속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기 원했어요	- 온라인 수업 시 옆에서 도와주는 모가 없는 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 저학년의 경우 교사 및 또래 시범을 보고 배우는 것이 제한됐어요		
	아이들이 비밀채팅으로 뒷담을 하는데 교사는 이런 걸 모르셨어요				
	- 영상 보여줄 때 계속 끊기고, 정확히 보이지 않고, 교사가 례이 걸려 나가는 상황도 종종 발생했어요 - 전자기기가 필요하고 로그인 아이디가 되거나 접속이 계속 끊기는 등 장애가 발생해서 힘들었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온라인 수업 태도 및 결과	• 줌 수업 때 핸드폰, 배달음식을 시켜먹거나 다른 거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 혼자 있을 때 점이 들어서 출석 인정을 못 받았어요 • 성적이 낮아졌어요 • 온라인 수업 때 강의 틀고 친구들과 SNS하거나 게임 많이 하다보니 성적이 떨어졌어요	• 줌수업 때 아이들이 웹툰, 게임 등 딴 짓을 했어요 • 학습을 핑계로 민화를 많이 봤어요		• 온라인 수업 시 긴장감이 저하되었어요 • 온라인 수업 시 학업 및 성취욕구가 크게 저하되었어요	
진로 탐색	• 진로탐색이 무산되어 일률적인 진로교육을 받았어요 • 특강도 많이 취소되어 진로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적었어요. • 관심분야에 대해 집에서 더 많이 찾아보고 알고 싶은 것만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② 학교를 가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전반적인 학교생활			• 가정교육의 영향력이 지 속되어 지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 규칙적인 생활습관 기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 적응 및 규칙준수에 어려 움 발생했어요 • 아이들에게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어려 웠어요		• 어린이집 지원이 무상이 다보니 긴급 보호를 24시 간 운영하였지만 맞는 방 향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 었어요 • 이러한 정책이 있으니 너희 들은 따라야한다는 식으 로 정책이 이루어졌어요 •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 를 얼마나 귀담아 들었다 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등교 전 방역 점검을 해야했음	• 등교 전 자기진단, 등교 후 열 체크, 손 소독을 해야 해요	• 아침에 방역 관련 점검을 해주어야해서 힘들었어 요.	• 통학버스를 사용할 때 방 역관련 점검으로 매일 아 침이 전쟁이었어요		
방역 중심의 교내생활 을 함	• 등교일이 학년마다 달라 졌어요 • 학교의 많은 행사들이 취 소됐어요	• 학교에서 간식과 물 마시 는 것도 제한이 있었어요 • 오전에 계속 앉아서 수업 하고 쉬는 시간이 5분밖 에 안된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았어요	• 방역위주의 격리된 환경 이었어요 • 대화, 수업, 모둠 활동이 금지되고 쉬는 시간도 없 었어요	•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 를 적용해서 6-7세 아동 들도 화장실가는 시간 제 외하고 2-3시간씩 꼼짝 하지 말 것을 강요했어요	• 학년으로 등교제한을 해 서 교실 공간 안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 아이들이 모이는 것을 최 대한 막기 위해 쉴 권리, 놀 권리가 침해됐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 작년에는 쉬는 시간이 5분으로 줄었어요 • 급식도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젓가락 책상위에 두면 안된다는 규칙이 생기고 이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초등)		• 쉬는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줄었어요 • 수업시간 2명까지만 화장실 다녀올 수 있었어요 • 식사 후 양치도 못하게 하고 정수기 물도 다 잠궜놓았어요 • 단축수업 후 순차적으로 급식하고 하교하여 밀집 시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 학생들이 계속 교실에 갇혀있었어요 • 소규모 학교는 큰 제한이 없었어요 • 학교 역시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 배경화면 기능이 없는 온라인학습도구(학습터)로 인해 가정형편이 그대로 노출됐어요		• 참여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했으나 전체 시수 감축으로 자치 시간도 감축될 수 밖에 없었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 현장에서 학생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마스크 착용이 힘들었음	•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야 해서 힘들었어요 • 학교나 학원 다닐 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힘들었어요 • 체육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많이 불편했어요		• 마스크를 끼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자거나 운동을 거부했어요 • 3초 땡! 으로 2-3초만에 마스크를 벗어버렸어요 • 마스크와 관련하여 교사와 마찰이 생겨 다른 학생들의 수업도 방해가 됐어요		
등교가 힘들어짐	• 학교가 멀어서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았어요 • 온라인 클래스하다가 학교를 가니 일어나기 힘들고 적응이 안됐어요 • 학교를 가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 등교 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학교 수업을 할 때 적응이 안 되고 너무 피곤했어요	• 학교 등교 일수가 늘어나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해요 • 학교에 가서 계속 앉아있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어요 • 학교 등교를 당연시 하지 않고 학교 가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 저학년의 경우 집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학교를 모가야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아프다고 하고 때를 썼으나 학교를 가면서 다시 많이 좋아졌어요 • 5학년은 왕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학교를 가지 않아서 좋았어요			
금식의 중요성을 인식함	• 등교일에 따라 금식메뉴가 달라서 이에 대한 불만이 생겼어요(초등) • 학교금식을 못 먹는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지 몰랐어요(고등)	• 학교 다니면서 금식을 하게 되어 많이 좋아했어요 • 학교에서 밥을 먹고 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 금식시간을 줄이고 있어서 금식 주는 양도 줄이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폭식하는 아이들이 증가했어요		
최근상황	• 학교의 방역규칙을 잘 지키다보니 적응되어서 지금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③ 친한 친구들과는 더 친해지고 새로운 친구들과는 사귀기 힘들었어요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워짐	• 짝이 없어졌어요 • 친구들과 같이 만나지도, 먹지도 못하게 됐어요 • 마스크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져서 친구사귀는 것이 더 어려워졌어요 • 불규칙한 등교로 친구들과 친해지기가 어려웠고 반 아이들끼리 어색했어요 • 요즘은 오히려 대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 시설에 있다보니 작년에 친구를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 마스크 때문에 친구열굴을 잘 몰라서 친구 사귀기 어려웠어요 • 짝이 없고 급식시간에 서로 이야기해도 안되어서 친구이름을 아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 방역 때문에 원에 와서도 같이 놀지 못하게 해서 속상해요 • 유아교육기관에 와도 혼자 놀고 함께 어울리지 못했어요 • 거리두기 때문에 등원해서도 서로 먼저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서로를 잘 몰라요 • 마스크, 거리두기 등으로 관계가 차단되어 전보다 다툼, 갈등 소지가 줄었지만 사회성 배울 기회가 차단됐어요 • 대면수업 증가하고 소모임 형태 증가하면서 또래 관계에 큰 문제없는 것 같아요	• 또래관계 형성의 부족함 호소했어요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갈등증가			•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못 듣게 되어 오해 발생, 갈등상황을 번졌어요 • 방역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고 학폭상황이 자주 발생했어요	• 외출을 못하게 하여 아이들간의 다툼이 증가했어요	
친구관계 진입장벽이 높아짐	• 새로운 친구를 많이 못 사귀고 옛 친구들이랑 더 친해졌어요 • 새로운 친구들은 사귀기 어려워지고 원래 친했던 친구들과만 카톡, 메시지, SNS 하게 됐어요 • 원래 친했던 친구가 아니거나 관계가 소원해졌음	•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서 예전 친구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 메신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중학교 기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소통했어요 • 새 친구 만나는 것 힘들고 예전의 친구들과 화상으로 통화, 온라인게임을 많이 했어요 • 엄마들 친분관계 위주로 관계가 맺어졌어요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관계가 피상적으로 맺어짐	• 올해에는 친구들끼리 약속도 잘 안잡고 막상 나가려면 너무 귀찮았어요	• 또래관계가 피상적으로 맺어져서 만나서 노는 것 귀찮아하고, 혼자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 온라인 친구는 생겼지만 또래관계가 피상적이 됐어요			
내적 자원에 따라 관계맺기가 달라짐	• 소심한 아이들은 친구사귀 기회조차 없어졌어요 • 사교성이 있는 아이들은 잘 지냈어요 • SNS를 활발히 하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소통을 많이 했어요	• 내향형이라 더욱 새로운 친구 사귀기 어려웠어요	• 소극적인 아이들은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더 차단되어 거부감과 소외감을 느꼈어요 • 마스크를 쓴 친구 얼굴에서 표정을 읽을 수 없어서 소극적인 아이들은 더 힘든 상황에 놓였어요		
여전히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임	• 졸업 시 무단결석이 되지 않도록 아침에 미리 모닝콜을 해주고 책을 교환해서 같이 필기를 하는 등 도움을 줬어요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 공부, 게임 등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게임, SNS가 친구관계의 통로가 됨	• 밖에서 놀지 못하고 SNS, 게임을 같이했어요 • 아이들도 다 같은 상황이었고, SNS로 이미 친구를 사귀어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 화상채팅 어플을 통해 모니터로 얼굴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더 편했어요 • 온라인 통화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게임을 했어요				
	• SNS로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 SNS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따돌림을 당했어요 •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다보면	• SNS용어가 되지 않기 위해 SNS하는 시간이 증가했어요	• 페이스북을 사용한 사이버, 언어폭력이 증가했어요	• 채팅을 통해 욕하고 괴롭히는 행동 증가했어요	
SNS를 통한 관계맺기의 문제점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니 친구들을 직접 만났을 때 정작 놀지 못했어요 SNS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웠어요				
최근 상황	- 만나도 놀 곳이 없어서 빨리 헤어졌어요 - 요즘은 그냥 마스크 쓰고 친구들과 카페, pc방, 노래방을 다녔어요	- 불안이 감소하면서 밖에서 친구들과 편하게 잘 놀고 있어요 - 정기적으로 학교 등교하면서 친구들과 친해졌어요			

④ 선생님과 엄마에게 훈이 났어요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방역수칙 으로 갈등증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교사에게 훈이 났어요		- 학생-교사마찰로 교권위 원회가 자주 개최됐어요 - 방역지킴이에 대한 훈계 와 제재가 많아져서 학생 들이 짜증을 많이 냈어요 - 교사는 명확한 지침이 없 어서 인권존중을 하면서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해 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자신에게 익숙한 게임 응 어 못 캐릭터 이야기를 많 이 해서 교사와 의사소통 이 어려워졌어요	- 쉽터 교사와 아이들 간의 갈등이 증가했어요 - 학교수업 시 과제관리로 인해 갈등이 증가했어요	
	숨쉬기 어려워서 마스크 쓰고 있는 아이들과 교사 와 다툼이 많이 일어났어 요		- 마스크 때문에 아이는 교 사가 자신의 감정을 잘 수 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 같아요 - 마스크는 3초 땀 으로 금 방 벗는 등 계속 마찰이 생겼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학교수업관련 갈등 증가	• 줌 수업이나 학교에 와서 조는 것 때문에 교사에게 혼이 났어요 • 기기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좀 접속이 어려운 친구들을 존중하지 못한 교사와 갈등이 있었어요		•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갈등이 매우 심해졌어요		
	• 모와 숙제, 학습, 사소한 다툼 등으로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 집에서 수업할 때 너무 참견을 많이 해서 짜증이 났어요 • 모가 많이 힘들어서 쉽게 화를 냈어요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부부 문제보다는 부모자녀 문제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고, 부모자녀간 문제의 신고는 2~3배 증가했다고 했어요 • 작은 일로도 많이 혼내게 됐어요 •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고 공부하라고 해서 아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 엄마가 외출, 친구만나는 것을 제한한다고만 생각했어요	• 다중 시설 사용 어려움으로 모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TV시청을 장시간 허용했어요 • 모가 점점 힘들어지니 그냥 내려놓게 되고, 한 공간에 있어도 학대수준으로 방임이 이루어졌어요 • 부모의 스트레스 증가로 말로만 혼내던 것을 사소한 일로도 혼을 내고 화초리까지 들게 되었어요 • 부모님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다보니 방임, 폭언, 학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대, 과잉개입, 통제 등의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중기했어요		
부와의 관계		• 부가 일찍 들어오면서 가족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 부의 재택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에게 잔소리가 들어났어요	• 부의 재택시간이 길어지면서 엄격한 훈육 때문에 위축되거나 원에서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 부의 재택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와 충돌이 생겼어요		

⑤ 가족과는 친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형제관계	• 언니와 싸우는 일이 많아 집 • 동생과 더 많이 친해지기는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 함께 하는 시간이 아주 많아졌어요 • 코로나 전에도 이야기 많이 했으나 지금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편해지고 친밀해졌어요 •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라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대화를 좀 더 할 수는 있었어요 •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 증가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 형제끼리 잘 놀아서 관계 어려움이 없었어요 • 가족끼리 서로 맞춰가고 심리적으로 끈끈함이 생겼어요			
친밀감 증가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 같이 있다 보면 많이 싸우다가도 저절로 화해가 되었어요 • 가족들 모두 노력해서 애퐁해지고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갈등 증가	•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견해가 달라서 갈등이 있었어요 • 다들 집에만 있으니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면서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 집에서 각자 휴식시간은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모두 힘들었어요 • 가족 간에 개인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다툼 증가했어요		• 전화통화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계속 미쳤어요 • 가족 간의 갈등으로 아동에게 소리 지르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어요 • 스마트폰, 인터넷 장기간 사용문제로 양육자와 갈등이 심화되었어요	
	• 휴일, 주말에 놀라가지 못하고 핸드폰만 해서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 가족끼리 같이 있는 시간은 늘었지만 대화하는 시간은 많이 줄었어요		• 갈등으로 오히려 대화가 부족해졌어요	
오히려 대화 감소					

⑥ 집에 있으니 살짝 귀찮고 너무 대충하게 돼요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시설 아동이 직면한 어려움	친구들은 외출도 하고 놀러다닐 수도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고 이제는 포기했어요.			- 시설 아동들이 역차별 받고 있어요 -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이 끊겼어요	
규칙이 깨짐	- 집에서 할 일 목표를 세웠으나 하기 어려웠어요. - 수면, 식습관, 공부하는 습관이 다 달라졌음 -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규칙적인 일과가 많이 풀어져서 낮밤이 바뀌었어요	-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스톱된 것 같았어요 - 규칙적인 생활이 안되고 엄청 게을러졌어요 - 낮잠, 활동량 저하로 식욕 저하, 식사시간 늦어지고 간식을 많이 먹게 되는 등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워졌어요		- 원래 분리되어 생활해야 하므로 코로나로 인해 특별히 더 어렵지는 않았어요 - 불규칙한 생활, 수면 시간 증가, 미디어 사용시간 증가, 영양불균형 등의 발달권이 침해됐어요 - 여가와 자유시간이 불가능해졌어요	
낮잠을 잡	- 학교를 안 가니 매일 카툰, 게임, 유튜브 보느라 새벽 1~3시까지도 안 잤어요 - 온라인 클래스를 하다보니 늦게 일어나도 되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게 됐어요	낮잠을 잤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귀찮음	• 집에 있으니 살짝 귀찮고 숙제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어요 •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운동도 하기 귀찮아졌어요 • 개울러지고 게임할 때를 빼고는 좀 멍해진 것 같아요 • 계속 늘어져있고 귀찮아서 운동도 잘 안하게 됐어요 •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너무 대충했어요 • 인나가다보니 앞에 편의점 가는 것도 귀찮아서 안 가게 됐어요	• 집이 너무 편해서 이제는 못나가는 것 같아요 • 강제로 집에 있다 보니 집이 더 편해진 거 같아요			
	• 심심해요 •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해요 • 계속 집에만 있어야하니	• 딱히 여가시간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 시간 보내는 것을 지루해			
심심함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집에서 할 것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어요	했어요			
게임을 많이 함	-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요 - 수업 후 게임을 하다보니 삶이 피폐해졌어요 - 게임을 많이했지만 계속 하니 지겨워지고 조절하려고 하게 됐어요	- 핸드폰, 게임, TV시청, 집에 있는 장난감 가지고 놀기 등을 시간을 보냈어요 - 핸드폰 하는 것은 싫지만 소통이라는 숨구멍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 핸드폰 사용으로 놀이와 학습의 경계를 알기 어려워 졌어요 -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 보드게임은 지겹다고 했어요			
	여기활동을 안하니 허전했지만 지금은 적응이 됐어요	큰아이(고등)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생겼어요			
혼자서 하는 취미활동 증가	혼자 유튜브 등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많아졌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 몸보다 장기, 비록같은 머 리쓰는 취미생활을 즐겨 했어요 • 집에서 취미생활을 많이 했어요				
배달음식을 많이 먹음	• 부모가 작정을 가면서 돈을 주고 가서 배달음식을 계속 먹게 됐어요 • 음식을 먹으면 골고루 먹는데 집에서 라면, 배달 음식을 먹게 됐어요 • 집에 있으면 돈을 많이 쓰게 됐어요				
식사해결		• 저녁을 제공해준다고 해서 센터를 보내고 있어요 • 학교에서 밥을 먹고 오는 게 가장 좋았어요	• 조부모가 양육을 도울 때 힘들어서 제대로 된 음식 제공이 어려웠어요 • 가정마다 점심식사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 식사관련 일을 아이들과 분담하고 있어요	
센터를 선호함		• 모의 생각과는 다르게 센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부모 관여 도		• 모가 일을 하려 나갈 때 돌봐줄 어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놓고 나갈 때가 있었어요 • 또 부재 시 돌봄을 보낼 경우 아이들의 노는 시간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 복지우선 대상의 학교의 경우 가정돌봄이 잘 되지 않았어요 • 코로나 상황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어 가정돌봄에서 방임이 증가했어요 • 맞벌이가정의 경우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증가하여 돌봄 공백이 커졌어요 • 저학년의 경우 혼자 있을 때 가정이 안전한 공간이 되지 않았어요 • 가정에서 관리가 되지 않을 때 온라인 수업 진행도 어려웠어요 • 맞벌이 및 일반가정 모두 돌봄 공백이 생겨서 원격수업을 하는 동안 배우기식의 식사를 하는 등 균형잡힌 영양 섭취가 어려웠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최근 상황			• 코로나로 아이들은 뒷전이 되고 부부사이가 깨져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어요 • 세밀한 돌봄을 못 받은 아이들은 일탈을 했어요		
		•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서 방역은 좀 덜 신경쓰고 있어요 •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교육기관을 다니고 있어요 • 놀러 다니는 것만 제한했어요		• 친인척 방문 프로그램도 중단되었다가 최근 허락했어요	

⑦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피폐해졌어요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신체 건강이 나빠짐	• 학교를 안가고 집에 많이 있으니 살이 많이 쪼여요. • 핸드폰, 전자기기 등을 많이 봐서 눈이 나빠졌어요. • 키도 더 작아졌어요. • 운동신경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 운동도 안하고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서 살이 너무 찌고 건강이 나빠졌어요	• 집에서의 식사가 학교 급식보다 영양성분이 낮고 편식도 고칠 수 없었어요 • 장기화되면서 균형잡힌 식사제공이 어렵고 활동량이 부족해서 체중이 증가했어요 • 기초체력이 저하했어요 • 시력저하로 안경을 썼어요 • 자기치방으로 집에서 약 먹이는 것 증가했어요 •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트러블로 병원가는 횟수가 증가했어요 • 성조숙증이 발생했어요	• 급식을 안 먹고 집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니 영양불균형이 걱정됐어요 • 살 찌는 것이 자존감 저하를 가져와 도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했어요 •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계속 앉아 있다보니 허리도 안 좋아지고 신체적인 면도 약해졌어요 •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급격한 체력 및 체중의 변화는 없었어요 • 중학생들의 흡연이 많이 증가했어요	• 영양불균형으로 비만이 됐어요 • 애장갈구가 간식육구로 대체되면서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 변비를 호소했어요.	
정신 건강이	• 동생이 턱이 생겼어요.	• 건강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이 많이 하게 됐어요	• 초반에는 원 현장에서 도와 분리가 되지 않아 계속	• 생활시설에 있다는 이유로 왜 못나가게 하느냐고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나배집	•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격이 난폭, 불평, 소심, 우울해진 친구들이 생겼어요. • 스트레스를 먹기, 게임하기, 유튜브보기, 스트레칭 등으로 풀고 있어요. • 학교를 안간다고 생각하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어요.	• 한번씩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면 무서웠어요 • 졸업식, 입학식을 못해서 자신은 운이 없다고 속상했어요 • 초반에 뉴스에 노출되는 정보에도 불안해하고 자신도 확진될까봐 걱정했어요	우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 부의 엄격한 양육으로 위축되거나 원에서 통제가 잘 되지 않았어요 • 5세인데 기저귀를 차고오는 아이들이 증가했어요 • 이전보다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스트레스로 미쳐버릴 것 같다고 했어요 • 5월부터 아동학대 발생건수 증가하면서 아동의 우울, 자살, 자해 시도가 증가했어요 • 본의아니게 아이들이 포주가 되어 성매매를 하는 등 성학대 사건이 발생했어요	
	• 급식도 없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나서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은 것을 먹는 걸로 풀었어요. • 부모님의 경제상황 악화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 친구가 한부모가 정인데 엄마가 실직을 해서 친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 모와 아이 모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침체, 우울감도 생겼어요 • 매일 같은 패턴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니 모는 지치고 의욕이 없어졌어요 • 엄마에게 더 의존적이 되는 등 성격이 조금 달라진 거 같아요 • 더 예민해지고 마음이 답	• 7세의 경우 코로나 불루를 겪으면서 걱정을 했어요 • 초등학생들의 경우 분노 표출, 학습의욕 상실 등으로 무기력해지고 있어 정신건강 상태가 가장 걱정 이 됐어요 •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시키는 것만 하려는 수동성이 증가함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자녀가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빈혈로 쓰러졌어요	- ADHD증상이 많이 증가했어요 - 예전에 비해 육하고,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다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쉽게 짜증을 냈어요 - 발산을 입으로 하여 언어폭력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 학교에서 방역으로 통제하므로 활동도 못하고, 감정을 표출할 곳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엄청 났어요 - 학교 안에 가둬두니 매우 답답해 했어요 - 자기 손에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 자살시도도 증기했어요		
종이진 점		집단생활을 안하고 위생에 더 신경을 써서 감기,		감기, 눈병, 전염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았어요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잔병이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았어요 • 처음에는 학교 안 가고 잠도 마음껏 자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어요 • 현재는 생활이 거의 적응이 되어 힘이 덜 드는 상태예요			
대처		• 주말에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의 새로운 활동을 했어요(일반) • 실직으로 불안, 자괴감이 들어 기관지원으로 6개월 동안 심리상담을 받았어요(요보호) • 맘카페에 가입하여 확진자 동선 및 돌이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요보호)	• 자발성 성취를 통한 자신감이 향상 됐어요		

⑧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뉴스에서 나오는 말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처	• 뉴스, 인터넷 많이 찾아보고 모와 함께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 학교에서 코로나 영상을 보여주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 뉴스, SNS, 휴대폰 알림 문자를 받았어요.	• 뉴스, 네이버, 긴급 안전 문자, 맘카페, 학교 학부모 단체방 등을 통해 발생 현황과 정보를 얻었어요. • 맘카페에 가입하여 동선과 놀이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코로나 관련 정보 이해정도	• 학교에서 보여준 코로나 영상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었어요. • 뉴스에서는 어려운 단어와 말을 많이 사용해서 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 정확한 정보가 아닐 때 혼동이 되었어요.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 시 아쉬운 점	• 확진자 동선 공개를 할 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서 아쉬웠어요 •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코로나 관련 불안	부족했다고 느껴졌어요. • 전 세계의 백신 접종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어요.				
	• 주변에 코로나 안내문이 많고, 확진자 생기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무서웠어요. • 일단 나 자신이 확진될까 봐 제일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따돌림, 괴롭힘을 당할까 봐 걱정되었어요. • 내가 확진되어서 가족들에게 옮길까 봐 걱정되었어요. •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까 봐 조금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다 보니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 맨날 뉴스만 봐도 확진자 수만 계속 올려주고 이라고 있다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 초반에는 다 예민해서 거의 마녀사냥처럼 대처했고, 심지어는 확진자 발생 시 난리가 나서 결국 이사를 가기도 했지만, 중반이 되면서 덜 민감해졌어요. • 지금은 나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나 안내 문자에 대해서 민감성이 저하되고 불안도 감소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 능동감시대상자로 격리된 경험을 한 다음에는 초반보다 불안이 감소했어요.	• 7세 아동의 경우 코로나 블루를 겪으면서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 교사 자신이 격리 대상이 되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심적 부담이 상당히 컸어요. • 작년에는 확진자 한 명이 발생하면 그 학교 전체 아이들이 피했어요.		

	아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많이 되었어요. • 코로나가 끝나면 마스크를 벗게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저의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돼요. • 코로나가 평생 간다. 평생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속상했어요.				
코로나 관련 대처	• 부모님, 친구, 선생님을 통해서 잘 적응한 것 같아요. •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익숙해지고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은 별로 없어요. • 학교에서 방역 규칙을 잘 지키다 보니 저절로 적응되어서 지금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어	• 아이는 코로나 정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단지 엄마가 외출과 친구 만나는 것을 제한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모, 교사, 센터장님이 아이들에게 동선을 알렸어요. • 매일 학교 선생님이 알림장에 다 적어주었어요. • 그냥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위기인지 알려주고, 활동 제재하고 마스크 착용에 대	• 처음에는 부모들이 마녀사냥을 하듯이 확진자 정보 제공을 강압적으로 요구했어요. • 1/3 등원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침을 잘 지킨 아이가 피해를 받은 것 같아요. • 자가격리를 끝내고 온 아이들을 대하는 매뉴얼이 보급되면 좋겠어요. • 아무리 조심해도 확진 아동		• 부모 확진 시 비 확진 자녀와 함께 격리될 때 아동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합니다. • 확진된 아동은 가정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자가 치료를 도입하는 등 인권 존중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동	양육모	교사	지역시설 종사자	행정가
	들었어요. • 안전 문자를 이용해서 정보 및 동선 체크했어요. • 주변에 확진자가 없어서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고 마스크를 잘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 계속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 직년에 비해 방역에 대해 많이 안일해져서 평일에 카페, 식당가 자주 이용했어요.	해 주의를 주면서 정보를 전달했어요. • 처음에는 확진자 나왔다면 무조건 문을 닫았으나 지금은 확진자 나온 학교의 아 이들과 학원에 오지 못하게 하는 등 더 좋은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나 부모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낙인이 되거나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 학교에서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고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 확진자 동선 고지에 대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 자기격리로 빠진 경우, 이를 밝히고 박수를 쳐주고 고마워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확진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 공개를 하게 되면 그 학생에게 개인 인권으로 차별당한다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인쇄일| 2021년 12월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아동청소년인권과 02)2125-9641
|F A X| 02)2125-0929
|제 작| (주)두루행복한세상 (사회적 · 장애인기업)
|전 화| (070) 4659-0803

ISBN 978-89-6114-854-2 93330

비매품